

彈
琴
의
重
보

崔
貞
淑



경기도 여성문인 II

현대편

경기도 여성문인 (2)

-현대편



오늘 경기도의 문화를 빛낼 또 하나의 족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경기도는 역사의 분기점마다 굵직한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몸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편으로는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족의 정신이자 경기도의 정신은 지금도 선사시대 이래 전해져 내려오는 각종 사적과 문화재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빼놓을 수 없는 문화적 자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위대한 문인들이입니다. 너무나 많아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문인들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가 배출한 여성문인들을 선정해 그분들의 문학세계와 삶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로 <경기도 여성문인-고전편>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허난설헌(許蘭雪軒), 황진이(黃眞伊), 강정일당(姜靜一堂),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 홍랑(紅娘)의 모습이 오늘날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분들의 뒤를 잇고 있는 오늘의 여성문인들이 경기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경기도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와 정신을 양분삼아 오늘도 불철주야 작가정신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책은 경기도에 또 하나의 문화적 자산을 안겨준 그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작가이자 최초의 여성화가 그리고 최초의 여성 유학생 등등 최조라는 수식어가 낯설지 않은 열정의 작가 나혜석,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치 않은 한국문학의 큰 산 박완서,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조시인이었던 김오남, 최초의 장편서사시를 쓴 김동환의 아내이자 근대 여성작가의 선두 주자였던 최정희, 그리고 김동환과 최정희 사이에서 태어나, 둘 다 모두 한국의 대표적 문학상인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지원과 김채원 자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분들의 작가적 면모와 문학세계를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경기도와의 관련성에 깊은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문학지리학이라는 관점에서 경기도의 문화적 위상을 보다 높이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책 말미에 영문 해설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작업들이 경기도의 미래적 자산인 문화 창조력을 신장시키고 지역문화와 세계문화가 나란히 공존하기 위한 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진종설 경기도의회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책임을 맡고 수고해주신 건국대학교 박혜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남선우

지난해에 발간되었던 『경기도 여성문인1- 고전편』에 이어 현대편 여성문인들의 생애와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기도 하고, 또 철새처럼 이주하는 일이 잦은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기도에 잠시라도 몸담았던 문인들을 이 책에 모두 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상 문인의 선정 원칙을 세웠다. 경기도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경기도의 정신이 알게 모르게 작가에게 스며있다고 판단되는 여성문인을 집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경기도 개풍군에서 출생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박완서 같은 문인도 대표적인 경기도의 문인으로 보았다. 박완서는 현재도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 원칙에 준하여 대상 문인을 정하다 보니 다섯 명의 여성 문인들인, 나혜석, 김오남, 김채원과 김지원 자매, 그리고 박완서가 그 대상이 되었다. 모두들 우리 근 현대문학사에서 우리 문학을 풍성하게 살찌운 중요한 인물들이다. 여성이라는 존재를 온 몸으로 세상에 알리며 문화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나혜석으로부터, 노년이지만 현재도 왕성하게 좋은 작품을 내놓는 우리 문단의 거두 박완서에 이르기까지 이 다섯 명의 여성문인들은 경기도의 보배이자 우리 현대 문학의 우뚝한 봉우리들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집필자들은 문헌조사를 비롯한 많은 자료들을 모



았으며, 그들의 생애와 작품 변모, 문학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삶의 공간적인 주이 양상인 문학적 관련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문학적 성과를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작가연보와 작품서지, 연구문헌 목록 등을 첨부하였다.

다섯 명의 경기도 대표적 여성 문인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조명이 된 바 있지만, 이 가운데 시조 시인인 김오남은 언급된 바가 많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이 시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추적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의 생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여성문인들을 한데 모아서 집중 조명하였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책 한 권에 실린 이들의 작품세계와 생애를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책의 내용을 영문으로도 요약하여 실었다. 외국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았을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힘써준 경기도와 한국문화원협회 경기도지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8년 12월 일
건국대학교 교수 박혜숙



차례

≡ 간행사

≡ 책머리에

ㄱ 나혜석

- 프롤로그 / 12
- 1. 나혜석의 생애 / 15
- 2. 작가 나혜석 작품세계 / 21
- 3. 나혜석이 사랑한 그 남자 / 81
- 4. 문헌정보 / 96
- 5. 작가연보 / 97
- 에필로그 / 99

≡ 최정희

- 프롤로그 / 102
- 1. 최정희의 생애 / 103
- 2. 작품세계 / 115
- 3. 경기도 덕소로의 이주와 작품세계 / 131
- 4. 문헌정보 / 148
- 5. 작가연보 / 149
- 에필로그 / 151

≡ 김오남

- 프롤로그 / 154
- 1. 김오남의 생애 / 155





- 2. 작품세계 / 163
- 3. 문헌정보 / 176
- 4. 작가연보 / 177
- 에필로그 / 178

≡ 박완서

- 프롤로그 / 182
- 1. 박완서의 생애 / 184
- 2. 작품세계 / 196
- 3. 문헌정보 / 210
- 4. 작가연보 / 217
- 에필로그 / 222

≡ 김지원

- 프롤로그 / 226
- 1. 김지원의 생애 / 227
- 2. 작품세계 / 238
- 3. 문헌정보 / 261
- 4. 작가연보 / 261
- 에필로그 / 262



≡ 김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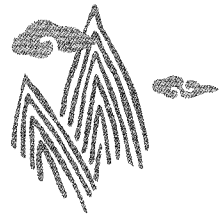
- 프롤로그 / 266
- 1. 김채원의 생애 / 267



2. 작품세계 / 271
3. 이상문학상 수상 소감 및 심사평 / 292
4. 김채원과 떠나는 지중해 여행 / 302
5. 문헌정보 / 320
6. 작가연보 / 321
- 에필로그 / 322

 영문해설 /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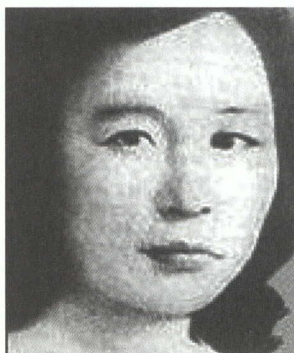
 부록 / 335



나혜석

프롤로그

1. 나혜석의 생애
 2. 작가 나혜석 작품세계
 3. 나혜석이 사랑한 그 남자
 4. 문헌정보
 5. 작가연보
- 에필로그



프롤로그

나혜석을 우린 소위 신여성이라 한다. 그렇다면 신여성이란 어떠한 자들인가. 그녀들은 신식 교육을 받은 여자 혹은 새로운 문화를 받은 신시대의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의 신여성은 과연 누구일까. 문학계의 김일엽, 음악의 윤심덕사진, 무용의 최승희사진, 미술계의 나혜석사진일 것이다. 물론 나혜석은 화가로 등단하기 전 문학가, 소설가로 등단한 문인이기도 하다.



윤심덕



최승희



나혜석

나혜석에 대한 연구는 최근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들어 발해졌다. 1995년 수원에서 <나혜석 탄생 주년 기념전>을 개최하였으며, 2000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¹⁾

1) 나혜석이 문화인물로 낙점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문화인물 요청서는 2차에 걸쳐 제출되었다. 첫 제출은 나혜석 탄생 100주년이 되던 1995년에 제출하였고, 두 번째 제출은 2000년에 제출하였다. 이 때 문화관광부에서 받아들였다.(이경모, <한국 최초의 근대여성화가 나혜석의 삶과 예술 - 분방함이 빛은 아름다



신사임당



정부인



나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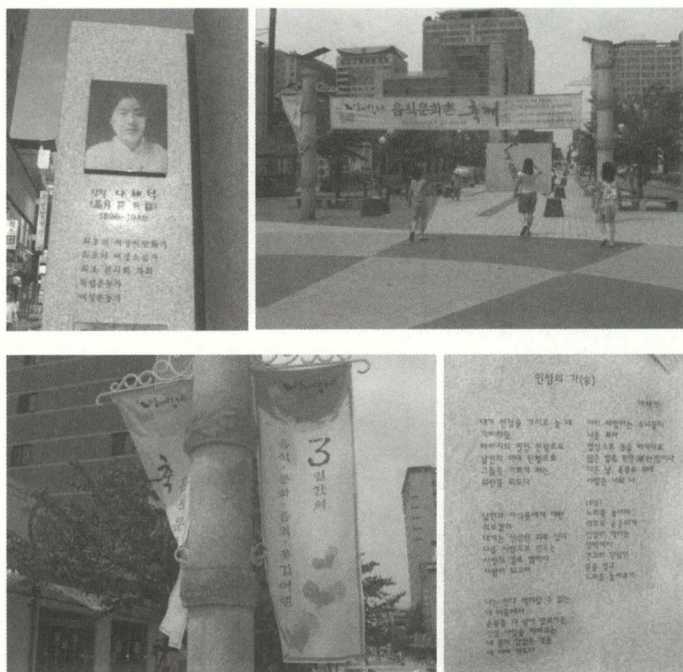
사진(문화인물로서의 사진, 신사임당, 정부인, 나혜석) 이는 여성으로서 문화인물이 된 세 번째(신사임당, 안동 장씨 정부인, 나혜석)이기에 뜻 깊다고 하겠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 나혜석의 유작과 사진자료와 학적부 사본까지 동원하여 성대한 이벤트를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나혜석 기념사업회와 경기문화재단 등에 의한 나혜석거리 제정을 비롯하여 학문적 연구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나혜석 연구의 선두는 이상경이다. 이상경²⁾은 『나혜석 전집』을 발간하면서 나혜석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그리고 나혜석 평전을 쓴 윤범모는 직접 나혜석의 장녀와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열정을 보였으며³⁾, 정규웅은 나혜석기념사업회의 유동준 회장의 권유로 나혜석의 전기를 쓰게 되었는데, 그는 나혜석의 감춰진 진면목을 파헤쳐보고자 다소의 소설가적 상상력을 가하여⁴⁾ 한 권의 평전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운 파국>, 《미술세계》, 미술세계, 2002.2, p.122.

2) 이상경,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1.

3) 윤범모, 『화가 나혜석』, 현암사, 2005.

4) 정규웅, 『나혜석 평전』, 중앙 M&B, 2003.



나혜석거리

나혜석의 유명세는 화가도 문인도 아니었다. 나혜석과 그의 남자들이
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러브라인으로 그녀가 신여성이 될 수 있을
까. 그녀에게 현미경을 들이대는 순간 점점 여러 분자가 몽우리져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문필가 나혜석이요, 화가 나혜석이요, 여성운동가
나혜석이요, 애국운동가 나혜석이요, 자유를 염원한 나혜석이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한 로맨티스트 나혜석이었다. 하나씩 그 몽우리를 풀어가기
위해 1896년 4월의 어느 날로 여행을 떠나자.

1. 나혜석의 생애



나혜석은 1896년 4월 28일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신평리 291번지, 현재 수원시 장안구 신평동 45번지 일대에서 나주 나씨 가문의 나기정과 수성 최씨 최시인의 5남매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다. 나혜석의 아버지 나기정은 경기도 관찰부 재판주사, 시흥 군수, 용인 군수 등을 지냈다. 그 덕에 나혜석은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다. 나혜석에게는 5남매의 형제가 있었다. 그 중 나혜석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형제는 둘째 오빠 나경석 이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나혜석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미술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또한 나혜석의 첫사랑인 최승구, 남편 김우영도 바로 나경석의 친구라는 사실은 나경석과 나혜석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해준다. 더구나 김우영과의 이혼 후에는 그녀는 나경석의 호적 아래로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그녀는 현재 매향여자경영종합고등학교의 전신인 수원의 삼일여학교, 진명여학교 등에서 수학하였다. 나혜석은 진명여학교의 1회 졸업생

으로, 졸업시험에서 최우등 성적을 얻어 《매일신보》에 보도되기까지 한 수재였다. 이후 나혜석은 나경석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도쿄의 사립여자미술학교 서양학과 선과 보통과에 입학하였다. 이 당시 나혜석의 나이는 17세였다. 나혜석은 미술학교 재학 중, 근대적 여권론에 눈을 뜨게 되었다. 스웨덴의 여성 사상가 엘렌 케이, 일본의 첫 여성문예동인지 《세이토》등을 통하여 여성운동 혹은 여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관심은 《학지광》3호에 <이상적 부인>을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녀가 여권론에 눈을 뜬 당시 소월(素月) 최승구와 깊은 사이가 되었다. 그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된 최승구와의 깊은 사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혜석의 유학생생활은 아버지의 결혼 강요로 잠시 휴학상태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결혼 강요에 대한 거부는 유학자금의 문제로 연결되어 나혜석은 국내에서 유학자금을 위해 잠시 일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유학길을 떠났다.



김우영

나혜석에게 들려온 또 한 차례의 장례 소식, 그것은 첫사랑의 주인공 최승구였다. 결핵으로 고향인 전남 고흥 군수인 형의 집에서 요양 중이던 최승구가 사망한 것이다. 나혜석이 문병간 다음 날 최승구는 저세상으로 떠나 버렸다. 나혜석은 자신이 끝까지 간병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여 한동안 심적 고통이 상당했다. 그러나 이내 춘원 이광수와의 짧은 연애와 김우영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나혜석은 아버지의 죽음, 첫 사랑 최승구의 죽음, 이광수와의 연애와 이별, 김우영과의

만남을 모두 한 해에 치렀다. 숨 막히도록 바쁘게 한 해를 살았던 것이다.

이같이 버거운 시간을 뒤로 한 1917년, 나혜석은 여성 최초로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작품명은 「부부」이다. 이 작품이 실린 《여자계》창간호가 발굴되지 못해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박화성의 증언에 의거해 짐작 할 수 있다. 다음 해 나혜석은 단편소설 「경희」를 『여자계』2호에 발표한다. 이처럼 최초의 여성 소설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광수

화가로서의 나혜석의 삶은 1919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그녀는 《매일신보》에 만평형식의 그림과 짧은 글을 첨부한 연재물을 발표하는 것으로 화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시기였다. 이 사건에 여성대표로 적극 참여하여 조직과 자금모금을 위해 개성과 평양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또한 이화학당 만세사건과 관련하여 일제에 체포되어 5개월간 옥중생활을 하였다. 출옥 후 정신여학교 미술교사, 《신여자》창간에 일조를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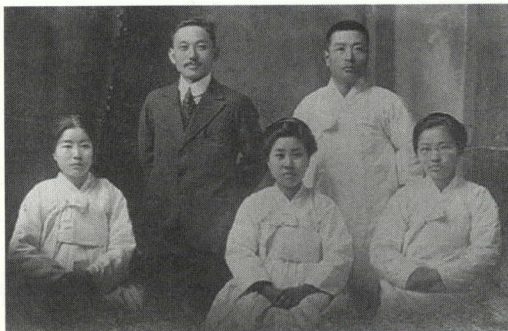


나혜석은 1920년 4월에 김우영과 운명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세기의 결혼식이라 할 수 있을만큼 요란한 결혼식, 그것은 신문의 광고, 결혼조건, 신혼여행지의 놀라움에 있다. 그들의 신혼여행지는 나혜석의 첫 사랑이었던 최승

구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신희여행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후에 염상섭의 소설 「해바라기」의 소재가 되었다. 나혜석은 결혼과 함께 안정적인 삶 속에서 7월에 《폐허》의 창간동인으로 김억, 남궁벽, 염상섭, 오상순, 황석우, 김일엽 등과 함께 참여한다.

나혜석은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서울 최초의 유화 개인전을 열었다. 그녀의 왕성한 작품활동은 남편 김우영을 따라 만주로 이주하여서도 여전하였다. 만주로 이주한 그녀는 1922년부터 매년 【조선미전】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출품하였다. 또한 문필가로서의 활동도 지속적이었는데, 「모(母)된 감상기」(1923)를 『동명』에 발표하여 세간에 시시비비가 되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의 솔직한 고백이 당대로서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나혜석 부부는 당시로서는 흔치않은 세계일주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1927년의 세계여행은 나혜석 개인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10월, 화가 이종우 집에서 갖은 파리 유학생들의 모임에서 최린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혜석은 남편이 독일로 가 있는 사이에 최린과 함께 파리 관광뿐만 아니라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되어 파리에서는 나혜석이



가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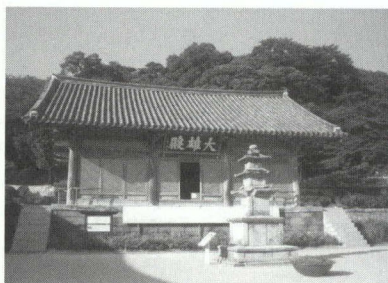
최린의 작은댁이라는 소문이 나돌기까지 하였다. 세계일주여행은 당시 1920년대 조선사회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했다.

이후 남편은 나혜석과 최린의 관계를 알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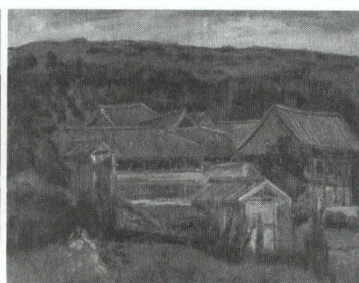
어, 1934년 이혼하게 된다. 처음에는 별거형식으로 2년간 냉각기를 갖기로 하였으나 김우영이 기생출신으로 알려진 신정숙과 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 될 수 없었다.

이혼 후 무일푼에 자녀들도 모두 빼앗긴 나혜석이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제 10회 【조선미전】에 작품 「정원」 등을 출품 하였는데 특선에 입상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일본제전】에서 입선하였다.

나혜석은 「이혼고백서」(1934)를 『삼천리』에 발표하였다. 약혼부터 10년간의 부부생활, 화가생활, 해외여행, 시집살이, 최린과의 관계, 이혼과정, 이혼 후의 생활, 모성애, 금욕생활, 조선사회의 인심 등을 편지형식으로 써내려갔다. 또한 최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만 일으키고 득은 되지 않았다.



수덕사



1935년 다솔사

그녀의 나이 41세(1937)에는 수덕사에 아래 수덕여관에 머물면서 해인사, 다솔사, 마곡사 등 사찰을 순례하며 승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였으나 출가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으며,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중일전쟁 발발이후 사회는 전시체제로 바뀌고 지식인들

이 친일행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을 때, 나혜석은 친일의 나락에서 벗어나 수덕여관에서 지내고 있었다.



수덕여관



승복 나혜석

나혜석은 자녀들이 보고 싶어 학교로 찾아갔으나, 아이들은 도망치고, 김우영은 경찰을 동원하여 쫓아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려했지만 계속 실패하였다. 오빠 나경석에게도 「이혼고백서」 발표 사건으로 버림을 받았으나, 율케의 도움으로 서울 인왕산 청운양로원에 48세인 그녀가 60세 노인으로 속이고 들어갔다.

그러나 나혜석은 양로원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다 1948년 12월 10일 서울 원효로의 시립자제원에서 행려병자로 사망하였다. 헌옷을 입고 있었으며 소지품은 없었다. 당시 그를 화가 나혜석으로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호적은 오빠 경석에게 입적되었다가 현재는 호주 상속한 경석의 아들 나상균의 호적에 고모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나혜석이 세상을 떠나던 무렵, 그녀와 관계가 깊었던 남성들, 이광수, 최린, 김우영은 반민특위의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들은 친일파로서 민족의 이름 아래 단죄를 받았던 것이다. 이 중 이광수와 최린은 6·25 전

쟁시 납북되고, 김우영은 1949년 1월 부산에서 반민법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다. 김우영은 감옥에서 병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간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1954년에 자서전 『회고』를 출판하였으나 나혜석이란 이름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로 지낸 아들 건은 기자가 나혜석에 대해 질문하자, 나는 그런 어머니를 둔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아들에게, 남편에게 잊혀진 여자, 나혜석은 오늘날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혜석의 삶이다.

2. 작가 나혜석 작품세계

나혜석의 작품은 이상경의 『나혜석 전집』(태학사, 2000)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누락된 작품이 있어서 보충하고자 한다. 나혜석은 1917년에 「부부」를 《여자계》에 발표한 바 있다. 아마도 이상경은 《여자계》창간호에 실린 「부부」를 찾아볼 길이 없어 그녀의 작품목록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던 것 같다.⁵⁾ 비록 《여자계》창간호를 발굴하지 못해서 작품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박화성의 증언을 통해 작품 존재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

“나혜석씨는 화가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부부」라는 짝막한 소설에서 억울하게 학대받는 한 여성이 봉건적 유습에 비참하게 희생이 된

5) “《여자계》제2호에 소설 「경희」를, 제3호에 「희생한 손녀에게」를 발표함으로써 나혜석은 한국 근대여성문학의 첫머리를 장식했다.”(이상경, 앞의 책, p.42.)

생활상이 재치 있게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때 18세이던 나는 감탄하고 있었다”⁶⁾

박화성 나이 18세에 「부부」를 읽었다고 되어 있다. 박화성은 억울하게 봉건적 유습에 비참하게 학대받는 한 여성의 생활상이 재치 있게 잘 그려져 있다고 감탄하고 있다. 이미 그녀는 화가로서 등단하기 이전 문단에 등단하였던 것이다. 이 작품은 나혜석 개인적으로는 첫 소설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겠지만, 문학사적으로는 최초의 여성작가의 작품이며, 여성의 사회상을 고발한 의미 있는 작품이다.

나혜석은 「부부」을 시발로 소설, 시, 희곡, 수필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녀의 시작품을 중심으로 ‘작가 나혜석’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혜석의 시로는 「넋물」, 「사(砂)」, 「인형의 가(家)」, 「아껴 무엇하리 청준을」 등이다. 1921년에 세 편의 시를, 1935년에 한 편의 시를 발표했다. 다시 말해서 앞 세 편은 김우영과의 결혼생활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 속에서 낳은 시이고, 뒤 한편은 이혼 후 불행한 상황 속에서 발표한 시인 것이다. 그래서 본 장은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21년 『폐허』2호에 발표된 「넋물」, 「사(砂)」, 『매일신보』에 「인형의 가(家)」, 이 세 작품은 자연사와 인간사로 나눌 수 있다. 자연사는 「넋물」, 「사(砂)」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인간사는 「인형의 가(家)」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각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박화성의 진술.

①

졸졸 흐르는 저 냇물
 흐린 날은 푸르죽죽
 맑은 날은 반짝반짝
 캄캄한 밤 흑색같이
 달밤엔 백색같이
 비 오면 방울방울
 눈 오면 녹여주고
 바람 불면 무늬 지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춥든지 더웁든지
 싫든지 좋든지
 언제든지 쉬임없이
 외롭게 흐르는 냇물
 냇물! 냇물!
 저렇게 흘러서
 호(湖) 되고 강 되고 해(海) 되면
 흐리던 물 맑아지고
 맑던 물 퍼래지고
 퍼렁던 물 짜지고
 (華虹門樓上에서)

「냇물」, 『폐허』2호(1921. 4)

②

야원(野原) 가운데 깔려 있어 값없는
 모래가 되고 보면 줍는 사람도 없이
 바람 불면 먼지 되고
 비 오면 진흙 되고
 인마(人馬)에게 밟히면서도

싫다고도 못하고 이 세상에 있어
 이따금 저 천변에
 포공영(蒲公英:민들레), 야국화(野菊花), 메꽃, 꽃다지꽃
 피었다가 스러지면 흔적도 없이
 뒤라서 찾아오라
 뒤라서 밟아주라
 모래가 되면 값도 없이

「사(砂)」, 『폐허』 2호(1921. 4)

①은 냇물을 소재로 한 시이다. 냇물을 끊임없이 흐른다. 날씨와 무관하게, 시간과 무관하게, 계절과 무관하게, 자신의 감정상태와 무관하게 흐른다. 다만 그 냇물은 외롭게 흐르는 것이다. 적어도 나혜석의 시선에 냇물은 외롭게 언제나 섬없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의사대로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다.

②는 모래를 소재로 한 시이다. 모래는 바람 불면 먼지가, 비가 오면 진흙이 된다. 사람이 밟으면 싫다고도 못하고 밟힌다. 이 모래는 값어치 없는 먼지,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되고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 모래는 자의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심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다.

①, ②의 공통점은 그동안 당연히 자연의 순리로 여겨졌던 냇물의 흐름과 모래의 흔적을 재고하는 데 있다. 화자는 냇물은 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가. 모래는 자신의 원치 않았지만 먼지, 진흙 등의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더 나아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나혜석은 우리가 순리로 여겼던 자연사에 의문을 가진 후, 인간사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③

1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후렴)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논
장벽에서
건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2

남편과 자식들에게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저

3

나는 안다 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온통을 다 혈어 맛보이는
진정 사람을 제하고는

내 몸이 값없는 것을
내 이제 깨도다

4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다오
맑은 암흑 횡행(橫行)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

「인형의 가(家)」, 『매일신보』(1921. 4. 3)

③의 시는 시적화자의 문제를 들추어내어서 일반화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시인은 1연에서 한 여자인 나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인형, 남편의 아내라는 인형으로 지내왔던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2연에서는 자신에 대한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의무와 같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동안 인형처럼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양 인식되었지만, 그 의무만큼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3연에서는 더욱 강하게 억제할 수 없는 마음, 진정 사람이 아니고서는, 인형이고서는 값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역설하고 있다. 4연에서는 자신과 같은 각성을 소녀들에게 종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혜석은 알고 있다. 20년대에 여성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말이다. 그래서 4연에서 폭풍우 뒤에 비로소 사람으로서 너와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①, ②는 자연의 순리로만 인식하던 것들에 대한 재고를 시화하였으

며, ③은 당시대 여성의 위치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치 자연의 순리처럼 아버지의 인형으로, 남편의 인형으로, 자식들을 위한 의무 위에서만 형성되는 것을 비판하고, 사람이 되어야 함을 시화하였다. 이 세 작품이 발표되었던 1921년은 김우영의 아내로 그녀는 사회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았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명예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더구나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화가로서의 삶도 보장받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작품을 발표한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학대받은 여자의 위치에서 위 시를 썼다면 삶이 그녀를 그렇게 몰아갔다고 하겠지만, 넉넉한 가정에서 귀부인으로 대접을 받은 와중에 인형이 아닌 사람이 되고자 했다는 것은 그녀의 가치관의 반영으로 보인다. 신교육을 받은 그녀답게 조선사회의 여성들을 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다음은 이혼 후, 나혜석의 궁핍과 사회적 비난이 쇄도할 때의 작품이다.

살이 포근포근하고
 빛은 윤택하고
 머리가 까맣고
 눈이 말뚱말뚱하고
 귀가 빠르고
 언어가 명랑하고
 태도가 날씬하고
 행동이 겸사하고
 참새와도 같고
 제비와도 같고
 앵무와도 같고

공작과도 같다

나이 먹으면
주름살이 잡히고
빛깔이 검어지고
머리가 희어지고
귀가 어둡고
눈이 흐려지고
말이 어둔해지고
몸이 늘씬해지고
행동이 느려져
기린과도 같고
물소와도 같다
이리하여
살 날이 많던
청춘은 가고
죽을 날이 가까운
노경에 이른다
이 어찌
청춘 감을
아끼지 않으랴
그러나 나는
장차 올 청춘이었던들
아꼈을는지 모르나
이미 간 청춘을
아끼지 않나니
청춘은
들뻗었고
얇았었고
얇았었고

짧았던 것이오
 나이 먹고 보니
 침착해지고
 깊고
 두텁고
 길다
 청춘을
 헛되이 보내었던들
 아끼지 않을 바 아니나
 빈틈없이 이용한 청춘을
 아낄 무엇이 있으며
 지난 청춘을
 아껴 무엇하리오
 장차 올 노경이나
 잘 맞으려 하노라

「아껴 무엇하리 청춘을」, 『삼천리』(1935. 3)

위 작품 「아껴 무엇하리 청춘을」은 비장미마저 흐른다. 1934년에 「이
 혼고백서」를 연재한 후 나혜석이라는 이름은 또 한 번 사회의 이슈가 되
 었다. 그의 결혼여행지가 옛 애인의 무덤이었던 사실로 이슈가 되었던
 것 이상이었다. 가장 믿어주었던 오빠 나경석마저도 나혜석을 찾아오지
 말라고 냉담하게 내쳐버렸으니, 이 사건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혼란에 혼란을 겪은 뒤 자신의 청춘을 돌아본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
 녀의 심정고백과 같은 시이다.

젊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다. 그러나 청춘이 가고 나니 주
 림살, 검은 피부, 흰 머리, 어두워진 귀, 눈이 흐려지고, 말이 둔해지니 결
 국 기린, 물소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다. 여인에게 물소와 같다는 것은 참

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의 상징이 여성 아닌가. 그런데 나이 먹어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 외모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적화자는 말한다. “청춘을/헛되이 보내었던들/아끼지 않을 바 아니나/빈틈없이 이용한 청춘을/아낄 무엇이 있으며/지난 청춘을/아껴 무엇하리오”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청춘을 아낄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하였다. 생애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교육을 받고, 연애도 원하는 대로, 문필가로서, 화가로서 명성을 날리기도 하였다. 귀부인으로서도 살았던가 하면 궁핍에 찌든 삶을 영유하기도 했으며, 삼남매의 어머니자 기억되지 않는 여자이기도 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자가 또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부러워할 자가 몇이나 될까. 그러나 시적화자는 말한다.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며 빈틈없이 이용한 청춘이었다고 말이다.

1) 화가 나혜석

나혜석은 1913년 17세의 나이로 동경 유학길에 오른다. 이는 동경 유학 중에 있던 오빠 나경석의 후원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한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이자 조선인으로서는 네 번째에 해당된다. 그 첫째는 고희동(1910년), 김관호(1911년), 김찬영(1912년)에 이은 네 번째 주자이다.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은 모두 도쿄미술학교 서양학과를 다녔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 최초일 뿐만 아니라 화가 인생을 지속한 최초의 화가이다.

준곡(春谷) 고희동은 제 1호 서양화가라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다녔지

만 기대만큼의 수상성적을 내지 못한 채, 1920년대 중반에 유화의 붓을 꺾고 자신이 비판했던 수묵화로 돌아서고 말았다. 동우(東愚) 김관호는 평양 부호의 아들로 1908년에 도일하여 메이지 학원에 입학했다가 1911년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유화를 전공했다. 그는 졸업 작품으로 「해질녘」을 출품하였다. 이 작품은 일본 국가전시였던 【문전(文展)】에서 특선에 입상하였다. 당시 이광수는 “조선화가의 처음 얻는 영예”라고 극찬을 하였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누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졸업 작품으로 유명세를 탄 김관호도 결국 절필하고 만다. 이유는 누드화, 나체화가 익숙하지 않았던 국내 정서에 좌절하고 만 것이다. 김관호는 절필 후 수전증으로 붓을 쥘 수도 없었으며 점차 폐인이 되어 버렸다. 유방(維邦) 김찬영은 김관호와 마찬가지로 평양 출신으로 대지주의 아들이었다. 김찬영은 도쿄미술학교는 졸업했지만 화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1920년대 문학적인 글을 다수 발표하였으며, 절필 후에는 영화관을 운영하거나 골동품을 수집하거나 사냥으로 인생을 마무리 하였다. 다시 말해서 1910년대 남성화가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서 부르주아 미학을 기본으로 작품활동을 하다가 꺾이고 만 것이다. 민족의식이나 현실인식에 대한 고민 부족과 더불어 작가의식마저 부족했던 것이다.⁷⁾

이처럼 절필한 선배들과 대조적으로 나혜석은 그 삶을 통털어 화가로서의 삶을 지향하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화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나혜석은 최의 여성 화가이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일생을 화가로 살아간 최초의 화가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녀의 화가

7) 윤범모, 앞의 책, pp.116~121.

의 일생을 따라가 보자. 화가 나혜석의 면모는 윤범모의 연구가 돋보인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윤범모의 『화가 나혜석』를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타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였다.

나혜석은 수원 삼일여학교, 진명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떠났다. 그녀의 나이 17세, 어린 나이에 외국 유학여행을 떠났다. 1913년 4월 15일 도쿄의 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화 선과 보통과에 입학했다. 입학 당시의 후견인은 오빠 나경석이었다.

윤범모는 나혜석의 유학당시의 성적을 꼼꼼히 서술하였는데, 그 중 실기 점수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913년 1학년 실기과목은 평균 79점이었는데, 미술에 대한 기초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입학한 실정을 염두에 두었을 때 무난한 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 1914년 실기과목 평균 점수는 84점이었다. 이 해에는 첫사랑 최승구와의 연애가 절정에 다다라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지만 실기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보아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5년에는 부친이 결혼을 강요하면서 학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서 잠시 휴학을 하였지만, 1916년에 다시 복학을 하였다. 그러나 이 해 봄에 최승구의 병사로 나혜석은 심한 심적 혼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6년 그 해 실기점수는 평균 85점으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최초의 사랑, 그녀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사랑의 사망과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나혜석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돋보이는 흔적이다. 1917년 실기점수는 90점을 받았다. 이처럼 나혜석은 낮선 곳에서 낮선 유화공부지만 그녀의 실력은 차근차근 향상되었다.

나혜석의 최초의 작품은 윤범모에 의해 발굴 소개되었다. 나혜석이 1919년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만평(漫評) 형식의 연말연시 세시풍속 소묘다. 이 자료를 윤범모는 1999년 4월 나혜석기념사업회 주최 국제심

포지엄에서 소개하였다. 1919년 1월 당시의 유일했던 일간지인 《매일신보》에 나혜석의 그림이 실렸던 것이다. 이것으로 나혜석은 화가로서 등단한 셈이다. 나혜석은 연말연시 세시풍속을 연재하였는데, 1919년 1월 21일자부터 2월 7일자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연재하였다.(p.132)

소묘의 내용은 당시세시풍속인데, 사각형 상자 안의 소묘 좌우에는 세 줄 내지 여덟 줄 가량의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6회부터 10회까지는 “나혜석 여자 필”이라고 필자명까지 분명하게 밝혀 놓았으며, 그림 왼쪽 하단에는 작가 특유의 서명인 “HR”이 표기되었다.

그 중 한 작품만 살펴보자.

평생 아침은 열한 시 아니면 열두 시에나 먹던 이(李) 주사(主事) 집은, 오늘 아침에는 처음으로 아침상을 일찍이 받았다. “바쁜 선달이라니 해는 짧고 어서어서 일찍 밥들 먹고 일들 해야지. 일이 태산같이 밀렸다. 어서 어서.” 어머니 재촉하시는 서슬에 입에 밥술이 들락날락, 아이구 뜨거워, 짜라, 매워라, 허둥지둥 쳐다보니 벌써 여덟시. “아차, 늦었다. 오늘은 연말회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터인데”하며 나리는 물 말은 밥을 다 못 먹고 허둥지둥 허둥지둥... ‘라(작가서명)’

그림의 구조는 두 상이 상하로 잡혀 있다. 위쪽이자 뒤쪽에 남자 홀로 독상을 대하고 있고, 아래쪽이자 앞쪽에 다섯 명의 여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독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가 이 주사일 터인데, 집안의 가장이 벽시계 옆에서 시간에 급급하게 허둥지둥 식사를 한다. 반면 다섯 여인은 웃음이 넘치며, 화로에 찌개를 올려놓고 차분히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에는 나혜석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몇 가지 단서를 통해 나혜석의 세계관을 따라가 보자. 첫째, 그동안 집안의 중심에서

있는 남성, 가장이 화폭 뒤에 설정되어 있고 여성들이 전면에 위치해 있다. 둘째, 남성은 시계에 쫓기어 허둥지둥하나 여성들은 찌개를 끓여가며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셋째, 남성의 식사는 결국 어머니의 수고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일정도 여성인 어머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어서어서 일찍 밥들 먹고 일들 해야지.”, “어머니의 재촉하시는 서슬에 입에 밥술이 들락날락(중략)”.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밥, 어머니가 제한하는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근거들을 종합하면 그동안의 가부장적인 유교체제를 벗어버리려는 나혜석의 숨은 뜻을 찾아낼 수 있다. 나혜석은 남성 중심 사회가 아니라 사회 역할, 여성의 위치를 제 자리에 올려 놓고 싶었던 것이다.

윤범모는 나혜석의 위 그림을 고희동의 그림과 비교하였다. 고희동이 나혜석 이전에 《매일신보》에 <구정 스케치>를 발표했는데, 이 그림은 특정 계층이나 독자적 시각의 소재 선택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내용이며, 널뛰기, 연날리기, 돈치기, 떡치기, 옷놀이 등을 목탄과 같은 효과의 뭉게지는 선으로 무표정하게 묘사하였지만, 나혜석은 얇은 필선을 중심으로 하여 작은 공간을 압축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면 처리로 회화성을 가미시켜 강약을 두어 대상을 분명하게 집중시켜 주제의식을 확실히 제고하였다고 평하였다.(p.142) 이처럼 나혜석은 첫 등단 작품부터 사회의식을 갖고 시작하였다. 이는 그가 화가로 등단하기 전 문필가로 등단한 소설 작품 <경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처럼 멋진 등단을 마친 나혜석의 화가 생활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품의 진위여부이다. 유존작품의 신뢰성이 떨어져 여전히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작품들이 있으니, 그것은 【조선미전】에 출품한 작품들이다.

나혜석은 【조선미전】 제 1회(1922년)부터 7회, 8회를 제외한 제 11회(1932년)까지 꾸준히 참가하여 18점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조선미전】의 출품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22년 제 1회 - 「봄이 오다」(입선), 「농가」(입선)
- 1923년 제 2회 - 「봉황산」(입선), 「봉황산의 남문」(4등상)
- 1924년 제 3회 - 「가을의 정원」(4등상), 「초하의 오전」(입선)
- 1925년 제 4회 - 「낭랑묘」(3등상)
- 1926년 제 5회 - 「지나정(중국인촌)」(입선), 「천후궁」(특선)
- 1927년 제 6회 - 「봄의 오후」(무감사 입선)
- 1930년 제 9회 - 「아이들」(입선), 「화가촌」(입선)
- 1931년 제 10회 - 「정원」(특선, 제12회 【일본제전】 입선), 「작약」(입선)
- 1932년 제 11회 - 「나부」(입선), 「소녀」(무감사 입선), 「창가에서」(무감사 입선), 「금강산 만상정」(무감사 입선)

【조선미전】을 중심으로 나혜석의 화가 일생을 살펴본다면, 그녀의 본격적인 작가활동은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초라고 하겠다. 그녀는 【조선미전】이 창설되자 출품하여 남편과 세계일주 했던 시기만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작품을 출품한 대단한 작가였다. 당시의 보도에 의하면 나혜석이 제 12회 【조선미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단에서는 나혜석이 제 12회 【조선미전】에서 낙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혜석의 작품 중, 큰 상을 받았거나 의미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자.

1925년 제 4회 출품작 「낭랑묘」는 3등상을 수상한 걸작이다. 이 작품은 만주의 고건축 사당을 묘사한 작품이다. 남편이 중국 만주에 거주하였기에 그녀는 만주의 삶에 익숙하다. 그곳에 작품을 출품한 것이 바로 「낭랑묘」이다. 이 작품의 평가를 윤범모가 잘 정리하였는데, 그는 언론의 평가 김복진의 평을 들어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나혜석이 이 작품을 출품하기에 앞서 당시 언론에서는 나혜석의 근황에 대해서 소개하였는데, ‘모든 것에 여자가 뒤떨어진 이 세상에서, 더욱이 심한 이 조선에서, 돌연히 그 묘완을 떨쳐 담 적은 양화가들의 가슴을 흔들여 놓은 나혜석여사’가 현재는 부군을 따라 만주 안동현에서 외교관 부인으로, 두 아기의 어머니로서, 또 주부로서 도저히 한가롭게 캔버스 앞에 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등상을 수상한 것이다. 또한 당시 언론은 “여사는 안동현 부영사 김우영씨 부인으로, 분방한 교제장리의 틈을 타서 때때로 조는 듯한 중국사람의 거리를 찾으며 어두침침하고도 신비로운 중국사람의 고전적인 풍속을 깊이 말으려, 현재 중국사람이 가장 많이 모야 명절제를 지내는 「낭랑묘」를 그린 것이다. 그림 전폭에 중국인의 특별한 감정과 만주지방의 지방색이 흐르는 듯하다” 라고 하였다. 또한 김복진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양으로든지 질로 보든지 조선 사람 사람네의 출품한 중에서는 수일(秀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붕 같은 데는 참말로 고운 것 같다. 색채의 대비 같은 데에는 동감할 만하나 어쩐 일인지 감흥이 희박하여 보인다. 천공(天空)의 빛 같은 것은 너무 침탁(沈濁)해 보이고, 지면(地面)은 펍 기력이 없는 것 같다. 집과 집 사이에 있는 나무가 웃음거리가 되어 버린 것도 기관(奇觀)이라 하겠다. 대체로 작자는 미의식보다는 야심이 앞을 서게 되는 모양이다. 그런 까닭에 완성 통일 이런 데로만 걸음을 빨리한 것이다. 좀더 삽

려미(瀟麗味) 같은 것을 생각하여 주었으면 한다.”

김복진은 나혜석의 작품의 우수성, 색채대비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나혜석이 이혼한 후 출품한 작품 「정원」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1931년 제 10회에 출품하여 특선으로 당선되었는데, 【일본제전】에 입선하는 영예까지 함께 걸머쥐었다.

「정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출품한 작품이라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개인의 사정을 이겨낸 작품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조선미전】에서는 특선을 【일본제전】에서는 입선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나혜석이 【조선미전】에서 특선을 거둔 경우는 2회로 첫 번째는 남편 김우영과 만주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당시 출품했던 「천후궁」이고, 두 번째는 바로 위 작품 「정원」이다. 이는 나혜석의 평정심을 확인하게 해 준다. 결혼 생활로 일상이 안정되었던 시기에 거두었던 특선을 이혼 후 많은 심적 혼란을 겪었지만 그의 예술정신, 작가정신은 여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나혜석의 유일한 【일본제전】 입선작이 되었으니 그 의의는 사뭇 깊다. 나혜석은 「정원」의 특선 소감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앞의 돌문은 정원 들어가는 문이요, 사이에 보이는 집들은 시가입니다. 이것을 출품할 때에 특선할 자신은 다소 있었으나 급기 당선되고 보니 펍 기쁩니다.” 진정 그녀는 기뻐할 것이다. 이혼 후 힘들었던 심적, 사회적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좋은 평을 한 것만은 아니다. 김종태는 나혜석의 작품에 대해 혹평을 서슴치 않았는데, 그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선작 「정원」. 수년전 전씨의 걸작 젊고도 아름답던 「낭랑묘」에 애착을 가진 작품이다. 그러나 그때의 색시는 이제 시들고 병들어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만일에 이 영양부족증이나 나아 건강이 회복된다면 아직도 그는 아름다울 것이니 잘 조섭하여 옛날의 꽃다운 자태에 여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불행히 「낭랑묘」에 분장미(扮裝美)가 없다면, 이는 음사(陰祀)의 음산한 불쾌를 느끼는 것이다. 나는 음사의 내용을 생각지 않는다. 다만 「낭랑묘」의 형식을 아름답게 보려는 것이다. 「정원」은 고담(枯淡)한 묵색(墨色)이 주조로, 다른 부분의 빛이 반주(伴奏)하여 고요히 폐허를 노래한다. 구차히 씨의 부활을 위한 대우라면 이의가 없다면, 좌우에 걸린 「작약」과 「나부」는 도리어 씨의 영예에 치명상이다. 이러한 것은 출품한 작자의 사상이 의문이요, 출품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진열하여 놓은 자의 심사(心思)를 모를 일이다. 우대를 한 것이냐? 모욕을 한 것이냐? 작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부실한 작품에 특선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될 것은 이미 서언(序言)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전람회에서 사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⁸⁾

작품의 혹평뿐만 아니라 특선 입상의 경위가 【조선미전】에서 작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부실한 작품에 특선 딱지를 붙였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모욕 속에서 나혜석은 작품활동을 지속해야만 했다.

나혜석은 개인적인 사정, 사회적인 통념과 다투면서 화가의 길을 걸어갔다. 때로는 김우영이라는 세력가의 부인으로서 경제적인 안정과 계급적 안정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였지만 이혼 후 그녀가 김우영에게서 얻은 좋은 기회만큼이나 큰 어려움이 다가왔다.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냉대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지속적으로 붓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기일전하여 작업에 몰두했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했듯이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과는 참으로 비교되는 대

8) 김종태, <제 10회 미전평>, 《매일신보》, 1931.5.27.(윤범모 재인용, pp.181~182)

목이다. 고희동은 수상성적이 좋지 못해서 유화에서 수묵화로 돌아가 버렸으며, 김관호는 자신의 누드화나 나체화를 인정받지 못하자 폐인이 되어버렸다. 김찬영은 실력이 없어서 영화관 운영이나 골동품 수집을 하는 외도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그녀는 최초의 여성화가를 넘어서서 1920년대의 대표 화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독립운동가 나혜석

나혜석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군수를 지냈지만, 나혜석의 오빠들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대한 자들이었다. 사촌오빠 나중석은 수원의 유지들의 힘을 모아 삼일여학교를 설립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3·1운동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나혜석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나경석은 1915년 일본 오사카에서 조직된 재판조선인친목회의 종간사로 조선인 노동자 권익운동에 앞장 서기도 하였다. 일본 경찰이 블랙리스트에 나경석의 이름을 올려놓을 정도로 그는 반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러한 나경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성장한 나혜석 또한 진보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3·1운동에 앞서 일어난 1919년 2월 일본 유학 남학생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자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도 기금을 기탁하는 일을 하였는데, 나혜석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성과 평양을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이화학당 식당에서 아침 식사 시간에 만세 시위가 펼쳐졌는데, 이 사건으로 나혜석은 일경에 체포되어 3월 18일 경성지방검사국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 결과 나혜석은 8월까지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면소된 적이 있다. 이처럼 3·1운동 즈음 5개월간의 감

옥 생활을 경험한 나혜석은 이후로도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

김우영과 결혼한 후, 나혜석은 남편의 근무지인 만주에서 생활을 하였다. 이 당시 남편의 외교관이란 신분을 이용해 국내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었으며, 1923년 3월에 발생한 의열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나혜석은 의열단 동지인 박기홍의 단총을 몰래 숨겨주었으며, 형기를 마치고 나오자 다시 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의열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동지들을 찾아가 신경을 써주었다는 것이다. 나혜석 부부는 압록강을 도강하는 독립지사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의열단사건사진

3) 여성운동가 나혜석

나혜석의 여성운동은 축첩제도에서 비롯된다. 나혜석의 아버지도 당시 기득권층이었기에 상당한 축첩을 하였으며, 오빠들도 평탄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혜석은 여성의 자유, 여권은 바로 결혼제도

에서 시작된다고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나혜석의 여성운동, 여권운동은 바로 결혼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혼 고백장을 잡지에 연재한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녀가 최초이자 유일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녀의 이혼 고백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후원하던 친오빠마저도 그녀에게 등을 돌리게 한 커다란 사건이었다. 것처럼 당대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나혜석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친정식구마저도 등을 돌리게 했던 것일까. 나혜석의 이혼 고백장은 그녀의 여러 글 중에, 가장 나혜석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글이라 생각되어 전체를 실어본다. 천천히 그녀의 이혼 고백장을 따라가보자.

「이혼 고백장-청구(靑邱) 씨에게-」

나이 사십, 오십에 가까웠고, 전문교육을 받았고 남들이 용이히 할 수 없는 구미만유를 하였고 또 후배를 지도할 만한 처지에 있어서 그 인격을 통일치 못하고 그 생활을 통일치 못한 것은 두 사람 자신은 물론 부끄러워 할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대하여서도 면목이 없으며 부끄럽고 사죄하는 바외다.

청구 씨!

난생 처음으로 당하는 이 충격은 너무 상처가 심하고 치명적입니다.

비탄, 통곡, 초조, 번민-이래 이 일체의 궤로(軌路)에서 생의 방향을 하면서 일편으로 심연의 밑바닥에 던진 씨를 나는 다시 청구 씨 하고 부름

니다.

정구 씨! 하고 부르는 내 눈에는 눈물이 그득 차집니다. 이것을 세상은 나를 ‘약자야!’ 하고 부를까요?

날마다 당하고 지내던 씨와 나 사이는 깊이 이해하고 지실(知悉)하고 자부하던 우리 사이가 몽상에도 생각지 않던 상처의 운명의 경험을 어떻게 현실의 사실로 알 수 있으리까.

모두가 꿈, 모두가 악몽, 지난 비극을 나는 일부러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것이 나의 거짓 없는 진정입니다.

‘선량한 남편’ 적어도 당신과 나 사이의 과거 생활 궤로(軌路)에 나타나는 자세가 아니오리까.

‘선량한 남편’ 사건이래 얼마나 부정하려 하였으나, 결국 그러한 자세가 지금 상처를 받은 내 가슴속에 소생하는 청구 씨입니다.

사건이래 타격을 받은 내 가슴속에는 씨와 나 사이에 부부생활 11년 동안의 인상과 추억이 명멸해집니다.

모든 것에 무엇 하나나 조금도 불만과 불평과 불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씨의 일상의 어느 한 가지나 처(妻)인 내게 불심(不審)이나 불쾌를 가진 아무 것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저녁때면 사퇴 시간에 꼭꼭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내게나 어린애들에게 자애 있는 미소를 띠는 씨였습니다. 연초는 소량으로 피우나 주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의미로 보면 씨는 세상에 드문 ‘선량한 남편’이라고 아니할 수 없나이다. 그런 남편인 만치 나는 씨를 신임 아니 할 수 없었나이다. 아니 꼭 신임하였었습니다. 그러한 씨가 숨은 반면에 무서운 단결(斷決)성, 참혹한 타기(唾棄)성이 포함돼 있을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하였으리까. 나를 반성할 만한, 나를 참회할 만한 촌분(寸分)의 틈

과 촌분의 여유도 주지 아니한 씨가 아니었습니까? 어리석은 나는 그래도 폭 용서를 받을까 하고 애걸복걸하지 아니하였는가.

미증유의 불상사, 세상의 모든 신용을 잃고 모든 공분(公憤) 비난을 받으며, 부모 친척의 버림을 받고 옛 좋은 친구를 잃은 나는 물론 불행하려니와 이것을 단행한 씨에게도 비탄, 절망이 불소할 것입니다. 오직 나는 황야를 해매고 암야에 공막(空幕: 텅비어 쓸쓸함)을 바라고 자실(自失)하여 할 뿐입니다.

떨리는 두 손에 화필과 팔레트를 들고 암흑을 향하여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광망(光芒)의 순간을 구함인가. 너무 크고 너무 중한 상처의 충격을 받은 내게는 각각(刻刻)으로 절박한 쓸쓸한 생명의 부르짖음을 듣고 울고 쓰러지는 충동으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사외다.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은 ‘거짓 결혼’이었었나, 혹은 피차의 이해와 사랑으로 결합하면서 그 생활의 흐름을 따라 우리 결혼은 ‘거짓’의 기로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는가. 나는 구태여 우리 결혼, 우리 생활을 ‘거짓’이라 하고 싶지 않소. 그것은 이미 결혼 당시에 모든 준비, 모든 서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미 그것을 다 실행하여 온 까닭입니다.

정구 씨!

광명과 암흑을 다 잃은 나는 이 공허한 자실(自失)상태에서 정지하고 서서 한 번 더 자세히 내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염두하느니 만치 나는 비통한 각오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소, 질책(叱責)을 감수하면서 이 십자가를 등지고 묵묵히 나아가려 하나이다. 광명인지 암흑인지 모르는 인종과 절대적 고민 밑에 흐르는 조용한 생명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한 번 더 갱생으로 향하여 행진을 계속할 결심이외다.

• 약혼까지 내력

벌써 옛날 내가 19세 되었을 때 일이외다. 약혼하였던 애인(素月 崔承九를 가리킴)이 폐병으로 사거(死去)하였습니다. 그때 내 가슴의 상처는 심하여 일시 발광이 되었고 연(連)하여 신경쇠약이 만성에 달하였었습니다. 그해 여름 방학에 동경에서 나는 귀향하였으나이다. 그때 우리 남형(男兄:나혜석의 오빠 나경석)을 찾아 또 나를 보러 겸겸하여 우리 집 사랑에 손님으로 온 이가 씌였습니다. 씌는 그때 상처한 지 이미 3년이 되던 해라 매우 고독한 때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에서 조카딸과 놀다가 씌와 딱 마주쳤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남형이 인사를 시켰습니다. 씌는 며칠 후 경성으로 가서 내게 장찰(長札:긴 편지)을 보내었습니다. 솔직하고 열정으로 씌었습니다. 우선 자기 환경과 심신의 고독으로 취처(娶妻)하여야겠고 그 상대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사외다. 나는 물론 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게는 그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외다. 두 번째 편지가 또 왔습니다. 나는 간단히 답장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또 내려왔습니다. 파인에플과 과실을 사가지고. 나는 이번에는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씌는 본향(本鄉:동래)으로 내려가면서 동경 갈 때 편지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내가 동경을 갈 때 무의식적으로 엽서를 하였습니다.

밤중 오사카(大阪)를 지날 때 웬 사방(四方:사각)모자 쓴 학생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는 알아보지를 못하였던 것이외다. 교토(京都)까지 같이 와서 나는 동행 4.5인이 있어 직행하였습니다.

동경 히가시오쿠보(東大久保)에서 동행과 같이 자취 생활을 할 때이외다. 씌는 토산(土産) 하츠바시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씌는 동경 제대 청

년회 우변대회에 연사로 왔었습니다. 낮에는 반드시 내 책상에서 초고를 해가지고 저녁 때면 돌아가서 반드시 편지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돌아갈 때였습니다. 전차 정류장에서 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씨는 뜨겁게 악수를 하고 인하여 가까운 수풀로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기도를 올리었습니다.

이와 같이 씨의 편지, 씨의 말, 씨의 행동은 이성을 초월한 감정뿐이었고 열뿐이었사외다. 나는 이 열을 받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부지불각 중 그 열 속에 녹아 들어가는 감이 생겼나이다. 이와 같이 씨는 교토, 나는 동경에 있으면서 1일에 1차씩 올라오기도 하고 혹 산보하다가 순사에게 주의도 받고 혹 보트를 타고 1일의 유쾌함을 지낸 일도 있고 설경(雪景)을 찾아 여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6년간 끄는 동안 씨는 몇 번이나 혼인을 독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행하고 싶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남이 알 수 없는 마음 한편 구석에 남은 상처의 자리가 아직 아물지 아니하였음이요, 하나는 씨의 사랑이 이성을 초월하리 만치 무조건적 사랑, 즉 이성 본능에 지나지 않는 사랑이요, 나라는 일 개성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 것이외다. 그리하여 본능적 사랑이라 할진대 나 외에 다른 여성이라도 무관할 것이요, 하필 나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듯 생각던 것이었습니다. 전 인류 중 하필 너는 나를 구하고 나는 너를 짝지으려 하는 데는 네가 내게 없어서는 아니 되고 내가 네게 없어서는 아니 될 무엇 하나를 찾아 얻지 못하는 이상 그 결혼 생활은 영구치 못할 것이요, 행복치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를 놓기 싫었고 씨는 나를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단행을 못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양편 친척들의 권유와 및 자기 책임상 택일을 하여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요구한 조건은 이러하였습니다.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주시오.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하여 주시오.

씨는 무조건하고 응낙하였습니다.

나의 요구하는 대로 신혼여행으로 궁촌(窮村) 벽산(碧山)에 있는 죽은 애인의 묘를 찾아 주었고 석비(石碑)까지 세워준 것은 내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사실이다. 여하튼 씨는 나를 전 생명으로 사랑하였던 것은 확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 11년간 부부생활

경성서 3년간, 안동현에서 6년간, 동래에서 1년간, 구미에서 1년 반 동안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딸 하나, 아들 셋, 소생 4 남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외교관으로, 유람객으로, 아들 공부로, 부(父)로, 화가로, 처(妻)로, 모(母)로, 며느리로, 이 생활에서 저 생활로, 저 생활에서 이 생활로, 켜켜이 쌓아 올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상 유여(裕餘)하였고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해왔고 노력한 바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만하면 행복스러운 생활이라고 할 만하였습니다. 씨의 성격은 어디까지든지 이지를 떠난 감정적이어서 일촌(一村)의 앞길을 예상치 못하였습니다. 나는 좀 더 사회인으로, 주부로, 사람답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함에는 경

제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근면도 필요하였습니다. 불민(不敏)한 점이 불소(不少)하였으나 동기(動機)는 사람답게 잘 살자는 건방진 이상(理想)이 뿌리가 뺏어지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덤으로 부부간 충돌이 생긴 뒤에 반드시 아이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 주부로서 화가 생활

내가 출품한 작품이 특선이 되고 입상이 될 때 씨는 나와 똑같이 기뻐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남편 잘 둔 덕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나는 만족하였고 기뻐었나이다.

주위 사람 및 남편의 이해도 필요하거니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되다. 모든 것에 출발점은 다 자아에게 있는 것이되다. 한 집 살림살이를 민첩하게 해놓고 남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되다. 나는 결코 가사를 범연히 하고 그림을 그려온 일은 없었습니다. 내 몸에 비단옷을 입어본 일이 없었고 1분이라도 놀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제일 귀중한 것이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건대 내게서 가정의 행복을 가져간 자는 내 예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술이 없고는 감정을 행복하게 해줄 아무 것도 없었던 까닭입니다.

· 구미(歐美) 만유(漫遊)

구미 만유를 향하여 해준 후원자 중에는 씨의 성공을 비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성공을 비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미 만유는 의외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더 보면 더 보니 만치 자기 생

활(活)이 신장(伸長)해지는 것이요, 풍부해지는 것이외다. 만유한 후에 씨는 정치관이 생기고, 나는 인생관이 다소 정돈이 되었나이다.

1.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동양 사람이 서양을 동경하고 서양인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반면에 서양을 가보면 그들은 동양을 동경하고, 동양 사람의 생활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자는 없사외다. 오직 그 마음 하나 먹기에 달린 것뿐이외다.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사업을 많이 하는 중에 요령을 획득하여 그 마음에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외다. 즉 사람과 사물 사이에 신(神)의 왕래를 볼 때뿐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외다.

2.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화합하게 살 수 있을까. 일 개성과 타 개성이 합한 이상 자기만 고집할 수 없는 것이외다. 다만 극기를 잊지 마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에는 세 시기가 있는 것 같사외다. 제1, 연애 시기의 때에는 상대자의 결점이 보일 여가 없이 장처(長處)만 보입니다. 다 선화(善化) 미화(美化)할 따름입니다. 제2, 권태 시기, 결혼하여 3, 4년이 되도록 자녀가 생하여 권태를 잊게 아니한다면 권태증이 심하여 집니다. 상대자의 결점이 눈에 띄고 싫증이 나기 시작됩니다. 통RP를 보면 이때 이혼(원문은 결혼)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제3, 이해 시기, 이미 부(夫)나 처(妻)가 피차에 결점을 알고 장처도 아는 동안 정의(情誼)가 깊어지고 새로운 사랑이 생겨 그 결점을 눈감아 내리고 그 장처를 조장하고 싶을 것이외다. 부부 사이가 이쯤 되면 무슨 장애물이 있든지 떠날 수 없게 될 것이외다. 이에 비로소 미와 선이 나타나는 것이요, 부부 생활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3. 구미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가. 구미의 일반 정신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존중히 여깁니다.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을 아껴줍니다. 어느 화합에

든지 여자 없이는 중심점이 없고 기분이 조화되지 못합니다. 일 사회의 주인공이요, 일 가정의 여왕이요, 일 개인의 주체이외다. 그것은 소위 크고 강한 남자가 옹호함으로 뿐 아니라 여자 자체가 그만큼 위대한 매력을 가짐이요, 신비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러이 평등, 자유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본래 평등, 자유가 구존해 있는 것이외다. 우리 동양 여자는 그것을 오직 자각치 못한 것뿐이외다. 우리 여성의 힘은 위대한 것이외다. 문명해지면 해질수록 그 문명을 지배할 자는 오직 우리 여성들이외다.

4. 그 외의 요점은 무엇인가. 데생이다. 그 데생은 윤곽 뿐이 의미가 아니라, 칼라 즉 색채, 하모니 즉 조자(調子:조화)를 겸용한 것이외다. 그러므로 데생이 확실하게, 한 모델을 능히 그릴 수 있는 것이 급기 일생의 일이 되고 맙니다. 무식하나마 이상 4개 문제를 다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활목표가 지금부터 전개되는 듯 싶었고 출발점이 일로부터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도 크고 구체적 고안도 있습니다. 하여간 전도를 무한히 낙관하였으나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 스스로 부끄러워 마지않는 바외다.

·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립적 생활

결혼 후 1년간 시어머니와 동거하다가 철없이 살아가는 젊은 내외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향인 동래로 내려가서 집을 장만하고 매삭 보내는 돈을 절약하여 땅마지기를 장만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오직 소원은 아들 며느리가 늙게 고향에 돌아와 친척들을 울을 삼고 살라 함이요, 자기가 푼푼 전전이 모은 재산을 아버지 없이 길리운 아들에게 유산하는

것이외다. 그리하여 이 재산이란 것은 3인이 합동하여 모은 것이외다. (얼마 되지 않으나)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절약하여 보내고 한 사람은 모아서 산 것이외다. 그리하여 두 집 살림이 물샐 틈 없이 짜이고 재미스러웠사외다. 이렇게 화락한 가정에 파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사외다.

우리가 구미 만유하고 돌아온 지 1삭 만에 셋째 시삼촌이 타지방에서 농사짓던 것을 집어치고 일꾼 준비 없이 장조가 되는 큰댁, 즉 우리를 믿고 고향을 찾아온 것이외다.

어안이 병병한 지 며칠이 못되어 둘째 시삼촌이 또 다섯 식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가 후 취직도 아니 된 때라 돕지도 못하고 보자니 딱하고 실로 난처한 처지이었사외다. 할 수 없이 삼촌 두 분은 1년간 아랫방에 모시고, 사촌들은 다 각각 취직케 하였습니다. 이려고 보니 근친간 자연 적은 말이 늘어지고 없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고, 큰 사건은 조석(朝夕)이 없는 사촌 아들을 아무 예산 없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 학자(學資)는 우리가 맡게 된 것이외다.

만유 후에 감상담 들으러 경향 각지로부터 오는 지인 친구를 대접하기에도 넉넉치 못하였사외다. 없는 것을 있는 체하고 지내는 것은 허영이나 출세 방침상파지 못할 사교이었사외다. 이것을 이해해줄 그들이 아니었사외다. 나는 부득이 남편이 취직할 동안 1년간만 정학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사외다. 삼촌은 노발대발 하였사외다. 이러자니 돈이 없고 저러자니 인심 잃고 실로 어쩔 길이 없었나이다.

때에 시는 외무성에서 총독부 사무관으로 가라는 것을 싫다 하고 (관리하라는) 전보를 두 번이나 거절하고, 고집을 부려 변호사 개업을 시작하고 경성 어느 여 객관이 되어서 예쁜 기생, 돈 많은 갈보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모씨에게 보낸 편지가 구실이 되어 이 요릿집 저 친구에게

이혼 의사를 공개하며 다니던 때 이었습니다. 동기(動機)에 아무 죄 없는 나는 방금 서울에서 이혼설이 공개된 줄도 모르고 씨의 분을 더 돋우었으니, “일촌의 앞길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천지 바보야, 나중 일을 어찌 하려고 학자를 떠맡았느냐?” 하였사외다.

우리 집 살림살이에 간접으로 전권을 가진 자가 있으니, 즉 시누이외다. 모든 일에 시어머니의 코치 노릇을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서울서 온 손님과 해운대를 갔다오면 내일은 반드시 시어머니가 없는 돈을 박박 긁어서라도 갔다옵니다. 모두가 내 부덕의 소산이라 하겠으나 남보다 많이 보고 남보다 많이 배운 나로서 인정인들 남만 못하라마는 우리의 이 역경에서 일어나기에는 아무 여유가 없었던 까닭이었사외다.

내가 구미 만유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친척 친구들에게 토산물을 다 소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며 그 외 근친에게는 사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방심하였다는 것보다 그들에게 적당한 물건이 없었던 것이외다. 본국에 와서 사드리려고 한 것이 흐지부지한 것이외다. 프랑스에서 오는 짐 두 짝이 모두 포스터와 회(繪:그림)엽서와 레코드와 화구뿐인 것을 볼 때, 그들은 섭섭히 여기고 비웃은 것이외다. 실로 사는 세상은 같으나 마음 세상이 다르고 하니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일로 인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감정이 말하지 않는 중에 간격이 생긴 것이외다.

씨의 동복(同腹) 남매가 3남매이외다. 누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천치요, 하나는 지금 말하는 시누이니, 과도히 똑똑하여 빈틈없이 일 처리를 하는 여자외다. 천춘 과부로 제가하였으나 일점 혈육 없이 어디서 낳아 온 딸 하나를 금지옥엽으로 양육할 뿐이요, 남은 정은 어머니와 오라비에 쏟으니 전전 푼푼이 모은 돈도 오라비를 위함이라. 그리하여 될 수 있

는 대로 오라비와 고향에서 가까이 살다가 여생을 마치려 함이었사외다. 어느 때 내가, “나는 동래가 싫어요. 암만해도 서울 가서 살아야겠어요” 하였사외다. 이상의 여러 가지를 보아 오라비댁은 어머니께 불효요, 친척에 불목이요, 고향을 싫어하는 달쁜 사람이라고 결론이 된 것이외다. 이것이 어느 기회에 나타나 이혼설에 보조가 될 줄 하느님 외에 누가 알았으랴. 과연 좁은 여자의 감정이란 무서운 것이요, 그것을 짐작치 못하고 넘어가는 남자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외다.

일 가정에 주부가 들어어서, 시어머니는 ‘내 살림’이라 하고, 며느리는 따로 예산이 있고, 시누이가 간섭을 하고, 살림하는 마누라가 피사실(없는 일을 거짓으로 지어냄)을 하고, 전후 좌우에는 형제 친척이 와글와글 하니, 다정치도 못하고 약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방침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구습에 단련도 없는 일개 주부의 처지가 난처하였사외다. 사람은 외형은 다 같으나 그 내막이 얼마나 복잡하여 이성 외에 감정의 움직임이 얼마나 열기설기 엮매었는가.

· C와 관계

C(최린을 가리킴)의 명성은 일찍부터 들었으나 초대면하기는 파리이었사외다. 그를 대접하려고 요리를 하고 있는 나에게 “안녕합쇼”하는 초(初) 인사는 유심히도 힘이 있는 말이었사외다. 이래 부군은 독일로 가서 있고, C와 나는 불어를 모르는 관계상 통변(通辯:통역)을 두고 언제든지 3인이 동반하여 식당, 극장, 선유(船遊), 시외 구경을 다니며 놀았사외다. 그리하여 과거지사(過去之事), 현 시사(現時事), 장래지사(將來之事)를 논하는 중에 공명되는 점이 많았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사외다. 그는 이

탈리아 구경을 하고 나보다 먼저 파리를 떠나 독일로 갔사외다. 그 후 쾰른에서 다시 만났사외다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하였나이다.

“나는 공(公)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남편과 이혼은 아니하합니다.”

그는 내 등을 푹푹 두드리며,

“과연 당신의 할 말이오. 나는 그 말에 만족하오.”

하였사외다.

나는 제네바에서 어느 고국 친구에게,

“다른 남자나 여자와 좋아 지내면 반면으로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 더 잘 지낼 수 있지요.”

하였습니다. 그는 공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은 필경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마는 것인 줄은 모르나 나는 결코 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 즉 C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이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지리라고 믿었사외다. 구미 일반 남녀 부부사이에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잇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중심되는 본부(本夫)나 본처(本妻)를 어찌 않는 범위 내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라 가장 진보된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판명할 때는 웃어두는 것이 수요, 일부러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외다. 장발장이 생각납니다. 어린 조카들이 배고파서 못 견디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이웃집에 가 빵 한 조각 집은 것이 원인으로 전후 19년이 나 감옥 출입을 하게 되었사외다. 그 동기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도덕이 있고 법률이 있어 그의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였는가. 원인과 결과가 따로 따로 나지 아니하는가. 이 도덕과 법률로 하여 원통한 죽음이 오죽 많으며 원한을 품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

· 가운(家運)은 역경(逆境)에

소위 관리생활 할 때 다소 여유 있던 것은 고향에 집 짓고 땅 사고 구미 만유 시 2만여 원을 썼으며 은사금(恩賜金)으로 2천 원 받은 것이 변호사 개업 비용에 다 들어가고 수입은 일 푼 없고 불경기는 날로 심화해졌습니다. 아무 방침 없어 내가 직업 전선에 나서는 수밖에 없이 되었사외다. 그러나 운명의 마(魔)는 이 길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8개월 만에 심신과로로 하여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무대는 경성이외다. 경제상 관계로 서울에 살림을 차릴 수 없게 되었사외다. 또 어린 것들을 떠나고 살림을 제치고 떠날 수 없었사외다. 꿈쩍 못하게 위기 절박한 가운데서 마음만 줄이고 있을 뿐이었나이다. 만일 이때 젓 먹이 어린 것만 없고 취직만 되어 생계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앞에 이러한 비극이 가로 걸치지를 아니했을 것이외다.

이때 일이었사외다. 소위 편지 사건이외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C밖에 없을 뿐이었사외다. 그리하여 무엇을 하나 경영해 보려고 좀 내려오라고 한 것이외다. 그리고 다시 찾아 사귀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외다. 그것이 중간 악한배(惡漢輩)들의 오전(誤傳)으로 ‘내 평생 당신에게 맡기오’가 되어 씨의 대노(大怒)를 산 것이외다. 나의 말을 믿는다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믿을 만치 부부의 정의는 기울어졌고 씨의 마음은 변하기를 시작하였사외다.

조선에도 생존 경쟁이 심하고 약육강식이 심하여졌습니다. 게다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잘되는 것보다 좋아하는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미 씨의 입으로 이혼을 선전해 놓고 편지 사건이 있고 하여 일없이 남의 말로만 종사하는 악한배들은 그까짓 계집을 데리고 사느냐고 하고 천치

바보라 하여 치욕을 가하였다. 그 중에는 유력한 코치자 그룹이 3, 4인 있어서 소위 사상가적 견지로 보아 나를 혼자 살도록 해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이혼을 강권하고 후보자를 얻어주고 전후 고안을 꾸며주었나이다. 그들의 심사에는 일 가정의 파열(破裂), 어린이들의 전도(前途)를 동정하는 인정미보다 이혼 후에 나와 C의 관계가 어찌 되는가를 구경하고 싶었고 억세고 줄기찬 한 계집년의 전도가 참혹히 되는 것을 연극구경같이 하고 싶은 것이었사외다.

자기의 행복은 자기밖에 모르는 동시에 자기의 불행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외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혼의 의사를 물어보고 10년간 동거하던 옛날 애처의 결점을 발로시키는 것도 보통 사람의 행위라 할 수 없거니와 해라해라 하는 추김에 놀아 결심이 굳어져가는 것도 보통 사람의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외다.

여하간 씨의 일가가 비운에 처한 동시에 일신의 역경이 절정에 달하였사외다. 사건이 있으나 돈 없어서 착수치 못하고 여관에 있어 3, 4 삭 숙박료를 못 내니 조석으로 주인 대할 면목 없고, 사회측에서는 이혼설로 비난이 자자하니 행세할 체면 없고 성격상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니 사물에 주저되고, 씨의 양뺨 뼈가 불쑥 나오도록 마르고 눈이 쑥 들어가도록 밤에 잠을 못 자고 번민하였사외다. 씨는 잠 아니 오는 밤에 곰곰이 생각하였사외다. 우선 질투에 바쳐 오르는 분함은 얼굴을 붉게 하였사외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또 세상 맛을 본 결과 돈 벌기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줄 알았사외다. 안동현 시절에 남용하던 것이 후회나고, 아내가 그림 그리려고 화구 산 것이 아까워졌나이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배 돛대를 바람을 끼워 달면 바람을 따라 달아나는 것같이 그 근본 생각을 다는 데로 모든 생각은 다 그 편으로 향하여 달

아나는 것이외다. 씨가 그렇게 생각할수록 일시도 그 여자를 자기 아내 명의로 두고 싶지 않은 감정이 불과 같이 일어났사외다. 동시에 그는 자기 친구 1인이 기생 서방으로 놀고 편히 먹는 것을 보았사외다. 이것도 자기[를] 역경에서 다시 살리는 한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이혼설이 공개 되니 여기저기 돈 있는 갈보들이 후보 되기를 청원하는 자가 많아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하였던 것이외다.

때는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하고 만일 승낙치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때였사외다. 아아, 남성은 평시 무사할 때는 여성이 바치는 애정을 충분히 향락하면서 한 번 법률이라든가 체면이라는 형식적 속박을 받으면 작일(昨日)까지의 방자하고 향락하던 자기 몸을 돌이켜 금일(今日)의 군자가 되어 점잔을 빼는 비겁자요, 횡포자가 아닌가. 우리 여성은 모두 일어나 남성을 저주하고자 하노라.

· 이혼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래 있었을 때외다. 경성에 있는 씨가 도착한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나는 대문 밖까지 출영하였사외다. 씨는 나를 보고 반목(反目) 불견(不見)으로 실쪽합니다. 그의 안색은 창백하였고 눈은 올라갔었나이다. 나는 깜짝 놀랐사외다. 그리고 무슨 불상사가 있는 듯 하여 가슴이 두근거렸나이다. 씨는 건넌방으로 가더니 나를 부릅니다.

“여보, 이리 좀 오오.”

나는 건넌갔사외다.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치만 보고 앉았사외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그게 무슨 소리요? 별안간에.”

“당신이 C에게 평지하지 않았소.”

“했소.”

“‘내 평생을 바치오’ 하고 편지 안했소?”

“그렇지 아니했소.”

“왜 거짓말을 해. 하여간 이혼해.”

그는 부등부등 내 장 속에 넣었던 중요 문서 및 보험권을 꺼내서 각기 나눠 가지고 안방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애, 고모 어머니 오시래라. 삼촌 오시래라.”

미구(未久:오래지 않아)에 하나씩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이혼을 하겠소이다.”

“애, 그게 무슨 소리냐. 어린 것들을 어찌고.”

어제 경성서 미리 온 편지를 보고 병석처럼 하고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만류하였사외다.

“어, 그 사람, 쓸데없는 소리.”

형은 말하였사외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요?”

“서방질하는 것하고 어찌 살아요.”

일동은 잠잠하였다.

“이혼 못하게 하면 나는 죽겠소.”

이때 일동은 머리를 한 데 모으고 소곤소곤하였소이다. 시누이가 주장이 되어 일이 결정되나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에게도 불효요, 친척에게도 불목(不睦:화목하지 못함)이란다.”

나는 좌중(座中)에 뛰어들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합시다. 이러니저러니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없는 허물을 잡아낼 것도 없소. 그러나 이 집은 내가 짓고 그림 판 돈도 들었고 돈 버는 데 혼자 벌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전 재산을 반분(半分)합시다.”

“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다. 다 어머니 것이다.”

“누구는 산송장인 줄 아오, 주기 싫단 말이지.”

“죄 있는 계집이 무슨 뻔뻔으로.”

“죄가 무슨 죄야. 만드니 죄지!”

“이것만 줄 것이니 팔아 가지고 가거라.”

씨는 논문서 한 장, 약 5백 원 가량 가격되는 것을 내어준다.

“이따위 것을 가질 내가 아니다.”

씨는 경성으로 간다고 일러선다. 그 길로 누이의 집으로 가서 의논하고 갔사외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곰곰 생각하였사외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사죄할 것이다. 그리고 내 동기가 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자. 일이 커져서는 재미없다. 어린 것들의 전정(前程)을 보아 내가 굴하자.”

나는 불현듯 경성을 향하였사외다. 여관으로 가서 그를 만나 보았사외다.

“모든 것을 내가 잘못하였소. 동기만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었소.”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어서 도장이나 찍어.”

“어린 자식들은 어찌하겠소.”

“내가 잘 기르겠으니 걱정 말아.”

“그러지 맙시다. 당신과 내 힘으로 못 살겠거든 우리 종교를 잘 믿어 종교의 힘으로 삽시다. 예수는 만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지 아니했소?”

“듣기 싫어.”

나는 눈물이 났으나 속으로 웃었다. 세상을 그렇게 비꾸로 엮어맬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남자답게 껄껄 웃어두면 만사 무사히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씨가 요지부동할 것을 알았사외다.

나는 모씨(某氏)에게로 달려갔사외다.

“오빠, 이혼하자니 어쩔까요?”

“하지. 네가 고생을 아직 모르니까 고생을 좀 해보아야지.”

“저는 자식들 전정(前程·앞날)을 보아 못하겠어요.”

“엘렌 케이(Ellen Key)”1849~1926, 스웨덴의 여성사상가. 억압된 부인의 해방, 아동 존중을 주장했고 연애도덕론과 자유이혼론을 주장했고 『연애와 결혼』은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 말에도 불화한 부부 사이에 기르는 자식보다 이혼하고 새 가정에서 기르는 자식이 더 양호하다지 아니했는가.”

“그것은 이론에 지나지 못해요. 모성애는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니까요. 모성애를 잃는 에미도 불행하거니와 모성애에 길리지 못하는 자식도 불행하외다. 이것을 아는 이상 나는 이혼은 못하겠어요. 오빠, 중재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절대로 현모양처가 되겠는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현모양처 아니 된 일이 없으나 씨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요.”

“그러면 내 중재해보지.”

모씨는 전화기를 들어 사장과 영업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사외다. 중재를 시키자는 말이었사외다. 전화 답이 왔사외다. 타협될 희망이 없으니

단념하라 하나이다. 모씨는,

“하지, 해 그만치 요구하는 것을 안 들을 필요가 무엇 있나.”

씨는 소설가이니 만치 인생 내면의 고통보다 사건 진행에 호기심을 가진 것이었사외다.

나는 여기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나이다. 그날 밤 여관에서 잠이 아니와서 옆치락뒤치락할 때 사랑에서는 기생을 불러다가 흥(興)이나 흥(興)이나 놀며 때때로 곁곁 웃는 소리가 스며들어왔나이다. 이 어이한 모순이나. 상대자의 불품행(不品行)을 논할진대 자기 자신이 청백할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 남자라는 명목 하에 이성과 놀고 자도 관계없다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으니 사회제도도 제도려니와 몰상식한 태도에는 웃음이 나왔나이다. 마치 어린애들 장난 모양으로 너 그러니 나도 이러겠다는 행동에 지나지 아니했사외다. 인생 생활의 내막의 복잡한 것을 일찍이 직접 경험도 못하고 능히 상상도 못하는 씨의 일이라, 미구에 후회할 것을 짐작하나, 이미 기생 애인에 열중하고 지난 일을 구실 삼아 이혼 주장을 고집 불통하는 데야 씨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아무 방침이 없었사외다.

나는 부득이 동래를 향하여 떠났사외다. 봉천으로 달아날까, 일본으로 달아날까, 요 고비만 넘기면 무사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었사외다. 불행히 내 수중에는 그만한 여비가 없었던 것이외다. 고통에 못 견뎌서 대구에서 내려트사외다. Y씨 집을 찾아가니 반가워하며 연극장으로, 요릿집으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며, 그 부인과 3인이 날을 새웠사이다. 씨는 사위 얻은 걱정을 하며 인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나만 아는 내 고통은 설새 없이 내 마음속에 돌고 돌고 빙빙 돌고 있었나이다. 할 수 없이 동래로 내려갔사외다. 씨에게서는 여전히 2일에 한 번씩 독촉장이 왔사외다.

“이혼장에 도장을 치오. 15일 내로 아니치면 고소하겠소.”

내 답장은 이러하였사외다.

“남남끼리 합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요, 떠나는 것도 당연한 이치나 우리는 서로 떠나지 못할 조건이 네 가지가 있소. 1은 팔십 노모가 계시니 불효요. 2는 자식 4남매요, 학령 아동인 만큼 보호해야 할 것이요. 3은 일 가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인 만치 생산도 공동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분리케 되는 동시는 마땅히 일가(一家)가 이가(二家) 되는 생계가 있어야 할 것이요. 이것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하오. 4는 우리 연령이 경험으로 보든지 시기로 보든지 순정, 즉 사랑으로만 산다는 것보다 이해와 의로 살아야 할 것이요, 내가 이미 사과하였고 내 동기가 전혀 악으로 된 것이 아니요, 또 씨의 요구대로 현모양처가 되리라”고 하였사외다.

씨의 답장은 이러하였사외다.

“나는 과거와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요, 현재로만 살아갈 뿐이오. 정말 자식이 못 잊겠다면 이혼 후 자식들과 동거해도 좋고 전과 똑같이 지내도 무관하오.”

나를 찢는 말인지 이혼의 시말(始末)이 어찌 되는지 역시 몰상식한 말이었사외다. 해 달라, 아니 해주겠다 하는 동안이 거의 한 달 동안이 되었나이다.

하루는 정확시켜 달라고 한 삼촌이 노심(怒心)을 품고 앞장을 서고 시숙들, 시누이들이 모여 내게 육박하였사외다.

“잘못했다는 표로 도장을 찍어라. 그 뒷일은 우리가 다 무사히 만들 것이니.”

“혼인할 때도 두 사람이 한 일이니까 이혼도 두 사람이 할 터이니 걱정

들 마시고 가시오.”

나는 밤에 한잠 못 자고 생각하였사외다.

‘일은 이미 틀렸다. 계집이 생겼고 친척이 동의하고 한 일을 혼자 아니 하려해도 쓸데없는 일이다.’

나는 문득 이러한 방침을 생각하고 서약서 두 장을 썼습니다.

서약서

부(夫) ○○○과 처(妻) ○○○은 만 2개년 동안 재가(再嫁) 우(又)는 재 취(再娶)를 않기

로 하되 피차의 행동을 보아 복구할 수가 있기로 서약함.

우(右) 부 ○○○ 인

저 ○○○ 인

증재를 시키려 상경하였던 시숙○디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려왔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여보, 아주머니, 찍어줍시다. 그까짓 종이가 말하오? 자식이 4남매나 있으니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어디 가겠소? 그리고 형님도 말뿐이지 설마 수속을 하겠소?”

옆에 앉았던 시어머니도,

“그렇다 뿐이겠니? 그러다가 병날까 보아 큰 걱정이다. 찍어주고 저는 계집 얻어 살거나 딸거나 너는 나하고 어린것들 데리고 살자그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리고 아니꼽고 속상했다. 얼른 도장을 꺼내다가 주고,

“우물쭈물할 것 무엇 있소, 열 번이라도 찍어주구려.”

과연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심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예측치 못 하던 일이 하나씩 둘씩 생기고 때를 따라 변하는 양(樣)은 울음으로 볼까, 웃음으로 볼까. 절대 무저항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묵언(默言) 중에 타임 이 운반하는 감정과 사물을 꼭꼭 참고 하나씩 겪어 제칠 뿐이었나이다.

· 이혼 후

H에게서 편지가 왔나이다.

“K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혼 수속을 필(畢)하였다고 사방으로 통지 하는 모양입니다. 참 우스운 사람이오. 언니는 그런 사람과 이혼 잘했소. 딱 일어서서 탁탁 털고 나오시오.”

그러나 네 아이를 위하여 내 몸 하나를 희생하자, 나는 꼼짝 말고 있으면다. 이래 두 달 동안 있었나이다.

공기는 일변하였나이다. 서울서 씨가 종종 내려오나 나 있는 집에 들리지 아니하고 누이 집에 들러 어머니와 아이들을 청해다가 보고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고 시누이는 추기고 시숙들은 우물쭈물 부르고 시어머니는 전권(全權)이 되고 만다.

동리 사람들은 “왜 아니 가누, 언제 가누” 구경삼아 말한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과자 사탕을 사주어가며 내 방에서 데려다 잔다. 이와 같이 전쟁 후 승리자나 패배자 사이와 같이 나는 마치 포로와 같이 되었나이다. 나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네 어린 것들을 살릴까, 내가 살아야 할까.”

이 생각으로 3일 밤을 청야하였사되다.

‘오냐, 내가 있는 후에 만물이 생겼다. 자식이 생겼다. 아이들아, 너희

들은 일찍부터 역경을 겪어라. 너희는 무엇보다 사람 자체가 될 것이다. 사는 것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야 사는 것이다. 잔 자크 루소의 말에도 “나는 학자나 군인을 양성하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기르노라” 하였다. 내가 출가 하는 날은 일곱 사람이 역경에서 해매는 날이다.’

그러나 이러나 내 개성을 위하여 일반 여성의 승리를 위하여 짐을 부등부등 싸가지고 출가 길을 차렸나이다.

북행 차를 탔다.

‘어디로 갈까.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 홀로 된 몸,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경성에서 혼자 살림하고 있는 오라비 댁으로 갔었나이다. 마침 제사 때라 봉천서 남형이 돌아왔었나이다. 이미 장찰(長札)로 사건의 시종을 말했거니와 이번 사건에 일체 자기는 나서지를 아니하고 자기 아내를 내어보내어 타협 교섭한 일도 있었나이다.

“하여간 당분간은 봉천으로 가서 있게 하자.”

“C를 한 번 만나보고 결정해야겠소.”

“일이 이만치 되고 K와 절연이 된 이상 C와 연(緣)을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별말 말아라. K가 지금 체면상 어찌지를 못하여 그리하는 것이니까 봉천 가서 있으면 저도 생각이 있겠지.”

이때 두어 친구는 절대로 서울 떠나는 것을 반대하였나이다. 그는 서울 안에 돈 있는 독신 여자가 많아 K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었사되다. 형은 이렇게 말하였다.

“다른 여자를 얻는다면 K의 인격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 운명

에 맡기고 가자, 가.”

봉천으로 갔었나이다. 나는 진정할 수 없었나이다. 물론 그림은 그릴 수 없었고 그대로 소일할 수도 없었나이다. 나는 내 과거 생활을 알기 위하여 초고(草稿)해 두었던 원고를 정리하였사외다. 그 중에 모성(母性)에 대한 글, 부부 생활에 대한 글, 애인을 추억하는 글, 자살에 대한 글, 지금 당할 모든 것을 예언한 것같이 되었나이다. 그리하여 전에 생각하였던 바를 미루어 마음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외다. 한 달이 못되어 밀고 편지가 왔었나이다.

“K는 여편네를 얻었소. 아이도 데려간다 하오.”

아직도 설마 수속까지 하였으랴, 사회 체면만 면하면 화해가 되겠지 하고 믿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사외다. 형이 들어왔소이다.

“너 왜 밥도 안먹고 그러니?”

“이것 좀 보오.”

편지를 보였다. 형은 보고 비소(鼻笑:코웃음)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이지. 위인(爲人)은 다 알았다. 그까짓 것 단념해버리고 그림하고나 살아라. 걸작이 나올지 아니?”

“나는 가보아야겠소.”

“어디로?”

“서울로 해서 동래까지.”

“다 끝난 일을 가보면 무얼 해, 치소(恥笑)받을 뿐이지.”

“그러나 사람이 되어서 그럴 수가 있소? 생활비 한 푼 아니 주고 이혼이 무어요.”

“2개년(원문은 2개월) 간 별거 생활 하자는 서약은 어찌된 모양이야?”

“그것도 제 맘대로 취소한 것이지.”

“그놈, 미쳤군 미쳤어.”

“나는 가서 생활비 청구를 하겠소. 아니 내가 번 것을 찾겠소.”

“그러면 가보되 진중히 일을 해야 네 치소를 면한다.”

나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경성 역에 내리니 전보를 받은 T가 나왔습니다. T의 집으로 들어가 우선 씨의 여관 주인을 청했습니다. 나는 씨의 행동이 씨 혼자 행동이 아니라 여관 주인을 위시하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충동인 것을 안 까닭이었나이다.

“여보셔요.”

“예.”

“친구의 가정이 불행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행복 된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물으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혀 몰랐더니 하루는 짐을 가지고 나갑디다.”

“나도 그 여자 잘 아오. 며칠 살겠소.”

T는 말한다.

나는 두어 친구로 동반하여 북미창정(北米倉町:현재의 서울 중구 북창동) 씨의 살림집을 향하여 갔었습니다. 나는 밖에 섰으려니까 씨가 우쭐우쭐 오더니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앞을 지나갑니다.

“여보, 찻집에 들어가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살 도리를 차려주어야 아니하겠소.”

“내가 아나. C더러 살려 달래지.”

“남의 걱정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하소.”

“나는 몰라.”

나는 그 길로 부청(府廳)으로 가서 복적(復籍) 수속을 물어가지고 용지를 가지고 사무실로 갔었나이다.

“여보, 복적해 주오.”

“이게 무슨 소리야.”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갱생하여 삽시다. 당신도 파멸이요, 나도 파멸이요, 두 사람에게 속한 다른 생명까지도 파멸이요.”

“왜 그래.”

“차차 살아보오. 당신 고통이 내 고통보다 심하리다.”

“누가 그런 걱정하래?”

홀쩍 나가버린다.

그 이튿날이외다. 나는 씨를 찾아 사무실로 갔사외다. 씨는 마침 점심을 먹으러 자택으로 향하는 길이었나이다.

“다점(茶店)에 들어가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씨는 아무 말 없이 달음질을 하여 그 집 문으로 쑥 들어섰나이다. 나도 부지불각중 들어섰나이다. 뒤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섰나이다. 여편네는 세간 걸레질을 치다가,

“누구요?”

한다. 세 사람은 마주 쳐다보고 앉았다.

“영감을 많이 위해준다니 고맙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려던 것이 아니라 다점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겠더니 그냥 오기에 쫓아온 것이요.”

“길에서 많이 뵈 것 같은데요.”

“그런지도 모르지요.”

“내가 오늘 온 것은 이같이 속히 끝날 줄은 몰랐소. 이왕 이렇게 된 이

상 나도 살 도리를 차려주어야 할 것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집에서 살겠소. 인사 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차리겠소?”

씨는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나이다. 나와 여편네와 담화가 시작되었나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यो?”

“그야 내게 물을 것 무엇 있소. 알뜰한 남편에게 다 들었겠소.”

“그래,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으니까 살기야 걱정 없겠지요.”

“지팡이 없이 일어서는 장사가 있답디까?”

“나도 팔자가 사나워서 두 계집 노릇도 해보았소마는 어린 것들이 있어 오죽 마음이 상하리까. 어린 것들을 보고 싶을 때는 어느 때든지 보러 오시지요.”

“그야 내 마음대로 할 것ियो.”

“저 남산 꼭대기 소나무가 얼마나 고상해 보이겠소마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보면 마찬가지로 먼지도 있고 흙도 있을 것ियो.”

“그 말씀은 내가 남의 첩으로 있다가 본처로 되어도 일반이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마음대로 해석하구려.”

씨가 다시 들어왔나이다. 세 사람은 다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시작되었나이다.

이때 어느 친구가 들어왔나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 화해시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나이다.

“무엇들을 그러시오.”

“둘이 번 재산을 나눠 갖자는 말이외다.”

“그 문제는 내게 일임하고 R선생은 나와 같이 나갑시다. 가시지요.”

나는 더 있어야 별 수 없을 듯하여 핑계삼아 일어섰나이다. 씨와 저녁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하였나이다.

나는 그 이튿날 동래로 내려갔사외다. 나는 기회를 타서 네 아이를 끼고 바다에 몸을 던질 결심이었나이다. 내 태도가 이상하였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눈치를 채고 아이들을 끼고 듭니다. 기회를 탈래도 탈 수가 없었나이다. 또다시 짐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가두었던 장문을 열었나이다. 반이 쑥 들어간 것을 볼 때 깜짝 놀랐나이다.

“이 장문을 누가 결쇠질(제 짝이 아닌 대용 열쇠로 여는 일)을 했어요.”

“나는 모른다. 저번에 아범이 와서 열어보더라.”

“그래, 여기 있던 물건은 다 어쨌어요.”

“안방에 갖다 두었다.”

“그것은 다 이리 내놓으시오.”

여편네들 허끝에 놀아 잠근 장을 결쇠질하여 중요 물품을 꺼낸 씨의 심사를 밋다고 할까 분하다고 할까. 나는 마음을 녹여서 생각하였나이다. 역시 몰상식하고 몰인정한 태도이외다. 그만치 그가 쓸데없이 약아지고 그만치 그가 경제상 핍박을 당한 것을 불쌍히 생각하였나이다. 다시 최후의 출가를 결심하고 경성으로 향하였나이다. 황망(荒茫:거칠고 넓음)한 사막에 섰는 외로운 몸이었나이다.

• 어디로 향할까

모성애를 고수해 보려고 갖은 애를 썼나이다. 이 점으로 보아 양심에 부끄러울 아무 것도 없었나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나이다. 죽는 일은 쉽사외다.

한 번 결심만 하면 뒤는 극락이외다. 그러나 내 사명이 무엇이 있는 것 같사외다. 없는 길을 찾는 것이 내 힘ियो 없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내 힘이었나이다.

역경에 처한 자의 요령은 노력이외다. 근면이외다. 번민만 하고 있는 동안은 타임은 가고 그 타임은 절망과 파멸밖에 갖다주는 것이 없나이다. 나는 우선 제전(帝展)에 입선될 희망을 만들었나이다. 그림을 팔고 있는 것을 전당하여 금강산행을 하였나이다. 구 만물상 만상정에서 1시간 지내는 동안 대소품(大小品) 20개를 얻었나이다. 여기서 우연히 아베 요시에(阿部充家:1910년대에는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의 사장을 지냈고 1920년대에는 사이토우 총독의 참모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언론 및 문화 정책에 깊숙이 간여했던 인물이다) 씨와 박희도(朴熙道:1889~1951,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 뒤에 친일함)씨를 만났사외다.

“아, 이게 웬일이요.”

박희도 씨는 나를 보고 놀랐사외다.

“센세이 고코니 아르사가 오리마스요(선생 여기에 R씨가 있군요).”

아베 씨는 우리 방 문지방에 걸터앉으며 유심히 내 얼굴을 쳐다보았나이다.

“고히토리데(혼자이십니까)?”

“이치닌 모노가 이치닌 테이루노가 아다리마에자이리마생카(혼자 몸이 홀로 있는게 당연하잖아요).”

“이키마쇼우(갑니다).”

씨는 강한 어조로 동정에 넘치는 말이었사외다.

“아스마테 데키아가루 에가 아리마스카(내일까지 완성될 그림이 있으

니 내일 저녁 때 내려가죠.”

“데와 호테루데 맛데이리마스(그럼 호텔에서 기다리죠).”

“나니토소(아무쪼록).”

씨는 한 발을 질질 끌며 의자에 앉았사외다. 타고 다니는 의자에.

“닌겐모 고우닛차 시마이데스네(인간도 이쯤 되면 끝장이지).”

“센세이 도우 이다시마시테(선생도 별 말씀을).”

그 이튿날 호텔에서 만나도록 이야기하고 금번 압록강 상류 일주 일행 중에 참가되도록 이야기가 진행되었었다. 그 이튿날 양씨는 주을(朱乙) 온천으로 가시고 나는 고성 해금강으로 갔었다. 고성군수 부인이 동경 유학시 친구이었던 관계상 그의 사택에 가서 성찬(盛饌)으로 잘 놀고 해금강에서 역시 아는 친구를 만나 생복(生鰯)을 많이 얻어 먹었다.

북청(北靑)으로 가서 일행을 만나 해산진으로 향하였나이다. 후기령(厚岐嶺) 경색(景色)은 마치 한 폭의 남화(南畵)이었나이다. 일행 중 아베 씨, 박영철(朴榮喆:1879년 생,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대에 강원도지사와 함경북도지사를 지낸 조선인 출신 최고위 총독부 관료의 한 사람) 씨, 두 분이 제서서 처처에 환영이며 연회는 성대하였나이다. 신갈포(新架浦)로 압록강 상류를 일주하는 광경은 형언할 수 없이 좋았었다. 일행은 신의주를 거쳐 경성으로 향하고 나는 봉천으로 향하였나이다. 거기서 그림 전람회를 하고 대련(大蓮)까지 갔다 왔었다. 그 길로 동경행을 차렸나이다. 대구서 아베 씨를 만나 경주 구경을 하고, 진영(進永)으로 가서 박간(泊間) 농장을 구경하고 자동차로 통도사, 범어사를 지나 동래를 거쳐 부산에 도착하여 연락선을 탔나이다.

동경역에는 C가 출영하였었다. 그는 의외에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놀랐사외다.

파리에서 그린, 내게는 걸작이라고 할 만한 「정원(庭園)」을 제전에 출품하였었다이다. 하룻 밤은 입선이 되리라 하여 기뻐서 잠을 못 자고 하룻 밤은 낙석이 되리라 하여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잤나이다. 1,224점 중 200점 선출에 입선이 되었었다이다. 너무 기쁨에 넘쳐 전신이 떨렸사외다. 신문 사진반은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한 뉴스가 되어 동경 일판을 뒤떨들었사외다. 이로 인하여 나는 면목이 섰고 내 일신의 생계가 생겼나이다.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힘을 가지고 납니다. 그 힘을 사람은 어느 시기에 가서 자각합니다. 아무라도 한 번이나 두 번은 다 자기 힘을 자각합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힘을 의식하였나이다. 그때에 나는 펍 행복스러웠사외다. 아, 아베 씨는 내가 갱생하는데 은인이외다. 정신상으로나 물질상 얼마나 힘을 써 주었지 그 은혜를 잊을 길이 없사외다.

· 모성애

기백만 인(人) 여성이 기천 년 전 옛날부터 자식을 낳아 길렀다. 이와 동시에 본능적으로 맹목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무조건으로 자식을 위하여 바쳐왔나이다. 이는 여성으로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한 도덕이었고 한 의무이었고 이보다 이상되는 천직이 없었나이다. 그러므로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은 상대적이요, 보수(報酬)적이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은 절대적이요, 무보수적이요, 희생적이외다. 그리하여 최고 존귀한 것은 모성애가 되고 말았사외다. 많은 여성은 자기가 가진 이 모성애로 인하여 얼마나 만족을 느꼈으며 행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

나 때로는 이 모성애에 얽매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비참한 운명 속에서 울고 있는 여성도 불소하외다. 그러면 이 모성애는 여성에게 최고 행복인 동시에 최고 불행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자기 개성을 잃고 살 때, 모든 생활 보장을 남자에게 받을 때 무한히 편하였고 행복스러웠나이다마는, 여자도 인권을 주장하고 개성을 발휘하려고 하며, 남자만 믿고 있지 못할 생활전선에 나서게 된 금일에는 무한히 고통이요, 불행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외다.

나는 어느덧 네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말아쌌외다. 그러나 내가 애를 쓰고 아이를 배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 먹여 기르는 것은 큰 사실이외다. 내가 「모(母)」된 감상기(感想記) 중에 “자식의 의미는 단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에 있다”고 하였사외다. 과연 하나 기르고 둘 기르는 동안 지금까지의 애인에게서나 친구에게서 맛보지 못하는 애정을 느끼게 되었었나이다. 구미 만유하고 온 후로는 자식에게 대한 이상이 서있게 되었었나이다. 아이들의 개성이 눈에 띄이고 그들의 앞길을 지도할 자신이 생겼었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길러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굴복하고 사죄하고 화해를 요구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구려.

· 금욕생활

야반(夜半:한밤중)에 눈이 뜨이면 허공의 구석으로부터 일진의 바람이 어디선지 모르게 불어 들어옵니다. 그때 고적(孤寂)이 가슴속에 퍼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끼는 고적은 아픈 것은 있었으나 해될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적은 독초 가시에 찢리는 자국의

아픔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그 뒤는 고적입니다.

나는 소위 정조를 고수한다는 것보다 재혼하기까지는 중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외다. 즉 내 마음 하나를 잊지 말자는 것이외다. 나는 이미 중실(中實)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중심까지 잃는 날은 내 전정은 파멸이외다. 오직 중심 하나를 붙잡기 위하여 절대 금욕생활을 하여 왔사외다.

남녀를 물론하고 임신 시기에 있어는 금욕생활이 용이한 일이 아니외다. 나도 이때만은 태몽을 꾸면서 고통으로 지냈나이다.

나는 처녀와 같고 과부와 같은 심리를 가질 때가 종종 있나이다. 그리고 독신자에게는 이러한 경구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할까, 한 사람에게도 허락지 말까.”

이성(異性)의 사랑은 무섭다. 사람의 정열이 무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단계의 수은이 백 도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저하하듯이 사랑의 초점을 백 도라 치면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하하는 것이외다. 그리하여 열정이 고상할 시(時)는 상대자의 행동이 미화(美化), 선화(善化)하나, 저하할 시는 여지없이 추화(醜化) 악화(惡化)해지는 것이외다. 나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움돋을만 하면 딱 부질러 버립니다. 나는 그 저하한 뒤 고적을 무서워함입니다. 싫어함입니다. 이번이야말로 다시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 날은 갈 곳없이 사지(死地)로 밖에 돌아갈 길이 없는 까닭입니다. 아, 무서운 것!

적막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무의미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깊은 감각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굴러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은택입은 사람입니다. 적막에서 돌

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일는지 모릅니다.

아, 사람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타임의 1일은 짧으나 그 타임의 계속한 1년이나 2년은 깁니다.

· 이혼 후 소감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모르고 태어난 것 같사외다. 이 인생 됴이 더 추하고 비참한 것이요, 더 절망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원망치 아니합니다. 지금 나는 죽어도 살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외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참으로 살렸는지 아니하였는지 봅니다. 나는 자기를 참으로 살릴 때는 죽음이 무섭지 않사외다. 다만 자기를 다 살리지 못하였을 때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고로 죽음의 공포를 깨달을 때마다 자기의 부덕함을 통절히 느낍니다.

나는 자기를 천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동시에 타인을 원망하기 전에 자기를 반성하고 싶습니다. 자기 내심에 천박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고 고치지 않고는 있지 못하는 사람은 인류의 보물이외다. 이러한 사람은 벌써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잊고 좋은 씨를 이르는 곳마다 펼치어 사람 마음의 양식이 되는 자외다. 즉 공자나 석가나 예수와 같은 사람이외다. 태양은 만물을 뜨겁게 아니하려도 자연 덥게 만듭니다. 아무런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비추는 재료로 화해 버립니다. 바다는 아무리 더러운 것이 뜨더라도 자체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우와 처지를 생각해보자 그때 거기에서 자기를 찾습니

다.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을 먼저 자기를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내심의 자기도 모르는 정말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기를 찾아내는 것이 사람 일생의 일거립니다. 즉 자아발견이외다.

사람은 쓸데없는 격식과 세간의 체면과 반쯤 아는 학문의 속박을 많이 받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이외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지위외다. 가지면 가지니 만치 음기(陰氣)로 되는 것이 학문이외다. 사람의 행복은 부(富)를 득(得)한 때도 아니요, 이름을 얻은 때도 아니요, 어떤 일에 일념(一念)이 되었을 때외다. 일념이 된 순간에 사람은 전신(全身) 세청(洗淸:깨끗이 씻음)한 행복을 깨닫습니다. 즉 예술적 기분을 깨닫는 때외다.

인생은 고통, 그것일는지 모릅니다. 고통은 인생의 사실이외다. 인생의 운명은 고통이외다. 일생을 두고 고병(苦病)을 깊이 맛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통을 명확히 사람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범인은 고통의 지배를 받고, 천재는 죽음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어 영광과 권위를 취해낼만한 살 방침을 차립니다. 이는 고통과 쾌락 이상 자기에게 사명이 있는 까닭이외다. 그리하여 최후는 고통 이상의 것을 만들고 맙니다.

번뇌 중에서도 일의 시초를 지어 잇는다.

내 갈 길은 내가 찾아 얻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운명이 어찌될지 모릅니다. 속 마디를 지은 운명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운명의 철쇄(鐵鎖)이외다. 그러나 너무 비참한 운명은 왕왕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반역(叛逆)케 합니다. 나는 거의 재기할 기분이 없을 만치 때리고 욕하고 저주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

나 나는 필경은 같은 운명의 줄에 얽히어 없어질지라도 필사의 쟁투에 끌리고 애태우고 괴로워하면서 재기하려 합니다.

• 조선 사회의 인심

우리가 구미만유하기까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였다마는 갔다와서 보니 전에 비하여 일반 레벨이 훨씬 높아진 것이 완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식계급이 많아진 동시에 생존경쟁이 우심(尤甚)하여졌습니다. 생활전선에 선 이천만민중은 저축 없고 직업 없고 실력 없이 살 길에 헤매어, 할 수 없이 오사카로, 만주로 남부여대하여 가는 자가 불소(不少)하되다. 과연 조선도 이제는 돈이 있든지 실력, 즉 재주가 있든지 하여야만 살게 되었사외다.

사상상으로 보면 국제적 인물이 통행하는 관계상 각 방면의 주의(主義) 사상(思想)이 수입하게 됩니다. 이에 좁게 알고 널리 보지 못한 사람으로 그 요령을 취득하기에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비빔밥을 그냥 먹을 뿐이요, 그 중에서 맛을 취할 줄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주의에서 놀다가 내일은 저 주의에서 놀게 되고, 오늘은 이 사람과 친했다가 내일은 저 사람과 친하게 됩니다. 일정한 주의가 확립치 못하고 고립(固立)한 인생관이 서지를 못하여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시일을 보내고 맙니다. 이는 대개 정치 방면에 길이 막히고 경제에 얽매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관계도 있겠지만 너무 산만적이 되고 말았나이다.

조선의 유식계급 남자 사회는 불쌍합니다. 제일 무대인 정치 방면에 길이 막히고, 배우고 쌓은 학문은 용도가 없어지고, 이 이론 저 이론 말해

야 이해해 줄 사회가 못되고, 그나마 사랑에나 살아볼까 하나 가족제도에 얽매인 가정 몰이해한 처자로 하여 눈살이 찌푸러지고 생활이 산산스러울 뿐입니다. 애매한 요릿집에나 출입하며 죄 없는 술에 투정을 다하고 몰상식한 기생을 품고 즐기나 그도 역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리 가보면 나올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나올까 하나 남은 것은 오직 고적뿐입니다.

유식계급 여자, 즉 신여성도 불쌍하외다. 아직도 봉건시대 가족제도 밑에서 자라나고 시집가고 살림하는 그들의 내용의 복잡이란 말할 수 없이 난국이외다. 반쯤 아는 학문이 신구식의 조화를 잃게 할 뿐이요, 음기를 돈을 뿐이외다. 그래도 그대들은 대학에서 전문에서 인생 철학을 배우고 서양에나 동경에서 그들의 가정을 구경하지 아니 하였는가. 마음과 뜻은 하늘에 있고 몸과 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달콤한 사랑으로 결혼하였으나 너는 너요 나는 나대로 놀게 되니 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찬 걱정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급기 신경과민, 신경쇠약에 걸려 독신 여자를 부러워하고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을 보통 약자라 하나 결국 강자이며, 여성을 작다 하나 위대한 것은 여성이외다. 행복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있는 것이외다. 가정을 지배하고 남편을 지배하고 자식을 지배한 나머지에 사회까지 지배하소서. 최후 승리는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 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서양에나 동경 사람쯤 하더라도 내가 정조 관념이 없으면 남의 정조 관념이 없는 것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남의 정조를 유인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해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종종 방종한 여성

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쾌락을 맛보면서 간접으로 말살시키고 저작(咀嚼)시키는 일이 불소하되다. 이 어이한 미개명의 부도덕이나.

조선 일반 인심은 과도기인 만치 탁 터 나가지를 못하면서 내심으로는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에 얽매여 움치고 뛸 수 없으니 지글지글 끓는 감정을 풀 곳이 없다가 누가 앞을 서는 사람이 있으면 가부를 막론하고 비난하며, 그들에게 확실한 인생관이 없는 만치 사물에 해결이 없으며, 동정과 이해가 없이 형세 닿는 대로 이리 긋기고 저리 긋기게 됩니다. 무슨 방침을 세워서라도 구해줄 생각은 소호(小毫)도 없이 마치 연극이나 활동사진 구경하듯이 재미스러워하고 비소(鼻笑)하고 질타하여 일껏 선안(先眼)에 착심(着心:마음을 둠)하였던 유망한 청년으로 하여금 위축을 불구자를 만드는 것 아닌가. 보라 구미 각국에서는 돌비한 행동하는 자를 유행을 삼아 그것을 장려하고 그것을 인재라 하며 그것을 천재라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앞을 다투어 창작물을 내나니, 이리므로 일진월보(日進月步)의 사회의 진보가 보이지 않는가. 조선은 어떠한가? 조금만 변한 행동을 하면 곧 말살시켜 재기치 못하게 하나니 고금의 예를 보아라. 천재는 당시 풍속 습관의 만족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차대(次代)를 주축할 수 있고 창작해낼 수 있나니 변동이 행하는 자를 어찌 경솔히 볼까보냐. 가공(可恐)할 것은 천재의 싹을 분질러놓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조선 사회에는 금후로는 제1선에 나서 활동하는 사람도 필요하거니와 제2선, 제3선에 처하여 유망한 청년으로 역경에 처하였을 때 그 길을 틈워주는 원조자가 있어야 할 것이요, 사물의 원인 동기를 심찰하여 쓸데 없는 도덕과 법률로써 재판하여 큰 죄인을 만들지 않는 이해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정구 씨에게

씨여, 이만하면 떨어져 있는 동안 내 생각을 알겠고 변동된 내 생활을 알겠사외다. 그러니 여보셔요, 아직까지도 나는 내게 적당한 행복 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였어요. 씨와 동거하면서 때때로 의사(意思) 충돌을 하며 아이들과 살림살이에 엉뚱뚱 시일을 보내는 것이 행복스러웠을는지, 또는 방랑생활로 나서 스케치 박스를 메고 캔버스에 그림 그리고 다니는 이 생활이 행복스러울지 모르겠소. 그러나 인생은 가정만도 이생이 아니요, 예술만도 인생이 아니외다. 이것저것 합한 것이 인생이외다. 마치 수소와 산소와 합한 것이 물인 것과 같이. 여보셔요, 내 주의는 이러해요. 사람 중에는 보통으로 사는 사람과 보통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보통 이상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사람 이상의 정력과 개성을 가진 자외다. 더구나 근대인의 이상은 남의 하는 일을 다하고 남는 정력으로 자기 가진 자외다. 더구나 근대인의 이상은 남의 하는 일을 다하고 남는 정력으로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최고 이상일 것이외다. 그는 이론뿐이 아니라 실례(實例)가 많으니 위인 걸사(傑士)들의 생활은 그러하외다. 즉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가 고금(古今)이 다를 것 없나이다. 나는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10년 가정 생활에 내 일을 계속해왔고 자금(自今)으로도 실행할 자신이 있던 것이외다. 그러므로 부분적이 내 생활행복이 될 리 만무하고, 종합적이라야 정말 내가 요구하는 행복의 길일 것이외다. 이 이상을 파괴케 됨은 어찌 유감이 아니리카.

감정의 순환기가 10년이라 하면, 싫었던 사람이 좋아도 지고 좋았던 사람이 싫어도 지며, 친했던 사람이 멀어도 지고 멀었던 사람이 친해도

지며, 선한 사람이 악해도 지고 악했던 사람이 선해도 지나이다. 씨의 10년 후 감정은 어떻게 될까. 이상에도 말하였거니와 부부는 세 시기를 지나야 정말 부부생활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그대의 장저 단처를 다 알고 씨는 나의 장치 단처를 다 아는 이상 상호 보조하여 살아갈 우리가 아니었던가.

하여간 이상 몇 가지 주의(主義)로 이혼은 내 본의가 아니요, 씨의 강청(強請)이었나이다. 나는 무저항적으로 양보한 것이니 천만 번 생각해도 우리 처지로 우리 인격을 통일치 못하고 우리 생활을 통일치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울러 바라는 바는 80 노모(老母)의 여생을 편하게 하고, 네 아이의 양육을 충분히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씨의 건강을 바라나이다.

1934년 8월

『삼천리』(1934. 8~9)

3. 나혜석이 사랑한 그 남자

나혜석은 진정 누구를 사랑했나!

나혜석에게는 네 명의 남성이 사랑의 범주 안으로 들어왔다. 소월 최승구, 이광수, 김우영, 최린. 그 사랑의 명분 혹은 진위를 따라가 보자. 나혜석의 사랑 규명은 윤범모와 정규웅과 이상경의 글을 토대로 추적해 감을 미리 밝힌다.

1) 첫사랑이여, 영원하라 - 최승구

나혜석의 첫 사랑, 첫 남자는 요절한 소월 최승구이다. 나혜석이 도쿄 유학시절 만난 최승구(1892~1916)는 보성중학교를 거쳐 도쿄 게이오 대학에서 수학한 유학청년이다. 최승구는 나혜석의 첫 남자라는 이유보다 우리 국문학사에서 더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문학적 재능을 가진 자로서, 유학시절 유학생들의 학우회 기관지인 『학지광』의 편집을 맡기도 했으면 살아 있는 동안 많은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최승구는 『학지광』에 혁명적인 글을 많이 실었다. 특히 식민지 해방과 계급해방을 언급했으며 농촌 자립을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최승구의 대표시「별지엄의 용사」(소월, 『학지광』4호, 1915)를 감상하여보자.

산악이라도 뺄개지는
대포의 탄알에
너의 아기씨는
별써 쇠골이 되었고

야수보다도 포악한
게르만의 전사에게
너의 애처는
지옥으로 죽었다.

이제는 사랑하던
가족도 없어졌고
너조차 도망할
길을 잃어버렸다.

배불러도 더 찾는
욕심꾸러기에게
너의 재산을
다 바쳐도 부족이다.

정의를 없어졌거든
평화가 있을게냐
다만 저들의
꿈속의 농담이다.

너, 자아 이외에는
야심 많은 적뿐이요
패배는 너의 정부
약한 까닭뿐이다.

벨지엄의 용사여!
최후까지 싸울 뿐이다!
너의 입에
부러진 창이 그저 있다.

벨지엄의 용사여!
벨지엄은 너의 것이다!
네 것이면
꼭 잡아라!

벨지엄의 용사여!
너의 뼈대는 너의 것이다!
너, 인생이면
권위를 드러내거라!

벨지엄의 용사여!
장구를 부등키고 일어나거라!
너의 피 고이는 곳에
벨지엄의 자손 불어나리라.

벨지엄의 히로여!
너의 몸 쓰러지는 곳에
거 누구가 월계관을
들고 섰을이라.

게르만의 침략을 당한 벨지엄의 용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시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식민지 상황을 연상케 하는 시이다. 최승구의 이러한 민족의식에 입각한 시는 나혜석의 민족의식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최승구가 죽기 1년 전에 쓴 위 시는 피압박 민족의 처지, 우리의 처지를 잘 표현한 시이다. 그리고 이 시를 일본 유학시절에, 일본 유학생들의 기관지인 『학지광』에 실은 것을 볼 때, 그의 민족주의 의식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최승구의 마지막 발표작 한 편, 「긴숙시」(『근대사조』1916.1)을 더 감상해 보자.

“저의 보는 바 지금의 사막은 전의 사막이 아니다. 전에는 옥토였었다.
광명이 찬란하던 붉은 토지였었다. 지금의 사막은 본래의 옥토였었다.

한것이려니 맹렬한 광풍에 당하여 지금에 있는 독기 있는 모래로 덮였다.
북으로부터는 고비의 모래가 삭풍에 몰리어 남으로부터는 사하라의 모래가 쌓이어 왔음이다. 허나 그 심도는 한 길에 불과하다. 그 밑은 옥토다.

옥토는 의연히 전개하였다. 영원한 옥토가 꽃 뿌리와 향기와 원천도 그대로 사려 있고 맑은 물살은 그대로 스며 흐른다. 한 길의 모래만 파서 헤치면 그리워하는 영원한 옥토가 거기서 드러날 것이다.

저는 또 부르짖는다. ‘너희들이여! 파거라. 그 독기 있는 모래를 파거라. 헤치거라. 그 모래를 헤치거라. 너희들의 뜨거운 눈물과 짜거운 땀과 보배로운 피를 짜내서 그 모래를 적시어라. 파거라. 헤치거라.

하면 너희들의 주인 영원한 옥토가 보일 것이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새 싹이 나올 것이다. 맑은 샘물이 솟을 것이다. 오 그대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거라.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위 시는 기름진 옥토가 광풍에 휩쓸려 사막으로 변해 황폐화한 고향의 비참한 처지를 시화한 것이다. 즉 식민지하 조국의 황폐함을 은유한 것이다. 1910년대 나라를 잃은 설움에 앞서 동녘 새벽빛을 기대한다는 것은 최승구의 민족의식이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위 시는 최승구의 마지막 시이다.

이와 같이 민족의식과 문학적 감각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최승구를 사랑한 나혜석, 나혜석을 사랑한 최승구의 사이는 각별하였지만 비극적이었다. 최승구는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의 절친한 친구이다. 나혜석의 행로에서 오빠 나경석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나경석의 절친한 친구이니 나혜석과 최승구의 만남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최승구가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라는 사실이다. 당대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조혼을 했던 것이다. 양가 부모님에 의해 조혼을 한 상태, 그러나 그가 사랑한 여자는 나혜석...이것이 바로 사랑을 불꽃으로, 비극으로 이끄는 전제 조건이 아니면 무엇이랴. 고향의 어른들께서는 소실을 들이는 것은 무방하나 이혼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최승구와 나혜석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그러나 현실은 나혜석에게는 소실만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난항 속에서도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최승구의 폐

결핵이다.

최승구는 형 최승철이 군수로 재직하던 전남 고흥군의 관사에서 요양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의 동생 최승만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병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줄로 안다. 하나는 학비가 넉넉지 못하여 늘 불안 중에 지냈던 것이요. 또 하나는 결혼 문제로 늘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최승구의 악화의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문제, 이는 바로 나혜석의 문제이다. 나혜석과 결혼을 하고 싶으나, 현재 자신은 조혼한 여인이 있는 상태이다. 비록 사랑하거나 잠자리를 즐겨하지 않았을지라도 부인인 충주댁이 존재한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즉시 충주색시와 결혼했다. 그때의 일이라 물론 자기의 의사대로 된 결혼이 아니요, 부형들의 의향에 쫓아 이루어진 혼인이다. 나도 혼인때 보았지마는 승구 형님의 마음에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신부는 몸도 너무 크고 얼굴도 몹시 커서 날씬한 미남자인 승구 형님으로서 는 마음에 들 리가 없을 것이다. 식만 올렸을 뿐 몇 해를 신부 방에 들어가 본 일이 없었으나 부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최승구의 결혼은 양가에 의한 조혼이었을 뿐, 최승구의 사랑조건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사랑에 합당한 나혜석이 나타났으니 최승구의 열애와 고민은 증척되었을 것이다.

형님은 곱게 생긴 얼굴에 재주도 많았다. 한문 실력, 글씨 잘 쓰는 것,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없었다. 많은 로맨스가 있었지마는 나중

에 나혜석양과는 꿈을 수 없는 연정을 갖게 된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차라리 소실을 둔다는 것은 무방하나 남의 처녀를 데려다가 일생을 박대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니 하물며 이혼이란 말은 낼 수가 없었다. 마음은 상할 것이요, 병은 더 깊어갔을 것이다.

나혜석은 소실감박에 될 수가 없는 처지였으나 그녀와 이미 혼약을 한 상태이고, 전처와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으니 최승구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던 것이다.

나혜석은 일본 유학도중 요양생활 중인 최승구를 찾아가게 된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발생한다. 나혜석의 방문 다음 날 최승구가 세상을 등지고 만다. 최승만의 증언을 들어보자.

그런데 별안간 웬 일본 옷 입은 젊은 색시가 문간에 왔다는 말을 내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즉시 나가보니 형님이 그리워하는 나혜석양이 아닌가. 애인의 병을 간호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으로 알았다. 일본 도쿄서 재학중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온 모양이다. 나는 말만 들었지 만나보기는 처음이었다. 미인형은 아니나 수수하게 차리고 아무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 펴 좋게 보였다. 나 역시 반가이 맞았다. 형님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형수가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였다. 병세로 보아 소망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하여간 나는 나양을 형님이 누워 계신 방으로 인도한 후 이어 안채로 피하고 말았다.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한나절 있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다시 떠났다. 자기 집으로 갔는지 도쿄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나양이 떠난 후 다음 날인 듯(...)

1916년 4월, 최승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토록 사랑했던 나혜석

의 방문 다음 날 말이다. 이는 나혜석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슴 비통한 사랑의 결말 때문에 그의 결혼 여행지로 최승구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다. 나혜석은 최승구의 사망 1년 뒤 소설 형식으로 「희생한 손녀에게」라는 글을 집필하는데, 이 곳에서 자신의 심정을 밝힌다.

내가 주야로 마음이 아파서 애를 쓰고 가슴을 치며 후회한 것은 ‘내가 왜 그 친구를 위하여 공부를 폐지하고 철야하여 간호를 못하였던구’ 함이었다. ‘내 정성을 다하여 그 친구에게 위안을 주었더라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으리라’ 함이었다. 내가 곤히 자다가도 깜짝 놀라 깨면 먼저 내 뇌를 때리며 내 살을 찌르는 것은 내게 이러한 유한이 있음이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벌써 나와는 딴 세계 사람이라. 내가 아무리 안아 보고 싶어도 안을 수도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도 없다.

또한 나혜석은 김우영과 이혼 후 독거 생활 중 최승구에 대한 추억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슬퍼. 아아. 슬퍼. 해가 가고 날이 가니 슬픈가. 그 얼굴 그 몸이 재 되고 물 되어 가는 것이 슬픈가. 그 세계와 내 세계의 거리가 멀리 갈수록 그는 점점 냉정해가고 나는 점점 열중해가는 것이 슬프다.(...)

아, 그는 나를 버리고 갔다. 그가 내게 모든 풍파를 안겨주고 멀리 멀리 가버린 때가 이 봄밤이다. 내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린다.(...) 아아! 소월아! 소월아!

거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이다. 먼저 간 첫 사랑에 대한 절규, 그것이 바로 나혜석과 최승구와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2) 믿지 못할 그이 - 이광수

첫사랑 최승구를 떠나보내고 나혜석은 심신이 고단했었다. 그 사이에 한 남자, 춘원 이광수가 다가왔다. 이광수는 당시 소문난 천재, 유명한 문사, 미남으로 유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그러한 이광수가 조선 여자유학생친목회에 전영택과 함께 고문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다. 이 친목회의 여성회원 가운데 나혜석과 허영숙이 있었던 것이다.



여성들 사이에서의 인기있는 이광수, 세련되고 재치있는 나혜석 사이에는 소문이 형성되고 있었다. 화가 이종우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때 그의 마음은 다정다감한 문학청년이요,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춘원에게로 쏠려 있었다. 연애의 소질을 남달리 타고난 두 남녀는 아무 것도 거리낄 게 없었다.(중략) 나여사는 키도 보통이고 미모가 아니다. 다만 세련된

자태요, 재기가 넘치는 얼굴이다. 성격이 활발하기는 당시의 다른 여성들이 흉내를 못 낼 정도, 아주 푹 푹어 있어서 남자들과 대면에 구애받는 것을 못 보았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고 마는 성미였다.

이처럼 미남의 문학청년과 세련된 화가지망생의 만남은 자연스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남의 문학청년 이광수가 나혜석만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허영숙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혜석과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만 찾아오라고 하고, 허영숙에게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오라고 하여 두 사람을 모두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이광수는 허영숙에게 이를 들키고 말았다. 허영숙이 노발대발하자 이광수는 나혜석에게 단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광수의 결핵이었다. 이광수가 병을 얻자 의학공부를 하던 허영숙이 성의를 다하여 병을 고치고 말았던 것이다. 허영숙과 나혜석은 어렸을 때부터 벗이었기에 나혜석은 울면서 단념했다고 한다.

이광수는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과 친한 친구사이였다. 물론 최승구와도 친한 친구 사이였다. 이러한 이광수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나혜석이였다. 전 애인의 절친한 친구, 오빠의 절친한 친구.... 구조가 단조롭지 않은 관계이다. 그런데 더 복잡한 것은 이광수와 허영숙을 소개한 사람이 또한 나혜석이라는 것이다. 나혜석의 소개로 허영숙은 이광수의 하숙집에서 첫 대면을 하였던 것이다.

3) 결혼 그리고 이혼의 운명, 김우영

나혜석의 운명은 왜 그리도 복잡한지 그가 만난 세 번째 남자 역시 오빠 나경석의 절친한 친구이다. 다시 말해서 이 또한 첫사랑 최승구와 안면이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나혜석은 나경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사랑을 했으며 이는 최승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랑을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김우영은 조혼한 부인과 사별한 뒤 3여년 홀로 지내고 있었다. 나혜석이 일본유학 중일 때 김우영도 교토제국대학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나혜석과 김우영이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최승구가 사망한 해의 여름방학 무렵이다. 최승구의 사망이후 나혜석은 심신의 상처가 깊어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는데, 당시에 오빠 나경석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이후 나혜석은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진 김우영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혜석은 여전히 당대 큰 이슈를 만들어 내었다. 김우영과의 결혼식 청첩장을 신문에 광고로 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김우영은 흔쾌히 들어주었다. 더 나아가 나혜석은 김우영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

그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하여주시오.

또한 신혼여행으로 궁촌벽산에 있는 죽은 애인의 묘를 찾아가자고 하였다. 이에 김우영은 최승구의 묘에 찾아가갈 뿐만 아니라 석비까지 세워



김우영

주었다. 이로써 나혜석은 김우영이 자신을 전
생명으로 사랑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생을 두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
연한 이야기이다. 이는 이광수를 무의식 중에
염두에 둔 것인지, 자신이 재취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방
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나혜석의 작가의식, 예
술가적인 면모와 주체로서의 여성이기를 원하
는 세계관의 반영이라 하겠다. 당시로서는 이러
한 요구는 흔한 것은 아니기에 세간에 주목이
될 만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해달라는 것은 그간 유교적인 세
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오
늘날에도 그리 쉽게 허락될 수 없는 조건이라

하겠다. 물론 결혼 이후 이러한 조건들이 잘 지켜졌느냐는 다른 문제이
다. 나혜석이 요구하였고, 당시 김우영은 약조하였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요구는 바로 신혼여행지이다.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여행인데, 죽은 옛 사랑의 묘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
릇이다. 이는 김우영에게 있어서 나혜석이 두 번째 부인이라면, 나혜석
에게 있어서 김우영도 첫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 의도에서라
고 파악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그 묘에 묘비까지 세우고 온 김우영
은 당시로서는 정말 나혜석을 사랑한 남자였던 것 같다. 쉽지 않은 일이
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도 나혜석의 네 번째의 남자 최린에 의해 깨지고

만다. 그렇다면 김우영이 나쁜 것일까 나혜석이 나쁜 것일까. 김우영이 이혼 후 행한 모든 행동은 나혜석 입장에서는 비정하고 냉정했다고 할 수 있다. 허나 나혜석의 외도로 헤어졌다는 전제에서 볼 때 나혜석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4) 영원한 그림자이자 배신자 - 최린

나혜석이 유일하게 나경석 오빠의 그림자 밖에서 만난 남자가 최린이다. 나혜석은 남편 김우영과 함께 세계일주 중,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남자이다. 나혜석이 최린을 만났을 당시 그는 3·1독립운동 당시 민족지도자 33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천도교 대표이기도 했다. 후에는 친일파로 돌아섰지만 나혜석을 만났을 당시에는 민족주의자였다.



최린

화가 이종우 집에서 유학생들의 환영파티에서 최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최린은 48세에 구미 각국의 여행길에 올랐다. 21개국을 돌아보기 위해 떠났다가 프랑스 파리에 잠시 머물렀던 것이다. 그래서 유학생들의 환영파티에 참석하게 되어 나혜석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만남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못했다.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이 독일로 건너가 있는 사이에 최린과 함께 파리 관광뿐만 아니라 깊은 연정에 빠져들었다. 급기야 육체적 관계까지 갖게 되었다.

나혜석에게 있어서 최린은 어떠한 사람일까. 무엇보다도 최승구의 잔

영이었다. 최승구는 당대 멋진 문필가였다. 그런데 최린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혜석은 말년에 고백하였다. 최린은 최승구와 닮은 곳이 많았다. 그래서 마음을 주었던 것이다.

둘째 김우영과의 삶은 안정된 현실이었지만 정신적인 공허함이 있었다. 김우영은 법학도이자 관료로서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품위를 지켜주었지만, 취미가 없어서 나혜석과 함께 나눌 정신세계가 희박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혜석은 늘 외로웠던 차에 취미가 다양하고 박학다식한 최린을 만나자 흠뻑 빠진 것이다. 최린은 문학, 역사,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었고 실제로 미술대회에서 입상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린은 나혜석의 안정된 삶과 정신적인 충만함마저 모두 앗아간 배신자가 되어버렸다. 김우영이 나혜석과 최린의 관계를 알고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이혼을 청구하자 최린은 이광수를 통해서 이혼 후 나혜석의 삶을 책임질 터이니 이혼을 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혜석은 김우영에게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간곡히 사정을 하였다. 앞으로 현모양처가 될 터이니 가정만은 지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린은 간통죄로 고소되면 자신의 명예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혜석을 이혼으로 몰아넣었다. 나혜석은 결국 이혼을 당했으나 최린은 그때부터 나혜석을 내쫓던 것이다.

결국 나혜석은 최린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해 분풀이를 하고자 정조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최린은 친일파로 입장을 변경한 상태라서 일본을 비롯한 각계 권력을 입고 있었기에 나혜석은 분풀이를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세간의 욕을 더 먹게 되었다.



나혜석의 최린 상대 소송기사

이상으로 나혜석 주변의 네 남자를 살펴보았다. 첫사랑 최승구를 비롯하여 첫사랑 이광수, 사랑을 받았지만 나혜석의 외도로 이혼한 김우영, 첫사랑의 그림자이자 배신자 최린까지의 네 남자. 결국 나혜석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인가? 나혜석이 사랑한 남자는 최승구이다. 사랑으로 괴로워한 남자는 최승구 한 명뿐이다. 네 남자와 헤어졌지만 헤어진 대상으로 인해 힘들어 했던 인물은 최승구 한 명뿐이었던 것이다. 최승구와의 이별에서는 신경쇠약에 걸리는 등 나혜석은 고통이 심했다. 이광수와의 이별에는 안타까움의 정도이기에 미약하다. 소문만 무성할 뿐 진지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김우영과의 이혼에서는 김우영과의 헤어짐의 상처가 아니라 아이들과의 헤어짐이 고통을 주었다. 경제적인 빈곤과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점차 시들어가게 했던 것이다. 최린과의 이별은 남성에 대한 환멸, 최승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되새김이 되었다.

나혜석에 여자로서의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흘러진 것이라 하겠다. 이 사랑 앞에서 누가 숭고와 진정성을 논할 수 있을까. 다만

그녀는 당대를 열심히 살아갔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다.

4. 문헌정보

권영민, 『날아간 청조의 꿈-나혜석의 문학과 인간』, 솔피, 1981.

김동욱, 『나혜석-날아간 청조』, 신흥출판사, 1981.

김윤식, 『여성과 문학』, 아세아여성연구, 1968,

김윤주, 「나혜석 문학연구 :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고려대
학교, 2001.

김재용(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김종욱(편), 『나혜석, 날아간 청조』, 신흥출판사, 1981.

김진송, 「최초의 여류서양화가 나혜석, 자유주의의 파탄」, 『역사비평』
1992. 여름.

나혜석, 『이혼고백서』, 오상출판사, 1987. 4.

나혜석, 『나혜석 에세이-백만송이 장미』, 오상출판사, 1997.

노영희, 「나혜석, 그 이상적 부인의 꿈」, 『일본학연구』 2호, 1997.11.

노영희, 「일본 신여성들과 비교해본 나혜석과 신여성과 그 한계」, 『일어일
문학연구』 제32집, 1998.

박금희, 「불꽃으로 살다 얼음으로 간 신각의 에미, '나혜석'」, 『여성중앙』,
1984. 10.

서정자, 「나혜석 연구」, 『문학과 인식』, 박문사, 1988.

서정자, 「나혜석의 저녀작 <부부>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1999.
7.

서정자(편), 『원본 정월 나혜석전집』, 국학자료원, 2001.

신달자, 「1920년대 여류 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0.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 출판, 1999.

안숙원, 「나혜석 소설 <경희>의 재검토」, 나혜석 바로 알기 제1회 국제심포
니엄, 나혜석 기념사업회, 1999. 4. 27.

유진월, 『한국희곡과 여성주의 비평』, 집문당, 1996.
 이경성, 「미의 십자가를 진 여인」, 『예술논문집』 1호, 대한민국예술원, 1958. 9.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 였느니라』, 동화출판사, 1974.
 이명온, 『흘러간 여인상』, 인간사, 1956.
 이상경(편), 『나혜석전집』, 태학사, 2000.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1
 이상현(편저), 『달뜨고 별지면 울고 싶어라』, 국문, 1981.
 정규웅, 『나혜석 평전 : 내 무덤에 꽃 한송이 꽂아주오』, 중앙M&B, 2003.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론』, 지평. 1988.
 최지원, 「나혜석 문학연구 : 경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97.
 편집부, 『한국 역사 속의 여성 인물(하)』, 한국여성개발원. 1998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국문화사. 2000.

5. 작가연보

1896년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신평리 291번지에서 태어남.
 1913년 삼일여학교, 진명여학교 졸업 후, 도쿄 사립여자미술학교 서양학과 선
 과 보통과에 입학.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최초이자 조선인으로서는 네 번째에 해당. 고희동
 (1910년), 김관호(1911년), 김찬영(1912년)
 유학시절 「이상적 부인」 발표.
 1914년 최승구와 깊은 교제.
 1915년 부모님의 결혼 강요로 잠시 휴학.
 1916년 복학.
 4월 최승구 병사. 춘원과의 사귀.
 여름방학 무렵 오빠 나경석의 소개로 김우영과 만남.
 1917년 여성 최초로 소설을 발표. 「부부」

「희생한 소녀에게」집필-최승구의 병사와 관련.

1918년 단편소설 「경희」발표.

1919년 1월 《매일신보》에 만평형식의 그림과 짧은 글을 첨부한 연재물을 발표 및 중단.

3·1운동에 참가. 이화학당 만세사건과 관련하여 일제에 체포되어 5개월간 투옥.

출옥 후 정신여학교 미술교사 역임.

《신여자》창간에 일조.

1920년 4월 김우영과 결혼.

7월 김억, 남궁벽, 염상섭, 오상순, 황석우, 김일엽 등과 함께 《폐허》창간.

1921년 서울 경성일보사 내청각에서 첫 전람회를 개최.

『폐허』에 「넋물」, 「사(砂)」를 발표.

『매일신보』에 「인형의 가(家)」발표.

1922년 【조선미전】에 지속적으로 출품 및 수상. 「봄이 오다」(입선), 「농가」(입선)

문필가로서의 활동도 지속.

1923년 일본 외무성 관리가 된 남편을 따라 만주에 거주.

의열단 사건 당시 의열단 동지인 박기홍의 단총을 몰래 숨겨줌.

【조선미전】 「봉황산」(입선), 「봉황산의 남문」(4등상)

「모(母)된 감상기」를 『동명』에 발표.

1924년 【조선미전】 「가을의 정원」(4등상), 「초하의 오전」(입선)

1925년 【조선미전】 「낭랑묘」(3등상)

1926년 【조선미전】 「지나정(중국인촌)」(입선), 「천후궁」(특선)

1927년 【조선미전】 「봄의 오후」(무감사 입선)

모스크바를 거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세계여행에 떠남.

10월 화가 이중우의 집에서 최린을 만남.

1930년 【조선미전】 「아이들」(입선), 「화가촌」(입선)

1931년 【조선미전】 「정원」(특선, 제12회 【일본제전】 입선), 「작약」(입선)

1932년 【조선미전】 「나부」(입선), 「소녀」(무감사 입선), 「창가에서」(무감사 입선),

「금강산 만상정」(무감사 입선)

1934년 이혼.

【조선미전】에 「정원」출품. 특선 입상.

「이혼고백서」를 『삼천리』에 연재.

1935년 생활비를 벌기위해 전시회를 열었지만 주목받지 못함.

『삼천리』에 「아껴 무엇하리 청춘을」 발표.

1937년 수덕사 아래 수덕여관에 머물면서 사찰순례. 여전히 그림을 그렸음.

1948년 12월 10일 서울원효로의 시립자제원에서 행려병자로 사망.

에필로그

나혜석, 그녀는 1896년에 태어나 1949년에 세상을 떠난 여인이다. 그녀가 살아간 시대는 일제강점의 시기로, 여성으로서, 의지가 있는 여성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시기였다. 그러나 그녀는 곳곳히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로 이끌어가고자 하였기에, 비극의 길을 스스로 밟아간 여인이다.

나혜석을 대함에 있어, 굳이 ‘여인이다’ ‘여자다’처럼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수식을 지속적으로 붙이는 이유는 그녀가 한 여자로, 여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보통의 여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이상의 것을 받았다. 또한 그녀 자신만 참하게 있었다면 명문가에 결혼하여 순탄한 삶을 살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조건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있다.

그녀는 당대로는 흔치 않은 여성 작가, 여성 화가의 삶을 선택하였으며, 결혼 청첩장을 신문에 발표하고, 신혼여행을 옛 여인의 무덤으로 가

서 석비를 세우며, 결혼 생활 내내 작가로서,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외에도, 이혼 후의 이혼고백서를 잡지에 연재하는 등... 일반인으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다. 그 때문에 세상에 이름 석자를 남길 수는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참으로 고통과 비애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

이 세상의 잣대로는 무엇이 옳은가 물을 수 없다. 이미 고인이 된 나혜석을 불러와 묻는다면, 그녀는 다시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일까. 열정 아닐까? 예술에 대한 열정, 인간에 대한 열정, 그러한 열정들이 그녀를 아들에게, 남편에게 잊혀진 여자가 되게 했던 것이다. 아이러니이다. 세상인들에게 기억되고, 아들과 남편에게 잊혀진 여자, 그녀가 바로 나혜석이다.

최정희

프롤로그

1. 최정희의 생애
 2. 작품세계
 3. 경기도 덕소로의 이주와 작품세계
 4. 문헌정보
 5. 작가연보
- 에필로그



프롤로그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도 가부장적 질서가 여전히 견고하고, 일제의 식민정치가 서늘하던 역사에 여자로서, 여류 문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어울리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최정희다. 그녀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한의사였지만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의 외도와 가난의 고통, 일찍이 가출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고, 혼자서 일본에 갔으며, 넘치는 끼를 감출 수 없어 가수와 배우가 되려했던, 참으로 시대조차도 버거워 했던 여자, 최정희. 아버지의 외도에 몸을 떨어야 했던, 홀로된 어머니가 4남매를 키워야 했던 그 외도의 죄를 자신이 범하게 된 최정희. 그 남편도 결국 한국전쟁 때 잃어버려야 했던 그래도 문학이 좋아 끝끝내 문학을 놓지 못했던 최정희. 감옥살이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작가가 되었던 최정희. 그녀의 삶은 그저 예외적인 한 개인의 운명이었을까.

루카치의 말이 떠오른다. 근대는 빛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래서 인류는 저 컴컴한 암흑의 길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본질을 찾아 떠나는 문제적 개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고, 최정희는 그 문제적 개인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순간 그녀는 루카치가 말한 문제적 개인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로부터 한국전쟁과 419, 5·16 구테타 그리고 산업화 시대라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그녀는 어

찌 보면 이미 문제적 개인이었을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와 문학사의 문제적 개인 최정희, 그녀의 삶을 만날 시간이다.

1. 최정희의 생애

1) 유년시절

최정희는 1906년 함경북도 성진군 예동에서 아버지 최재연과 어머니 조덕선의 사이에서 사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 최재연은 한의사였지만 재물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으며 풍류를 즐기는 인물이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최정희에게도 아버지의 영향은 크게 작용했다. 한의사였던 아버지 최재연의 의술은 인근 마을에서 꽤 유명했다. ‘최의원이 온다’라는 말만 들어도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이 정도면 가산을 모으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아버지 최재연은 금전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 아마 풍류적인 성품에서 기인한 듯한데, “당연히 알만한 상식에 전혀 감감한 거라든가, 감정의 굴곡이 심한 거며,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거며, 무엇에 빠졌다 하면 금방 극단으로 치달아 광기에 이르는 등, 합리적인 점이나 논리적인 점은 터럭만큼도”¹⁾ 없었다.

사실상 그는 밤늦게까지 글을 읽었고, 신문지에다 땀한 틈 없이 글을 쓴

1) 서영은, 《전기·소설 최정희-강물의 끝》, 문학사상사, 1984, 9쪽. 최정희의 『젊은날의 증언』, 육민사, 1962, 참조.

뒤라야 버렸다. 환자가 없을 때면 아랫방과 옷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속으로 시를 뇌었다. 그런 때의 그는 주위도 뭇도 다 안중에 없고 홀로 詩仙의 경지를 오락가락 했다.²⁾

아버지의 풍류 기질은 사교적 기질보다는 예술가적 기질에 가까웠고 이는 그대로 최정희에게 전해졌다. 밤늦게까지 글을 읽는 열정과 입속으로 시를 읊조리는 문학적 감수성과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는 ‘詩仙’의 경지가 최정희에게 전해져 오늘의 최정희를 만든 것이다. 아버지의 풍류 기질은 또한 호방함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난한 환자들에겐 돈을 받지 않았으며, 간혹 다음에 갚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되려 “야, 이 새끼야 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요다음이야. 어서 가!”하고 무안을 주기 일쑤였다. 병을 대함에는 자상하고 용의주도 하지만 대인관계는 모나고 괴팍했다. 은혜를 입은 환자들이 선물을 보내오면 그 귀한 선물들을 마구잡이로 울 밖에다 집어던지는 결벽증을 보이기도 했으며, 다른 의원에서 좋지 않은 약을 쓰다가 병이 악화되어 찾아오면 약 봉지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런 성향 때문이었을까? 최정희는 일찍이 사회주의 경향에 눈을 뜨고, 감옥 생활을 할 때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감옥생활이 오히려 안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호방함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

최정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매우 극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정희는 수필집에서 “단 하나인 아들은 아무렇게나 구시면서도 딸인 나에게는 다섯 살 때부터 獨訓長을 앉히고 글을 가르쳐 주신다, 글씨를 배워 주신다, 당나귀를 태와 가지고 다니시며 글씨 자랑을 시킨다, 천하에도 다

2) 서영은, 위의 책, p.9.

시없는 귀염둥이로 알아야단”스러운 애정을 보였다.

그러나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주시던 아버지의 배신, 즉 첩살림을 차려 집을 나간 사실은 최정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생활고뿐만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외상이 되었고 이것이 최정희 작품에서 남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저지시키는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반면 어머니 조덕선은 무학이지만 한글을 독학하였으며, 종교적 힘에 의지해 남편 없는 서러움을 견디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떡 장사와 엿 장사로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나갔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과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는 최정희 문학에서 여성성과 모성애라는 큰 줄기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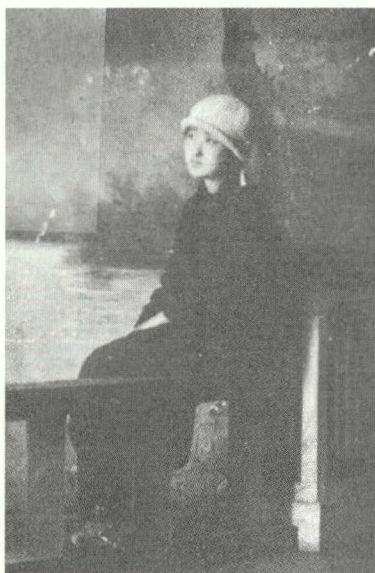
모성애의 끝없음과 부성애의 일시적인 모습을 체험하고 자란 최정희에게 모성회귀는 당연한 결과였다. 최정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혈통은 모계혈통이다.³⁾ 자식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대신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최정희 4남매를 키운 어머니에게서 최정희가 느끼는 애정의 정도는 분명 부계보다는 모계였다. 그럼에도 자신을 각별히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과, 어머니가 평생을 걸쳐서 기다려 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그에게 가면 공부를 할 수 있고, 배고픔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린 시절의 최정희에게 부권에 대한 양가적인 가치를 형성하게 했으며, 이것이 최정희 작품 전반에 걸쳐서 부권에 대한 갈구와 체념이라는 성향을 낳게 했다.⁴⁾

3) 박정애,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8, p.22.

4) 이연옥, 「최정희의 <인간사>에 나타난 작중인물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2001, p.10.

2) 학창시절과 ‘신건설’ 사건

최정희는 보통학교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경성 유학을 떠나는 친구를 따라 가출한다. 1924년 18세의 나이로 동덕 여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하였다가 1925년 숙명 여학교 2학년에 다시 편입하여 1928년 19회로 졸업한다.



숙명여학교 시절

같은 해 중앙 보육학교에 입학하여 1년 만에 졸업하고 경남 함안 유치원 보모로 취직한다. 학창시절의 최정희는 가수나 무용 등 예능면에 관심을 보였다.

어느날 그녀(최정희)는 가수가 되려는 부푼 꿈, 아니 노래를 불러 돈을 벌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전수린의 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얼마동안 그로부터 노래를 사사 받았다. ‘빠국빠국’하는 그런 노래였다. 그밖에 다른 곡도 더 있었다. 그녀가 전수린의 집에서 열심히 ‘빠국

빠국’하고 있는 동안, 그러한 그녀를 방송가에 데뷔시키기 위해 박팔랑씨가 애를 써 주었다.

그의 노력으로 마침내 그 ‘빠국빠국’하는 노래로 전국 라디오 시청자들 앞에 선을 보였다. 이튿날이었다. 전파상에서 흘러 나오는 노래를 들었다면서 감격한 단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우리 단천에도 이런 가수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⁵⁾

노래와 춤 그리고 운동(농구)선수로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예술 중앙보육학교 시절에는 무용을 잘 하여 조교로 뽑혔었다. 이러한 예술적 기질은 일본에 가서도 그치지 않았다. 보모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남 함안에서 보모로 일하다 1930년 일본에 가서 동경 삼하 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극작가 김진수를 만나 ‘학생극예술좌’에 참가 하게 되고 유치진, 김동원과 함께 연극을 접하게 된다. 1931년 동경생활을 접고 귀국한 최정희는 연출가 김유영을 만나게 된다. 그와의 만남은 최정희의 인생에서 큰 사건 중의 하나였다.

연출가 김유영은 첫 눈에 호남형으로 보였다. 키는 중키에 체격은 보통이었다. 그밖에도 몇 사람 더 있었다. 그때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그녀의 바램을 이루어줄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다 배고픈 사람 같아 보였다.

그녀는 가만 있고, 동행이 찾아온 까닭을 설명했다. 연출가는 말하는 사람 쪽은 보지 않고 그녀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뻣뻣이 긴장한 탓으로 그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연출가가 남자 배우지망생더러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했다. 의자와 테이블 사이의 좁은 공간을 그가 몇 차례 오락가락해 보였다. 다음은 그녀 차례였다. 어떡하든지 잘 보여 시험에 통과하고 싶었다.

“궁둥이는 내밀지 말고 걸어요.”

연출가가 편잔을 주었다. (아이구, 떨어졌구나.) 그녀는 맘속으로 깊이 낙담했다. 결과는 추후에 통지하겠다고 연출가가 말했다. 두 사람의 배우지망

5) 서영은, 앞의 책, p.23.

생은 한가닥 희망을 품은 채 주소를 적어놓고 그곳을 나왔다.

그날 저녁이었다. 하숙집 주인이 바깥에 웬 남자가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그 남자는 그날 낮 극단 사무실에서 만났던 연출가 그 사람이었다.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 알고 그녀는 허둥지둥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좋은 소식이다 못해, 그녀에게 어머니하는 탄성을 지르게 했다.

“당신이 주역을 맡아 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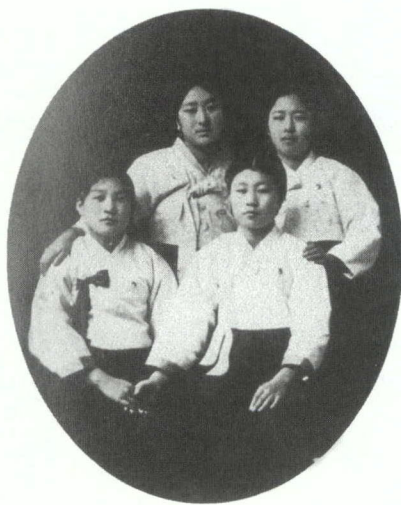
하지만 그의 來訪은 결코 그녀를 무대로 이끄는 신호가 아니었다. 남의 삶을 연기하기 전에, 그녀의 생 한가운데서 높은 파도의 칼퀴가 솟아나 그녀를 덮쳤다. 아니면 그녀의 그토록 깨지기 쉬운 그 눈부신 무구함이 그러한 파도의 칼퀴를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까.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의 머리말엔 어떤 화촉의 불도 밝혀져 있지 않았고, 가족 친지 그 누구의 축복도 없었고, 순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화사한 꿈도 없었다. 단지 돌연한 공포와 불안, 뭔가 아팠해지는 어지럼증 뿐이었다. 머릿속이 뻘뻘해지는 그 어지럼증이 가라앉고 나자, 낮익은 사물들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저 그런 한순간 속으로 운명의 섬광이 스쳐갔다고 느끼게 된 건 훨씬 후의 일이었다. 그 섬광은 그 후에 이어진 시간의 고리들로 해서 차츰차츰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상한環이 되었다.⁶⁾

얼마 후 김유영의 권유로 함께 살림을 시작하였다. 김유영은 친척의 도움으로 『문화공론』이라는 잡지 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살림을 시작한 곳은 그 잡지사의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김유영과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원하지 않던 임신과 남편의 폭력 그리고 생활고의 연속은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었다.

6) 서영은, 앞의 책, pp.26~27.



숙명여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그러던 중 1934년 전주사건에 연루되어 약 8개월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극단 신건설은 1932년 8월에 결성된 단체로 카프 조직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프로 극단의 등장을 의미했다. 신건설의 창립 공연은 1933년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연예관에서 이루어졌다. 공연 작품은 독일 소설가 레마르크의 장편 소설 <서부전선 이상없다>로서 일본인 무라야마가 각색 하였다. 첫 공

연의 성공으로 인해 전국 순회공연을 계획하였고, 1934년 초봄에 전주 지방 공연을 준비하자 일본 경찰은 공연의 중단을 위해 전주 공연 선전 전단 문구의 불온성을 시비삼아 극단 신건설의 중단과 관련자 검거를 비롯해 카프 조직원 전체에 대한 검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카프 2차 검거 사건인 ‘신건설’ 사건이며, 이로 인해 카프는 해체의 운명을 맞는다.

카프 산하 기관인 신건설의 단원이었던 김유영이 전주에서 검거되었는데, 심문 도중 그의 입에서 최정희란 이름이 나오자, 일경은 최정희를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렸다. 그리고 그녀를 검거하기 위해 사복형사 두 사람이 전주에서 서울로 급파하였다. 그녀는 이미 김유영과 헤어진 상태였다. 김유영은 “영화에 관한 서적은 익은 적은 있으나 좌익서적은 읽은 적이 없으며 자기는 카프에 들기 전에는 나이가 어려서 아무런 의식도 지 않았으며, 카프에 가입한 후 다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피고인

진술에서 답변하였다.

신건설 사건의 1심 판결 언도 공판은 1935년 12월 9일에 이루어졌다. 전주 지방법원 판사 우에노는 박영희 등 19인의 카프 문사에게 검사 구형량을 그대로 언도하고 사상적 전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3년을 언도하고 최정희는 무죄를 언도하였다. 판결 사유에 최정희는 이동식 소형극장 조직시에 시대공론사에 출입했으나 피고 추완호, 김영득, 석재홍, 이의백 등이 무산자 계급을 위한 연극을 한다고 김영득, 추완호 등과 가깝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프로연극을 무기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았다는 요지의 진술로부터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

3) 문인으로서의 재출발과 성숙

최정희는 신건설 사건과 8개월 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 또 다른 인생의 변혁을 겪는다. 출옥 후 최정희는 조선일보에 재직 중이던 이은상의 도움으로 조선일보사 출판부에 취직하게 된다. 그리고 예전에 썼던 작품을 부정하고 스스로 문단 데뷔작이라 일컫는 「흥가」를 1937년에 발표한다.

남들은 내가 기자 노릇을 하면서 문학을 하게 된 것 같이 알지만 실상 내가 문학을 하게 된 것은 그 뒤 썩 지나서 전주 감옥에 가 있을 무렵부터 시작한 것이다. … 며칠 밤과 낮을 앓는 사람처럼 지나다가 누가 일러 주었는지 모를 어떤 소리를 들었다. 너는 문학을 해야 할 여자다. 너를 구원하는 길은 문학밖에 없다. 누구의 소린지도 모르는 이 소리는 내게 해열제와도 같은 것이었다.⁸⁾

7) 황수남, 「최정희 소설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2001, pp.23~25 참조.

이때 쓰여진 <흥가>는 당시 그녀가 살던 돈암정 집에서 쫓겨나, 아는 이의 친구 집에서 가시방석 같은 생활을 하다 덕소로 이사 온 후 첩에게 주려던 집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다. 실제로 최정희는 파인 김동환과 함께 이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 해방 후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바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1930년대 여동생과 함께

1939년 11월 김유영이 죽고, 최정희는 『삼천리』사로 직장을 옮긴다. 여기서 파인 김동환과의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져 첫 딸 지원을 낳으면서 경기도 덕소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파인 김동환은 잡지 『별건곤』

8) 최정희, 「젊은 날의 증언」, 앞의 책, pp. 11~12.

(1929.2.1)지의 ‘미녀 내가 좋게 생각하는 여자’란에 ‘잘 웃고 잘 우는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성을 그리라면 그 여자의 눈은 항상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꿈꾸고 난 듯이 그윽한 맛이 있으며, 또 잘 웃고 잘 울며 목소리가 아무 노래나 하여도 들을 만하고 감정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여자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아마도 최정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다.

실제 최정희는 잘 웃고 잘 울던 여자였고, 노래도 잘 했다. 이미 가수로서의 경험도 있고, 구보 박태원과 삼천리사 옥상에 올라 수 시간, 내기로 노래를 불렀다는 일화가 있다. 어쨌든 최정희는 김동환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사건을 답습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파인과 결혼한 후 쓴 소설이 「인맥」(1940), 「천맥」(1941) 이다. 이들 소설 속의 여



삼천리사 재직 시절, 앞줄 왼쪽부터
노천명, 최정희, 장덕조, 뒷줄
맨오른쪽이 김동환

주인공들이 이상형으로 그리는 주인공들은 모두 유부남이다. 파인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최정희는 친일을 하게 된다. 파인은 지원병에 대한 시를 발표하는가 하면, 임전대책협의회를 발기하여 강연회를 열기도 한다. 최정희도 남편의 권유로 연단에 올라 ‘군국의 어머니’라는 강연과 글을 쓰기도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난을 못 간 최정희는 어쩔 수 없이 적치 하의 서울에서 ‘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부역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일기 형식의 글이 사상검사 오제도가 편집한 『적화삼삭구인집』(1951)에 실려 있다. 최정희의 글은 1950년 6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일기 형식으로써, ‘용기 부재에서 용기 발생’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용기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를 공산주의의 ‘광기’에서 찾고 있다. 인민군은 총살을 즐기며, 터지는 피를 보며 환호작약하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녀는 자신의 용기 없음이 부역의 원인이 되었지만 군인인 아들 익조의 귀환으로 용기를 얻어 “익조가 피흘려 받치는 국가를 위해 나도 받치기를 맹세”한다. 이를 통해 그녀 역시 자신의 부역행위가 단지 살기 위한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있다.⁹⁾ 좀 더 구체적인 정당화 방식은 <문학가동맹> 가입의 비우호성과 맹원들과의 부조화에서 나타난다.¹⁰⁾

작가 K씨를 모처에 찾아가서 문학가동맹에 가입하겠다는 말을 하고 S여사와 돌이켜 가맹하려고 동맹을 찾아간 즉, 나만은 본래의 맹원이 아니라하면서 거절을 했다.··· 동맹에서까지 나에게 가맹을 거절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또 ‘총살’이라는 위협을 받을 것이요.¹¹⁾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맹> 가입의 비우호적인 분

9) 최정희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두려움과 울음이다. 그녀는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마다 “용기가 없다.”, “무서워서”, “겁이 나서 후들 떨고 있는” 등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0) 많은 부분이 남편 김동환의 이야기로 메워져 있으나 이는 부역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배경 역할에 불과하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신의 무고함이었던 것이다.

11) 최정희, 「난중일기에서」, 오제도(편),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p.41.

위기이다. 최정희는 그 이유를 남편 김동환과 함께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문학”행위에서 찾고 있다. 그러다 삼천리사 사원인 작가 모씨의 사정으로 겨우 가뭇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입 이후에도 맹원들로부터 소외당하며 “평소에 그토록 친하던 사람들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녀에게 벽보를 붙이는 일은 “활개를 주욱 쪽 찢고 사는 세상에서도 딱 질색”인 행위이다. 게다가 “얼굴에 부채를 가리고 가두행렬”을 할 때에는 “꼭 죽고 싶은 마음밖에 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서술 의도는 이후 <문맹>에서 활동이 결코 환영받지 못했음과 동시에 공산주의자들과의 거리두기에 다름 아니다.

서울 수복 후 최정희는 종군작가단의 종군기자로 활약하고, 대구에서 공연된 문인극에도 참가한다. 1962년 최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박정희 의장을 만나 인터뷰하는 기회를 통해 박대통령의 가족과 친분을 맺게 된다. 최정희는 대통령 일가와 친해질수록 친일적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한 3·1문학상을 수상하였을 때도 ‘친일한 사람이 무슨 낮으로 문화상을 탈 수 있겠느냐’며 솔직한 감정을 밝히기도 했다. 1958년 장편 「인생찬가」로 제 8회 서울시 문화상 본상을 수상하고 『인간사』로 1964년 제 1회 여류문학상을 수상한다.

1969년에는 한국 여류문학인 협회장에 피선되고, 1970년에 예술원 회원에 피선되는 등 문학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바다», 「탐돌이», 「화투기」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1990년 12월 21일 정릉 자택에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

2. 작품세계

1) 초기 동반자 계열의 작품들

최정희 작품세계는 크게 4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기는 최정희 스스로 문단 데뷔작이라 일컫는 「홍가」(1937)가 발표되기 이전의 작품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최정희의 문단 데뷔작으로는 1937년 4월에 발표한 「홍가」를 꼽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최정희 그녀 스스로 「홍가」를 문단 데뷔작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가」 이전에 이미 작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바로 1931년 《삼천리》에 발표한 「정당한 스

파이」이다. 최정희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1기의 대한 관심은 매우 영성하였다. 아마도 그간의 작품이 문학성 등에서 현저히 미달된다는 판단에서 그러하였겠지만 초기의 작품들이 한 작가의 작품세계와 그 변모를 살피는 원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로 1931년 「정당한 스파이」로부터 1937년 「홍가」가 나오기까지 약 10여편의 소설과 수필 14편, 평론 2편 등을 발표하였다. 「정당한 스파이」의 한 대목을 보자.

이 작품은 사실 소설이라기보다는 콩트에 가까운 소품이라 할 수 있다. 여주인공 ‘나’가 스파이로 오해받게 된 이유와 그 누명을 벗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인 ‘FE’의 여자이다. 그런데 지금 X 형사를 만나고 있다. 오직 이유는 하나 FE가 가장 믿고 있는 YC가 진짜 스파이였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마치 이중 스파이마냥 X형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한다. X형사도 나에 대한 의심은 없는 듯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꼭 믿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YC 역시 나의 부하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의 비밀을 나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YC에게 대해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예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놀라는 기색을 안 보이려고 애쓰는 나에게 X형사는 키스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생각하여도 용감하고 대담한 계집이었음은 사실입니다.

이때 나는 한층 더 X형사에게 눈웃음을 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YC의 사실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¹²⁾

나는 YC가 형사의 끄나풀인 것을 알고 너무나 놀란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형사의 키스 요구를 눈웃음으로 유도한다. 나는 YC가 형사의 끄나풀임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와 YC가 만나는 모습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자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FE가 갑자기 그녀에게 배신자, 스파이라며 욕을 퍼붓고는 집을 나간다. 다음날 들어 온 FE는 여전히 나를 의심하면서 YC에 대한 신뢰를 보내자, 화를 내며 YC가 배신자였음을 알린다. 형사와 YC가 만나는 장면을 보고 온 그는 나에게 “나의 용감한 다바리쉬여! 당신은 세상의 누구보담 강한 녀성입니다. 나는 당신을 오해하였습니다. 당신은 스파이가 안이였습니다. 안이 정당한 스파이였습니다”라고 말한다. 바로 내가 ‘정당한 스파이’가 된 유래가 밝혀진 것이다.

이 당시에 창작한 작품들은 「정당한 스파이」 외에 「니나의 세토막 기록」(『신여성』, 1931.12.), 「명일의 시대」(『새대공론』, 1932.1.), 「롬펜의 신경선」(『영화시대』, 1932.3.), 「푸른 지평선의 쌍곡선」(『삼천리』, 1932.5.), 「비정도시」(『만국도시』 1932.10.), 「납포동」(『문학타임스』, 1933.2.), 「젊은 어머니」(『신가정』, 1933.3.), 「토마토 철학」(『동아일보』, 1933.7.23.), 「다잡보」(『매일신보』, 1933.10.10~11.23.), 「질투」(『신여성』, 1934.1.), 「가버린 미래」(『중앙』, 1934.2.), 「성좌」(『형상』, 1934.2.)로써 일종의 습작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최정희가 최초로 쓴 작품인 수필은 그녀의 온전한 창작품이 아니었다. 수필을 청탁받은 후 일본 여류문인들의 글을 읽었고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것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것과 비슷하게 썼던 것이 신문에 실린 것이다. 그 후로도 청탁을 받으면 이것저것 남의 글을 읽고 그것과

12) 최정희, 「정당한 스파이」, 『삼천리』, 1931. 10, p.191.

비슷하게 써 준다. 이런 일로 인해 나중에는 표절시비까지 일게 된다. 하지만 작품의 성과와 달리 최정희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경향성이 그것이다.

당시 최정희와 함께 활동했던 여류문인에 대한 평가는 ‘남성답다’라는 것이었다. 강경애와 박화성의 작품에 대해 평단에서는 ‘침착하고 대담한 리얼리즘과 큰 호흡, 수법의 비범함에서 남성작가를 능가하고 있다’고 호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은 카프의 해산 이후 그대로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즉 여류답지 못하는 평이 그것이다.

만약 그의 문학적 수업의 환경이 좋았고 사이비의 펜키적 프로문학이 그때의 문단을 황칠하지 않았더라면 정희는 공부만 했으면 그만한 재간으로 써 충분 오늘날 우리 문단에 값싸지 않은 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가 되었을 것이다.(…중략) 이 「정당한 스파이」 외에 나는 아직 정희의 소설을 읽지 못했지만 바른 말이지 이건 도모지 여학생의 작품이 되다만 ‘代物’였다.(…중략) 와일드! 이 평범한 말은 그러나 동양에는 없는 서양말이요. 없으면 서도 이 말 와일드를 몸소 미득하지 자질에 있어서는 서쪽 사람들보다 우리네 동쪽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것이 사실이며 동양사람 가운데서도 정희같은 영양부족의 반쪽님이 가장 안타깝게 환상하고 있을 인간음률이 아닐까 하오. 어때하오?¹³⁾

처음에 김문집은 최정희의 「정당한 스파이」를 여학생의 작문만도 못한 것으로 비판하다가 후에는 ‘시골 교회의 전도부인의 말투’이자 ‘영양부족의 반쪽님’으로 폄하해 버린다. 이러한 혹평은 “작가생활 10년에 최

13) 김문집, 「규수사인론」, 『비평문학』, 청색지사, 1938, 104~106쪽.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 『한국근대문학연구』, 2006. 4, p.99에서 재인용.

정희하면 곧 연상될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대표작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의 작가적 역량이란 우리가 경솔히 단정한다 하여도 틀림이 없을까 한다”로 이어진다. 반면 김팔봉은 최정희를 동반자 문학의 대표자로 꼽았다. 물론 이들의 작품 수준이 기대 이하였음을 밝히는 것은 잊지 않았다. 아무튼 이 당시 최정희를 동반자 작가군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최정희의 경향적 색채는 매우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2) 남성중심의 사회와 여성성의 발현

최정희 문학을 읽을 때면 루카치가 말한 소설의 운명이 새삼 떠오른다. 새삼 소설의 운명을 떠 올림은 우연적 요소라기보다는 최정희 문학이 가지고 있는 치열함 때문일 것이다. 최정희 문학의 본령을 말할 때 모아지는 결론은 ‘여성성’ 혹은 ‘모성애’이다. 그녀의 치열함은 이 두 가지 성향에 대한 집착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작품의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와의 대결의지이다. 최정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시대는 루카치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이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던 황금시대가 아니다. 신이 떠나버린 시대, 그래서 암흑이 되어버린 시대, 여행이 시작되자 길이 끝나버린 근대라는 괴물의 시대 입구에 최정희는 서 있다. 그것은 조국이 상실된 일제 강점의 시대이자 동시에 남성중심주의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굳게 자리했던 시대이다.

유진 렘은 근대를 ‘억압적인 동시에 희망적이며 소외적인 동시에 해방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양가적 입장에 대해 최정희는 전자, 즉 억압적이며 소외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녀는 카프 2차 검거사건인 신

14) 심진경, 위의 글, p.99.

건설사 사건으로 인해 전주형무소에서 9개월간 복역을 함으로써 시대적 억압을 경험해야 했으며, 또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여성으로서 온갖 사회적 소외를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근대는 철저히 부정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대로 그녀의 여성성을 형성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따라서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은 다른 문인들이 그리는 나약하고 심약한 여성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띤다. 최정희의 여성성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앞세워 세계와 강한 대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 대결이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도덕적 타부와의 대결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대결을 통해 최정희는 여성을 헤겔이 말한 유지적 개인이 아닌 문제적 개인으로 발전시켰다. 여성은 더 이상 억압과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되는 실존의 대상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 안에는 전사로서의 여성이 주인공이 된다. 그래야 이 불합리한 세계와 대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전사의 대결은 1937년을 기점으로 만날 수 있다.

최정희 문학의 본령이 여성성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 출발점은 1937년 《조광》에 발표된 「흉가」부터라고 말해야 한다. 이미 몇 편의 단편을 가지고 있는 그녀에게 「흉가」가 문학적 출발점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소위, 카프사건이라고도 하고 신건설 사건이라고도 하는 건에 내가 어째서 걸렸는지 걸려서 나는 형무소에 한 8 개월간 잘 있게 된 일이 있었다. 누구나 형무소라면 세상의 지옥으로 알 것이로되, 그때의 내게는 형무소가 나의 안식처였다. 나는 책을 읽을 수 있고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웠다. 발톱이 얼어서 빠지는 일이 대수롭지 않았다. 비로서 나는 ‘문학’을 깨달았다. 문학은 나를 위해서 생긴 것이고 나는 문학을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을 것 같았다.

옥에서 나와서 처음 쓴 것이 「흥가」였다. 이것이 물론 나의 처녀작이다. 전에 쓴 것은 최정희의 아무것도 없는 글이라 찾아다니며 없애 버렸다. 그러니까 나의 문학생활이라고 하면 「흥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¹⁵⁾

그러니까 최정희에게 「흥가」가 문학 데뷔작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이다. 첫째가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것과 둘째, 옥중에서의 독서와 사색을 통해 ‘문학’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정리하자면 최정희에게 「흥가」 이전의 작품은 말 그대로 독서와 사색도 없고, 문학에 대한 각성도 없는 상태에서 쓴 일종의 습작품 수준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최초의 각성과 각성의 첫 번째 결과물이 「흥가」라는 것은 이 작품의 중요성을 말해주고도 남는다. 즉 「흥가」는 앞으로 그녀가 그릴 이야기의 원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흥가」는 최정희 문학의 본령인 여성성이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나타난 작품이다.

「흥가」의 그녀는 일찍 남편을 여의었지만 신문사 여기자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자 동시에 홀어머니를 모시는 강한 여자이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다. 살던 정동집은 “끝끝내 집달리와 변호사와 순사에게 비대 발괄 없이 마당에 동댕이쳐 내던지운 세간 등속을 걸어 지고 자하문 밖 아는 이의 친구 집 건너방”으로 옮긴다. 그런데 그 집의 부인 되는 이가 여학교 시대의 동창생인 것이다.¹⁶⁾ 눈칫밥을 먹으며 생활하는 그녀를 더

15) 최정희, 「나의문학생활자서」, 《백민》, 1948. 3, p.47.

16) <흥가>는 최정희의 체험이 만든 작품이다. 실제 돈암정 집으로 이사를 했으나 나머지 집값을 치르지 못해 마음고생을 했으며, 안주인은 공교롭게도 여학교 동창생의 언니였다.

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의 눈치이다. 그 집에서 심부름을 하던 석이는 자기 방을 빼앗긴 탓에 십리나 되는 길을 매번 걸어 다녀야 하자 그녀의 자식에게 언제 이사 가느냐고 눈치를 준다. 게다가 “아이가 안팎을 드나들며 잠시도 문을 건디게 못하고 어질러 놓고 떠들고 잘 바른 문과 벽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채소밭에 들어가고 꽃나무 실과나무를 꺾고 그러지 말라면 더 큰 소리로 떠들고” 해 그녀를 곤란하게 만든다.

아이가 어떻게 말썽을 부리던지 나는 참다못해서 아이 입에 손을 틀어막고 볼따구니를 힘자라는 대로 꼬집어 흔들었다. 그랬더니 아나는 죽는다고 악을 बारबार 쓰다가 그만 나중에는 못 건디겠던지 소리도 못 내고 바르르 떨기만 할 대에 한쪽 구석에 경황없이 팔짱을 기고 앉으셨던 어머니는 그 꼬락서니를 보시고 그만 아이를 끌어다가 안으시며 같이 우시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알겠니 죄가 많기 짝다.”

나를 나무람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을 떨리었다. 나도 웬만하면 거기서 소리쳐 울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아이 앞에서 눈물짓는 것이 더구나 비참한 것 같고 또 안방 주인네들이 부끄러웠던 탓으로 앞산 마루턱을 넘어 커다란 소나무 밑에를 찾아 갔었다. 나는 실컷 울려고 했으나 울지도 못하고 허물어진 성터와 그 위에 뭉게뭉게 떠도는 하얀 구름만 바라보며 어머니와 아이를 생각했다.¹⁷⁾

그녀의 울음은 단순히 가난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울음은 지극히 사회적인 것이다. 남편 없이 혼자서 힘으로 자식과 부모를 지켜야 하는, 그리고 이는 철저한 사회적 억압과 소외를 건디어 내는 처절함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는다. 만인들 앞의 울음은 결국 패

17) 최정희, <풍가>, 『한국소설문학대계-김정한, 최정희』31, 동아출판사, 1995, p.319.

배를 자인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산으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울지 않는다. 울려고 갔지만 자신의 신세와 같은 “허물어진 성터” 위에서 자신이 도달해야 할 세계인 하늘을 바라보며 현실을 인식한다.



1960년대 무렵의 최정희

그러던 중 어느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 솔 붙이는 영감을 통해 그 집이 흥가임을 알게 된다. 집 주인이었던 남편이 과로사로 죽었다는 점, 시형이 형의 재산을 모두 차지해 버리고 안주인은 그로 인해 미쳐버렸다는 점, 아직도 날씨가 흐린 날이면 안주인이 나타나 집 주변에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동네에서 흥가로 소문이 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력을 알게 된 그녀는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새집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된다. 계속 신경이 쓰였고 급기야는 꿈에 안주인을 만나게 된다.

꿈에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때리던 여자는 확실히 그 안주인란 여자였을 것이다. 날보고 왜 내 이불보를 갖다가 치마를 해 입었느냐고, 왜 내 집에 들어 있느냐고 한 것이 솔 붙인 늙은이가 한 이야기와 똑같지 않고 뭐냐.

나는 그 집 안주인이란 여자를 본 적도 없었지만 아마 그 여자는 꿈에 본 여자처럼 눈이 넓이고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짹짹하리라.

그 네 눈알맹이를 무섭게 대굴대굴 굴리며 내 긴 머리채를 몇 번 왼손으로 감아쥐고 바른 손으로 죽으라고 나를 마구 때리던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진다.¹⁸⁾

그녀의 꿈은 단순히 낮에 술 붙이던 영감에게 들었던 이야기의 반영이 아니다. 굳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흥가의 내력에 대한 그녀의 심리는 거의 신경증에 가깝다. 이사 온 후 몸살이 난 것과 폐병 진단을 받은 것 그리고 악몽을 꾸는 모든 이유를 흥가에서 찾고 있다. 그녀의 꿈은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미친 안주인과의 동일시이며 또 하나는 정신분석에서 방어기제로 흔히 사용하는 대상의 전이가 그것이다.

먼저 안주인과의 동일시는 다음과 같다. 그녀의 꿈은 안주인의 운명과 그녀의 운명이 다르지 않음에 대한 공포의 반영이다. 안주인이 미친 이유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힘으로 세계와의 대결 속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흥가가 되도록 만든 것은 그녀가 아니다. 근대라는, 남성중심의 사회가 만든 욕망의 흘러넘침 때문이다. 그녀는 그러한 세계를 혼자서 감내해야 했지만 결국엔 패하고 말았고 그것은 곧 광기로 나타났다. 주인공인 ‘나’도 다르지 않다. ‘나’가 안주인에 대해 강박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도 안주인처럼 남편을 일찍 여의었으며, 혼자서 힘으로 이 거대한 남성의 폭력성에 맞서 싸워야 하며, 결국엔 자신도 안주인처럼 패배할 수 있으리라는 공포심의 발현이 바로 꿈의 의미였던 것이다.

일제 식민지라는 폭력성과 남성중심의 사회의 폭력성은 ‘지금 여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거대한 적이다. 그리고 그 적은 항상 그녀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고 있다. 바로 ‘탈바가지’는 이러한 폭력성을 상징하고 있다.

18) <흥가>, pp.324~325.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 벽의 탈바가지가 눈을 부릅뜨고 입을 썰룩거리며 가까워졌다. 마치 움직이는 물체와도 같이.....

‘저게 또 웬일일까?’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 탈바가지를 바라보았다. 하나 보면 볼수록 더 무서운 표정을 짓는 데는 어찌는 수가 없어서 나는 벌떡 일어나 그것을 떼어 테이블 밑에 집어 넣고 그러고도 무서워서 내 방에 못 있고 안방으로 건너갔다.¹⁹⁾

홍가는 단순한 집이 아니다. 이 작품의 주된 공간이 홍가라는 점은 이 공간이 갖는 사회적 고정 혹은 폐쇄성을 의미한다. 즉 이 사회는 여성들이 살기에는 ‘홍가’와도 같다. 그리고 사회를 홍가로 만드는 것은 다른 아닌 근대라는 남성이 만든 괴물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괴물은 탈바가지처럼 항상 그녀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 “보면 볼수록 더 무서운 표정을 짓는” 탈바가지란 그녀가 남성의 세계를 딛고 오르려 하면 할수록 겪어야 하는 공포의 크기를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홍가를 떠나지 않는다. 이 장면이야말로 앞으로 최정희 작품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녀는 “병과 약과 꿈과 집과 돈과 우리 집 생활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또 주름살 잡힌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홍가를 피하지 않고 ‘병과 약과 꿈, 집, 돈’ 등을 생각하며 이 남성의 세계에서 견디는 방법을 그녀는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홍가」는 최정희 문학이 나아가갈 새로운 방향전환의 시작이자 의미라 할 수 있다.

「홍가」에서 보여준 여성성과 모성은 맥 시리즈로 알려진 「지맥」, 「인맥」, 「천맥」을 통해 본격화된다. 「지맥」의 여주인공 은영은 인텔리 여성이지만 운명적으로 불행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인상으로 나타나

19) <홍가>, p.328.

고 있다. 그는 미망인으로서 사생아나 다름없는 두 혈육을 기르며 8년간 외롭게 생활해 오고 있다.

은영은 “팔 년 전의 나는 홍민규의 씩씩한 모양이 좋았다기보다 그가 하는 일, 그가 전인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좋아서 따라나섰”기에 남편의 투옥이나 전처의 행악이나 생활의 곤란도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남편의 죽음은 은영을 “헌신짝같이 하잘 것 없는 여자”로 만들었다. “남의 등록 없는 아내라는 탓”으로 취직조차 할 수 없는, 일점의 낭만이나 공상을 용납하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 부딪쳐 화자는 심화될 뿐인 현시로가의 불화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내 잘못을 뉘 우치는 한편 이러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고, 결국에는 “세상의 온갖 규율, 풍속, 인습, 도덕에의 반발이 일고 증오”가 생기기까지 했다.²⁰⁾

달리는 창턱에 턱을 괴고 검은 세상을-아니 깊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오래 쳐다보는 사이에 나는 내가 가진 슬픔, 내가 가진 번뇌, 이것이 나만이 가진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이 지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에 태양과 별과 달과 그 모든 것에까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별은 정말 하늘에서 모진 슬픔 속에 오염하는 것 같기도 했다. 잃어버린 무엇을 찾고자 헤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별들은 그 무수한 별 중에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하지 않고 오직 제 몸을 불사르며 캄캄한 밤 하늘의 궤도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나는 그러한 별들을 보는 사이에 문득 엄숙해져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받았다. 별이 하늘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나는 지상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인내와 극기와 성실과 용기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형주, 설주가 엄마와 처음 타

20) 김경원, 「최정희-역사적 격랑 속에서 여성의 좌표찾기」, 『역사비평』, 1996. 가을, p.262.

보는 기차가 즐거워서 바깥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손가락질을 하며 재깍거리며 웃어대며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나는 만족하게 그들 질문에 대답을 못 해준 일을 뉘우치며 그것들이 자는 옆에서 그들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 내게 던져진 운명이요, 내가 벗어나지 못할 지상의 궤도라고 마음 속에 다짐했다.²¹⁾

그러나 그러한 증오심은 현실적 힘을 갖추지 못한 것에 불과했으며, 화자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임을 인식한다.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내적 외적 부정성에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안식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잘생긴 점원과 북행한다는 쪽지를 남겨 둔 채 집을 나간 하순의 행동은 어머니 몰래 남편의 하숙집으로 무작정 갔던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바라보게 했고, 이것이 모성으로의 회귀를 결정하고 확신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²²⁾

「인맥」은 친구 해봉의 남편 허윤과 허윤의 친구 김동호 그리고 친구 해봉과 나의 남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인간관계 속에서 윤리적 파탄의 선택이라는 위험한 도덕적 소재를 취해서인지 고해성사의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정숙지 못한 여자라고 꾸짖어도 좋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벗어난 일인 줄 알면서도 긴 세월을 한 사람의 정숙한 여인이 되고자, 다시 말하면 그이의 영원한 여인이 되고자 갈등과 모순 속에 자신을 학대하며 고독하게 슬프게 사느라고 정숙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래오래 묘지에 가는 날까지.

이 죄과의 대가를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21) 최정희, 「지맥」,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418쪽.

22) 김경원, 앞의 글, p.262.

위안이라면 내가 그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이를 모르던 때보다 온갖 좋지 못한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지니었던 덜 좋은 습성을 모조리 버리고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순수하고 진실할 수 있었고 또 그럼으로 해서 내 마음이 신에게까지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그것입니다. 알기에 매우 힘든 말일지 모르으나 이제 내 기록을 읽으시면 이 말의 어의를 쉽게 해득하시리라.²³⁾

「인택」에서 이상적인 인간은 여성이 아닌 남성, 즉 해봉의 남편 허운이다. 시인인 허운에게서 지금의 현 남편에게는 느낄 수 없는 환희를 본다. 나에게 허운은 “그이가 가진 교양, 그이가 가진 정열까지도 희랍적일 것같이 생각”되었으며, “그이의 글을 읽으며 내가 상상하던 그이와 똑 같”았기 때문이다. 허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의 애인 ‘아도니스’에 그치지 않았다. 아도니스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허운은 신화적 인물을 넘어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신화이기 때문이다. 신화적 개인은 역시 다가서기 어려운 것일까. 여러 방식으로 허운을 유혹하지만 허운은 꿈쩍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나’의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간다.

이러한 불륜의 욕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정말 ‘나’의 온전한 감정의 소산일까? 유달리 신화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짝사랑하는 허운을 신화의 인물에 비겨 낭만성을 극대화시키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작품에서 ‘나’의 욕망은 실은 ‘나’의 것이 아닌 모방된 것 즉 매개된 욕망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즉 지라르가 말한 낭만적 허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르네 지라르의 이론에 의하면 소설 주인공의 모든 욕망은 중개자에 의

23) 최정희, 「인택」, 『한국소설문학대계-김정환, 최정희』31, 동아출판사, 1995, p.330.

해 암시된 가짜 욕망으로서 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지금의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초월은 자기가 욕망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 돈키호테의 경우 이상적인 기사를 항상 욕망하여 왔다. 하지만 그것은 돈키호테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아마디스라는 전설의 기사를 욕망했던 것이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에서도 같은 모습이 보인다. 보바리 부인은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녀의 욕망이란 사춘기 시절에 읽었던 삼류소설과 잡지의 나오는 여주인공들의 욕망이었다.²⁴⁾ 지라르는 이러한 모습을 욕망의 삼각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허운을 향한 욕망의 중개자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 읽었던 그리스 신화였다.

나는 문득-한 옛날 별의 신이 무수한 암컷 수컷의 별을 밤하늘에 뿌렸을 때 그 무수한 암, 수 별 중에 세 쌍만이 똑바로 제 짝을 찾고 그 외의 무수한 것들은 모두 생통같이 어울리지 않는 짝 것들과 짝이 되었던 까닭에 세 쌍의 별을 제외하고는 죄다 외롭고 슬프게 지낸다는-희랍 신화에서 읽은 별의 전설을 생각해 내고 내 앞에 꼬리를 길게 늘이는 별들은 제 짝을 찾지 못한 운명을 가진 별이거니 싶으면서 더욱 서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그때였습니다. 그이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내 눈물 속에 길게 짚게 늘여지는 별의 꼬리라도 타고 온 듯이 그이는 방안에 들어섰던 것입니다.²⁵⁾

어린 시절 읽었던 그리고 그 속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던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는 그녀의 저 깊은 곳에서 항상 동경과 욕망의 대상이었고, 그

24) 김치수, 송의경,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참조.

25) 최정희, 「인맥」, 『한국소설문학대계』, 362쪽.

것이 허윤이라는 인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허윤을 떠 올리는 ‘나’의 의식은 언제나 ‘신화’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허윤은 “내가 금방 읽은 버너스의 애인인 아도니스”였고, “그이가 가진 교양, 그이가 가진 정열까지도 희랍적일 것같이 생각”되었는데, 실제 “그이의 글을 읽으면 내가 상상하던 그이와 똑같았”다는 지점에 이르면 그녀의 욕망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그녀는 허윤의 아내이자 친구인 혜봉을 질투하고 그녀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바로 “적어도 그이가 좋아함직한 희랍적 정열과 교양이 내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의 무조건적인 욕망은 급기야 “어떤 희생이 생기든 온갖 조건을 버리고라도 오직 그이만을 위해서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아이를 낳던 날부터 나는 이때까지 알지 못하던 온갖 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했습니다. 때때로 신이 내게 한 가지의 시련을 더해 준 것이 아닌가, 내가 아직도 그이에게 도달할 자격이 못 되므로 내게 충실한 아내에서 참된 어머니, 완전한 여성으로 이르게 하려는 운명의 암시를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내가 읽은 책들이 가르치듯이 모성애가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강하고 고귀한 것, 그 참된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다른 감정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게는 모성애가 강하고 고귀하고 참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이를 생각하는 내 감정도 세상의 무엇보다 강하고 고귀하고 참되다 생각되었습니다.²⁶⁾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욕망과 모성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혜봉의 편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우리는 역시 지켜야 할 것

26) 최정희, 『인맥』, 373쪽.

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와 그 외의 모든 여성들이 지켜 온 길을 지키는 데서 평화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혜봉의 편지를 계기로 모성애를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맥 시리즈는 사회적 타부와 욕망의 갈등 속에서 여자 혹은 어머니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결코 훼손되거나 모방될 수 없는 가치 바로 어머니의 모습인 모성애였던 것이다.

3. 경기도 덕소로의 이주와 작품세계

1) 덕소로의 이주가 갖는 세 가지 의미

최정희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이사에 대한 이력도 만만치 않다. 최정희는 1939년 덕소로 이사를 한다. 겨우 마련한 돈암정 집도 결국 잔금을 지루지 못해 거처를 옮겨야 하던 중 파인 김동환이 덕소에 집을 마련했다고, 트럭에 짐을 싣고 덕소역 앞에 와 기다리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덕소역에 도착했을 때 남편 김동환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밤은 깊었고, 짐을 나르던 인부들도 화가나 이삿짐을 함부로 내려놓으며 욕설을 하였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는데 어느 노인이 나타나 “파인이 낮에 와서 집을 구하다가 마땅치 않아 그냥 서울로 올라갔으며, 가족들은 여관으로 안내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파인 김동환은 나흘이 지나서야 여관에 나타났다. 보리쌀도 없어 굶고 있는 판국에 쇠고기 세 근을 쥐고 말이다.

“그래두 고길 다 어떻게 얻었어?”

“내가 무엔들 못 얻을라구.”

“아이 제발 좀 허망다리 놓는 짓 그만하시오. 현기증이 나서 견딜 수 없으니. 이번 허망다리 길어서 더 골탕먹은 걸. 서울서 여기까지 몇 십리나 돼요? 그럴 바엔 가까운 데로 할 일이지.”

“망우리 이쪽에서 살고 싶어서.”

“그건 또 왜요?”

“망우리 이쪽이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잊구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왜 정작 망우리로 하지 않구 더 멀리 오게 해요?”

“망우리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감.”

“그 영감을 어떻게 알아요?”

“요전번 영월 다녀오던 차중에서 만났지. 나 앉은 맞은편에 앉았길래 어디 사느냐고 물었더니 덕소 산다구 그러더군.”

-「탄금의 서」 가운데서

가끔씩 김동환이 타오는 원고료로 연명하던 중 서울 갔던 파인이 돌아와 집을 샀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 집이란 그들이 자주 산보했던, 서울의 부자가 첩에게 주려고 샀다가 흥가임을 알고 몇 달 째 비워두었던 집이었다. 최정희는 이전부터 그 집 둘레를 자기 것인 양 가꾸곤 하였다. 앵두, 살구, 복숭아, 배, 사과, 자두, 은행, 감, 밤 등의 유실수와 갖가지 꽃들을 심었던 것인데 그 집이 자기 집이 되었다는 것이다.

덕소로 거처를 옮긴 것은 최정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덕소에서 딸 지원과 채원을 낳았다는 점, 둘째는 “영원한 여성스러움을 이끌어 내던 힘”인 ‘거울’을 밀쳐놓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초기 「흥가」의 경향으로 작품세계가 변화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둘째와 셋째의 변화이다. 여성스러움을 비춰주던 거울을 밀쳐놓았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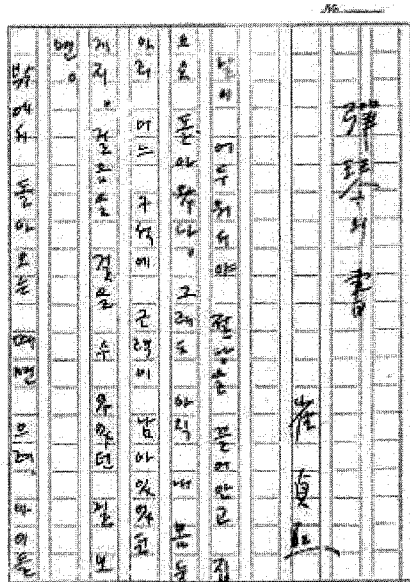
『탄금의 서』 집필 당시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서영은이 쓴 최정희에 관한 전기적 소설 『강물의 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서울거리를 거닐던 중 미당 서정주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최정희는 인사를 하려 했지만 미당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다. 최정희는 당황했지만 그 이유를 묻고자 서정주의 앞을 막고 “왜 날 보고도 모른 채하는 거예요?”라고 당돌하게 말하자 서정주는 한참 보고 나서야 “아하, 입만이 저의 모습입니다. 몰라 뵈었습니다.”라며 껄껄 웃었다고 한다. 최정희가 누구인가. 일을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거울 앞에 달려가 머리매무새, 옷매무새를 만질 만큼 아름다움에 꿈이 많던 여자 아니던가. 손님이 남성일 때는 그 꿈이 더욱 컸고, 나이 어린 남성, 중학생이라 하여도 총채를 집어던진 채 머릿수건을 벗으며 거울에다 자신을 비춰보려고 달려가던 그녀가 아니던가. 파인은 그러한 최정희를 보며 “사내라면 아무나 보고 꼬리를 치려 든다”며 놀리곤 하였다. 이러했던 그녀가 덕소로 이사 온 후 내내 했던 일이란 다름 아닌 흙과의 사랑이었다. 작품 <탄금의 서>에 그간의 생활이 잘 나타나 있다.

흙 한줌 부은 적이 없고 이슬 한 방울 먹인 적 없건만 꽃이 피고 새가 와서 울고 했다. 꽃과 새뿐이라. 배꽃이 지면 앵도가 붉어 가지를 땅에 드리우고 그것이 끝나면 주먹만큼씩한 살구를 먹었다. 자두는 살구보다 조금 뒤였

으며 복숭아, 배, 감, 은행 이러한 순서로 우리의 미각은 철을 따라 새로워 갔다. 과일은 우리가 흡족히 먹고도 주체할 수 없이 남았다. 바구니로 이웃에 담아 돌리기도 하고 고사떡이니 잔치떡이니 가져오는 그릇에 그득그득 채워보내기도 했다.

「탄금의 서」 가운데서



『탄금의 서』 육필 원고

최정희는 텃밭에 감자, 무, 배추, 마늘 이외에도 오이, 호박, 가지, 아욱, 쑥갓 따위의 푸성귀를 심어 가꾸는 한편, 닭을 쳐 알을 얻고, 알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길렀다. 첫새벽에 밭으로 나가 김을 매고 잡초를 뽑고 북을 돌아 주었다. 최정희는 그렇게 자연과 흙에 몰두했다. 최정희에게 여성성의 상징인 거울을 버리고 흙을 가까이 한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녀의 말을 들어보자.

미당의 말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생활이 거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돌연 깨닫게 되었다. 그 거울은 기실, 그것에 자기를 비쳐보는 주체로 하여금 아름다움에 대해 무한히 꿈꾸게 하는 힘, 모든 남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남성이 되게 하는 영원한 여성스러움을 이끌어내게 하는 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 ‘거울’을 골방 깊숙이 밀쳐놓은 대신, 그녀는 이 山家生活을 통해 내면으로 여러 겹의 나이트를 갖게 되었고, <우물치는 풍경>, <풍류 잡히는 마을>, <점례>, <고추>, <베갯모> 등의 작품을 얻었다. 그리고 외모에서나 성격에서나 엄마를 꼭 닮은 둘째딸을 얻었다. 그 딸의 이름은 향란(采原)이었다.

-「강물의 끝」 가운데서

흙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여성성의 상징이었던 ‘거울’을 골방에 밀어 넣은 대신 「우물치는 풍경」 등의 작품과 둘째딸을 얻었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 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덕소로의 이사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세 번째 의미, 즉 작품세계의 변화에 있었던 것이다.

「흥가」를 거치면서 최정희의 작품세계는 ‘여성성’과 ‘모성애’이라는 용어로 평자들의 입을 모으게 했다. 초창기에 썼던 동반자 문학 계열 혹은 신경향파 계열의 문학을 정리하고 새롭게 발견한 세계가 여성성과 모성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덕소로의 이사를 통해 알게 된 흙의 의미는 여성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라기보다는 잊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기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유도 모른 채’ 형무소로 끌려가던 수준이

아니다. 여성성의 발견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한 결과였다. 바로 “항상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 그들” 즉 농민에 대
한 이야기였다.

이즈막에 와서 농촌생활에서 얻은 재료를 몇 편 간 썼다. 어떤 이는 내 창
작세계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고마운 걱정을 해주는 것이나,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다.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농민들에게 아직도 사슬은 대인 채로, 굶주리고
혈벗고 하는 참담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쓴 것이다. 내가 여기 와
서 그들과 한가지로 살고 있으면서, 내 눈 앞에 쓰러한 비참한 사실을 목도
하면서, 그것들을 보아가는 사이에 내 피가 뛰고 내 붓대가 가만있으려 들
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적지 않고 있을 것이냐 말이다. 나는 사회주의도
아무 주의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관찰하기에는 조
금도 게을리지 않겠다.(1948년 1월 9일 덕소 山家에서)²⁷⁾

실제 최정희는 이웃의 농사꾼들이 농사짓는 것을 보아가면서, 농사에
대한 책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연구했으며, 쉬지 않고 몰두했다라고 회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몰두의 결과물이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이었
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변한 것이 아니라
조기의 성향을 회복한 것이다. 그것도 더욱 진지한 자세와 깊은 눈으로
돌아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방기 최
정희 소설의 핵심은 작가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한편 경험적 서사를 구현하는데 있다. 즉 최정희의 초기 습작에 나
타난 경향성은 1930년대 초가 카프의 전성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이

27) 최정희, 「나의문학생활자서」, 『백민』, 1948. 3, p.47.

해할 수 있고,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까지의 ‘모성’에의 관심은 김유영과의 결별, 그리고 파인과의 만남 속에서 겪는 일련의 자전적 내용들과 합치한다. 이어 해방기에 이르자 최정희는 시대이념의 변화에 촉수를 내민다. 즉 좌익 이념이 주도권을 잡았던 1947년 중반 전후의 작품에서는 토지 추수의 삼분병작제를 중심으로 지주와 소작인의 악화된 관계(「봉수와 그 가족」, 「풍류 잡히는 마을」, 「점례」, 「우물 치는 풍경」)를 그려냈는가 하면, 그 이후 좌익이념이 퇴조하고 우익 이념이 자리잡게 되는 1948년부터는 낭만적 서정의 세계(「꽃피는 계절」, 「수탉」, 「베갯모」, 「봄」, 「바람처럼」, 「선을 보고」)로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²⁸⁾

이병순의 구분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의 주장대로 최정희가 시류의 흐름에 맞춰 작품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좌익이념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1947년 중반의 작품이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다는 주장은 다소 과도한 주장으로 보인다. 「풍류 잡히는 마을」에 보면 당시 좌익의 표상으로 인식되던 여운형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승만과 김구에 대해서는 다소 친화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한 그렇다. 최정희는 식민지 시대를 벗어남으로 인해 그녀 본연의 시선, 즉 현실에 대한 짙은 관심이 장애물 없이 다시 회복되었고, 덕소라는 공간은 최정희에게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이라는 자유에 대한 분출이 그녀의 현실적 시선을 되찾아 준 것이다.

28) 이병순, 「현실추수와 낭만적 서정의 세계」, 『현대소설연구』26, 2005. 6, p.133.

2) 해방기 작품의 현실인식

해방 후 최정희의 작품은 또 한 번 변신을 준비한다. 정확히 말한다면 습작기 시절의 흔적이었던 현실에 대한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고, 그것이 작품에 녹아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덕소에서의 생활과 체험이 이러한 현실감각을 다시 살려내 시작했다. 이는 최정희가 바라 본 당시의 현실, 즉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나 농민들에게 아직도 사슬은 대인 채로, 굶주리고 헐벗고 하는 참상’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정희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쓰렷한 비참한 사실을 목도하면서, 그것들을 보아가는 사이에 내 피가 뛰고 내 붓대가 가만있으려 들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적지 않고 있을 것이냐”며 다시 현실에 대한 예민한 족수를 드러낸다.

이러한 작품으로는 「봉수와 그 가족」, 「풍류잡히는 마을」, 「점례」, 「우물치는 풍경」 등이 있다. 이 작품들에서 최정희는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농촌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드러내고 지주의 착취와 횡포 때문에 억울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소작인들의 참상을 사실적인 수법으로 그리고 있다.²⁹⁾ 이 중 주목을 요하는 것으로 「풍류 잡히는 마을」 있다. 이 작품에 주목을 요해야 하는 이유는 식민지 말부터 해방직후까지 지주들의 횡포와 소작민의 궁핍한 삶을 치밀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흥수라는 지주를 통해 해방 직후 중요한 사건들을 사안별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던 만큼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

족제비의 침입으로 닭 피해를 입자 서술자인 ‘나’는 목수 영감에게 닭

이 작품은 『최정희의 문단』에 실려 있다.

29) 이병순, 위의 글, p.134.

장 짓는 일을 부탁했으나 일이 시원치가 않다. 이미 일당을 지급했으나 영감은 제 날짜에 일을 마치지 못했고 닭들의 피해는 날로 커져만 갔다. 화가 난 ‘나’는 이 모든 것이 서홍수라는 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서홍수의 회갑잔치를 망쳐 놓을 심정으로 집을 나서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씩 그려내기 시작한다.

식민지 말의 상황이다. 서홍수는 명절 때만 되면 큰 잔치를 벌이는 데 이 모든 것은 총독부 사람들과 주재소, 면직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이다. 서홍수의 아들이 총독부에 다니고 있었으며, 명절이 되면 “총독부에도 어느 아랫도리에 앉을 인물들이 아닌 고관들”이 서홍수의 집으로 초대되었으며, 그곳에서 총독부 관리들은 “기생들과 함께 진탕만탕 먹고 춤추며 소리하며 밤이 밝기 까지 놀았”다. 총독부의 잔치가 끝나면 주재소와 면직원들을 초대했다. “총독부의 찌꺼기라고 불평불만 품는 자 하나 없이 감지덕지해서 고기에 술에 떡에 잘 먹기만 할 뿐 아니라 색주가 들까지 불러서 역시 총독부 못하지 않게” 놀고 갔다. 권력과 그곳에 기생하는 자들의 고리 속에는 꼭 민중들의 처절한 삶이 포함되고 있었는데 최정희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구경꾼으로서 그 마당에 발을 들이민 자가 없었다. 거저 군침을 삼키며 서홍수네 설 명절 놀이를 옛날 놀이를 옛날 이야기하듯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 고길 한 점 먹었으면 하고 침을 꿀꺽 삼키는 노인도 있었다. 그 술을 한 되 주욱 들이켰으면 하고 목을 길게 빼는 모주꾼도 있었다. 아무렇거든 한번 진탕으루 먹어 봤으면 하는 젊은이도 있었다.

항상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 그들은 고기나 떡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간에 정말 배부르게 단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했다.(507쪽)

큰 잔치에는 꼭 손님이나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콩고물이라도 얻을까하는 마음에서 이다. 하지만 서홍수의 잔치에는 구경꾼이 없다. “항상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 그들이었음에도 “누구 한 사람 구경꾼으로 그 마당에 발을 들이민 자가 없었”던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재소 순사나 면직원, 즉 “권리 있는 사람 앞에서 도무지 꿈쩍 못하는 그들인 까닭”이다. 궁핍과 물리적 폭력의 공포 앞에 맨몸으로 떨어야 했던 당시 민중들의 처절한 삶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식구 수에 관계없이 이불 하나라도 있으면 하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서홍수의 딸은 시집갈 때가 멀었음에도 이부자리만 칠팔 채가 넘는다. 서홍수의 손녀는 파리를 많이 잡은 이유로 교장의 상과 주재소 수석의 특별상을 받는다. 하지만 실은 소녀의 반 아이들이 잡아다 준 것이었다. 서홍수는 “이 부락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몇 집을 내놓곤 죄다 서홍수네 작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또 서홍수네 소작인 중에 농사의 성적이 불량한 작인을 서홍수가 주려서 면소와 주재소에 적어 보냈다는 것도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적어 보내면 영락없이 징용장이 나왔다는 것도 들었다. 징용장이 나와서 징용을 떠나간 작인의 논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라는 구실로써 소작권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것도 알았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서홍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머리를 쥐어짰다. 성적이 불량한 작인을 징용에 뽑혀 가게 만드는 한편 자기에게 급신급신하고 농사의 성적을 잘 내어 자기의 배를 불러 주는 자는 주려서 또 면소와 주재소에 보내었다는 말도 들었다. 서홍수네 일이라면 옷통을 벗고 덤비는 것이 이곳 관리들이라는 말까지 듣는 면직원이요 주재소 순사들이라 서홍수의 청을 들어서 후자들에게겐 농업지도원이라는 명목을 붙여 주고 징용 징발 보국대에 빠지게 하였다는 말도 들었다. 마을에서 대글대글한 축들이 열이면 열이 다 나가야 하는 때에 그

길을 면하는 것만 해도 죽었다 산 목숨인데 그 위에 농업지도원이라는 벼슬(?)까지 하게 되니 서홍수의 작인들은 기뻐서 말이 아니 나올 지경이라는 것도 들었다. 서홍수는 기뻐하는 작인에게 누구의 덕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게 되자니까 농업지도원이 된 서홍수의 작인들은 전보다 서홍수에게 만만해지고 전보다 더 농사를 잘 짓고 전보다 더 닭이랑, 옛이랑, 꽃감이란 이런 온갖 선물을 서홍수를 위해서 바친다는 것도 알았다.(508쪽)

서홍수가 농사의 성적이 불량한 작인의 명단을 면소와 주재소로 보내면 “영락없이 징용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소작권을 마음대로 바꾸곤 했다 반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소작인의 명단도 면소와 주재소로 보내 ‘징용 징발 보국대’에서 제외시켜 주거나 ‘농업지도원’이라는 벼슬을 주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마을 사람들은 “전보다 더 농사를 잘 짓고 전보다 더 닭이랑, 옛이랑, 꽃감이란 이런 온갖 선물을 서홍수를 위해” 바쳐야 했다. 서홍수에게 안 되는 일은 없었다. 온 마을이 굶주림과 징용, 징발, 보국대, 학병으로 생지옥이 되었을 때도 서홍수네 가족은 “아무도, 식모나 아이보는 계집애까지도 그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방이 되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행렬의 한 부분이 어느새 와아악 소리와 함께 주재소를 들이치고 면사무소를 때려” 부셨다. “으리으리 무섭던 면사무소와 주재소에는 그 얄밟고 우쭐대던 자들이 하나 없고, 마을 사람들로 조직된 치안유지회”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자 지주 서홍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쌀 열 가마니를 치안유지회에 기부했다. 마을 극빈자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해방 전에는 그래도 쌀을 빌려 먹을 수 있었지만 해방 후에는 쌀값이 자꾸 오르자 쌀을 가진 자들은 쌀을 장리로 빌려주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이윤이 남았기 때문에 쌀을 꺾주지 않았다. 서흥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아들이 다시 총독부에 앉아 있는 군정청 관리로 들어가면서 다시 서술이 파래진 것이다. 서흥수는 많은 땅을 팔았다. 그 땅을 붙여 먹던 작인들을 현실썩처럼 버린 것이다. 작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집을 팔고, 소를 팔고 온갖 것을 다 파고 심지어는 김장독까지 다 팔고 그러고도 토지소유권 문서를 잡히게 하고 높은 변리로 빚을 내고 해서 부치던 땅을” 사려고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었다.

서흥수네는 중치 하치는 다 팔고 한목 만 평 가까운 땅이 쪽 내갈린 좋은 것들만 농사를 짓는데 그 방법이 참 묘하였다. 근 만 평 땅에 작인이 삼십 명 넘었다. 삼십 명 넘는 작인 중에서 서흥수는 가장 상치의 작인을 골라내었다. 해방 전에 징용을 안 나가고 농업지도원이라는 패를 가슴에 붙였던 자들 중에서도 고르고 다시 고르고 해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권 경작권 없이 주는 땅이었다. 또 땅도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작인에게서 경작권을 죄다 박탈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 사람에게 열 마지기, 또 농사꾼이 한집에 셋씩 넷씩 되는 데는 열다섯 마지기도 주고 혹은 여덟 마지기 일곱 마지기 다섯 마지기씩을 주는데 경작권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나는 소출 중에서 서흥수가 삼분의 이 이상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를 농사지은 자에게 주는 것이었다.(p.522)

서흥수의 횡포는 해방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대상만 달라졌을 뿐 횡포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 해방 전에는 그나마 붙여 먹던 작인들 대부분이 경작권을 잃었으며, 그나마 서흥수에게 땅을 붙여 먹는 자들도 경작권도 없이 그냥 농사를 지어야 했다. 그리고는 나오는 소출 가운데 무조건 3분의 2 이상을 자신이 가져갔다.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빌어 먹을까하고 서흥수에게 애

걸하거나 뇌물을 바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마을은 다시 눈물의 바다 한숨의 골짜기” 변하였다.

그러나 최정희는 모든 죄악을 지주인 서홍수에게만 돌리지 않는다. 농민들의 나약한 삶,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노예 근성’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무엇을 구하러 온 마을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의 비굴하게 웃는 웃음에서 나는 얼핏 내 오래인 숙제를 풀게 되었다. 즉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보았는지 알 수 없던 얼굴들은 내가 어릴 적 우리 고향에서 본 농민들의 얼굴과 비슷했던 것이다. 함경도와 경기도의 농민이 족보가 같을 리 없겠고 또 그 외편으로 걸릴 리도 만무할 텐데 이렇게 비슷한 것은 그들의 눈꼬리에서 시작해서 입귀텅에 가서 끊긴 땃살 같은 주름살 때문인 것이다. 이 주름살은 함경도의 농민이나 경기도의 농민이나 똑같이 지주의 종으로 오래 사는 사이에 한번 제멋대로 웃어 보지 못하고 늘 비굴한 웃음을 자자연하게 짓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나는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함경도의 농민과 경기도의 농민의 얼굴이 비슷한 것이고 젊은 조서방과 늙은 안서방이 비슷한 얼굴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같은 운명에서 같은 ‘멍에’를 지고 살아 왔기 때문인 것은 아니겠는가.(516쪽)

지독한 가난과 종으로서의 삶 때문이었을까. 최정희는 지주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또는 그러한 지주에게 빌붙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농민들을 ‘노예근성’이라 비판한다. 해방의 기쁨도 서홍수의 낫색을 살피느라 기쁨을 뱃속에 감추어야 했고, 삼분병작제가 법령으로 발포되었음에도 서홍수를 찾아가 “반씩 먹여 주는 것도 황송스런데 삼분병작이라는 될 말입니까. 남들은 어쨌든지 이놈은 전대루 해드리겠습니다.”라며 도리어 서홍수를 걱정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동

이 아침이 아니라 진실로 황송스런 심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조상대대로 평생 종노릇만 해왔기에 그들은 서로 닭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타곳의 사람이라도 돈이 없으면 경멸하고 돈이 많으면 친절히 하는 이 노예근성 또한 최정희에게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점례」는 극심한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술집에서 부엌일을 보고 있는 복이에게 시집을 가기로 되어 있는 주인공 점례가 장대에 꽂혀서 죽어가는 자기네 닭을 구해내려다가 악덕 지주인 허송구의 돌에 맞아 죽음을 맞는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점례는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14살의 나이로 혼인을 해야 하는 소녀이다. 점례가 복이에게 시집을 가려는 구체적인 이유는 “복이의 색시되는 자도 복이와 같이 그 술집 부엌일을 맡아 보아주게 되면 먹는 것만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죽음보다 두려운 굶주림을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점례에게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진리”였던 것이다. 여기서도 지주에 대한 횡포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닭을 모조리 없애 버려라” 허송구는 명령하였다. 누구의 명령이라고 안 들을 수 있으랴. 당장 없앤 집도 있고 혹은 어리 속에 가둬놓고 먹이가다 죽 살이가 들어서 잡아먹은 집도 있고 팔아 버린 집도 있고, 허송구네 집에 선 사물로 보낸 집도 있었다.(p.295)

울안이 천평도 넘는 허송구의 집 주위를 빙 둘러싼 집들이 모두 허송구의 네 울타리로 드나들고 있는 형편이었다. 지주인 허송구는 이러한 것이 어지럽고 귀찮아서 ‘닭을 모조리 없애 버려라’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명령은 소작인들에게는 바로 법이었다. 그런데 점례는 이 법을 어기고 닭을 기르다가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지주에 대한 점례 가족의 두 가지 반항을 볼 수 있다. 닭을 없애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집갈 때 버선을 사기 위해 닭을 기르고 있었다는 것과 허순구네 채마밭에 들어갔다가 붙잡혀 장대끝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자 그 닭을 구해내기 위해 던진 돌맹이에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된 점이 그것이다. 최정희는 무지한 소작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작품 역시 덕소에서의 체험을 토대로 당시의 사회문제였던 지주의 횡포와 소작인들의 궁핍한 삶을 형상화 한 것이었다.

3) 한국전쟁 이후

최정희의 작품 세계에 또 한 번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사건이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적일순」, 「찬란한 대낮」, 「인간사」 등이 있다. 이들 작품에서는 최정희 개인의 체험을 통해 민족의 역사적 아픔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1950년대 김환기 내외와 함께

「정적일순」은 1.4 후퇴 당시 모든 가족이 피난을 가고 혼자 큰 집을 지키고 있는 한 노파의 심리 세계와 그 행동을 세밀히 관찰한 작품이다. 노파에게는 이데올로기가 없다. 오직 한국전쟁 때 이북으로 끌려간 작은 아들과 사위를 따라 전쟁 전에 이북으로 간 딸이 집이라고 찾아오면 아무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다. 혹시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아들과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 같은 희망으로 그들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면서 집안의 재무를 간수한다. 이런 노파의 모습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비극과 이산의 아픔을 그려내고 있다. 「찬란한 대낮」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길수네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왔으며 또 이 과정에서 어떤 고생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그 자초지종을 그리면서 꿀꿀이죽으로 연명하는 난민들의 생활상과 전쟁고아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상을 그리고 있다.



1965년 당시 문인들과 함께

「인간사」는 최정희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스케일이나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건의 규모가 매우 크고 복잡하다. 등장인물만 해도 20 여명이 넘는데다가 시대적 배경으로는 일제 말에서부터 해방을 거쳐 한국전쟁 그리고 4.1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격랑기를 통해 주인공 강문오와 그를 둘러싼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행동양상을 보여주는가 하는 일대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 작

품의 주요 사건은 강문오와 마채희의 사랑, 마채균과 허윤, 하용빈 등의 반일운동 문제, 동지 오경배의 친일행위, 한국전쟁 당시 강문오가 빨갱이 소탕에 적극 참여하는 이야기, 허윤, 하용빈, 마채균 등의 간첩행위와 함께 처형, 성철수, 김창욱, 강문희 등과 관계된 부산 피난시절의 이야기, 강문오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마채희의 후일담, 4.19 데모에 참가하여 충격을 받아 끝내 한 많은 생애를 끝맺는 강문오의 최후 등으로 꾸며져 있다.



삼성출판사 편집자문위원 시절

한마디로 이 작품은 제목이 말하듯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또 불행한 시대를 맞아 죽어간 문자 그대로 인간의 역사이자 드라마이다. 특히 주인공 강문오는 역사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채 이상과 젊음을 상실하고 한 시대의 불행을 온통 뒤집어쓰고 죽어간 인물로 나타나 있어 역사란

과연 인간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³⁰⁾

4. 문헌정보

- 김경원, 「최정희-역사적 격랑 속에서 여성의 좌표 찾기」, 『역사비평』, 1996. 봄.
- 김동리, 「여류작가의 회고와 전망」, 『문화』, 1947.
- 김동식, 「여성과 모성을 넘어서」, 『한국소설문학대계』31, 동아출판사, 1995.
- 김복순,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상허학보』23, 2008. 6.
- 김양선, 「일제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 『어문연구』, 2005. 9.
- 김양선, 「근대 여성문학의 형성원리 연구」, 『어문연구』, 2007. 12.
-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여성과 문학」,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 박정애,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8.
- 박종홍, 「신여성의 ‘양가성’과 ‘집 떠남’ 고찰」, 『한민족어문학』, 2006. 8.
- 서영인, 「순응적 여성성과 국가주의」, 『현대소설연구』25, 2005. 3.
- 서정자, 「최정희 소설연구-습작기 작품과 ‘흥가’를 중심으로」, 『원우론총』4, 1986.
- 신동욱, 「최정희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과 인간의식」, 『현대작가론』, 개문사, 1994.
-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 『상허학보』13집, 2004. 8.
-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 『한국근대문학연구』, 2006. 4.
- 이상경, 「식민지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일제 파시즘하의 최정희와 임순득」,

30) 이유식, 「운명과 화해정신」, 『우리문학의 높이와 넓이』, 교음사, 1994, pp.526~528 참조.

『실천문학』, 2003. 봄.

이영아, 「최정희의 <천맥>에 나타난 ‘국민’ 형성과정」, 『국어국문학』149, 2008.

9.

임금복,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 연구」, 『성신어문학』4, 1991. 9.

정순진, 「모성과 여성의 갈등」, 『한국언어문학』32, 1994. 5.

황수남, 「최정희, 김채원 소설의 모티브 연구」, 『비평문학』19, 2004. 11.

5. 작가 연보

1906년 함북 성진군 예도에서 최재연 씨와 조덕선 씨의 4남매 중 장녀로 출생.

1920년 부모와 함께 함남 단천으로 이사.

1924년 상경하여 동덕여학교에 입학.

1925년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 편입학.

1928년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서울 중앙보육학교 입학.

1929년 서울 중앙보육학교 졸업. 경남 함안의 함안유치원 보모로 근무.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삼하(三河) 유치원 보모로 일함. 학생극예술좌에 참가.

1931년 귀국. 종합지 삼천리사에 입사. <정당한 스파이>를 『삼천리』에 발표.

1932년 장남 홍조 출생.

1934년 전주사건에 연루되어 전주형무소에 투옥, 8개월간의 옥고 치름.

1935년 출옥. 조선일보 출판부 입사.

1937년 <흥가>를 『조광』에 발표하여 문단의 공식적 데뷔 선언.

1940년 <인맥>을 『문장』에 발표.

1941년 <천맥>을 『삼천리』에 발표.

1942년 장녀 지원 출생. 경기도 양주군 덕소로 이사. 농촌생활 시작.

1947년 <점례>를 『문화』에, <풍류 잡히는 마을>을 『백민』에 발표.

1948년 단편집 <천맥>을 수선사에서 간행.

- 1949년 창작집 《풍류 잡히는 마을》을 아문각에서 간행.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4 후퇴시 대구로 피난. 남편 김동인 납북.
- 1951년 종군작가단의 종군기자로 활약. 대국에서 공연된 문인극에 참여.
- 1953년 장편 <녹생의 문>을 『서울신문』에 연재.
- 1954년 동화집 《장다리꽃 필 때》를 학원사에서 간행. 장편 《녹색의 문》을 정음사에서 간행. 서울시 문화위원에 피촉.
- 1955년 창작집 《바람 속에서》를 인간사에서 간행.
- 1956년 중편 <데드 마스크의 비극>을 『평화신문』에, <찬란한 대낮>을 『문학예술』에 발표.
- 1958년 장편 《인생찬가》로 제8회 서울시 문화상 본상 수상. 장편 《끝없는 낭만》을 동학사에서 간행.
- 1960년 장편 <인간사>를 『사상계』에 연재하다가 중단. 『현대문학』에 추천심사위원에 피촉.
- 1962년 장편 《별을 헤는' 소녀들》을 학원사에서 간행.
- 1964년 장편 《인간사》를 신사조사에서 간행. 장편 <인간사>로 제1회 여류문학상 수상. 장편 <강물은 또 몇 천리> 제1부를 『현대문학』에서 2년 동안 연재.
- 1965년 중국 부인사진작가협회 초청으로 중국 방문. 문화계 시찰. 국세청 자문위원으로 피촉.
- 1967년 단편 <제2여자의 풍경>, <제3여자의 풍경>을 발표. 파월장병 위문차 종군작가단장으로 베트남 방문.
- 1969년 한국여류문학인협회장 피선.
- 1970년 단편 <바다>를 『월간문학』에, 단편 <205 병실>을 『현대문학』에 발표. 예술원 회원에 피선.
- 1972년 한국예술원 본상 수상.
- 1976년 《찬란한 대낮》을 문학과지성사에서, 《탑돌이》를 범우소설문고에서 간행.
- 1977년 《최정희문집》을 명서원에서, 《천택》을 성바오로출판사에서 간행.
- 1980년 단편 <화투기>를 『현대문학』에 발표.
- 1982년 3·1 문화상 수상.
- 1990년 정릉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

에필로그



말년의 최정희

인간 최정희, 작가 최정희. 그녀는 양쪽 모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거대한 세계와 그 폭력 앞에 여성의 몸으로, 작가의 몸으로, 어머니의 몸으로 시대를 맞서 왔다. 이처럼 거대한 한 인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어느 대학의 교수가 최정희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쓴 글을 본 적이 있다. 아마도 그 글이 최정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글이 아닐까 싶어 이곳에 몇 자 적어본다.

“최정희 선생님은 어머니 같은 연세인데 이상하게 여자를 느끼게 하는 분”이라고 김승옥 씨가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은 맞다. 같은 여자의 눈으로 보아도 최 선생님은 확실히 여자를 느끼게 하는 면이 있다. 젊은 여자의 그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느낌을 일흔이 넘어도 지니고 계셔서 영 할머니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어린애 같은 느낌도 준다. 성북동에 살 때, 이따금 저녁 모임 후 선생님을 정릉에 모셔다 드린 일이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 불 밝히는 걸 보고 돌아오는데도, 꼭 어두운 밤 첩첩 산중에 아이를 혼자 버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늘 발걸음이 무거웠었다. 그 여성스러움에 어린아이스러움이 겹쳐져 선생님은 참 힘든 길을 걸으며

살아오셨다.(…중략)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셨는데도 선생님의 강물은 변하지 않았다. 어떤 풍상도 더럽힐 수 없는 순수함을 그대로 지닌 채 칠십 고개를 훌쩍 넘으신 것이다. 그런 순수한 감성 때문에 선생님 곁에는 늘 젊은 친구들이 따라다녔다. 바쁜 세상에 정릉 골짜기까지 자기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선생님은 ‘줄봉사’라고 불렀다. 당신도 ‘줄봉사’의 대열에 끼어, 선배나 어른이 아니라 친구로서 그들과 감성의 공감대를 이룩하고 있었다.(…중략)

미국에 있는 식구들이 그리워 몸을 쥐어짜며 고통스럽게 우는 선생님을 본 일이 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일이다. 그 옆에 있는 기와를 본다. 색깔해서 만든 청기와다. 쇼핑 같은 걸 잘 하지 않는 성격이신데, 언제 어디서 저것을 샀을까? 어디에 놓고 얼마나 사랑했을까?

주전자도 오래 쓰던 것이라 관록이 붙어 있다. 이 주전자에 차를 끓여 얼마나 많은 문인들을 대접했을까? 방문하든 사람들을 모두 연인처럼 맞이하던 선생님은, 이 주전자 앞에서 또 얼마나 많은 웃음을 웃으셨을까? 선생님이 가신 지 십 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던 모습이 눈에 삼삼하다.

선생님은 허세를 부릴 줄 모르는 분이다. 나해석처럼 거대한 담론을 떠드는 것은 선생님에게는 맞지 않는다. 선생님은 조용히 결벽스럽게 자신의 마음속과 주변을 재현하는 작업을 하셨다. 어린 아이 같은 정직한 눈으로 포착한 현실을 여자의 감성으로 파헤쳐 간 것이다. <강물은 또 몇 천리>라는 제목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 흘러간 강물이 다시 오지 못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새삼스럽게 아프다.³¹⁾

31) 강인숙, 「최정희 여사의 <강물은 또 몇 천리>의 서두와 유품」, 『어느 고양이의 꿈』, 생각의 나무, 2008, pp.53~57.

김오남

프롤로그

1. 김오남의 생애
 2. 작품세계
 3. 문헌정보
 4. 작가연보
- 에필로그



프롤로그

2006년 언론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문인들을 조명하는 기념문학제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탄생 100주년의 문인 가운데는 유진 오나 최정희, 강경애와 같은 소설가, 이주홍과 같은 아동문학가도 있지만 이 글에서 문학과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김오남 시인은 이들 가운데서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이름 석 자가 오르내리게 된 것을 지하의 시인도 기뻐할 것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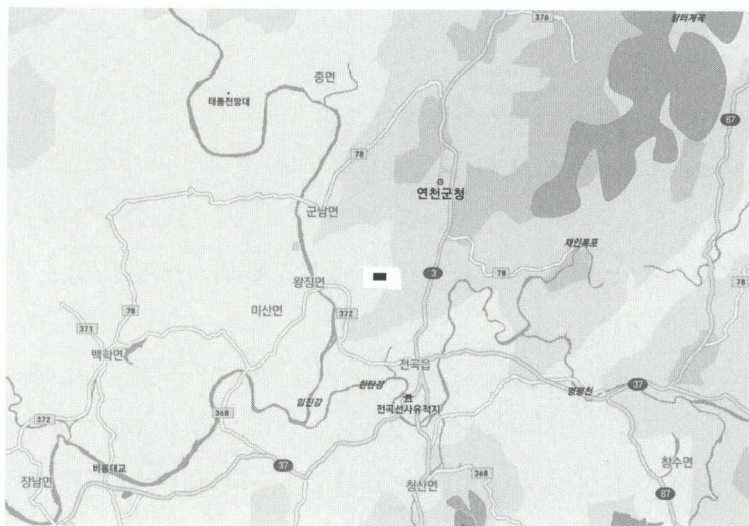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작가는 소설 ‘김강사와 T교수’ 등을 남긴 유진오, 일제시대 최고 사실주의 작가로 평가받는 강경애, 1930년대 여성소설의 경지를 개척한 최정희, 국내 문단에 번역시를 다수 소개했던 이하운, 아동문학가 이주홍과 이정호, 농민소설 작가 엄홍섭, 소설가 조정래의 부친인 시조시인 조종현, 여류 시조시인 김오남 등 9인이다.¹⁾

김오남 시인, 그는 경기도 연천에서 출생한 경기도가 낳은 여성문인이다. 생전에 세 권의 시조집을 상재했고 400여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으며, 시조부흥운동에 여성으로서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시인이다. 이 글에서는 생애와 작품을 고찰하면서 김오남 시인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1) 연합뉴스, 2006년 5월 12일.

1. 김오남의 생애

김오남은 1906년 한약방을 하던 아버지 김기환과 어머니 정규숙과의 사이에서 2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가 그의 출생지로 사람들에게 죽터골이라고 불리던 산촌 마을이었다. 30여 호의 집들이 웅기중기 모여 살던 이 마을에서 김오남의 오빠 김상용(시인)이 서울의 경성고보에 진학했으며,²⁾ 다시 일본 릿쿄대학에서 유학을 할 정도였으니 아버지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보편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집안 사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한다.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 김상용은 후에 1919년 3.1운동과 관련하여 보성고보로 전학했다.

죽터골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씨 가문의 사람들이어서 김오남 집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 고독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김오남이 어떤 잡지에 술회한 바 있다. 그러나 형제들은 진취적이어서 조그만 산촌 마을을 벗어나 서울로 올라가 공부하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줄 아는 개인 인물들이었다. 김오남은 경성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라버니 김상용처럼 자신도 서울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 김기환은 딸이 외지로 나가 공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당시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여자가 집을 벗어나 사는 것은 정숙하게 살림을 배우다 결혼해야 할 여성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동생의 재주를 눈여겨보던 오빠 김상용은 김오남에게 상급학교 진학을 권유하게 되었다. 김오남은 열여섯 살이 되던 해인 1917년, 늦었지만 서울의 진명여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남동생 김우영도 서울에서 보성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세 남매의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늘 궁색했기 때문에, 오빠 김상용이 교비 장학금을 받아 동생들 학비에 보태주곤 했다. 김오남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진명에서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고, 후에 모교에 와서 교편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학교를 졸업한 후 김오남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이듬해에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일본여자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여 1930년 졸업했다. 김오남은 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던 때를 회상하여 그의 시조집 『심영』에 다음과 같이 이 당시를 술회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우등을 하고 또 첫째를 아니 뺏기려

했다. 필자는 넉넉지 못한 가정에 태어났다.

오빠는 교비로 공부했다. 그러면서도 군색한 학비를 떼어 동생과 내 학비를 보태 주셨다. 동생을 데리고 식량을 집에서 가져다 자취를 했다. 나는 진명, 동생은 보성을 다녔다. 많은 고생을 겪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분발했다. 밤이면 잠을 자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다. --- 중략---

그 후 사회에 나와 직업을 잡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행복하리라고만 생각하던 장래가 당도한 오늘날은 아무것도 아니되고 말았다.³⁾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지만 뜻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위의 내용처럼 김오남, 김상용 등 이들 형제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다. 군색한 집안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김오남이 일본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끝없는 노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조선일보 기자 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그보다도 그의 모교인 진명여고에서 영어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31년부터 모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김오남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무섭도록 야단을 쳤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를 김뚝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⁴⁾ 이 무렵 김오남은 이미 문단에 데뷔하여 문필활동을 하던 오빠 김상용 시인을 이어 시조 습작을 열심히 하던 시인 지망생이었다. 그리고 1년 후인 1932년엔 『신동아』지를 통해 13수의 시조를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시조 창작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20년대 최남선과 이광수를 필두로 하여 문단에 일기 시작했던 시

3) 김오남, 『심영』, 동인문화사, 4289, pp.33~34.

4) 『여성』, 1937, 7, p.72.

조부흥 운동의 불꽃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다. 이병기, 이은상, 정인보와 같은 시조 시인들이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여성 시인들의 활동이 거의 없던 그 시대에 김오남은 개척자처럼 시조부흥운동에 합류하여 민족적 정서를 쏟아내기 여념이 없었다.

학업과 대학 졸업 후의 취업, 시조 시인으로서의 문단 활동 등 가파르게 젊은 날의 자기 삶을 개척하기 여념이 없던 김오남은 결혼할 틈도 없었다.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다 보니 혼기마저 놓쳐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인을 기다려 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 김오남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인 정봉운이었다. 김오남의 나이 31세에 만났지만, 그리고 그 시절로 본다면 노처녀 중에서도 노처녀였지만 천생연분이었기에 다행이었다. 중매로 결혼한 둘 사이에는 딸 학희(鶴姬, 1937년생)와 아들 국진(國鎭, 1939년생)이 태어났다. 이 무렵 김오남은 자신의 교사 생활과 더불어,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작품을 쓰지 못해서 한동안 작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일인 다역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그의 시조집에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오남은 우리나라 가정부인의 생활은 어려서는 사랑 받는 딸이었지만 출가하면 시집의 종이 되고, 시부모의 심부름꾼으로, 남편의 조롱꺼리로, 자녀의 시종잡이로 평생을 고해(苦海)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한탄한다. 그러다 보니 맛있는 음식, 따뜻한 옷을 입으며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고 맘 놓고 이야기조차 할 수 없음을 탄식하는 글을 썼다.

가사에 시달린 몸 부모 봉양 어려워라

자식이 또 팔리니 남편을 어이 섬기리
베개를 편히 베고서 단 한 잠을 못자오

뼈 휘게 일을 해도 칭찬을 못듣구려
술 댔고 불사를 제 한숨 섞어 불을 부오
주부의 오늘이 법을 고쳐보면 합데다.⁵⁾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많은 공부를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고 시를 쓰는 시인이었지만 그도 역시 가족에 대한 희생과 봉사로 허리가 휠 정도였다.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었다. 전 식구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부엌에서 먹어야 하고, 헌 옷가지나 입어야 한다. 잘해도 ‘예’ 못해도 ‘예’ 해야 하고 남편이 외도를 하건 잡기를 하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시부모의 꾸중과 남편의 구박을 견뎌야 하는 여성- 그 자신의 위치도 이렇게 비유한 것 같다 -을 집에서 기르는 개나 돼지보다 못하다고 고발하고 있다.⁶⁾ 위의 시조는 바로 그러한 여자의 신세를 그린 작품이다. 가부장제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당대의 여성들과 비교하면 오늘날과 그 시대는 그리 멀지 않지만 오늘날의 여성 지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득한 원시시대인 양 느껴질 정도이다.

이런 김오남의 글들을 보면 늦은 나이에 연분이 되어 한 남자와 살림을 꾸렸지만 생활은 늘 궁핍했던 것 같다. 한 때(1944년) 영어 과목이 없어져서 교사 생활을 그만두어야 했던 김오남은 다시 고등학교 교사로 복귀하여 1948년부터 수도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러나 결핵성 관절염에 걸린 아들의 병수발을 위하여 1950년 3월에 다시 학교를 그

5) 『심영』, pp.15~16.

6) 『심영』, p.16.

만두게 된다. 아들의 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정작 6·25 전쟁이 발발하여 아들의 치료는커녕 피난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해 11월에 겨우 부산으로 피난을 갈 수 있었다. 이 때 김오남은 부산에서 오빠 김상용을 만난다. 인생의 스승과 같은 오빠였으며, 문단의 선배 시인이기도 한 오빠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상용은 1951년 6월 식중독에 걸렸다가 의사의 잘못된 처방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다.⁷⁾ 김오남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자 충격이었다.

1953년 휴전이 되고 김오남은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에 도착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 오빠가 살던 집 옆을 지나게 되었다. 이미 그 집은 피난 가기 전에 허물어졌던 집이지만 오빠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김상용 시인이 방공호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부산까지 내려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김오남은 두고두고 한이 맺혔던 것 같았다. 김상용이 죽은 후에 며칠에 한 번씩 오빠가 꿈에 나타나 ‘누이야 간다’하고 그 허물어진 집터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니 마음 속 깊은 그 괴로움과 슬픔의 정도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후에 김오남은 50세를 일기로 생을 마친 오빠 김상용을 기리면서, 고결하고 청렴한 시인이자 철학자요, 시인이며, 도덕가로 자타가 공인하던 인물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한 바 있다.

서울로 돌아 온 후 김오남은 아들 국진의 병인 결핵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 기울였다. 의사가 처방한 이 병의 치료법은 절대적인 안정과 더불어 일광욕 치료법이나 그리고 영양섭취 등이었다. 영양섭취의 방법으로는 쇠꼬리 한 개, 닭 한 마리, 마늘 한 접, 소주 한 되,

7) 김용성, 『한국문학사 탐방』, 현암사, 1984, pp.320~321.

설탕 근 반을 섞어 곰국을 끓여 매일 두 공기씩을 먹이는 것이었다. 해쓱한 얼굴로 아들이 “엄마, 이제는 그만두라”고 하며 안타깝게 굴 때 김오남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만지면 가늘기가 촛대같았던 아들이 이런 병신 다리를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걱정했는데 아들이 드디어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정성이 아들을 살린 것이다. 이때의 심정을 김오남은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병신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또 절름발이란 듣기도 끔찍한 조롱을 어떻게 받는단 말인가? 혹 틈이 있을 때면 이 답답한 심정을 적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쓸 길이 없어 붓을 내 던지고 한숨만 진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동안에 십 년은 갔다. 얼마나 지리했는가. 그러고도 일 년이 된 오늘날 완치가 되어 땅을 디디고 일어서서 지척지척 걷는 것을 보았다. 너무도 어이없는 기쁨에 어리둥절 했다. 눈물이 저절로 흐름을 금할 길이 없었다. 반가와서다. “이놈 국진아 걷는구나” 무두무미(無頭無尾)한 마디가 저절로 나왔다. 이것이 자식의 병을 고치느라고 애쓰던 나머지, 자식의 첫걸음을 떼어 놓는 순간 어미의 기쁨이며, 즐거운 표정이었다. 나는 비로소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십년 후 오늘의 나는 확실히 늙었구나.⁸⁾

아들의 병환을 치료하고자 직장도 버리고, 오로지 십여 년간 병구완만 했던 자신이 정작 아들의 완치와 더불어 거울을 보니 늙었다는 한탄에 고된 세월의 흔적을 그 글의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고된 세월의 흔적은 그의 시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생 자체가 그리 여유롭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집안 살림에 쫓겨다 가며 학비를 마련해야 했고, 결혼 후에도 아들의 병

8) 『심영』, pp.64~65.

환 때문에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제자에게 재정 보증을 서 주었으나 잘못되는 바람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듯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김오남만이 남들보다 군색하게 살아간 것은 아니리고 본다. 또한 가부장적인 전통 아래 여성으로서의 삶이 고달프다고 그의 시조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부부 사이가 그렇게 나빴다는 흔적은 없다. 평생을 교직 생활을 하며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한 남편과, 비록 어린 시절 긴 병고를 치렀지만 음악을 전공하여 음악 선생님이로 교직 생활을 했던 아들, 이러한 가족의 관계는 결코 궁색하지만은 않은 중산층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래서인지 김오남은 그의 시조집 『심영』에서 부부의 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시조집 심영

그는 이 글에서 부모를 작별하고 형제를 떠나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남편이고 아내라고 정의한다. 때에 아니 오면 기다려지고, 잠시를 떠나도 서운한 것이 부부사이라고 했으니 김오남이 생각하는 부부관은 꽤나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나 귀중한 사이며, 존경할 존재냐고 했던 김오남은 그 부부의 정을 다음과 같은 시조로 노래하고 있다.

님 따라 내가 오나 내 따라 님이 오나
님 함께 걷는 길이 그리도 미덥구려
그리워 타는 애정이 합하는게 부부리까
술같이 피는 애정 구름에다 비기리까
생애에 지치도록 안개인양 스는구려
인생에 이런 한 때를 행복이라 하리까.

이렇게 보면 불행했던 우리 현대사의 한 가운데를 지나면서 김오남은 나름대로 여성으로서 시인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온 선택받은 여성이었다고 그의 삶을 종합할 수 있을 것 같다. 1988년 남편 정봉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5년 뒤인 1993년 88세에 남편의 뒤를 따랐다.

2. 작품세계

1) 김오남 시조의 문학사적 의의

김오남이 시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시인인 오빠 김상용의 영향도 컸지

만, 때 마침 우리 문단에 큰 물결을 일으켰던 시조부흥 운동의 여파도 컸다. 1932년 『신동아』를 통해서 작품 발표를 시작했던 김오남은 이 밖에도 『신가정』, 『시원』, 『중앙』 등에 시조를 발표하면서 그의 이름을 문단에 알렸다. 원래 시조부흥운동의 시작은 1925년 프로문학의 전진 기지였던 카프가 결성되자, 이에 맞서 우리 민족정신을 담고 순수한 문학 정신을 고취시킬 문학으로서 시조를 부흥시키자고 시작한 운동이었다. 이미 근대 시조집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시조집 『백팔번뇌』를 냈던 육당 최남선과 이광수, 정인보, 이병기, 이은상 등이 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노산 이은상을 비롯한 시조 작품들이 홍난파 등에 의하여 수많은 가곡으로 만들어져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그야말로 시조 부흥의 시대였다. 1920년대 시작했지만 1930년대까지도 시조 사랑은 식지 않아 1930년대 말, 탄생한 문학지인 『문장』은 가람 이병기에 의하여 신인 시조 시인들을 추천 배출하기도 했다.⁹⁾

그러나 활동했던 대부분의 시조시인들이 남자들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김오남의 등장은 여성 시조시인의 새로운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면서도 문단에 큰 관심을 끌만한 일이었다고 본다. 더군다나 일본 유학까지 하고 온 엘리트 신여성 김오남은 자기의 모교인 진명여고에서 영어까지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으니 당시로 보면 선망의 여성이었음에 틀림없다. 게다가 그의 오빠인 월파 김상용은 김오남보다 앞서 문단에 나온 시인이었다.¹⁰⁾ 이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김오남이 문단에 시인으로

9) 이 잡지에서 정지용은 시를, 이태준은 소설을 심사하여 신인들을 추천했다.

10) 대표작은 잘 알려진 작품 <남으로 창을 내겠소>이며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갈이

서 뿌리내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그 보다 앞서 등장한 여성 시조시인으로서의 장정심이 있었을 뿐이니,¹¹⁾ 현대 여성 시조 문학의 개척자라 할만하다.

두 여성의 작품 세계는 기독교적인 것과 유교적인 것으로 판이하게 달랐다. 장정심의 작품들이 종교적 색채가 너무 들어나는 찬송가풍의 시조였다면, 김오남의 시조 작품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을 답습하여 어찌면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시조부흥 운동에 동참했던 남자 시조시인들이 형식과 내용에서 고시조의 구태를 벗어났던 것과는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이 운동에 참가하여 민족문학으로서의 시조 붐에 함께 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김오남의 시조 작품 가운데는 선이 굵은 사회비판적 내용이나 현실에 대한 풍자, 애국심 등 신변의 문제를 벗어난 작품들

팽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시오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오
새 노래는 공으로 드르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종소

왜 사냐진
웃지요

- 11) 장정심은 1898년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하여 호수돈여고보와, 일본 교오세이 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청년』에 시조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문단에 알려진 것은 1932년 『신생』에 <山水> 등의 시조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도 눈에 많이 띈다. 그만큼 김오남의 문학적 관심사는 다양했다고 본다.

불쌍한 이 백성을 제 어이 살리과저
혈벗고 주린 꼴을 볼 수가 없소그려
어둔데 광명이 되어 비쳐보면 하노라

산은 벗고 물마르니 풀인들 사오리카
강토가 사막되면 어인들 산단말요
한 줄기 젖비가 되어 뿌려볼까 하노라



김오남 시조집

작품집 『심영』에 실린 ‘겨레를 생각하며’라는 글 말미에 실린 시조이다.

1953년 『김오남 시조집』이 발간되고 3년 후인 1956년 이 시조집이 출간된 것이니 이 작품집에 실린 내용은 그 무렵 김오남의 정신세계를 비추는 내면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화된 이 강산, 혈벗은 백성들, 전쟁의 참화로 정서적 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민중……, 김오남의 시조를 통해서 우리

현대사의 일 부분을 보는 듯하다. 특히 그의 시조에서 볼 수 있는 1930년대 식민치하에서 겪었던 궁핍함과 민족의 아픔 등을 다룬 작품을 통해서 김오남의 사회적 인식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인생에 대한 관조나 산수 자연을 노래하는데 그치고 말았던 현대시조에 이색적이고 대담한 수용이었다는 평가를 수긍할만 하다.¹²⁾ <빈궁>, <지계꾼의 탄식>, <농촌片感>, <이침지> 등의 작품을 통해서 이와 같은 김오남의 문학정신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심영』에 실렸던 <이침지>에 대한 글을 보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곤궁한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땅 몇 마지기를 빌려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줄어들지 않는 궁핍함, “찬 방에 들어와 시켜면 시레기 짬지에 언 조밥을 꺼워꺼워 씹어 삼키는 것이 그의 사는 생애였다”라고 김오남은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조를 지었다.

나무짐 벗어놓고 한숨지는 저 늙은이
씨레기 짬지에다 조밥이 운수런가
이날이 저물어가니 명석 밑이 더 차오.

한 평생 일한 값이 이것 뿐이었고
육십 년 늙은 몸에 오는게 이렇구려
목숨을 굳이 못버려 이런 짐을 지지요.

생전 이불을 모르고 살았으며, 두루마기를 입은 일이 없었다는 이침지는 김오남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마을의 인물이다. 영혼이 있다면 천당에 가서 배부르고 따뜻한 이불이나 덮여지고 부드러운 두루마기나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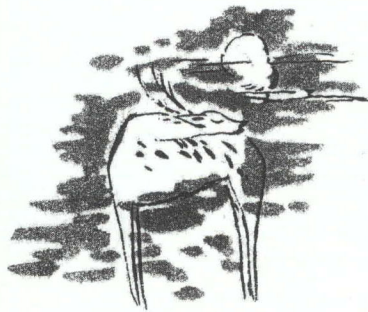
12) 정영자, 한국여성문학연구, 동아대학교박사논문, 1987, p.86.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김오남의 글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이러한 김오남의 작품과 그의 시적 위상에 대하여 『심영』의 발문을 쓴 황의돈은 “김오남시는 한국에서 새로운 여류시인으로서 그 작품의 향그럽고 꽃다움이 허난설현, 이옥봉의 뒤를 이어 자랑할 만한 시인의 재질을 갖고 나선듯하다.”고 말했다. 조선조 시인 가운데 최고의 시인인 허난설현과 이옥봉에 김오남을 비견한 것은 시집 서문을 쓴 이로서 예의상 보내는 칭송일수도 있다. 여성 문인이 별로 없던 시대에 422수의 작품을 세 권의 시조집에 상재한 사실만으로도 김오남은 그 이름값을 할 만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오남 시조에 대한 평가는 전통시조의 내용답습 못지않게 한자어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 진부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의 맛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고시조의 틀을 상투적으로 답습하여 현대적 감각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단점이다.¹³⁾

김오남은 1960년 시선집 『여정』을 간행한 이후엔 시집 발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1983년까지 『시조문학』등의 잡지를 통해서 간간히 작품을 발표했다. 1981년에는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노산 문학상을 수상했다. 비록 김오남 시조에 대하여 시조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여성 시조시인으로서 우리 현대문학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조부흥운동에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여성적인 섬세한 시상과 감성적인 세계도 그의 작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폭넓은 사회적 인식과 민족의 절실한 아픔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서 김오남의 문학적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3) 정영자, 위 논문, pp.84~85.



시조집 여정

다만 ‘어즈버, 아희야, 두어라’와 같은 고시조 종장 첫구에 등장하는 상투적 관용구를 그대로 답습한 작품들, 신선한 우리 언어를 개척하고 살려쓰고자 한 태도보다는 한문구를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 쓴 작품들은 현대시조가 나아가야 할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⁴⁾ 그러나 김오남 시조 전편을 분석해 보면, 그의 시조가 고시조를 답습하지 않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주로 일제 치하에 씌어졌던 작품을 묶은 『시조집』, 『심영』 등의 작품집에서는 이런 흔적들이 있지만 세 번째 시집인 『여정』엔 구투의 문장을 찾기 어렵다. 현대시조로서의 새 면모를 이 시조집에서는 보여주는 셈이다.

14) 정영자, 위 논문, p.85.

김오남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 밖에도 임은, 이명숙 등의 논문에도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백국새 우는구나 백국 백국 백국 백국
산 넘고 골을 거쳐 끄니락 다시 우네
앞뒤에 산들이 솟아 높고 낮고 하더라

<포곡> 중에서

빛단련 벗어볼까 정신 잃고 싸매노라
집일을 버렸으니 살림은 엉망인데
婚日을 당한 딸의 일 근심 더욱 큼니다

쓸 일은 하 많은데 돈은 돌지 않는구나
혈벗고 못먹이니 어미 마음 아프구려
뼈저린 마음만 더해 진정할 길 없구나

<딸의 婚日을 정하고> 중에서

<포곡>이라는 시조는 백곡이의 울음 소리를 의성어로 반복하여 시조의 옛스런 맛을 넘어 현대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딸의 婚日을 정하고>는 가정사의 어려움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어 음풍농월류의 시조와는 분명 다른 맛을 준다. 이렇듯이 김오남의 시조가 현대시조의 획기적인 새로움을 열지는 못했어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였다는데 김오남 시조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2) 문학 세계

김오남이 시조 창작을 활발히 하였던 1930년대는 카프가 해체되면서 표면상으로는 프로문학 운동이 잦아들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1920년대 활발하게 움직였던 민요시 운동이나 시조부흥운동 같은 민족문학 운동

도 상대적으로 수면 밑에 가라 앉았던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인들이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민족문학의 가치를 내걸지는 않았지만 일제 식민치하라는 불행한 시대에 저항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문학을 통해서 민족정신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조선심(朝鮮心)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이광수, 박종화, 심지어는 김동인 등에 의하여 역사소설이 유행처럼 장작되었던 것도, 『문장』지에 우리 문화를 조명하는 다양한 특집들이 실렸던 것도 모두 동일한 민족의식의 표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김오남이 선택한 시조 창작은 이 시인이 선택한 민족의식의 일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조집』(1953년), 『심영』(1956년), 『여정』(1960) 등의 시조집을 내고 『여정』이 후에도 간간히 시조를 발표했던 이 시인에 대한 평가가 별로 없고, 몇몇의 평가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김오남이 문단에 등단한 후에도 당시 문인들처럼 동인 그룹에 참여하여 문인들 간의 인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적 화제를 뿌리지 못했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 그의 작품을 비롯한 문학적 동향이 자주 언급됐다면 김오남 문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을 것이다. 둘째, 등단한 후 근 20여년이 지난 1953년에서야 첫 시집을 내었기 때문에 문단에서는 거의 잊혀져갈 무렵이었다. 이것 또한 그의 이름과 작품 세계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나던 때였고 한국문학도 새로 등장한 신인들을 비롯하여 새로운 문학이 싹트던 때였으므로 과거의 작품을 모아놓은 시조집으로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또한 몇몇 연구자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김오남의 시조가 현대시조로서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담지 못했던 것도 김오남 시조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없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본다.

물론 김오남 시조가 구태의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시조시인으로서 가졌던 사회의식이나, 초기 작품과는 달리 후기 시조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면모도 있다는 점을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몇 안되는 당대의 여성 시인, 그 가운데서도 시조시인으로서의 문단 위치를 평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 연구자는 김오남의 시조를 통해서 허무의식, 전통의식, 서민의식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다¹⁵⁾ 불운한 시대를 살았던 한 여성으로서 곤궁한 삶과 피폐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노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허무감과 더불어 서민의식이 작품 속에 스며있었던 것 같다. 다만 고어투의 상투적이고 관용적이며, 빈번한 한자의 사용은 현대시조가 현대시로서 새롭게 나아갈 방향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조의 종결형에서도 ‘~노라’, ‘~으랴’, ‘~더랴’ 등과 고시조의 어투를 그대로 답습한 종장 첫구절의 ‘어이타’, ‘世事야’, ‘花鳥야’ 등과 같은 관용투는 김오남 시조의 단점으로 남는다.

花香에 陶醉하야 조든 꿈 깨여보니
피엿든 庭梅花의 二三花葉 덜었고나
歲月아 가라 하여라 나도 늙자 하노라

낙화(3)

위의 시조는 김오남 시조의 상투적인 구태의연한 작품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듯하다. 꽃향기라고 쓰면 더 아름다운 우리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花香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庭梅花의 二三花葉’과 같은 말

15) 임은, 김오남연구, 성신여대교육대학원, 1995, p.21.

은 고어체의 표현이기 때문에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구투로만 느껴질 따름이다. 게다가 ‘~~하여라’ 라든가 ‘~하노라’ 같은 종장의 관용투 또한 이 작품이 고시조인지 현대시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만큼 김오남 시인은 시가 언어예술로서 새로운 창조미학임을 관심두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유교적 이념과 같은 옛것을 숭상하고 옛 질서를 따르는 고지식한 그의 성품처럼 작품 또한 새로운 시대의 현대시조로의 변모를 추구하지 않는다. 평시조의 자구 맞추기에 골몰한 것도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김오남은 섬세한 여성성의 작품만을 고집했던 것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의 불행한 사회적 환경과 이를 지나칠 수 없는 작가 의식을 작품 속에 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부장적 권위와 여성 비하의 세태를 고발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그도 더 이상 앞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 그 시대는 바로 그럴 수밖에 없던 시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을 노리게로 여기는 방탕한 남성들에 대하여 김오남은 다음과 같이 경계한다.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적절함은 하늘이 정하신 천리이고, 인간만이 자랑할 수 있는 도덕이며, 권리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여자를 희롱했다가, 저 여자로 옮기고 하는 일이 많고, 또 이것을 도락으로 아는 불량남아들이 흔히 보인다. 이런 사람에게 잡히는 날이면 그 날이 평생을 망치는 날이 되고 마는 것이다. 도덕심이 강한 남자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극히 드물다는 것을 여자들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¹⁶⁾

“도덕심이 강한 남자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극히 드물다는 것을 여

*김오남 시인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시조와 시를 병행하여 창작하였다. 이 시기는 그의 시조 창작의 전성기였으며, 이 시기에 그의 시조는 문단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16) 『심영』, p.110.

자들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은 그 시대 남성들의 부도덕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여성 시인으로서 여성에 대한 인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춘 남자의 사랑은 인류의 행,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며, 삼가고 또 삼가야 하며, 이성을 잃지 말라고 충언하는 이 시인의 태도는 남성에 대한 준엄한 목소리를 뒤로 감추는 이중성을 보인다.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더 이상 앞서 나아갈 수 없는 한계일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작품 또한 밋밋한 도덕 교과서의 내용 같은 시조로 마무리 되고 말았다.

연모한 청춘만이 애가슴 태움일네
 웃고 또 우는 것이 꿈깨운 뒷일지라
 理性을 굳게 안고서 후회 없게 하소서

꽃이란 피면 지고 달이 차면 이울듯이
 남녀의 정이란 게 타는 듯 스는 것을
 껌 뒤에 한탄을 말고 굳이 삼가 하소서.

이러한 김오남의 의식은 여성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여성관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순종적이고 남편의 뜻에 따르는 여필종부로서의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點景>이라는 작품에서는 등에는 아이를 업고, 머리에는 밥을 이고 발가는 남편을 찾아가는 아낙네를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다운 모습으로 그렸다(世上의 꽃다운 곳을 네게 또한 보았노라). 사실 작가는 이런 아낙네를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렸지만 아이를 업은 채 머리에는 밥을 인, 작품 속의 아낙네는 얼마나 힘든 모습인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발가는 남편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지만 견뎌내는 육체는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

했다면 그것은 순종적인 여성상에 대한 미화가 아니고 무엇일까?

(기자) 여자가 결혼한 후 가정을 위하여 남녀공동으로 일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오남) 나쁘지는 않으나 생활 안정만 되면 여자는 가정부인으로 잘 노력하고 활동함이 좋겠지요.

(기자) 남녀문제에 있어서 평등을 주창함이 어떨까요?

(김오남) 가정원만주의로 나가는 것이 제일이겠지요.¹⁷⁾

한 잡지사의 기자와 인터뷰한 위의 내용을 보면 김오남의 속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여자도 사회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녀평등 문제에 대해 교묘하게 비껴나가는 대답을 한 것이다. 이러한 이 시인의 모습은 작품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때로는 남편, 혹은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태도에 불만을 갖고 또 그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지만, 결국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유교적인 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물론 그 시대는 이러한 모습이 여성의 미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들과는 다른 교육을 받으며, 일본 유학까지 다녀와 모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시인 김오남의 모습은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신여성의 모습이 아니다. 김오남의 시조 작품들이 현대시조로서의 새로운 변신을 하지 못했던 것도 아마 이 작가의 이와 같은 천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17) 『신인문학』, 1936, 8. p.67.

3. 문헌정보

- 김경식, 「신여성의 허무의식과 관조적 시심을 조명하며 김오남의 시세계」, 『시조문학』, 2007. 가을.
- 김기림, 「여류문인 편감총평」, 『신가정』, 1934. 2.
- 김오남, 『김오남 시조집』, 성동공고 1953.
- , 『심영』, 동인문화사, 1956.
- , 『여정』, 문원사, 1960.
- 김오남(외), 『서간문전서』, 학원사, 1958.
- 김오남, 「인터뷰 시와 문학에의 동경」, 『신인문학』, 1936. 8.
- 김해성, 『한국현대시문학전사』, 형설출판사, 1975.
- 김해성, 「한국현대여류시사연구」7, 『월간문학』, 1986. 7.
- 박용철, 「여류시단총평」, 『신가정』, 1934. 2.
- 박을수, 『한국시조문학전사』, 성문각, 1978.
- 박태일, 『두류산에서 낙동강까지』, 경남대출판부, 1997.
- 서범석, 『한국농민시』, 고려원, 1993.
- 이명숙, 「일제 강점기 여류시조 연구: 김오남, 오신혜, 장정심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7.
- 이명찬(편), 『해방전 시작품 자료전집』3, 청운, 출판년도 불명.
- 이태극, 『시조의 사적연구』, 선명문화사, 1974.
- 이태극, 「한국현대시조개관」, 『신한국문학전집』36, 어문각, 1977.
- 이태극(편), 『한국여류시조문학전집』, 1986.
- 임선묵, 『근대시조집총람』, 단국대출판부, 1988.
- 임 은, 「김오남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 정영자, 「한국여성문학연구: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8.
-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론』, 지평, 1988.
- 정영자, 『한국여성시인연구』, 평민사, 1996.
- 정훈(외), 『시조문학-삼인회갑특집』14집, 1966. 9.
- 최범훈, 『한국여류문학사』, 한샘, 1987.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십년을 경영하여 조가 삼간 지어내니』, 문학신조사, 1983.

한국시조작가협회, 『현대시조선집』, 새글사, 1976.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예총사』, 1994.

한국여류문학인회, 『한국여류 101인 시선집』, 한림, 1985.

허영자, 『한국 여성시의 이해와 감상』, 문학아카데미, 1997.

『여성계소식』, 『여성』, 1936. 12.

『경성 각 여학교 선생 평판기』, 『여성』, 1937. 7.

『좌담, 결혼 1년생 이동좌담회』, 『여성』, 1938. 1.

『시인 김오남 씨와 가정』, 『여성』, 1939. 3.

4. 작가연보

1906년.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에서 출생

1922년. 부친 사망,

1926년. 진명여고 수석 졸업

1930년. 일본여자대학 영문과 졸업

1930년. 조선일보사 기자로 입사 및 퇴사

1931년. 진명여고 영어교사

1932년. 『신동아』시조 13수를 발표하며 데뷔

1936년. 국어교사로 일하던 정봉윤과 중매결혼

1937년. 딸 정학희 출산

1939년. 아들 국진 출산

1944년. 일제말의 영어과목 폐지로 인하여 교사 사직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영어과목 부활로 수도여고 교사 취임

1950년. 수도여고 사직

1951년. 오빠 김상용 식중독으로 부산에서 사망

1953년. 첫 시조집인 『시조집』 발간

1956년. 두 번째 시조집이자 수필을 함께 넣은 『심영』발간
 1960년. 세 번째 시조집 『여정』발간
 1966년. 『시조문학』에 회갑을 맞이하여 작품 특집이 수록됨
 1981년. 노산 문학상 수상
 1988년. 남편 정봉윤 작고
 1993년. 88세로 작고

에필로그

김오남은 탄생 100주년(2006년)을 넘긴 경기도의 연천에서 출생한 여성문인으로서 그동안 문단의 조명을 받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생애와 문학사적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김오남을 한 여성시인으로서, 한 집안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그리고 후세를 가르치던 교육자로서 우리 근·현대사의 여성들 가운데 나름의 족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남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로 유명해진 시인 김상용을 오빠로 둔 김오남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조부흥운동에 가담했던 시조 시인이다. 1932년엔 『신동아』지를 통해 13수의 시조를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시조 창작을 시작했던 김오남은 세 권의 시조집 등 40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받을만한 여성이었다. 비록 그 작품들이 현대시조가 고시조로부터 뛰어넘어야 할 형식과 구태의연한 내용을 버리지 못했다는 단점도 있지만 때로는 준엄하게 부조리한 사회상을 꾸짖고, 때로는 민족의 비애를 거침없이 작품 속에 담았던 이 시인의 품모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한국문화원협회 경기지

회에서 발행한 경기도의 여성문인 속에 김오남 시인을 독립적인 한 인물로 고찰하는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쁘다. 저 세상의 김오남 시인도 무척 기뻐할 것이라고 본다.

여 백

박완서(朴婉緒)

프롤로그

1. 박완서의 생애
2. 작품세계
3. 문헌정보
4. 작가연보

에필로그



프롤로그

박완서(1931~)는 1970년 불惑(不惑)의 나이로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裸木)」이 당선되어 창작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분단의 상처, 중산층 삶의 물신주의적 허위의식, 여성 문제 등 세계와 인간의 문제를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따뜻한 생명주의적 시선으로 조망해왔다.

그는 38년 동안 소설뿐만 아니라 수필집, 동화집, 콩트집, 기행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작품 활동을 해왔다. 특히 100여 편이 넘는 소설 작품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있을 수 있는 작가가 행복’¹⁾하다는 자신의 믿음처럼 현재까지도 작품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소설계에 우뚝 솟아오른 거목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있다.

박완서는 등단 이후 6·25 전쟁과 분단문제, 그것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파생된 한국 현실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끈기 있게 다루어왔다. 「나목」, 「목마른 계절」(1971~1972), 「부처님 근처」(1973), 「키메라와 워커」(1975), 「엄마의 말뚝」연작 (1980~199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또한 그는 산업화 이후 발생한 물신 숭배 사상 및 소외된 인간과 해체된 가족관계에 대해 조망하게 되는데, 관련 작품으로 「지렁이 울음소리」(1973),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4), 「닭은 방들」(1974), 「도둑맞은

1) 조선희, 「바스러지는 것들에 대한 연민」, 『작가세계』8, 1991 봄호, p.51.

가난」(1975), 「도시의 흥년」(1975~1979), 「휘청거리는 오후」(1976), 「포말의 집」(1976), 「욕망의 웅달」(1978~1979), 「오만과 몽상」(1980~1982) 등이 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작품에는 여성이 겪는 모순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념화되거나 논리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관련 작품으로 「어떤 나들이」(1971),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음모」연작(1979), 「살아있는 날의 시작」(1979~1980), 「그 가을의 사흘 동안」(1980), 「서있는 여자」(1985), 「그대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 「꿈꾸는 인큐베이터」(1993) 등이 있다.

중산층 여성이 갖는 현실 문제 외에도 박완서는 「이별의 김포공항」(1974),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 「흑과부」(1977), 「공항에서 만난 사람」(1978), 「황혼」(1979), 「환각의 나비」(1995) 등의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층여성과 여성 노인의 계층적 문제와 소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박완서 작품들은 “소설은 이야기이다.”라는 박완서 소설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아직도 ‘이야기’의 힘을 믿고 ‘이야기꾼’²⁾으로서의 꿈을 버리지 않은 채 철저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실한 작가이다. 소설이 “인간의 삶과 세계를 인식하는 행위, 즉 보는 방법의 일종³⁾”이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과 세계의 탐구에 있으므로, 작가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박완서 문학 앨범』, 웅진출판, 1992, p.144.

3) 이재선, 『한국 문학의 지평』, 새문사, 1981, p.171.

1. 박완서의 생애⁴⁾

박완서 소설은 “소설이나 수필 속에서 한두 번씩 울거 먹지 않은 경험 이 거의 없는”이라고 자전적 소설에서 밝히고 있듯 자신의 체험을 형상화한 것이 대부분이다. 작품에는 유년의 기억과 전쟁 중의 체험 등 사적인 이야기가 반영되었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어머니의 억척스러운 삶,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삼켜버린 모녀의 처절한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른바 ‘사소설적 절실함’이라고도 논의되는 박완서 문학은 그런 점에서 그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완서의 작품 속에 각인된 개인적 체험은 그녀의 이야기이자, 가족, 그리고 그녀가 결부되었던 삶 속에서 부딪쳐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1) 유년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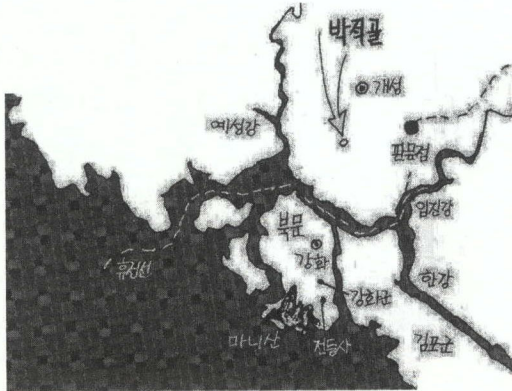
박완서는 개성에서 1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박적골이란 벽촌에서 1931년에 태어났다. 위로는 열 살 위인 오빠가 하나 있었다. 작가가 네 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작가의 어머니는 삼년상을 마치자마자 아들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때문에 작가는 조부모와 숙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때의 사무치는 외로움의 기억은 그녀에게 있어 마음의 상처가

4) 생애와 관련된 자료 및 사진은 박완서 작가의 동의를 받아 아래 자료를 참조했다.

박완서 외,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되었고 이것은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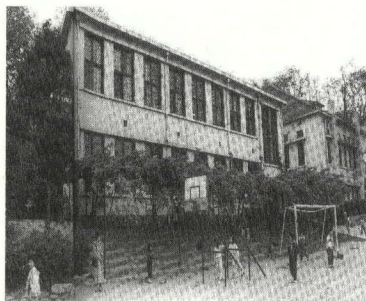


“대청마루에 있는 상청에다 대고 매일 하시던 것이었다. 절이 끝나면 곡을 하시겠지. 나는 어머니의 곡을 듣는 게 무엇보다 싫었다. 어머니의 애절한 곡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면 나도 저절로 눈물이 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나 혼자 단절된 것 같은 슬픔과 고독을 맛보아야 했고 그런 슬픔과 고독은 대여섯 살의 계집애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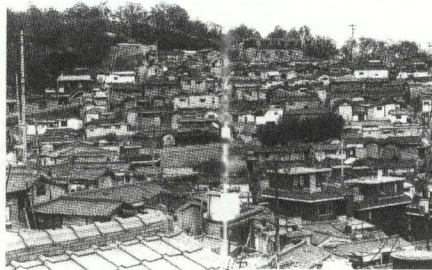
-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중에서

작가는 8세 되던 해인 1938년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로 왔다. 현저동골짜기에서 매동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생활을 시작했다. 너무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국어(당시 일본어)를 가장 정확히 하는 학생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 후 광복이 되자 1944년 숙명여고에 입학하였고 1950년까지 그 곳에서 학업을 마쳤다.

여중 5학년 때 담임이었던 소설가 박노갑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매동초등학교



서울의 현저동

한말숙과 교분이 두터운 친구가 되었다. 그때 스승 이었던 박노갑 선생에게 작가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문학에 대한 기초를 배웠다. 박노갑 선생은 6.25 때 행방불명 되었는데 좌익작가로 지목되어 작품이 판금되었다가 1988년에야 해금된 작가이다.

“제 경우 대학 들어가자마자 6.25 전쟁이 터져 정통 문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작가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은 여고 시절 선생님께 받은 교육으로 거의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문학 소녀들이 갖기 쉬운 환상이나 미사여구를 경계하도록 가르치셨고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문학이 무엇인가를 엄정하게 보여 주신 스승이셨습니다.”

- 「동아일보」 1989.11.4 박완서 인터뷰 중에서

작가는 어머니의 극성으로 좋은 교육을 받게 된 것이 소설가의 길 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작가의 어머니는 작가에게 신여성이 되기를 원했다. 작가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신여성의 상을 「엄마의 말뚝2」에서 보여주는데,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

는 게 없고 마음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이다.

2) 근대경험의 양식

박적골, 송도, 서울로 이어지는 유년기는 박완서 소설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향에서 서울로의 옮겨감의 형식 속에는 ‘문밖 의식’이 뚜렷하게 각인 되어 있다. 박완서 개인의 경험이 근대 체험이라는 역사적 형식과 만나는 것도 이 시점에서다. 박완서 소설에서는 근대를 실감하는 기억으로, 종종머리와 단발머리에 대한 기억이 있다.



1944. 숙명여고 1학년 시절

“종종머리란 계집애들이 땀기를 들여 길게 머리 꼬랑이를 땅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빗는 머리로, 정수리로부터 머리칼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가닥 가닥 땅다가 색실이나 형겔오라기를 들여 끝마무리를 하는 머리였다. 손이 많이 가고 매일 손질해주지 않으면 두억시니같이 돼 버리기 때문에 머리만 봐도 집에서 위해 기르는 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었다.”⁵⁾

박완서 유년의 기억 속에서 종종머리는 오래된 기억뿐만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게 한다. 종종머리가 땀기머리로, 쪽찐 머리로 이어져야 하는 오래된 관습을 지우고, 엄마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단발머리는 이제 박완서에게 더 이상 고향과 마을 사람들 속의 아이가 아닌, ‘엄마의 딸’이 되는 과정을 맛보게 한다. 고향에서 서울로의 옮겨감은 서울로 상

5)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2, pp.42-43.

징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근대적 경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후 신여성으로 상징되는, 엄마의 소망을 들어주는 딸로서의 작가는 서울에 대한 구체적 실감으로 ‘검은색’ (검정치마, 검정구두 등)을 든 여성을 떠올렸다고 한다. 또한 현저동 집에서는 순사들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순사의 검은 양복은 박완서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심어줬으며, 서울의 질서와 위압감이 검은색에 대한 공포로 드러났다고 고백하였다.

3) 전쟁의 상흔과 등단

1950년에 서울대학 문리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전쟁으로 며칠 다니지도 못하고 중퇴하였다. 이때의 상황은 「목마른 계절」에 잘 나타나는데 자라리 허구이자 악몽이길 바라는 이야기이다. 6.25전쟁은 작가 박완서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때문에 이는 작품에서 주요 소재가 되었다. 전쟁은 집안의 하나뿐인 가장이자 정신적인 우상이었던 오빠를 이념의 대립 가운데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꽃다운 청춘, 꿈이자 희망이었던 대학 공부, 모두를 앗아갔다. 이 전쟁으로 작가와 그녀의 어머니, 가족들은 생의 기력마저 잃게 되었다.

작가는 오빠의 죽음이 원귀가 된 것처럼 수시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했다. 그녀의 초기 작품, 그중에서도 특히 6.25를 다룬 일련의 작품들이 오빠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 같은 작품들이라고 했다. 그녀는 초기 작품 「부처님 근처」의 주인공의 입을 통해 그런 사정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오빠는 말이야, 하고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길 쏟아 놓길 단념 못 하고 있다. 어떡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 줄까, 어떡하면 사람들을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떡하면 사람들로부터 동정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심심하면 속으로 내 얘기를 들어 줄 사람들의 비위까지 어렵짐작으로 맞춰 가며 오모조모 내 이야길 꾸며갔다.”

그 계기는 뒤늦게도 40세가 되어서 왔다. 작가는 그동안 결혼하고 살림에 묻혀 지내다가 1953년 40이 되던 해에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작가는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가슴 속에 담아 왔던 자전적인 이야기를 작품 「나목」으로 시작했다.

오빠의 죽음과 함께 줄지에 노모와 올케, 연년생의 어린 조카 둘의 생계가 박완서의 어깨에 실리게 되었다. 자연히 학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박완서가 취직한 곳이 미 8군 PX의 초상화부였다. 사실 「나목」은 작가가 여기서 근무할 때 만난 화가 박수근의 전기인데, 그가 어떻게 살아 왔다는 걸 증언하고 싶어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그의 전기를 쓰는 데는 거짓말과의 싸움 말고도 또 난관이 있었다. 자꾸만 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였다. (중략) 나는 전기 쓰기를 단념했다. 그러나 설불리 전기를 쓴답시고 고전하면서 덤으로 맛본 거짓말시키기는 - 약간 고상한 말로 바꾸면 상상력을 마음껏 구사하는 - 쾌감과 자기표현 욕구까지 단념할 수는 없었다. 특히 그때까지 내 속에 짓눌려 있던 나의 이야기들은 돌파구를 만난 것처럼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나는 논픽션을



1951. 미8군 PX 근무시절

단념하는 대신 픽션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나의 처녀작 「나목」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작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 그 자체였다. 박완서는 자신 아픔을 표현하는 한풀이적 문학을 보였고 그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6.25 전쟁에서 남과 북에 의한 오빠의 죽음, 그리고 그 오빠를 버리고 피난 간 것에 대한 아픔들이 나타

난다. 박수근 화백과의 만남으로부터 이십년 후, 박완서는 불혹의 나이에 데뷔했다. 1남 4녀를 둔 가정주부를 뒤늦게 글쓰기로 이끌고 간 간동력은 무엇이였을까. 뛰어난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는 작가의 소설관을 기억해보면, 작가는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픔을 달래곤 하셨다는 작가의 어머니는 이야기를 즐겨 만드는 사람, 즐겨 듣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였다. “소설은 이야기다.”라며 “뛰어난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다.



1970. 『여성동아』에 「나목」이 당선되어 수상하던 날 남편과 함께



1977. 신설동 집 마루에서 가족과 함께

처녀작 「나목」을 비롯해 그 후 작품 「부처님 근처」, 「카메라와 워커」, 첫 창작집인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저녁의 해후」, 「아저씨의 훈장」, 「엄마의 말뚝」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들은 이른바 분단 문제를 다룬 작품이고, 작가는 그런 작품들을 통해 비통한 가족사를 즐기치게 반복했다.

“나의 동어반복은 당분간 아니 내가 소설가인 한 계속될 것이다. 대작은 못 되더라도 내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그 피로 뭔가를 써야 할 것 같다. 상처가 아물까 봐 일삼아 쥐어뜯어 가면서라도 뭔가를 쓸 수 있는 싱싱한 피를 흐르게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건 내 개인적인 상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무참히 토막 난 상처이기 때문이다.”⁶⁾

늦은 등단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이후 박완서의 작품 활동은 눈부시게 펼쳐졌다. 작가 박완서의 삶과 문학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박완서의 작품이 눈부셨던 것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 모든 이들이 겪은 체험이며

6) 박완서, 『우리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닷컴, 2002, p.42.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완서는 준비된 작가였으며, 그의 문
학은 본인의 이야기이자 다른 이들의 이야기로 공감을 자아내는 것이다.

4) 등단 이후의 발걸음

1970년대에는 1970년 11월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분신자살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권력과 그 반대 세력, 또 자본가와 노동자의
투쟁이 계속되는 시기였다. 박완서의 일련의 단편들과 수필은 그런 와중
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감각을 꼬집었다. 그만큼 박완서는 정
지와 사회에 민감했던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할 즈음, 한 처녀가
집안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녀의 고향 이야기를 하다가 한 할머니
한 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체머리를 혼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할머
니는 6·25 때 아들을 비참하게 잃고부터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체머리를 혼드는 병자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박완서는 이 작은 모티브를
가지고 「겨울나들이」라는 단편을 썼다.

1972년 4월, 박완서의 올케가 갑자기 죽게 된다. 박완서의 친정어머
니는 집안을 돌보고 올케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서 큰일을 결정하곤
했는데 그녀는 남편(박완서의 오빠)이 죽자 어쩔 수 없이 집안을 떠맡게
되어 성격도 남자 같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 되었다. 박완서와는 시누이,
올케 사이를 넘어 가장 든든한 의지였던 것이다. 이 일로 박완서는 마음
의 짐을 얻는다. 친정어머니와 조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
었다. 「도시의 흥년」은 많은 설정들이 허구지만 광장에서 일하는 김복
실 여사의 모습과 군대에 입대하는 세태 등은 올케의 모습에서 많이 따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 올케는 의좋은 신뢰관계였다. 또한 「카메라와 위

커」도 70년대 초반 올케의 아들인 찬욱이 실제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남편의 공장은 별 이익을 보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고 청계천에 점포를 마련하여 생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말년을 보낸다. 막노동을 하듯이 힘든 일을 했는데 이러한 청계천 체험은 그 시작부터 「조그만 체험기」를 비롯하여 「자전거 도둑」같은 동화에서까지, 그리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오만과 몽상」 등 여러 작품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박완서였기에 독특한 세계를 잘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1976년, 아직도 대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다 시어머니의 망령으로 박완서는 힘든 생활을 계속해야 했다. 박완서는 수면제를 복용해야 숙면을 할 수 있었을 만큼 고된 삶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 편의 장편소설을 완성시킨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첫 장은 박완서가 주말이라도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려고 남편과 주말여행을 간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휘청거리는 오후」에서는 남편의 공장 체험이 소재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노망 속에서 박완서는 노인 문제와 여성 문제에 심각하게 눈을 돌린다. 박완서는 시어머니 모시기를 진저리를 치면서도 연민에 넘쳐 있었고 그 후에 「해산바라지」에서 시어머니의 노망을 함께 그렸다.

1983년 6월부터 KBS 이산가족 찾기를 할 때 박완서 남편의 친조카가 삼촌을 찾았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박완서와 그의 남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가족의 일원이 된다. 그의 고아원 체험은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박완서는 그 후 「미망」을 쓰기 위해서 몇 년간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 문공부를 한다. 「미망」을 쓰기 시작한 그해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고

약혼을 앞둔 막내딸 원균이 교통사고를 당하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병실에서 딸을 간호하며 「미망」을 쓰던 박완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한다.

1986년 늦가을, 박완서의 남편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박완서는 남편의 건강을 낮게 하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생기를 찾을 정도였다. 박완서가 글을 이십년 가까이 써오는 동안 남편에게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박완서를 도와주었다. 그러한 남편은 감동적으로 투병을 하였고 서울대학병원 안에서도 모범적인 암환자로 소문이 났다. 다섯 자녀의 등록금의 의무에서 겨우 벗어나자 병이 깊어진 남편은 1988년 숨을 거두었다. 그 후로 박완서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자, 미국 여행을 떠난다.



1987. 남편과 함께 부산 태종대

그러나 그해 8월 막내아들 원태 또한 세상을 떠난다. 이때 박완서는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절에 들어가겠다고 할 정도로 슬픔이 컸다. 막내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애의 묘비명을 쓴다. 그러던 박완서는 부산에서

며칠 지내다가 분도 수녀원으로 간다. 그때 종교서적도 많이 읽고 「한 말
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일기도 쓴다.



수녀원에서 나온 박완서는 다시 「미망」 연재를 시작한다. 작가로서 소설 속의 인물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겠다는 의무감에서였다.

박완서의 글쓰기는 그녀의 운명과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었고, 고독한 작업은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글쓰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81년 제5회 이상문학상 시상식



1991년 제3회 이상문학상 시상식 후



1994년 제25회 동인문학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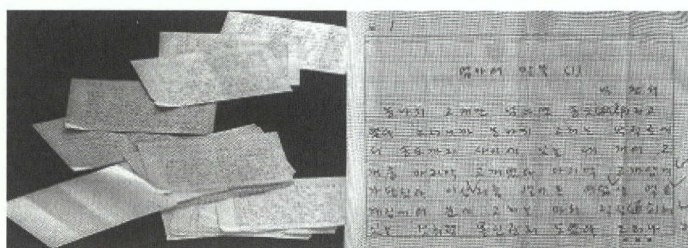
2000년 제14회 인촌상(문학) 시상식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그 가을의 사흘 동안」으로 한국 문학 작가상(1980), 「엄마의 말뚝」으로 제5회 이상문학상(1981), 「미망」으로 대한민국문학상(1990)과 제3회 이산문학상(1991), 「꿈꾸는 인큐베이터」로 제38회 현대문학상(1993),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으로 제25회 동인문학상(1994),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로 제5회 대산문학상(1997), 단편 「그리움을 위하여」로 제1회 황순원문학상(2001)을 수상했으며, 1998년 문화관광부에서 수여하는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제 16회 호암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 작품세계

일제 말기를 소녀 시절에, 625 동란을 청춘기에, 그리고 70년대 전후의 이른바 산업화 시대를 중년기에 경험한 작가의 삶은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주제들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많은 세파에 부대끼면서도 자신의 생명주의를 발휘할 줄 알았고, 타락한 사회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비판의식을 고집해왔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은 그의 소설 전반에서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따른 분류는 작품에 따라 여러 주제가 서로 혼재된 상태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한 작품과 한 주제를 명확하게 연결 짓기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의 작품세계가 전쟁과 분단의 정신적·물질적 상처를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작품 영역을 확대·변모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대한 주제를 잘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가의 육필 원고

1) 6·25전쟁 체험과 비극적 현실인식



지금은 휴전선 이북인 경기도 개풍군 출신의 실향민 작가답게 박완서가 그동안 써낸 작품들에는 전쟁과 분단의 체험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전쟁의 원인과 전개양상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분단 상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 땅에 만연한 레드콤플렉스와 그것의 제도적 발현인 연좌제의 폭력성을 한 취한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과 피해자인 ‘나’의 ‘평지멀미’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낸 「더위 먹은 버스」(1977)와 분단 극복을 위한 일차적 과제로서 지난 시대의 파행성 때문에 은폐되거나 축소, 왜곡된 객관적 사실들의 ‘복원’을 힘주어 주장한 「복원」(1989)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의 전쟁분단 소재의 작품들은 전쟁으로 인해 한 가족이 겪는 상처와 그것의 치유과정을 그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념적 갈등과 화해, 내재된 증오의 폭발과 그로 인한 새로운 증오의 형성,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복판에서 피어나는 휴머니즘 등을 다루어온 저간의 전쟁이나 분단 소재의 작품들과는 사뭇 차이나는 독특한 작품세계인 것인데, 그러기에 폭은 좁지만 그만큼 개성적이다.

6·25와 관련된 전쟁과 분단을 다룬 작품들은 박완서의 초기작에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작가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쟁의 소설도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될 때 보다 절실한 체험에 진실성이 구현될 수 있다. 「나무」은 박완서의 6·25와 분단 관련 작품들 중 6·25전쟁이 단순한 소재의 차원을 넘어 작중 인물들의 의식과 사건의 추이에 결정적인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체험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박완서에게 있어 전쟁은 자신의 가족을 붕괴시켰다. 이는 민족적 비극 이전에 개인적 비극으로서 직접적인 체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글쓰기가 자신의 한풀이와 상처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수는 없다. 6·25로 말미암은 상처는 크든 작든 우리 민족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를 다루는 작가는

경험의 직접성을 넘어서야만 한다. 박완서 문학에서의 6·25체험 수용은 이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완서의 처녀작 「나목」을 비롯해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저녁의 해후」, 「아저씨의 훈장」, 「엄마의 말뚝」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들은 이른바 분단문제를 다룬 작품이고, 그런 작품들을 통해 작가 박완서는 비통한 가족사를 줄기차게 반복해 왔다. 이들 작품은 분단이라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현실구조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황폐화시키는지 보여주지만 이 작품들 모두 결말에 가서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지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는 주인공들의 패배주의적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분단시대의 또 다른 문제로서 전쟁이 남긴 분단 상황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개인적 삶 속에 투영한 작품으로는 「부처님 근처」, 「카메라와 워커」 등이 있다. 이들 작품엔 모두 ‘나’와 어머니가 등장한다. 작가 개인의 체험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6·25 회고담이 삽입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오빠의 죽음이 공통적으로 관여한다. 이데올로기 전쟁의 희생자인 오빠의 죽음은 가족을 파괴하였고 이로 인한 개인적 피해의식은 세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개인들이 분단시대라는 상황 속에서 그 피해의식을 제각기 드러내고 있다.

박완서는 6·25 이후 전후의 분단 상황을 소재의 측면에서 여러 작품 속에서 형상화하였다. 분단문학이라고 할 때 분단문학의 개념과 범주가 6·25이후 전후의 분단 상황을 소재의 측면에서 더 이상 심도 있는 접근을 거부하는 한정된 주제로 규정된 경우도 있고, 해방 이후에 등장한 모든 문학을 분단시대의 산물로 인식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논의가 개진된 경

우도 있다. 그 동안 우리 문단에서 이루어진 분단문학에 대한 논의는 대개 분단 상황과 연관되는 625전쟁, 이산가족, 이데올로기 문제들을 문학적 소재로 다룬 작품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분단 상황의 측면들이 이러한 소재를 통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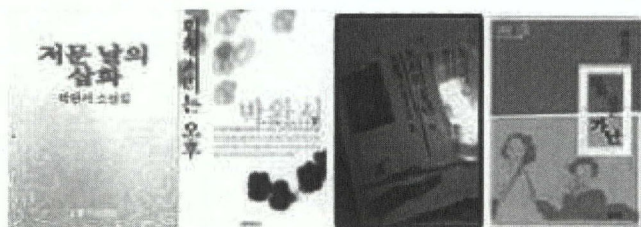
소설 「나목」에는 625전쟁 직후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황폐한 모습들이 담겨 있다. 전쟁은 민족 분단을 고정화시킨 채, 삶의 조건들을 모두 파괴하고 있다. 가족도 무너지고 사회적 규범도 뒤바뀐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뒤바뀌고, 그 가치 또한 무너져 버린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투쟁만이 돋보이는 폐허의 공간이 있을 뿐이다. 박완서는 소설 「나목」을 통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 질문 속에는 민족 분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는 역사적 주제만이 아니라, 가족 윤리의 붕괴와 인간적 가치의 상실이라는 사회 윤리적인 주제의식이 함께 포함된다. 소설 「나목」은 결국 박완서의 문학적 테마의 윤곽을 상당 부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목마른 계절」은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인 1950년 6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달마다 나누어 엮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데올로기라는 허상이 삶의 실상을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작가 자신이 후기에서 “곳곳에 체험이 너무 생경하게 누출돼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대학의 신입생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하진의 상황을 작가 자신의 체험과 굳이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작가 자신이 겪은 것이거나 아니거나 그 이야기는 후기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것이라면 시대의

상흔으로서 충분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까지 폭넓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2) 70년대 물질중심주의의 도시풍경



흔히 1960년대를 개발의 연대라고 하고 1970년대를 성장의 연대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난 60년대 이후 ‘근대화’라는 신앙을 갖고 물량개발에 전 국력을 기울여오다시피 했다. 수 천년동안 내려온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 빨리 근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수출이 1백 억 불을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불을 넘어서게 되었다. 물량만으로 따져볼 때 엄청난 발전을 했으나 생활의 양만 생각하고 질을 생각하지 않은 발전은 유형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물질주의사상을 우리 사회에 심어 놓았다. 자기 문패가 달린 집을 갖고 있고 냉장고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대개 이런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중류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식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며 삶의 양과 질의 문제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류’는 소시민적 행복감과 안일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소시민적 안일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물량위주의 발전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날 작가들이 지녀야 할 또 하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박완서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삶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파헤쳐 온 작가이다. 그가 즐겨 다루는 인물들은 이른바 근대화에 가려진 노동자 농민계층도 아니며 도시 변두리의 하층민들도 아니다. 그의 작중 인물들은 대부분이 그나마 서울에서 제 집이라도 한 칸 지니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소시민적 행복감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남들 사는 것만큼 따라 가기 위해 언제나 허둥대는 사람들이다. 박완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작품 활동을 통해 이러한 도시 중류계층의 삶이 얼마나 허구에 차 있으며 소시민적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점을 예리하게 파헤쳐 왔다.

오늘날 소시민적 삶의 양태란 한정된 계층의 범주를 넘어서 현대적 삶의 일반적인 풍속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박완서의 문학이 그리고 있는 소시민적인 삶의 꼴은 박완서의 문학이 지닌 계층적·세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폭넓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박완서가 그리는 저무는 세대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무기력한 이기주의에 의해 한없이 작아져 가는 우리 자신의 왜소한 모습과 부딪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박완서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자질구레한 일상사에 부딪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개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다름 아닌 것이다.

중산층의 위선과 속물근성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박완서의 작품들은 깊이 있는 인식 대신에 세태묘사에 그치는 풍속적 차원으로 전락하고 있거나 삶에의 따듯한 입김과 체온이 담기지 않은 차갑고 양심품은 냉소만을 지닌 시선을 담고 있다고 비판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작품들에서 작가가 담고 있는 주제는 개개인의 약점에 대한 공격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세태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설 속의 인물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사회와의 대립관계 속에서 조명된다. 따라서 한 작가가 ‘어떤 유형의 인물을 설정하는가’ 또는 ‘그 인물의 어떤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가’ 하는 문제는 기교상의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작가의 특질을 본질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의 작품들에서 가진 자들이 도덕적으로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어긋남이 사회 전반의 세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는 문제적 인물을 내세워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휘청거리는 오후」, 「오만과 몽상」, 「도시의 흥년」, 「욕망의 응달」, 「저문 날의 삽화」, 「도둑맞은 가난」 등이 있다.

「휘청거리는 오후」작품 후기에서 작가는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닌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양심의 몰락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직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은 70년대가 시간적 배경이 되며, 허성 씨 일가족을 통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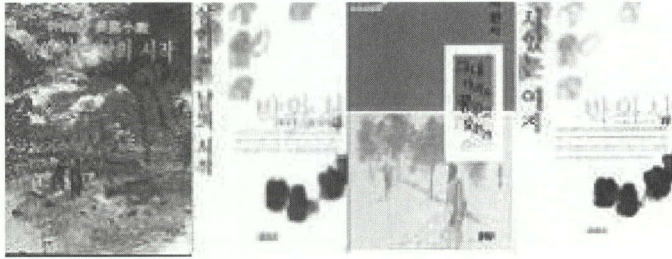
의 중산층 소시민들의 속물적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허위성이다.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물질주의적, 이기주의적, 출세주의적 사고방식을 개인들의 인간성 차원에서 공격하는 것은 무력하고 설득력이 없다. 어떤 사고방식이란 그것을 낳을 만한 사회적 현실의 필연적 소산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그것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마치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서 잎사귀만 잘라내려는 것처럼 헛수고에 그칠 따름이다. 「휘청거리는 오후」의 도처에 묘사된 오늘 이 현실의 견딜 수 없는 살풍경들은 특정한 개인들의 사람됨의 차원에서는 설명되기도 어렵거니와 극복될 수도 없을 것이다.

1975년부터 『문학사상』에 연재되기 시작한 「도시의 흥년」은 배금주의와 속물근성 혹은 안이한 소시민적 인생관과 삶의 방식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들을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기본적인 갈등은 인간성을 왜곡시키는 물신주의와 이것에 저항하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다. 여기에서 물신주의, 배금주의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갖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결혼관이나 처세관 등 생각하는 것이라곤 모조리 돈을 절대적인 척도로 가치를 삼고 있는 것이며 결국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주인공이 속해있던 계층의 일상적인 것이며, 이것으로부터의 탈출은 바로 배금주의에 저항하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시의 흥년」은 예리한 비판 의식, 섬세한 심리 묘사, 밀도 있는 드라마로써 도시 속의 인간 세태를 극점까지 추적하여 부(富)를 우상화하던 70-80년대 한국인들의 삶의 현실과 내면을 파헤친 작품이라 하겠다.

3) 현실 속의 여성문제



삶이란 것이 늘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지는 관계의 연속인 탓에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문학작품이 무수한 남녀관계를 그려왔지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억압의 관계로 파악하고 도전한 문학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박완서가 「살아있는 날의 시작」 후기에서 말한 것처럼 문학은 그러한 관계를 미화하는 것들 편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스스로 인간해방에 투신했다고 자처하는 작가들조차 여성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아마 여성문제를 사회문제나 인간문제와 다른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 무지 탓이라고 본다.

박완서는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의식의 편린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도 거의 드물 정도이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여성문제에 도전한 작품은 「살아있는 날의 시작」(1980)이 처음이었으며 이 작품의 후기에서 그는 이 문제가 “앞으로 집요하게 되풀이 시도해 볼만한” 이야기라고 말함으로써 독자들과 일종의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서 있는 여자」(1985)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로써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 작가

가 되었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이후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가 그들에게 강요해온 ‘꿈꾸기’를 그만두고 안락한 생존수단인 ‘여자답기’보다는 두렵긴 하지만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외롭게 ‘서 있기’로 결정한다. 그는 무엇이 여성을 움아매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과 해답을 찾는다. 세상이 바뀌어도 좀처럼 바뀔 줄 모르는 것, 그것은 바로 가부장제 문화가 갖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논리임을 집어내고 저항한다.

세 편의 소설 속에서 박완서가 여성들의 일상적인 체험을 서술할 때의 그의 예민한 감수성과 집요한 관찰력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 상처를 입고, 휘청거리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여성의 자아는 그의 후벼 파는 듯한 언어에 힘입어 홀로 서기에 성공한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은 79년 동아일보의 연재소설로 후기에서 작가는 비정상적인 남녀관계의 억압구조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며, 때로는 바람직한 풍속으로 여겨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제의 ‘살아있음’은 살아있지 않은 ‘죽은’ 상태에 있는 여성의 자아가 깨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음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사회에서 수용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즉 깨어난 자아를 지닌 여성의 살아있는 삶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살아있는 여성으로서의 삶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억압의 질서 속에서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 있는 여자」는 결혼관에 대한 작가의, 나아가 우리 모두의 반성이자 모색을 담은 소설로 현실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이제까지 여성이 얻을 수 있었던 평등은 어느 정도나 가능했으며 또 그것을 새롭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성찰을 모녀(연지와 경숙여사)의 결혼 관과 결혼생활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결혼은 경숙여사의 말에 따르면, 여성은 하나를 다 주고, 상대방으로부터는 백 분의 일밖에 못 받는 치욕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대칭성 또는 불평등에 대하여 혹시 여성 쪽에서 반란을 모의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남성은 처음부터 강력한 지배력 즉 남성다움을 발휘한다. 작가는 비대칭적인 부부관계에서 여성이 겪어야 하는 굴욕감의 극단을 경숙여사에게서 보여주고, 그 딸인 연지로 하여금 진정한 화합에 이르는 길은 남녀가 평등한 계약 위에서 맺는 관계일 때만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연지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여성의 순종적인 삶에 숨어 있는 남성의 폭력성을 간파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착오를 되풀이하는 ‘똑똑한 세대’ 중의 하나이다.

연지의 남편인 철민 역시 평등주의자인 척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보통남성이다. 특히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선 연지가 자신의 권위를 높여주기 원하고 연지 역시 그런 역할 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평등한 결혼의 한 시도였던 연지와 철민의 관계 역시 다른 관계들처럼 착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처음부터 이미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서 있는 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을 소유한 여성을 그리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여성의 경제적 능력은 남성을 보조하는 여성다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내면화하고 있다. 철민이 처음에 연지의 취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까닭은 그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연지가 생계를 전담하고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라는 절박한 필요성에서 선택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연지가 일을 계

속하기 위하여 낙태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이 이중으로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한다. 연지는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욕심을 드러냄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비행을 저지른 여성이므로 폭력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지는 가부장제구조 속에서의 여성 취업의 문제점들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철민이 그녀의 일을 비웃으며 메모지를 마구 찢어버릴 때, 그녀는 자신 속에 있는 일에 대한 강한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이 소설들은 모두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억압의 다양한 양상을 예리한 시각으로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작가는 여성 삶의 전체 영역에서 그들을 짓누르는 핵심적 요인들을 가능한 살살이 집어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4) 생명존중 사상



그녀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사랑은 모성애로부터 출발하여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박완서의 생명주의는 그 자체를 방해하

는 현대문명의 인간소외와 정치적·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발전하여 현실에 대한 예민한 감응력과 깊은 투시력,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모성애적인 생명에의 갈구, 생명존중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그 가을의 사흘 동안」(1985)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녀는 십년 전 동란기에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 자신이 잉태한 생명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 화근덩어리일 뿐이고 그러므로 그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녀는 그 화근덩어리를 없애고 그 후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 자신처럼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태아 살해를 업으로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살아있는 아이를 받아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마침내, 의사 생활의 마지막 날, 그녀는 강간당하여 임신한 소녀를 수술해 주다가 뜻밖에도 소녀의 살아있는 팔삭동이 미숙아를 받게 되는데, 무의식중에 그녀는 미숙아를 신생아 대접을 하여 아버지에게만 어울리던 우단 의자에 뉘어놓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미숙아의 가냘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여의사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즉 모성 속에 잠재해 있는 사랑의 회복이 현실과 같은 생명 경시의 풍조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을 부활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이 작품은 작가 스스로가 “이런 글을 소설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써보았다”⁷⁾고 밝힐 만큼 어린 시절의 그의 기억을 묘사해 놓은 작품이

7) 박완서, 『작가의 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2.

다. ‘나’의 고향 박적골은 풍족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현저동으로 이사온 ‘나’는 박적골과 비교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곳은 낙원이고 또한 생명력의 근원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신여성으로 상징되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그 낙원을 잃게 되었고 두 작품에서 큰 정점을 차지하는 6·25 또한 이 낙원상실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낙원은 생명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만물과 함께 호흡하며 싱아를 통해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듯 자연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력으로 언제나 삶의 생기가 넘쳐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원이 상실되자 생명력의 고갈을 느낀다.

이선영⁸⁾은 박완서의 생명주의를 완벽한 질서나 화려한 문명보다 삶의 근원적인 활력 내지 야성을 존중하고, 첨단적인 기술이나 기계보다 인간의 생명과 성적 활력을 오히려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신뢰와 사랑을 생명주의라고 표현하고 삶의 가치를 저해하는 사회와 역사의 모순이나 문명의 해독을 배격하고 비판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지적한다.

3. 문헌정보

- 강금숙, 「박완서 소설의 공간에 나타난 여성의식」, 『이화어문논집』, 1989.3.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동지, 1997.
 ———, 「박완서론 「울음소리」와 「닭은 방들」 「泡沫의 집」의 비교연구」, 『건국대인 문과학논총』, 1994.

8) 이선영, 「세파 속에 생명주의와 비판의식」, 『그 가을의 사흘 동안』, 나뭇, 1985.

- _____,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의 양상」, 『건국대인문과학논총』, 1994.8.
-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역적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1994 겨울.
- _____, 「박완서-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1998 겨울.
- _____, 「<가족의 기원>에 관한 역사 소설적 탐구」,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박완서 소설전집9)해설, 세계사, 2000(2쇄).
- 권순궁, 「두 얼굴을 가진 광기-박완서」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소설문학』, 1981.4.
- 권영민 외, 『박완서론』, 삼인행, 1991.
- _____, 「소설『未忘』의 구도」, 『未忘』해설, 문학사상사, 1990.
- _____, 「박완서와 도덕적 리얼리즘의 성과」,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 김경수, 「여성경험의 소설화와 挿話형식-박완서」, 『저문 날의 挿話』, 『현대소설』, 1991겨울.
- _____, 「삶의 무게가 실린 글의 가벼움」, 『현대문학』, 1998.1.
- 김경연 외,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여성2』, 창작과비평사, 1988.1.
- _____, 「<문학적 연대기> 개성 1931~서울 1991-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한 부단한 變奏」, 『작가세계』, 1991 봄.
- _____, 「<작가연구자료> 박완서 문학을 보는 시각」, 『작가세계』, 1991 봄.
- 김교선, 「호소력의 문제」, 『창작과비평』, 1976 여름.
- _____, 「생리적 감각적 정서 형태의 소설」, 『표현』, 1989.7.
- 김만수, 「가짜에 대한 혐오」, 『현대소설』, 1992 봄.
- _____, 「길 아닌 길을 걷는 호젓한 즐거움」, 『서평문화』, 2000 봄.
- 김미현, 「다섯 개의 사랑으로 남는 당신」, 『문학동네』, 1999 여름.
- 김복순, 「“말걸기”와 어머니 - 딸의 플롯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연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003.
- 김수진, 「정상성과 병리성의 경계에 선 모성」, 『여성이론』, 1999(창간호).
- 김양선 외, 「안주와 탈출의 이중심리」, 『오늘의 문예비평』, 1991 가을.
- 김영무, 「박완서의 소설세계」, 『세계의 문학』, 1997 겨울.

- 김영민, 「슬픔, 종교, 성숙의 글쓰기」, 『오늘의 문예비평』, 1995 가을.
- _____, 「상처의 인식과 그 치유」, 『월간문학』, 1991.7.
- 김영희, 「근대체험과 여성」, 『창작과 비평』, 1995 가을.
- 김우중, 「한국인의 유산과 그 미망」, 『세계의 문학』, 1978 봄.
- _____, 「나목의 아픔과 그 영광」, 『신한국문제작가선집6』, 어문각, 1978.
- _____, 「속물적 삶의 비판」, 『한국현대문학전집42』, 어문각, 1978.
- 김윤식, 「박완서론-망설임 없는 의식」, 『우리문학의 넓이와 깊이』, 서래헌, 1979.
- _____, 「박완서와 박수근-나목에 이른 길」, 『현대문학』, 1983.5.
- _____,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저-박완서론」, 『문학사상』, 1988.1
- _____, 「기억과 묘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해설, 웅진출판, 1995(재판).
- 김주연, 「순웅과 탈출-박완서의 근작 2편」, 『문학과지성』, 1973 겨울.
- 김주연, 「순웅과 탈출-박완서론」,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지성사, 1979.
- _____, 「구원과 소설」, 『문학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1987.
- _____, 「말이 확대받는 사회」, 『문학과 정신의 힘』, 문학과지성사, 1990.
- 김치수, 「함께 사는 꿈을 위하여」, 『우리시대 우리작가』, 동아출판사, 1987.
- 김홍진, 「홀로서기와 거듭나기-자기발견의 서사」, 『한남어문학』, 1997.
- 류보선, 「개념에의 저항과 차이의 발견-박완서 초기 소설에 대하여」, 『어떤 나들이』,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1), 문학동네, 1999.
- 박성천, 「박완서 자전소설의 텍스트 형성 기제와 서사 전략 - 『목마른 계절』과 『나목』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006.
-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 박혜경, 「저문 날의 삽화, 혹은 소시민적 삶의 풍속도」, 『저문 날의 삽화』, 해설, 문학과지성사, 1991.
- 박혜란, 「<여자다움>의 껍질벗기-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여성문제인식」, 『작가 세계』, 1991 봄.
- 배경연, 「중간소설의 구조미학」, 『문학과 의식』, 1995.3.
- _____, 「여성의 정체성 찾기 -박완서 작품론」, 『한국학논집』, 2007.
-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비평』, 1979 봄.
- 백지연, 「황혼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 『동서문학』, 1999 봄.

- 서영채,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망」, 『아저씨의 훈장』(박완서 단편소설전집3), 문학동네, 1999
- 서준섭, 「개성상인 또는 근대적 시민을 찾아서」, 『현대문학』, 1997.1.
- 성민엽, 「윤리적 결단과 소설적 진실-박완서의 작품세계」, 『지성과 실천』, 문학과지성사, 1985.
- _____, 「박완서의 구원 추구」, 『고통의 언어 삶의 언어』, 한마당, 1986.
- 성현자, 「도시적 삶의 양식과 소설의 구조」, 『개신어문연구7』, 1990.5.
- 손정수, 「체험,미적 환경에서 새로운 역사성으로-김영현·최인석·박완서·서정인의 소설」, 『소설과 사상』, 1999 봄.
- 송영희, 「중년 여성의 위기의식-『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표현』, 1989.1.
- 신덕룡, 「고립된 폐쇄주의, 그 비극적 결말」, 『동서문학』, 1991.1.
- 신상성, 「중편적 미학-『굶주린 혼』과 『엄마의 말뚝』의 경우」, 『현대문학』, 1981.11.
- 신수경,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소설과 사상』, 1997 봄.
- _____, 「자아의 서사,소설의 기원-진경시대 예술가의 초상/『해산바가지』(박완서 단편소설 전집4), 문학동네, 1999.
- 신철하, 「기억·음화·미망」, 『동서문학』, 1998 봄.
- 안남연, 「박완서 소설의 여성성」, 『한국문예비평연구』, 1998.
- 안숙원, 「〈엄마의 말뚝 1·2·3〉 연작소설과 모녀관계의 은유·환유체계」,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 문학』, 1977 여름.
- 오생근, 「한국대중문학의 전개」, 『해방40년의 문학』, 민음사, 1977.
- 오세은, 「박완서 소설 속의 <어머니와 딸>모티브」, 『한국여성문학 비평론』, 개문사, 1995.
- 원윤수, 「꿈과 좌절」, 『문학과지성』, 1976 여름.
-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 『숙명여대어문논집』, 1995.12
- 유종호, 「고단한 세월 속의 젊음과 중년」, 『창작과비평』, 1977 가을.
- _____, 「불가능한 행복의 질서」,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 _____, 「고단한 세월 속의 삶」, 『나목·도둑맞은 가난』해설, 민음사, 1997(개정판).

- 이경훈, 「작가의 전생체험 문학의 핵심적 구조」, 『문학사상』, 1996.3.
- 이광훈, 「소시민적 삶과 일상의 덧」, 『현대문학』, 1980.2.
- 이남호, 「<말뚝>의 사회적 의미」, 『문학의 위족2』, 민음사, 1990.
- , 「그때 거기에 있었던 아픔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해설, 웅진출판, 1995.
- 이동렬, 「삭막한 삶의 형상화」, 『문학과지성』, 1979 여름.
- 이동하, 「집없는 시대의 문학」, 『세계의 문학』, 1982 겨울.
- , 「한국대중소설의 수준」, 『문학의 시대2』, 풀빛, 1984.
- , 「문제의 역사와 문학」, 『세계의 문학』, 1987 봄.
- , 「예술성과 저속성의 변증법」, 『한길문학』, 1990.7.
- , 「근대화의 문제와 소설적 진실-박완서의 『未忘』」, 『작가세계』, 1991 봄.
- 이명원, 「두려운 낯성-소설이 일상성에 대응하는 방식」, 『문예중앙』, 1999 여름.
- 이명재, 「변동사회에 대한 문학적 접근-박완서의 『도시의 흉년』」, 『문학사상』, 1999.3.
- 이상경,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탐구」, 『한국문학연구19』, 동국대학교, 1997.3.
- 이상옥, 「삶의 실체와 작가의 통찰력」, 『세계의 문학』, 1983 겨울.
- 이선미, 「어머니의 역사와 <늙은 엄마>의 진실」, 『현역중진작가연구』, 국학자료원, 1997.
- , 「위기의 여자와 성찰의 시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0.
- ,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 「나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01
- 이선영, 「세파 속의 생명주의와 비판의식」, 『그 가을의 사흘 동안』해설, 나남, 1985.
- , 「세파 속의 생명주의」, 『현대문학』, 1985.5.
- 이선옥, 「박완서 소설의 다시쓰기-딸의 서사에서 여성들 간의 소통으로」, 『실전문학』, 2000 가을.
- , 「개와 늑대의 시간-순치되지 않는 생명력」, 『아주 오래된 농담』해설,

- 실천문학사, 2000.
- _____, 「모성 다시 쓰기의 의미 -박완서론 -, 『여성문학연구』, 2000.
- 이인숙, 「박완서 단편에 나타난 여성의 ‘성’」, 『국어어문』, 2000.
- 이은하,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자아 찾기 -박완서론, 『한국문예비평연구』, 2004.
- _____,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글쓰기에 대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2005.
- 이정희,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나르시시즘적 ‘신여성’ - 박완서의 세태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의 민속과 문화』, 2001.
- _____, 「여성문학 ; 감시의 시선 , 몸의 언어 - 박완서의 세태소설을 중심으로」, 『여성과사회』, 2001.
- 이태동, 「나목(裸木)의 꿈」, 『나목』해설, 작가정신, 1990.
- _____, 「서있는 여자의 갈등」, 『문학사상』, 1992.3.
- _____,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탐구」, 『한국문학연구19』, 동국대학교, 1997.3.
- 이화진,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과 서사전략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007.
- 이현식, 「우울한 시대에 소설을 읽는 재미」, 『황해문화』, 1999 봄.
- 임규찬, 「<자아>를 넘어선 <자기의 우주>」, 『창작과비평』, 1999 봄.
- 임우기, 「모성의 겹그늘-박완서의 단편에 대하여」, 『울음소리』해설, 숲, 1996.
- 장영우, 「한국여성의 문학적 초상」, 『한국문학연구19』, 동국대학교, 1997.3.
- 전승희, 「여성문학과 진정한 비평의식」, 『창작과비평』, 1991 여름.
- _____, 「소설가 박완서에게 보내는 비평적 질문」, 『사상문예운동』, 1991.6.
- 전홍남, 「박완서 노년 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저문 날의 삽화>를 중심으로 -, 『국어문학』, 2007.
- 정규용, 「〈목마른 계절〉의 세계」, 『제3세대 한국문학17』, 삼성출판사, 1983.
- 정미숙, 「탈주의 서사-박완서의 『도시의 흥년』」, 『국어국문학지』, 1998.
- _____,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가족과 젠더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006.
- 정순진, 「<천의무봉>과 작위적 상황설정」, 『비평문학』8호, 1994.
- 정영자, 「한국여성소설의 특성과 그 문제점」, 『여성과 문학1』, 문학세계사,

1989.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박완서 문학의 6·25체험 수용에 대하여」, 『작가세계』, 1991 봄.

_____,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지는 문학/『가는 비, 이슬비』(박완서단편소설 전집5), 문학동네, 1999.

정홍수, 「지난 연대를 향한 문학의 증언」, 『창작과비평』, 1996 봄.

조미숙, 「현대문학과 새로운 담론 ;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 「엄마의 말뚝」, 『목마른 계절』,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오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2007.

조 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 『또하나의 문화9』, 1992.

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또하나의 문화3』, 평민사, 1987.

_____,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 『작가세계』, 1991 봄.

최경희, 「<엄마의 말뚝>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9』,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최성실, 「자,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빠른 시간, 더디게 움직이는 소설」, 『문예중앙』, 1999 봄.

_____,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 ; 전쟁소설에 나타난 식민주체의 이중성 -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03.

최재봉, 「일상에 투영된 사회·역사적 상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해설, 한양출판, 1994(개정판).

하수정, 「여성문학 : 노년의 삶과 박완서의 페미니즘」, 『문예미학』, 2005.

하응백, 「모성, 그 생명과 평화-박완서 초기 소설론」, 『조그만 체험기』(박완서 단편소설 전집2), 문학동네, 1999.

한만수, 「씩 물렸거라, 자전거-박완서<너무도 쓸쓸한 당신>」, 『당대비평』, 1999 봄.

호원숙, 「행복한 예술가의 조상-어머니 박완서」,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홍정선, 「한 여자작가의 자기사랑」, 『샘이 깊은 물』, 1985.11.

- _____, 「소설로 그린 자화상의 의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해설, 1992(초판).
- 홍혜미, 「박완서 문학에 투영된 6·25전쟁」, 『단산학지』, 1999.
-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 『창작과비평』57호(부정기간행물), 1985.10.
- 황도경, 「정체성 확인의 글쓰기」, 『이화어문논집』, 1994.3.
- _____, 「통곡과 말씀의 힘-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박완서 소설전집14)해설, 세계사, 1999.
- _____, 「생존의 말, 생명의 몸-박완서론」, 『우리 시대의 여성 작가』, 문학과 지성사, 1999.
- _____, 「이야기는 힘이 세다-박완서 소설의 문체적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2000 가을.
- 박완서 외,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 이경호 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4. 작가연보

1931(1세) 10월 20일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에서 출생. 아버지 박영노, 어머니 홍기숙 사이에서 태어남. 위로 열 살 위인 맏이의 오빠 있음.

1934(4세) 아버지를 별세. 어머니는 오빠만 데리고 서울로 떠남. 조부모, 숙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냄.

1938(8세) 어머니를 따라 서울에 올라와 현저동 골짜기에서 살게 됨. 매동초등학교에 입학.

1944(14세) 숙명여고 입학.

1945(15세) 소개령 탓에 개성으로 이사하여 호수돈여고로 전학. 여름방학 때 고향인 박적골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서울에 와서 숙명여고에 복학.

◆ 숙명여고 시절 소설가 한말숙, 시인 박명성, 김양식과 같은 문과 반에서 공부한다. 5학년 때 답임을 맡은 소설가 박노갑 선생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음.

1950(21세)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에 입학(6월 초순에 입학식이 있고, 곧 이어 6.25가 발발하여 학교를 다닌 기간은 며칠 되지 않음). 전쟁으로 오빠와 숙부가 죽고 가족생계를 책임지게 됨. 미8군 PX의 초상화부에서 근무.

◆ 그곳에서 박수근 화백을 알게 되는데, 박수근 화백과의 만남은 데뷔작 <나목>에 형상화되어 있다.

1953(24세) 4월 21일 직장 동료인 호영진과 결혼하여 1남 4녀를 둬.

1970(40세) 「나목」으로 『여성동아』의 여류장편소설 모집에 응모하여 당선.

◆ 이때부터 <현대문학>, <신동아>, <문학사상>, <월간중앙>, <창작과 비평> 등의 많은 잡지에 작품 연재.

1972(42세) 7월부터 장편 「한발기(목마른 계절)」를 『여성동아』에 연재하기 시작.

1973(43세) 「부처님 근처」가 현대 문학 7월 호, 「지렁이 울음소리」가 신동아 7월호에 발표됨.

1975(45세) 남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옥바라지를 함.

<도시의 흥년>을 『문학사상』에 연재하기 시작.

1976(46세) 「휘청거리는 오후」 『동아일보』를 연재.

첫 번째 창작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일지사) 출간.

1977(47세) 『휘청거리는 오후』(창작과 비평사) 상하권, 수필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래』(평민사), 『혼자 부르는 합창』(진문출판사) 출간.

1978(48세) 창작집 『배반의 여름』(창작과 비평사), 수필집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한길사) 출간. <한발기>를 『목마른 계절』(수문서관)이라는 제목으로 출간.

1979(49세) 『도시의 흥년』(전 3권, 문학사상사) 출간. 창작동화집 『달같은 달걀로 갇으렴』, 『마지막 임금님』(샘터사) 출간. 둘은 제목은 다르지만 수록 작품은 동일하다.

1980(50세) 『살아있는 날의 시작』(전예원) 출간. <그 가을의 사흘동안>으로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하다.

1981(51세) 『도둑맞은 가난』(민음사) 출간. <엄마의 말뚝 2>로 제5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다. 20년간 살던 보문동 한옥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

1982(52세) 『엄마의 말뚝』(일월서각), 장편 『오만과 몽상』(한국문학사), 수필집 『살아있는 날의 소망』(학원사) 출간. 10월과 11월 문인해외연수에 참여, 유럽과 인도를 다녀옴 (김치수, 염재만, 이호철, 홍운숙, 김영옥, 유재용, 김승옥, 박연희, 김홍신 등이 참가)

1983(53세)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민음사) 출간.

1984(54세) 풍자소설집 『서울사람들』(글수레) 출간. 7월 1일 영세를 받음.

1985(55세) 『서 있는 여자』(학원사)로 출간. 작품선집 『그 가을의 사흘동안』. 11월 무렵 일본 ‘국제기금’재단의 초청으로 일본을 혼자 여행.

1986(56세) 1982년에서 1986년까지 쓴 중단편을 모은 창작집 『꽃을 찾아서』(창작사)와 수필집 『서 있는 여자의 갈등』(나남) 출간.

1987(57세) <저문날의 삽화 1>(『분노의 메아리』 전예원), <저문날의 삽화 2>(또 하나의 문화 4호), <저문날의 삽화 3>(현대문학 6월호), <저문날의 삽화 4>(창작과 비평) 발표.

1988(58세) <저문날의 삽화 5>(소설문학 1월호) 발표.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음. 서울을 떠나는 일이 많아짐. 미국여행을 다녀옴. 『문학사상』에 연재하던 「미망」을 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씀.

1989(59세)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삼진기획)

1990(60세) 카톨릭 잡지인 『생활성서』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일기 연재. 전3권으로 된 『미망』(문학사상사) 출간. 수필집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햇빛출판사) 출간.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성공으로 출판사 주최 성지순례 해외여행을 다녀옴.

1991(61세) 회갑 기념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문학과 지성사), 콩트집 『나의 아름다운 이웃』(작가정신) 출간. 장편 『미망』으로 제3회 이산문학상 수상.

1992(62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출판사), 『박완서 문학앨범』(웅진출판사), 산문집 『산과 나무를 위한 사랑법』(샘터사) 출간.

1993(63세) 장편 <휘청거리는 오후>를 제1권으로 『박완서 소설전집』(세계사) 출간 시작. 소설전집 제2, 3, 4, 5권으로 장편 『도시의 흥년』(상하), 『살아 있는 날의 시작』, 『욕망의 응달』 출간. <엄마의 말뚝>이 『Le piquet de ma mere』(Actes Sud)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된다.

1994(64세) 창작집 『한 말씀만 하소서』(솔), 창작동화 『부승이의 땅힘』(한양출판사), 소설전집 제6, 7, 8, 9권으로 장편 『목마른 계절』, 소설집 『엄마의 말뚝』, 장편 『오만과 몽상』,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출간.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것>으로 제25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다.

1995(65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웅진출판사), 수필집 『한 길 사람 속』(작가정신) 출간. 소설전집 제10, 11권으로 장편 『나목』, 『서 있는 여자』 출간. <환각의 나비>로 제1회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하다.

1996(66세) <참을 수 없는 비밀>(창작과 비평 겨울호) 발표. 소설전집 제12, 13권으로 장편 『미망』(상하) 출간.

1997(67세) 티벳·네팔 여행기 『모독』(학교재), 동화집 『속삭임』(샘티사) 출간. 장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로 제5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하다.

1998(68세) 수필집 『어른 노릇 사람 노릇』(작가정신) 출간. 문화관광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받다.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창작과 비평사) 출간.

1999(69세) 묵상집 『님이여, 그 숲을 떠나지 마오』(여백),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문학동네, 전5권) 출간. <너무도 쓸쓸한 당신>으로 제14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하다. 영역 단편선집 『My Very Last Profession』(M.E. Sharpe) 출간.

2000(70세) 9월 ‘2000 서울 국제문학포럼’에서 <포스트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글쓰기> 발표. 제14회 인촌상 문학부문 수상. 수필 선집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세계사), 장편 『아주 오래된 농담』(실천문학사) 출간. 동화집 『도둑맞은 가난』(다림) 출간. 등단 30주년을 맞아 『작가세계』 겨울호(통권 47호)에서 <박완서문학 30년> 특집호 발행. 박완서 문학 30년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기념비평집 『박완서 문학 길찾기』(세계사) 출판.

2001(71세) 단편 〈그리움을 위하여〉로 제1회 황순원문학상 수상.

2002(72세) 산문집 『두부』(창비) 출간. 소설 전집 제 15권으로 장편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 한 말씀만 하소서』출간.

2004(74세) 장편 『그 남자네 집』(현대문학) 출간.

2005(75세) 기행 산문집 『잃어버린 여행가방』(실천문학사) 출간.

2006(76세) 서울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제 16회 호암예술상 수상.

2007(77세) 산문집 『호미』(열림원) 출간.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문학과지성사)출간.

2008(78세) 단편집 『소설가의 집』출간.

에필로그

박완서는 6·25 전쟁 등 역사적 질곡을 헤쳐 나오면서 직접 겪은 체험과 그로인해 파생된 한국 현실에 산재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끈기 있게 작품 속에서 다루어왔다. 그는 다양한 주제를 작품화하는 폭넓은 소설 세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근현대사의 경험들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임으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주제가 전개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풍속 작가, 세태작가라는 명칭이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기도 한다. 방대한 양의 작품들은 동시대의 일상사 구석구석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인물들의 삶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삶의 양상을 펼쳐 보이는 작가의 시선은 세태나 풍속 묘사에서 멈추지 않는다. 결국에는 ‘차갑고 양심품은 냉소만을 지닌’ 풍자를 통해 다양한 생활 속에 인물들의 내면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당대인들의 내면 풍경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박완서는 소설의 형식이 포괄할 수 있는 활력과 유연성을 지닌 작가로, 풍부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지평으로도 문학을 확대시킬 수 있어, 당대의 삶의 양상과 역사를 엿볼 수도 있다. 작품의 폭이 깊은 것이 특징이며, 작가 개인적 의식이 빼곡하게 자리하여, 한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리기 위해 애쓴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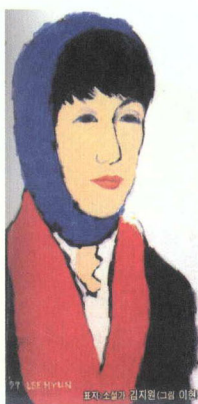
박완서는 천상 이야기꾼이며, 박완서의 입심을 통하면 오랜 세월 곱삭은 이야기들도 현재로 다가와 웃음을 남긴다. 작가의 능청스러운 언어는 다채로운 풍경을 내뿜고, 개인적인 고통마저 치유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 백

김지원

프롤로그

1. 김지원의 생애
 2. 작품세계
 3. 문헌정보
 4. 작가연보
- 에필로그



프롤로그

경기도가 배출하고 있는 굵직한 여성문인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만큼 많은 문인들이 경기도의 정기에 신세를 지고 있다. 나혜석, 김오남, 박완서가 그랬고, 최정희가 그랬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아니 경기도라는 특정 지역을 넘어서는 흥미로움이다. 바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문인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그냥 시간 속에 모였다 흩어지는 명멸의 문인이 아니라, 한국문학사에 제 자리를 곳곳이 지키고 있는 문인들이다. 파인 김동환을 남편으로 삼았던 최정희와 그들의 딸 김지원과 김채원이 바로 그들이다. 언니 김지원은 1997년에, 동생 김채원은 1989년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예술가 집안이다.

언니 김지원, 유부남이었던 아버지와 사랑에 빠져야 했던 어머니를 부모로 두어야 했던, ‘문학을 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동생이 문학을 시작했고 언니보다도 10여년 먼저 국내의 굵직한 문학상 수상을 바라봐야 했던, 가족사의 복잡한 심경은 차치하고 조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삶을 유지해야 했던 인간 김지원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시인 문정희는 언젠가 김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그녀는 우수의 여자이지만 기실은 존재 자체로 힘을 가진 아주 굳건하고 아름다운 여자인 것이다. 아니 이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녀는 굳이 강변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무구한 사랑과 겸허함이 너무 깊어서 세상의 그 어떤 시간도 회오리도 그녀를 비껴 가고 만다는 것이다.”

존재 자체로 힘을 가진 우수의 여자, 아름다운 여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런 그녀가 쓰는 작품은 어떠한 색깔일까? 문정희는 다시 말한다.

“언제나 책을 읽고 또 남몰래 조금씩 글을 쓰는 여자. 좋은 영화 좋은 연극에 매혹되고 또 수를 놓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여자.”

여자, 김지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1. 김지원의 생애

1) 유년시절의 조속성

김지원은 1942년 11월 30일 아버지 김동환과 어머니 최정희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기도 덕소에서 아버지, 어머니, 딸 그리고 얼마 후 태어날 동생 채원까지 혼치 않은 문학 가계(家系)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년시절이 무척이나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다. “어린애임에도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한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았고 우리 집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자매가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아 집에 깨어서부터 잘 때까지 얘기였지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이나 짐승

뿐 아니라 돌맹이, 강물 모든 것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닭이나 달팽이나 꽃하고 다를 것이 없었지요.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어머니는 노래도 많이 불러주었어요. 수수께끼도 많이 하고 노래에 맞추어 유희라는 것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존대말을 썼는데, 존대말 속에 정다움과 유머와 어른, 아이가 한데 녹은 웃음과 장난과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밤에도 얘기를 들으며 잤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서 잠으로 빠질 때면 우리 초가집 지붕 위에 천사가 커다란 날개를 펴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재미있게 얘기를 해 주던 두 분의 목소리와 채취는 지금도 정답고 생생합니다.¹⁾

김지원이 기억하는 유년시절의 행복함은 그저 철모르는 아이들의 행복함과과는 다른 차원이다. 다시 말해 그렇게 단순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린애임에도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저 행복의 극치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탄성과도 같은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극성스러운 부모의 이야기에 김지원은 하나 둘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사람이나 짐승뿐 아니라 돌맹이, 강물 모든 것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김지원의 조속성이기도 하다.

김지원의 조속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찮은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닭이나 달팽이나 꽃하고 다를 것이 없”단다. 이런 모습은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다니던 덕소의 예배당과 동승동의 동승교회에서 지원은 촛불을 켜며 “형제는 참, 같은 사람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부모, 조부모, 조국 등 똑같은 것을 가졌다는

1) 김지원, 『수상작가 김지원 인터뷰-시간과 인간과 나의 관계, 그 통합적 미학』, 『문학사상』, 1997. 3, pp.78~79.

사실을 새삼 느꼈다” 술회하고 있는 장면과 닮아 있다. 어린 시절 형제애 안에 부모와 조부모 계다가 조국을 하나의 범주로 느낀다는 것은 유년시절을 “그저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말하는 단순한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창 노는 것이 당연히 좋았을 그 때에 학교에 안 보내겠다는 아버지에게 울고 불며 때를 써서 여덟 살에 서울 창경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최정희가 친구를 따라 가출을 하고 그 길로 학교에 갔던 그 유전자가 딸 김지원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지원에게 전해진 어머니의 강한 기운과 함께 그녀의 조숙성은 범상치 않는 분위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집에는 언제나 책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학원』지와 학원사에서 나온 어린이 문고는 물론이고, 『여원』, 『여상』, 『아리랑』같은 어른 잡지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독서로 교양을 넓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순전히 재미로, 재미있는 것만 읽었다.

잡지에 난 소설을 삽화까지 자세히 보고 아껴 읽으면서, 소설은 ‘소설 나부랭이’로 공부를 안 하고 읽는 자랑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알았다. TV가 있는 시절이었다면 책을 그렇게 읽었을까 싶다. 아마도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본다고 걱정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가 보다. 채원이는 것처럼 책이 많건만 하나도 안 읽고 나가 놀기만 했다. 집에는 우리들이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고, 놀다가 자고 가기도 했다. 오빠가 노래를 좋아해서 아코디언 소리. 기타 소리,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에 온 언니들과 《제인에어》의 로체스터 같은 남자가 좋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레트 버틀러가 좋은가, 일본 소설 《만가》의 가쓰라기가 좋은가, 그런 얘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그런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잠혹했던 한국전쟁을 겪고 허물어져 가는 집, 아픈 데가 많은 어른들, 가난, 그런 어두운 삶의 부분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밝게 떠오르는 추억의 장면들이다.²⁾

해방 직후 “언제나 책이 있”는 집은 혼치 않은 상황이다. 그 혼치 않은 환경을 김지원은 마음껏 누린다. 동생 채원이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달리 언니 김지원은 어린이 문고는 물론이고 어른 잡지들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순전히 재미로 읽었다는 저 겸손함 혹은 솔직함이라하더라도 혼치 않은 환경 속을 그녀는 자유로이 유명하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독서 수준을 보자. 《재인에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만가》. 지금도 결코 만만치 않은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을 “삽화까지 자세히 보고 아껴” 읽었다. 엄청난 독서량과 사물에 대한 깊은 천착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조숙성은 아마도 아버지 김동환과 어머니 최정희라는 범상치 않은 존재들이 만들어 낸 공간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8살 때 시작된 한국전쟁과 아버지의 납북, 가난과 상실의 고통은 그녀의 조숙성의 깊이를 짐작하게 하기도 한다.

2) 문학과와 인연

문인을 부모로 둔 딸에게 문학은 어떠한 것일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부모의 문학 유전자를 천명으로 삼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와 반대로 그 천명을 거스르려는 행위일 것이다. 김지원에게 문학은 천명이었던 것 같다.

2) 김지원, 「김지원이 말하는 자신의 문학과 삶」, 『1997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7, p.393.

그리고 지금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채원과 나는 가족 관계로도 남보다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로 인해 좋은 분들, 유명한 분들, 재능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사실이다. 하나도 귀엽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는 전설같이 되어 버린 그분들을 아저씨, 아줌마라 부르며 버릇없이 굴던 일이 부끄러워지며 또한 몹시 그립다.³⁾

문인을 부모로 둔 까닭에 언제나 책으로 가득 찬 집안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문학을 천직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낮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저 조숙성이야말로 문학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갖춰야 할 덕목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전설같이 되어 버린 그분들을 아저씨, 아줌마라 부르며 버릇없이” 굴 수 있는 호사스러운 환경까지 더해지니 그녀에게 문학은 낯설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삼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 그저 익숙하고 재미있고 그리운 그 무엇인 것이다.

곡마단집 아이들은 다 곡마를 한다고, 나는 작가되는 일을 쉽게 생각했다. 나는 시인 아버지와 소설가 어머니의 자식이었으며, 늘 가까이 대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신춘문예 혹은 현상 문예 심사위원들이라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채원과 내가 대학에 다닐 무렵에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젊은 문인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오정희, 김청조, 김승옥, 김문수, 서영은, 김영태, 이제하, 송상옥, 이재연, 조문진 등(그 누구 이름을 하나라도 빼놓았는가 염려스러운데....). 그들 모두는 김현, 김치수, 염무웅 같은 젊은 동료 평론가들과 활동하는 신예 작가들이었는데, 나만이 작가가 아니었다. 채원도 물론 작가가 아니었으나 여기서 채원을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 그때 채원은 작가가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미술

3) 김지원, 「김지원이 말하는 자신의 문학과 삶」, 『1997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7, p.394.

숙제도 힘들어하는 미술 전공 학생이었다. 그 시절 나는 신춘 문예에 가명으로 응모를 했는데 다 떨어졌다. 네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실망 어린 한마디를 던졌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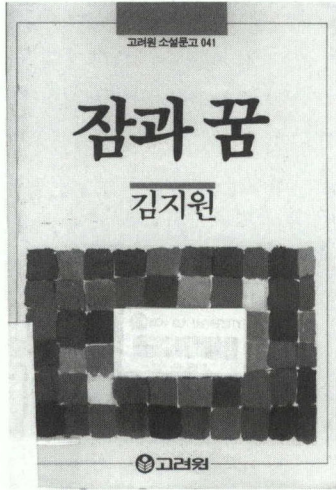
그런데 그 익숙한 세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 바로 비록 가명이지만 신춘문예에 응모한 것이 모두 낙방하였던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문학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이 너무도 친근하고 익숙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자신도 문학의 세계에 정식으로 입장 하려 했는데, 결과는 너무도 예외였다. 그녀 말대로 “다 떨어졌다”던 것이다. 어머니의 말 대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는 않는다. 1973년 미국으로 오기 전에 「사랑의 기쁨」으로 『현대문학』에 황순원의 1회 추천과 미국에 와서 「어떤 시작」으로 주천을 마치고 정식 문인이 된 것이다. 김지원의 나이 서른 두 살 때였다. 그 무렵 일본에 공부하러 갔던 동생 김채원이 뉴욕 맨해튼 지하철 속에서 글을 쓰겠다고 작가의 길을 선언했고 그 때부터 동생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가라는 사람들이 더욱 좋아진다. 글을 몇 십 년씩 쓴 사람은 절대 나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는 이러니 좋은 사람, 너는 이러니 나쁜 사람, 너는 이러니 미친 사람, 인간에게 딱지를 붙여 분류해 감옥에다가 딱딱 집어넣는 지식이 있다면, 그 감옥에 갇힌 인간을 풀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돌이켜보면 ‘소설 나부랭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읽기 시작했고 마침내 작가의 길로 들어서 꾸준히 좋은 작품을 쓰려고 애썼던 나의 삶. 이제는 소설만 가

4) 김지원, 「김지원이 말하는 자신의 문학과 삶」, 『1997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문학상사, 1997, p.394.

지고도 인간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⁵⁾



어느 인터뷰에서 김지원을 평화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공격을 무기로 삼는 작가적 신랄성이 그녀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그 인터뷰의 내용처럼 김지원의 문학에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등 “인간에게 딱지를 붙여 분류해 감옥에다가 딱딱 집어넣는” 모습이 없다. 대신 “간힌 인간을 풀어주는” 그래서 “화해와 조화로 큰 세계의 인간주의”를 완성해 가고 결국에는 사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그

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현명철의 글 귀 중의 하나가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들이 처음 한낱에서 비롯되어 큰 하나가 열리는 것이니”라는 『천부경』의 말이다.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넓다. 그녀가 말하듯, “감당도 못하게 마구 넓어지며, 하늘과 땅에서 우주와 지구로 뻗어 가고 확장”되어 그녀의 상념은 “세계는 천맥과 지맥과 인맥이 창세기인 듯 함께” 서로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다.

5) 김지원, 「김지원이 말하는 자신의 문학과 삶」, 『1997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7, p.395.

3) 김지원의 표정들

작가 김지원이 아닌 인간 김지원의 모습은 어떨까? 그녀의 맨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녀의 지인 시인 문정희와 소설가 서영은의 재미있는 외양 묘사가 있다.

① 길게 늘어뜨린 퍼머넌트의 머리, 얼굴을 거의 가리다시피한 머리칼 속에 빨갭게 칠한 그녀의 입술이 머리카락을 제치고 잠깐 우리들 앞에 비쳐질 때 우리들은 김지원이 갖는 감성과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알고 흠뻑 놀란다.⁶⁾

② 외모로 보면 김지원은 이집트나 아라비아 왕궁의 하렘에서 본 듯한 인상이다. 왕에게 지목을 받아서 화장을 했는데, 썩 요염하지는 않고, 좀 요염한 듯만 하다고 할까. 얼굴을 반쯤 가린 긴 퍼머 머리와 짙은 빛깔의 입술 연지, 그것이 요염의 정체라기엔 …… 그 좀이란 것이 은근히 육감적이다.

김지원의 옷에서는 옷을 만든 사람이 본래 의도한 선이 모두 흐트러져 버리고, 선도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영성함으로 변형되어 있다. 뒤통치가 트인 샌들식 높은 구두에, 속치마인지 겹치마인지 모를 풍성한 흰 치마, 깃을 안으로 말아서 감추어 버리고 브이넥만 덩그러니 살린 투피스 윗도리, 도무지 그렇게 입도록 만든 그 사람의 취향이 잡하지 않는 옷차림이다. 만약, 세계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그녀에게 입으라고 강요한다면, 그녀는 우선 라벨부터 떼어 내고, 멋스럽게 들어 올린 어깨는 주저앉히고, 반짝이는 단추나 벨트를 모두 없애 버린 뒤에나 그것도 아주 어색해하며 간신히 입을 것 같다.⁷⁾

6) 문정희, 「표류하는 섬에서 만난 우수의 여자」, 『문학사상』, 1997. 3,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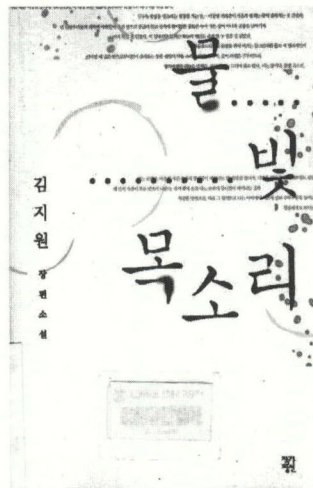
7) 서영은, 「투명하고 아름답고 유현하고 신비로운 스토리텔러」, 『1997이상문학상 수상집』, 1997, p.412.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김지원의 외양은 일반인과는 사뭇 다르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종종 유니크한 외양을 지닌 자들이 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예술가임을 너무 표나게 드러내는 거 아니냐고. 그런 측에서 본다면 김지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범상치 않는 분위기와 모습이 충분히 그런 상상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외모에 모든 정답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산이다. 김지원의 외모는 예술가임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심미안이기 때문이다.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는 긴 퍼머 머리 사이로 비치는 빨간 립스틱은 말 그대로 “은근히 육감적”이다. 하지만 육감적이라 말하는 그 표상의 이면에는 그녀의 예민한 감수성과 이를 통해 발견해내는 심미안이 가득 자리하고 있다. 그녀의 옷차림을 보자. 기성의 형식에 만족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말 그대로 “옷을 만든 사람이 본래 의도한 선을 모두 흐트러” 놓고 있는 것이다. 세계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그녀에게 입으라고 강요한다면, 그녀는 우선 라벨부터 떼어 내고, 멋스럽게 들어 올린 어깨는 주저앉히고, 반짝이는 단추나 벨트를 모두 없애 버린 뒤에나 그것도 아주 어색해하며 간신히 입을 것 같다는 대목에서는 그녀의 자유스러움과 자신만의 탁월한 감수성과 심미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인 문정희는 김지원의 감수성에 대해 재미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있는 김지원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녀의 외모답게 김지원의 아파트에는 “오밀조밀한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박혀” 있었다. 저기 빈 구석이겠지 하고 살펴보면 작은 인형이 매달려 있었고, 예쁜 문고본 책이 서로서로 키를 맞추고 셋씩 넷씩 꽃혀 있었다. 음식을 내올 때도 소꿉장난

하는 애처럼 하나하나 예쁘게 담아 가지고 왔다. 문정희가 목욕탕에서 본, 긴 팔로 욕조를 끌어안고 있는 원숭이 비누곽까지 작고 사소한 것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문정희가 탐낸 원숭이 비누곽은 결국 문정희의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김지원이 귀국 짐 속에 넣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정희는 “조용하고 물기 어린 목소리의 김지원의 눈엔 어떻게 이런 재미 있는 원숭이가 잘도 보일까? 열쇠고리에



달린 계란 프라이는 뭐며 그녀 블라우스에 꽃힌 손톱이 길고 눈이 찢진 노랑머리 서양미인은 왜 우리 눈엔 잘 띄지 않고 그녀의 눈에만 띄는 것일까”라고 질투 아닌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원은 탁월한 감수성을 지닌 작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매우 어리고 욕심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동생 김채원이 기억하는 언니 김지원의 모습이다.

아주 어렸을 때, 나 혼자 집을 보고 있는데 언니가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들어왔다. 그런데 무릎에서 피가 펴프질하듯 퐁퐁 솟아나고 온 몸에서 는 땀이 물에 젖은 사람처럼 흐르고 있었다. 언니는 저녁 예배를 보러 가시는 할머니를 따라 갔다가, 할머니가, 동생이 혼자 무서워 울 거라고 빨리 집에 가보라고 하여 뛰어오다 동네 우물계에서 넘어진 것이다. 우물가에는 돌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언니는 거기에 무릎을 찢기웠다. 나중에 할머니가 예배당에서 돌아오셔서 흉터가 크게 남겠다고 걱정을 하며 된장을 이겨서 발라주셨다.

나는 언니가 언덕을 달려오다가 어두운 우물가에서 혼자 넘어지던 모습,
너무 아파서 울다가 내가 기다린다는 생각에 다시 달려서 내 이름을 부르며
대문을 들어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김지원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다. 사실 좀 복잡한 가계구조임에도 그녀의 가족사랑은 넘쳐난다. 김지원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분이다. 김동환 아버지와 신원혜 큰어머니, 김유영과 최정희 그리고 그녀와 동생에게 호적을 준 김유영의 동생인 김영식과 그의 아내가 바로 그들이다. 이런 복잡한 가계구조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김지원은 그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김지원의 말대로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극스런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이다.

그녀의 여리고도 무욕의 마음은 서영은의 기억에서 만날 수 있다. 김지원은 창밖의 나무들이 휘청거리기만 해도 ‘바람 불어, 바람 불어’ 하면



서 울음을 터트리던 여린 아이였고, 바람이 불어 떨어진 모자를 남이 주워가도 ‘그거 내 모잔데 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해 남이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런가 하면 『음악동아』에 음악인 인터뷰 연재를 하고 있었을 때, 20만원이던 원고료가 어느날 착오로 인해 2만원만 보내졌다. 당연히 그곳에 전화를 걸어 말하면 될 것을 그녀는

그 말을 하기가 미안하고 벅차서 손해를 감수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했다. 남편이 결혼 기념으로 준 반지, 그가 월남전을 취재하러 가서 사온 반지나 브로치 같은 고가의 선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간직하기가 힘들어서 어머니나 동생에게 갖다 주기도 했다.

1995년 그녀는 아주 놀라움을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그녀의 거처는 어머니가 사셨던 정릉 산장 아파트 가동 904호. 생전에 어머니가 꾸며 놓으셨던 집 그대로 보존해 두고, 그녀는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자기 물건 하나 없이, 글 쓰는 노트 한 권만 옆에 둔 채, 소리 없이 있다가 소리 없이 훌쩍 뉴욕으로 돌아갔다.

김채원이 말했다. “언니가, 라디오 두 대를 켜 놓고 들으니 음악이 스테레오로 들린다고 좋아해서, 그저 그런가 보다 했지. 떠난 뒤에 보니까, 그 라디오는 엄마가 들던 고물이었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잡음이 심했어. 라디오 하나 변변한 것 없이 지냈던 거야.”⁸⁾ 그녀는 그렇게 어리고 무욕의 삶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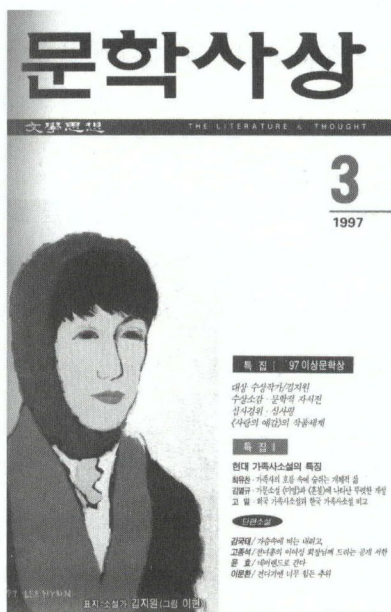
2. 작품세계

김지원은 현재 진행형의 작가이다. 여전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김지원의 작품 세계는 어느 하나의 부류로 규정할 수 없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그녀의 작품세계는 또 어떠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8) 서영은, 「투명하고 아름답고 유연하고 신비로운 스토리텔러」, 『1997이상문학상 수상집』, 1997, p.412.

도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빛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김지원을 떠 올릴 때 함께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니 바로 1997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사랑의 예감」이 그것이다. 이미 1973년 『현대문학』에 「사랑의 기쁨」으로 등단했으므로 20년이 지난 후에 받은 이 상은 결코 사치스럽지 않다. 오히려 원숙하고도 “무르익은 솜씨”⁹⁾를 내보인 그녀의 대표작이며, 작가 김지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어떻게 하나, 이등이면 딱 좋았을 걸”이라고 했던 김지원. 이러한 그녀의 작품을 심사위원들은 무엇이라고 평했을까?

21회 이상문학상 대상수상작 선정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에서 그러한 분위기는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경합을 벌인 작품들을 놓고 이 어령은 자신의 최종 의사를 유보하고 결정을 하루 더 미루어 달라고 제의했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두 찬성하여 다음 날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이번 수상작 선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란을 거친 후 나온 심사평을 보면, ‘우리 작품에 흔치 않은 자유 간접화법의 서술방법 등 실험적인 시도’, ‘무르익은 솜씨를 내보인



9) 박완서, 「심사평-무르익은 솜씨를 내보인 아름다운 묘사」, 『문학사상』, 1997. 3, p.47.

아름다운 묘사’, ‘육체, 정신, 관념의 풍만함’, ‘독자를 빨아들이는 안정된 문체와 안목’, ‘운명의 도정을 포착하는 기법’ 등 대상작으로서의 손색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1) 여성의 ‘수다’와 공존의 힘

독자들은 「사랑의 예감」을 접하면서 두 번 놀라게 될 것이다. 먼저 제 1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수다’에 한 번 놀랄 것이고, 갑자기 나타난 2장의 낮은 형식과 내용에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심사위원들도 작품의 구조에 대해 다소 어리둥절하고 있었기에 독자들의 당황스러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제 「사랑의 예감」의 구성 중 제 1장은 수다로 채워져 있다. 어느 날 뉴욕에 살고 있는 장미에게 뱅쿠버에 살고 있는 손위 시누이가 전화를 한다. 친구 아들이 색시하고 한국에서 신혼 여행을 와서 지내다가 뉴욕으로 간다고 하기에 장미네 연락처를 줬다는 것이다. 장미는 상의도 없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시누이가 원망스러웠지만, 신부가 20년 만에 만난 소꿉동무 ‘신옥’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신옥과 장미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같이 다녔고 장미네가 먼저 이사 갈 때까지 신옥의 집과 장미의 집 사이에는 담도 없을 정도로 친했던 사이였다. 1장은 신옥과 장미, 장미와 시누이, 신옥과 장미 그리고 남편들의 설 새 없는 수다로 가득 차 있다. 정말이지 그들의 수다는 전혀 끊김도 없으며, 막힘도 없다.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어떤 주제든지 그들의 대화 속에 녹아버리고 만다. 남편, 지인들, 기후, 공산품 판매장에서 산 시계, 옷, 기계, 분단문제, 생선회, 올림픽, 마라톤, 뉴스, 인간 수정체 등 그녀들의 수다는 계속 이어진다.

① “낙수 형은…… 혹시 윤낙수 씨니?”

신옥은 벽 너머를 넘겨다보는 듯이 걸으며 장미에게 물었다.

“오, 너 아는구나. 어떻게 아니?”

“그이가 우리 여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었다. 지금도 잘 생겼니?”

“오, 너 그런 걸 잘생겼다고 그러는구나.”

“그렇잖지? 나 고등학교 1학년 땐데 그 선생님이 국전에서 국무총리상을 타고서 우리 학교에 미술 교사로 왔었어. 애들이 참 좋아했다. 장가갔어도 상관 없드라구. 난 아니지만 선생님 좋아하고 그러는 애들 타입이 있잖니? 그런 애들이 난리를 쳤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1년 쯤 있다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났었는데…… 모르는 말을 쓰는 나라로 가고 싶어서 떠난다고 그랬었는데…….”

“스페인에서 불란서로 갔다가 미국 온 거 있지. 낙수 형이 처음 와서는 고생을 직사게 했대. 공사판에도 다니고 그랬었나 봐. 형편이 똥지. 스페인에서두 살구 불란서에서두 살았는데 어찌면 그러니? 스페인어랑 불어는 하나도 모르는 거 있지. 서울 강남에 가면 낙수 형 그림이 없는 집이 없다던데 정말이니?”

“플라. 우리 집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니까. 작년에 집을 지었다. 방은 많으니까 한국에 오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그런데…… 저, 그림 우습 씨라는 사람은 하우섭 씨니?”

“오, 너 아는구나.¹⁰⁾”

② “동생네를 이번 여름에는 만나 볼까 했는데 틀렸네. 서환이가 가서 연락을 취했다니 내가 기쁘구만. 개 엄마를 지난 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는데 이것이 며느리 칭찬을 어떻게나 하던지. 우리 동창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거든. 스물여덟이 왔어. 한국에서 열 다섯이 오고 뉴욕에 사는 애들은 아홉 명이 왔두만.”

“오, 언니는 북미 지역 동창회장이니까 대활약을…….”

“뭐 이것들이 준비를 어떻게 나 잘 해 가지구 와서 시끄럽게 잘들 노는지.

10) 김지원, 「사랑의 예감」, 『1997이상문학상수상집』, 문학사상사, 1997, pp.26~27.

노래도 악보가 있는 노래. 어떤 건 글만 있는 노래. 그걸 복사해 가지구 와서 버스에서랑 부르구 그랬어. 또 1번 도로를 봐야겠다. 그랜드캐니언은 말고 브라이언캐니언을 봐야겠다. 그런 것들도 계획해 가지구 와서 우린 개들이 하자는 대로 했지. 애들이 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자식들 보러, 아니면 남편 출장 때 따라와서 캘리포니아는 대개 다들 봤드만. 이틀에 한 번은 한식을 먹어야겠다구 해서 이틀에 한 번은 한식을 맥였구. 우리는 이것들이 올 때 공항에 나가서 써들고 서 있으니까 모두 그리루들 왔지. 애들이 지나니까 옛날하고 똑같애지두만. 하나 다행한 것은 하나도 사고가 없었다는 거야.”

“사고요?”

“혈압 높은 애, 심장 나쁜 애, 다 있었는데 별일들 없이 지났지. 쇼펍들을 그렇게 하데. 손자 손녀 준다고. 그러다가 애, 남편 것두 하나 놓자 하구 남편 걸 사드라. 여기 사는 애들보다 한국에 사는 애들이 나이가 더 들어 보였어. 관록이 불구. 이것들이 재미가 나서 해마다 동창회를 하제. 해마다는 어렵구 2년에 한 번씩 하기루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 번엔 오스트레일리아에 서 모이기루 했어. 한국에서 하자니까 애들이 한국은 싫대.”¹¹⁾

①은 신옥과 장미의 ②는 장미와 시누이 간의 대화이다. 이들의 수다가 갖는 공통점은 매우 평화롭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 끝까지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중간 중간에는 추임새도 들어가면 이야기에 흥이 난다. 흥이 넘치다 지나치면 상대방에 대해 질문을 한다. “친구의 갑자기 떨어진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므로 신옥은 애써 화젯거리를 찾아 장미에게 말을 붙”이는 식이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동자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를 건너 받은 쪽에서 한껏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그들의 대화는 평화롭다.

또 하나 평화로움은 그 대화의 주제이다. 일상적인 사건들이 대화의

11) 김지원, 「사랑의 예감」, pp.34~35.

장으로 들어오고 매우 파편적이고 우발적인 내용들의 연결이지만 결코 폭력적이지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대화는 논평이 아니라 설명이었다. 이야기의 주제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논평이 들어가지 않는 대화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 할 때도 인정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주관적 입장을 밝힌다. 그래서 다소 민감한 주제들도 어렵지 않게 넘어간다.

① “그냥 이북은 통일이 되기 전엔 못 가는 텐 줄만 알았거든.”

“캐나다엔가 무슨 기관에서 이북 방문 신청을 받는데. 거기다가 이북에 있는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런 거 신청을 하면 편지가 온대. 몇 번 그러다가 연락이 온댄다. 그런데 보니까 이북까지 가고 오는 데만도 날짜가 꽤 걸리더라. 여기서 일단 북경까지 가고 북경서는 여권을 반납해야 된대. 겁이 덜컥 난대. 신분증이 다 없어지는 거니깐.”

“어마아 그렇겠다.”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한테 북경까지는 가는 줄만 알고 비자를 내준 거래. 북경서부터 이북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래. 갔다가 이북서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진대. 갈 땀 여기서부터 시간을 아주 잘 맞춰 떠나야 한댄다. 북경서 이북 가는 비행기는 1주일에 두 번뿐이래서 잘못하면 며칠을 북경에서 허송세월 해야 한댄다.”

“아유, 호텔방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답답한 데가 없는데.”

“평양에 도착하면 먼저 한 사흘쯤은 평양호텔에 있으면서 김일성 묘도 보러 가고 선전 영화도 보고 그런대. 그러다가 시골에 있는 친척이 호텔로 와서 만난대. 만나 가지고 친척을 따라서 시골로 가서는 사흘쯤 지내고 온대.”

“그렇구나.”

신옥은 말하며 리모콘을 들어 시끄러운 TV를 껐다.

“우리 아는 사람은 떠나면서 안내를 맡은 사람한테 친척들에게 뭐 하나 사주고 싶은데 뭐가 좋겠냐고 물어 봤대. 천연색 TV를 사주라고 하더라.”

그 집에는 TV 꽃을 데도 없는데 그러더라. 사주고 오면 기관원이 와서 TV를 쌀 몇 말 주고 바꿔 간댄다. 그 사람은 오다가 LA에서 몇 번 이북에 다녀왔다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한 번 갔다 오면 자꾸 가고 싶어진다고 그러더라. 못사는 걸 보고 오니 자꾸 뭐를 갖다 주고 싶어진다고 그러더라. 여기 교회 같은 데서도 이북을 돕는 모금 운동을 많이 하는가 봐.”¹²⁾

김지원은 이 작품을 처음 쓰던 시기가 1996년 7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의 끝물이었고, 곧 닥쳐올 IMF를 예고하는 극심한 경제난을 예고하던 때였다.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이었고, 후에 들린 예기지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선제공격 시나리오까지 준비했다던 시기였다. 한국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언제나 예민한 문제였고, 일종의 도화선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누구든 남북관계 혹은 북한 문제를 말할 때는 자기검열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중의적인 단어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는 빨갱이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위치의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했다. 단어는 명확한 것만 선택되었고 그러한 것들만이 오해의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었다.

「사랑의 예감」에는 북한 문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작가가 어떤 의식을 갖고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처럼 예민한 문제들을 작가는 인물 간의 대화 속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다’ 속에 녹이고 있다. 장미의 입을 통해 알려지는 재미동포들의 북한 잠입 과정은 스릴 넘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 잠입한 자들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 북한의 현지 모습도 새롭다. 북한에 다녀 온 사람에 의하면, 북한의 친지들에게 무엇을 사주고 싶은

12) 김지원, 「사랑의 예감」, pp.40~41.

데, 물어보면 컬러 TV를 사달라곤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기관원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또 약간의 식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이봉주가 나오자 시누이의 남편이자 고향이 이북인 ‘닥터 유’가 외친다. “잘한다, 이봉주. 이북 끌고 1, 2등으로 함께 들어오너라.”

작가 김지원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은 그녀의 공간적 위치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재미 작가이다.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에 비해 발언의, 표현의 폭이 훨씬 넓다. 그녀의 삶의 환경이 주는 사고의 여유로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혹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다’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주지한바 이곳의 인물들은 뽀아내는 대화의 양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토록 많은 언어들이 교환되고 있음에도 전혀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수다의 원칙’, 즉 타인의 말을 막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예민한 이야기들이 수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대화’ 혹은 ‘수다’의 차원으로 변한다. ‘이념’의 차원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논쟁’이 자리하게 마련이다. 옳고 그르고의 시비가 가려져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해질 때는 감정적 반목과 비난, 저주가 일어난다. 남한의 경우는 더욱 극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화는 종결되고, 거친 함성과 숨소리와 함께 작품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급선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랑의 예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수다는 다르다. 수다에는 이념이 자리할 시간이 없다. 말 그대로 수다일 뿐이다. 그리고 수다의 방식을 보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들은 이

야기이다. 들은 이야기를 전할 뿐이다. 장미가 말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는 모두 시누이와 그녀의 남편이 겪었거나 들었던 이야기를 신옥에게 수다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장미가 말하는 패턴을 보자. 종결 어미가 한결같이 다른 이의 말을 전달할 때 쓰는 것이다. ‘그런 거 신청하면 편지가 와’가 아니라 “편지가 온대.”이다. “이북 가는 비행기는 1주일에 두 번뿐이래서 잘못하면 며칠을 북경에서 허송세월 해야 한댄다.”이다. 자신의 주장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는 논쟁이 끼어들 수가 없다. 듣는 신옥의 입장에서라도 설령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남의 이야기인데 장미와 논쟁을 벌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화적인 수다가 가능하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주역이 있다. 바로 수다에 참여하는 신옥의 태도이다. 그녀의 대화 패턴을 보자. 이 예민한 이야기들을 받아 넘기는 그녀의 대답에는 논쟁의 요소들이 모두 제거되고 단순한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북한 가는 비행기가 없어 며칠씩 북경에서 허송세월해야 한다는 장미의 말에 신옥은 “아유, 호텔방처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데가 없는데.”라는 말로 대화에 참여한다. 신옥의 언어 속에는 예민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 분단으로 인한 이 심각한 장면에서 신옥이 걱정하는 것은 호텔방에 갇혀 있어야 하는 불편함 뿐이다. 그녀의 현실인식을 타할 수 없다. 그녀들은 이념을 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수다’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옥의 이러한 대화 방식이 그녀들의 ‘수다’를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TV 중계에서는 한국 사람을 통 비취 줘야 말이지요. 생전 한국 사람이 나와야지. 저희들 하는 것만 나와. 인종이 무언지 그래도 중국이 이기면

중인데요. 아직도 일본이 이기는 건 제일 싫구. 세계가 사랑으로 뭉쳐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야. 아, 여기 바꾸랍니다. 바꾸라면 바뀌야죠. 잠깐만…….” 하고는 다시 김기자 아주머니의 시원스런 목소리가 되었다.

“신옥 씨, 아저씨는 생선회를 못 잡श्य요. 왜냐? 일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퇴원을 하면서 은혜를 갚는다고 집에 초대를 했더라. 갔더니 일본에서 오래 살았더니 생선회를 좋아하리라 생각하고 서양 사람인데도 생선회를 한 접시 잘해 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구나, 예의상 어떻게든지 먹긴 먹어야겠다 하다가 에라 사람 먹는 건데 못 먹을 거 뭐 있겠나 하구는 입에 한 점 집어넣고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셨대. 몇 점을 성공하셨대.”¹³⁾

미국에서 인종문제 역시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그런데 거기에 반일 감정까지 등장했다. 이 정도의 주제면 소설 한편을 쓸 수 있는 무제이다. 그런데 이 심각한 주제도 역시 수다 속에 묻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깊게 들어가지 않으며, 듣는 사람들도 논쟁으로 삼지 않는다. 반일 감정에 대한 극한을 보여주는 대화를 신옥은 “아주머니, 올림픽은 언제 끝나요?”라며 또 다시 새로운 수다를 향한 길을 만든다. 이후는 안 봐도 알만하다. 이제 올림픽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이다.

2) 갈등의 남성 언어와 치유의 여성 언어

강조했던 것처럼 「사랑의 예감」은 많은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여성들의 대화는 지극히 평화로우며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13) 김지원, 「사랑의 예감」, p.38.

조화와 화해의 대화 방식은 자신들의 생각을 마음껏 표출시키며 때로는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불만들도 남김없이 분출시키기에 응어리가 남지 않는다. 응어리가 없다는 것은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들의 언어에는 수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들의 언어에는 수다 대신에 이성과 합리주의를 지니고 있다.

“이 시계는 신옥이 사서 채워 준 것입니다. 시계 속의 시간은 이 순간도 쉬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든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라 내서 인간이 만든 거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법칙을 발견해서 뉴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경악케 했습니다. 공간이란 3차원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빛의 속도로만 가면 시간은 정지한답니다. 밴쿠버에서 저는 닥터 유하고 이런 얘기를 밤새워 했었습니다. 닥터 유는 저와 대화가 가능한 분이더군요.

인간이 시간을 잘라 내서 기계를 만들었다고 말할 때 신옥의 남편은 손바닥을 옆으로 세워 가지고 탁자 위에다 칼질하는 것 같은 시늉을 했다. 그 몸짓에는 왜인지 섬뜩하도록 노여움이 깃들여 있었다.¹⁴⁾

그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것은 남성들의 언어였다. 남성들이 구상한 세계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남성들은 이성과 광기를 분별했으며, 이러한 틀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였다. 남성들에게 이성은 곧 수학적 인식이었다. 세계는 이성의 산물인 수학을 통해 세계를 설명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갈릴레이,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이성의 계보였다. 이러한 분별은 과학에 멈추지 않았다. 이성의 반대편은 야만과 광기였고 이성을 담지하지 않는 공간은 파괴와 정복 그리고

14) 김지원, 「사랑의 예감」, p.54.

계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집단도 순수히 물러나지 않았기에 정복과 계몽의 앞에는 언제나 폭력이 서 있어야 했다. 그래서 남성의 언어에는 “왜인지 섬뜩하도록 노여움이 깃들여”있는 것이다. 스스로 명징하다 일컫는 남성의 언어야말로 명징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 우리가 연쇄 살인범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골라 죽일 것인가 그런 토론”을 한다. 여성들의 언어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이다.

①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절대 술과 무관합니다. 술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를 할 때 내가 잔다는 데 있습니다. 잔소리가 자장가인 듯이 잠이 오는 겁니다. 신욕이는 말하다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걸 알고는 쑥스러워서 그만 둡니다.¹⁵⁾

② 대화는 피곤합니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오히려 없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위신을 세우며 자신만의 생활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만이 가진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한답시고 주고 주고 주고, 어떤 이는 주고받고 주고받고, 어떤 이는 받고 받고 받고, 그런데 어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줍니다.¹⁶⁾

③ 해결점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불편한 상태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게 낫겠죠. 우리는 불편한 것은 쓸어내 버리며 내 것이 아닌 듯이 그러죠.¹⁷⁾

위의 대화는 모두 남성들의 대화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여성이 대화를 통해 화해와 공존 평화를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아내 신욕은 문제

15) 김지원, 「사랑의 예감」, p.57.

16) 김지원, 「사랑의 예감」, p.58.

17) 김지원, 「사랑의 예감」, p.72.

의 해결을 위해 대화를 요한다. 하지만 신옥의 남편은 문제 해결의 출발인 대화 자체를 거부해버린다. 잠을 자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폭력이다. 해결을 바라는 상대의 시도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상대를 위한 배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들에게 대화는 일종의 ‘피곤’한 무엇이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 사이에도 남성은 위신과 자신만의 생활을 요구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급기야 “해결점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불편한 상태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게 낫겠죠”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성의 수다와 남성의 독백은 다양한 대화의 형태라기보다는 소통의 지속과 부재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여성의 수다는 대화의 지속을, 남성의 독백은 결국 강요와 폭력이라는 양상으로 나아간다. 하나는 지유를 하나는 단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풀어놓는 수다가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침묵은 ‘말하지 않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음’처럼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말하는 것을 상위에 놓는다면, 침묵은 하위에 놓이게 된다. 침묵은 말에 비해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런 관점은 이성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나 수다와 침묵의 관계를 이처럼 단순화 시킬 수는 없다. 20세기에 들어서 현대 언어학은 언어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수다와 침묵의 관계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된다.¹⁸⁾ 장미와 신옥이 풀어 놓고 있는 언어들이란 곧 그동안 남성중심주의가 낳은 파국의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의 표상이다. 즉 그들의 대화는 남성의 권력을 넘어서려는 페미니즘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페미

18) 이상복, 「수다와 침묵의 드라마투르기」, 『한국문학이론연구』33, 2008. 4, p.447.

니즘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차별과 차이의 구별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므로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 Kristeva), 루스 이리가라이(L. Irigaray), 엘렌 식수(H. Cixous), 모니크 위티크(M. Wittig) 등은 모두 여성성 자체를 남성중심적 사고 방식에 대한 도전장으로 삼는다.

특히 이리가라이는 남녀 신체의 특징은 그대로 그들의 문화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남성끼리의 문화는 여성의 관용성과 달리 다른 성이 가져온 것을 사회에서 배제해 버린다고 하였다. 즉 여성의 몸은 차이를 존중하는 반면, 가부장제 사회라는 거대한 남성의 몸은 차이를 배제하고 계급 서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부장제는 노동자 계급의 착취로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처럼 여성 착취로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존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리가라이는 여성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는데, 가부장제에서는 여성에게 교환가치의 역할만을 부과하여 시장에 내놓은 상품처럼 취급한다고 분석한다. 결국 이 같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처녀, 어머니, 창녀라는 범주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가라이의 이러한 논의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지향점을 각각의 몸에서 찾고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언어를 가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리가라이는 남성의 성욕이 음경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은 다수의 성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남성의 언어는 이성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성의 언어는 여성의 몸 도처에 성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직선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 즉 남성의 언어는 중앙집권적(독재, 폭력적 상징)이고, 여성의 언어는 지방분권적(다양성, 평화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에 관련된 여성주의적 구별에 중

요한 것은 남성적 글과 여성적 글 사이의 대조이다. 일부의 비평가들은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글 자체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리가라이에게 성의 해방은 곧 언어의 변화를 의미하며, 주체로서 자신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¹⁹⁾

이리가라이의 논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다의 언어’와 일치하고 있다. 남성의 언어는 그들의 신체처럼 중앙집권적이었다. 남성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말해왔지만 실상 그것이 낳은 것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억압과 착취의 흔적뿐이다. 이성은 아도르노의 말처럼 도구적 이성 그 이상이 아니었으며,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를 쓰는 것이 야만”이 된 것은 남성의 언어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언어, 즉 ‘수다’는 다르다. 남성의 언어처럼 명징한 이성의 확인을 위해 논쟁을 일삼거나 타자를 생산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언어인 수다는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소통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가운데 조용한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갈등을 유발하는 근원인 언어를 대량으로 쏟아내면서도 그들의 서사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수다가 가지고 있는 공존과 평화 그리고 타자를 인정하는 정신 때문인 것이다. 여성들의 수다는 남성들의 언어마저도 수다로 전환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남편들과 함께 하는 대화에 여성의 언어가 스며드는 순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남성들의 언어도 ‘수다’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2쌍의 부부가 나누는 수다는 남과 여의 대결의 장이 아닌 4명의 평화로운 존재들의 대화의 장이 된다. 김지원의 「사랑의 예감」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 서동수, 여지선, 『성담론과 한국문학』, 박이정, pp.102~103.

3) 흐르는 삶과 계획된 삶의 변주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인, 장미와 신옥. 그녀들은 어린 시절 소꿉놀이 친구였으며, 현재는 모두 남편의 아내이다. 그녀들은 미국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매우 우연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었고, 수다라는 형식을 통해 서로의 안부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녀들의 대화는 여전히 평화적이며 화해와 공존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양상이 있었는데, 바로 삶을 지속시키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의 차이가 그것이다.

장미,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미학을 가르치고 있는 10년 연상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녀와 남편의 관계는 무척 자유스러워 보인다. 서로에 대한 지나친 구속이나 강요는 없다. 그들은 서로의 공간과 시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삶의 양식은 그들의 공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가죽 소파에 앉으며 신옥은 마음 붙일 곳이 없는 방이라고 생각했다. 입구 쪽에 스토브와 싱크대 같은 부엌 설비가 있고, 행하니 넓은 공간에 다탁과 의자들이 한구석에 모여 있고, 그러고는 저쪽 벽에 붙여서 컴퓨터 같은 전자 기계들이 스산히 놓인 책상이 있었다. 서가만으로 모자라 책은 마루 한편에 높이 쌓여 있고 신문지와 잡지 같은 것들은 다탁 주변에 흐트러져 있었다. 소파 위 벽에 붙은 그림은 연기 나는 공장 굴뚝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전화기 옆에 있는 게시판에는 약소 메모와 공문, 영화, 미술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이 아무렇게나 붙여져 있었다.²⁰⁾

20) 김지원, 「사랑의 예감」, p.32.

매사에 계획을 갖고 삶에 임하는 신옥의 눈에 장미의 주거지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곳이다. 장미의 집은 그녀의 삶처럼 다소 어질러진 것처럼 산만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산만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모든 삶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하지만 신옥의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녀의 모든 삶은 계획 속에서만 존재한다.

신옥은 한 번뿐인 삶을 대단히 잘 살아 볼 작정이었다. 그러려면 다가오는 미래를 수동적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계획해서 내가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연극이나 음악회, 미술 전람회에도 문화 주사를 맞는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다녔다. 장차 교양 있는 주부, 교양 있는 아내, 교양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함이었다.²¹⁾

신옥은 모든 삶을 계획 속에서 이루려 하고 있다. 계획은 그녀의 삶을 운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완성시켜 주는 무엇이었다. 그래서 신옥은 “결혼은 스물 여덟에 하고 작년에는 집을 지었구. 올해는 허니문이야. 허니문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면 가정을 꾸려야지. 아들 딸 구별 없이 둘만 낳고 싶어.”라고 말하고 실재 계획대로 지금은 허니문 중이다. 그녀의 허니문 목적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보고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래만에 만난 장미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녀는 빨리 거리로 나가고 싶어 했다. “모레면 귀국인데 그 전에 쌍둥이 빌딩도 가보고 자유의 여신상도 구경하고 서클라인이라고 하는 맨해튼을 도는 유람선도 타야” 했기 때문이다. 또 “그리니치 빌리지에 가서 이선생이 그랬듯이 와인에 곁들여

21) 김지원, 「사랑의 예감」, p.30.

스파게티 요리도 먹어 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현대 미술관, 링컨 센터, 소호의 갤러리를 둘러보며 문화 주사”를 맞고 싶어 했다.

“아마 신옥이는 노벨상 수상자의 정자가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살 겁니다. 저 사람의 인생 모토가 미래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우린 계획대로 집을 지었고 계획대로 신혼여행을 하고 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를 가질 겁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 신옥이는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게요. 집을 짓는 와중에도 허리에다가는 워크맨을 차고 헤드폰은 머리에 끼고…… 우린 집을 완성했고……예산은 좀 초과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를 가질 겁니다. 방법은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사과를 손에 쥔 건 신옥이니까요.”²²⁾

신옥의 남편마저도 그녀의 계획성에 놀라고 있다. 신옥은 스스로 정한 바대로 움직였다. 결혼도 그렇고, 신혼여행도 그리고 자녀문제도 이미 모든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남편의 말대로 방법을 물을 필요가 없다. 사과를 쥐고 있는 것은 신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성은 좋은 것인가? 모두가 계획대로 움직여 준다면 모든 세계는 질서정연하고 계획대로 움직여주는가? 우선 신옥의 남편은 무척이나 편안한 삶일 수 있을 것이다. 집을 새로 짓는 와중에도 신옥의 남편은 걱정이 없다. “회사에 나가느라고 관여할 시간도 없었지만 관여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집을 짓는 동안 ‘총지휘’를 했으며 그것은 “바로 초인의 경지”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녀는 계획과 실천에 철저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이

22) 김지원, 「사랑의 예감」, pp.62~63.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남편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① 결혼은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옥이는 내 발목에다가 쇠사슬로 우리 집을 묶어 놔습니다. 결과로 나는 신옥이란 여성에 대해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남성이 됐습니다. 저 여성은 내 집 속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저 여성의 기분이나 의견을 상관할 필요가 없다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갖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까지 신옥이와 함께 성화입니다. 인생은 무거워서 좀 누웠다가 가고 싶지만도 계속 가야합니다. 나는 세상에는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나 나를 아는 몇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삶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미안하고……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것이 뻔히 보여서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²³⁾

② “인생의 길에서 나는 누가 뭐래도 사랑의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어.”
“그걸 누가 뭐래니?”

“그건 말이야. 오빠가 내 심장을 이렇게 두근거리게 하는구나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드러누워서 앓는 그런 사랑이 아냐. 네 말이 맞는지도 몰라. 네 말처럼 내가 머리로 선택을 했다 치자. 나는 그 선택에다가 내 심장을 끌어다 넣었다. 저기 TV는 그냥 상자짝이지만 전화에 연결이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니.”(…중략)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는 나를 보고 있는 변함없는 내가 항상 있어. 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게 있겠지 싶어. 오빠가 화를 내거나 기분이 침울할 때 나는 오빠가 정말로 그런가 싶어져. 오빠 속에도 모든 걸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오빠가 있겠지 해. 난 종이 인형을 가위로 오려 내듯 그 오빠를 그려낼 수가 있어. 어린애들은 크레용으로 이런 집도 그리고 저런 길도 그리고 이런 엄마도 그리고 저런 아빠도 그리지. 근본으로 가면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크레용으로 그려 내는 게 아니니?”²⁴⁾

23) 김지원, 「사랑의 예감」, p.60.

신옥은 모든 행복이 계획에서 나온다고 맹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한다. 집을 짓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신혼여행을 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 까지 모두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그리고 삼복더위에도 집안에서 투피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다. 장미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스타일을 구걸 순 없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멋있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란단다.

그렇게 하면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꺼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신옥은 남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잘 아는 것도 계획의 일부이다. 신옥의 남편이 출출하다는 말을 하면 신옥은 “용수철이 튕기듯이 일어나 사방 벽에 부딪히며 벌써 부엌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는 “내가 비빔국수를 만들게요. 오빠는 시고 얼큰하게 무친 국수를 참 좋아해요”라고 말한다. 신옥의 남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때로 다른 맛의 국수를 먹고 싶어 해도 소용없다. 신옥에게 그는 “시고 얼큰하게 무친 국수를 참 좋아”하는 남편이기 때문이다. 국수를 삶는 것도 때가 있다. 오빠는 “국수가 딱 알맞게 삶아져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옥에게 느끼는 남편의 반응이란 “발목에다 쇠사슬” 묶여 있다는 느낌이다. 그 결과 신옥의 남편은 신옥에게 전혀 아쉬운 것이 없는 남성이 된다. 이제 그들은 부부 라기 보다는 “저 여성은 내 집속에 항상 있을” 존재이기에 “저 여성의 기분이나 의견을 상관할 필요가 없”는 타자가 되어 버렸다. 신옥의 계획 속에 남편의 저러한 반응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장미는 신옥 남편의 감정을 눈치 채고 있었다.

24) 김지원, 『사랑의 예감』, p.68.

“보니까 넌 모든 걸 노력과 의지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현실이 자신에게 맞지 않고 희생만 강요할 때는 직시하고 현실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 변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되잖니. 난 오늘 저녁에 봤다. 미스터 리가 원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더라. 미스터 리는 마음 속에 노여움이 잔뜩 쌓여더라. 미스터 리는 국수를 먹자는 게 아니었어. 봐라 애.”²⁵⁾

장미는 신옥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지 알 수 있었다. 신옥의 남편은 삶이 버거웠다. 때론 “인생이 무거워서 좀 누웠다가 가고” 싶어 하지만, 아내 신옥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미안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것이 뻔히 보여서” 그는 여전히 힘든 삶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행복은 “지극히 사사로운 감정이어서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옥이는 “매사에 열성스럽고, 보통 아니게 몸을 가꾸고, 보통 아니게 어른들의 환심”을 사지만, 정작 그녀가 원하는 단 한 사람, 자신의 남편은 신옥의 “손이 닿는 곳 너머로 냉큼냉큼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장미는 신옥에게 “모래 속에다 고개를 쳐박고는 세상도 저를 못 보는 줄로만 아는 타조”라고 말한다. 하지만 신옥은 장미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은 노여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것으로 이유를 돌리고 있다. 밤새 고속버스를 타고 아침에야 뉴욕에 도착했고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무는 나무일뿐인데 너는 나무한테다가 네 마음을 집어넣고 나무를

25) 김지원, 「사랑의 예감」, p.67.

미치게 하는구나. 사람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데 꼭 막혀 다른 걸 받아들이려 하질 않아. 그거야 나도 그래. 마음은 항상 같은 것을 원하지. 믿고 있는 것만을 느끼고 안심하고 싶지. 그리고 있으면 저 하나야 한없이 편하지.”²⁶⁾

신옥은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행복이라는 이름하에 바보상자인 TV에 “심장을 끌어다” 놓고, 나무에 마음을 집어넣고 나무를 미치게 하고 있다. 그녀의 계획은 일방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고개를 모래에 처박고는 세상을 못 보는 줄로만 아는 타조가 바로 신옥이었던 것이다. 사실 신옥도 자신의 삶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옥은 “한 걸음 한 걸음 …… 하나의 발을 힘차게 내딛고 그 다음 한 발을 그 앞으로……다시 뒤에 남은 발을 잡아당겨 또 한 번” 움직이는 것은 “빛나는 해를 바라보듯 밝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힘찬 발걸음 밑에 깔린 길은 짙은 안개”, 즉 “초조, 실망, 낭패 같은 감정들이었다. 그녀가 이러한 불안의식에 휩싸이는 이유는 실제 현실은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란 거의 우연적인 것이다. 먼저 이곳에 있는 장미를 만나게 된 과정이 그렇다. 신옥은 맨하튼에서 아주 우연스럽게 장미의 시누이를 만났고, 그 덕에 지금 장미와 나란히 앉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사건은 신옥의 계획에는 애당초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또 장미와 그녀가 나누고 있는 대화 가운데 장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은 자기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신옥의 결혼 과정이 그렇다. 신옥은 매우 우연히 버스 안에

26) 김지원, 「사랑의 예감」, p.69.

서 지금 남편의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시아버지 될 할아버지도 신옥을 며느리 감으로 생각한다. 얼마 후 남편을 만난 것도 우연이었으며, 남편은 여자 친구가 있음에도 그녀에게 접근을 했고, 그녀가 마음에 들자 부모님이 몰래 그녀를 볼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러면서 시아버지 될 사람은 전에 버스에서 봤던 처녀임을 알고 결혼을 서두른다. “오늘의 선택이 자동적으로 나의 내일이 되는 거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라고 외치던 신옥의 계획 속에 이 어느 것 하나 포함된 적이 없었다. 그렇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노랫말이었다.

“신옥 씨, 요즘에도 이런 노래 서울에서 듣습니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는 중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의 노래를 장미의 남편은 부르고 싶었다. 그는 장미가 내민 의자에 앉아 노래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밝혀 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조오겠네. 너어 가는 곳마다 하얏게 다니며 너의 기이를 비추겠네.(중략...)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 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들의 꽃이 되어도 조오겠네, 으음 눈물이 고인 너의 눈 속에 슬픈 춤으로 흔들리겠네.²⁷⁾

그렇다. 사랑의 예감이란 계획의 실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얼굴을 밝혀주기 위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며 길을 비추거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이름 없는 들판의 꽃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27) 김지원, 「사랑의 예감」, 70쪽.

3. 문헌정보

- 김승옥, 「우수의 긴 터널을 나오며」, 『문학사상』, 1997. 3.
- 김현실, 「운명적 사랑과 자아성취에 대한 현대적 물음」, 『한국패러디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 문혜원, 「소설, 근원의 언어를 찾아가는 길」, 김채원, 『물빛 목소리』, 작가정신, 2005.
- 이제하, 「사랑의 꿈-매듭짓기의 의미」, 『한국문학』, 1988. 8.
- 이태동, 「단절감의 극복을 위한 사랑의 집념」, 『서평문화』25집, 1997. 봄.
- 임금복, 「反」신데렐라의 공주들-여성작가가 새로 쓴 김지원, 박라연, 최은옥의 ‘평강공주’를 중심으로」, 『문학과이식』, 2007. 여름.
- 임선애, 「김지원의 <사랑의 예감>론」, 『여성작가와 문학적 글쓰기』, 아세아문화사, 2006.

4. 작가연보

- 1942년 경기도 덕소 출생.
- 1957년 서울 창경국민학교 졸업.
- 1963년 『여원』에 「늪주변」 당선.
- 1965년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졸업.
- 1975년 「사랑의 기쁨」, 「어떤 시작」이 황순원 선생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 단편 「먼집」을 『현대문학』에 발표.
- 1977년 중편 「잠과 꿈」 발표. 자매소설집 『먼집 먼바다』(지식산업사) 간행
- 1978년 단편 「바닷가의 피크닉」, 「알마텐」, 「한밤 나그네」, 「비」 발표.
- 1979년 단편 「새벽의 목소리」(『현대문학』), 「뒷문 밖엔 갈잎노래」(『현대문학』), 중편 「폭설」(『세대』) 발표.
- 1980년 단편 「비」, 「마의 사랑」, 「마술의 생선뼈」 발표. 뉴욕에 거주.

- 1982년 중편 「겨울나무 사이」(『문학사상』), 단편 「정다운 말씀」(『소설문학』), 「아내」(『소설문학』) 발표.
- 1983년 단편 「동화」(『현대문학』), 「꿈결」(『문학사상』), 「차나 한잔」(『현대문학』) 발표.
- 1984년 중편 「지나갈 어느날」(『문예중앙』), 장편 「멀리서 노래하듯이」(『뉴욕 한국일보』) 연재.
- 1985년 중편 「시간과 강물」(『문예중앙』),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이야기」 발표.
- 1986년 단편 「네 앞의 나」(『한국문학』), 「다리」(『현대문학』), 「베갯머리꿈」 발표. 장편소설집 『모래시계』(원제는 『멀리서 노래하듯이』) 간행. 창작집 『겨울 나무 사이』(나남) 간행.
- 1987년 단편 「어버이날」(『문학사상』), 「개 데린 남자」(『가교문학』), 「잊혀진 전쟁」(『현대문학』) 발표.
- 1988년 단편 「보이지 않는 사람」(『문학사상』), 「희망의 속삭임」(『현대문학』) 발표.
- 1989년 중편 「파로이 흐르는 저 강은」(『레이디경향』) 발표.
- 1990년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창작 프로그램(IWP) 참가. 중편 「물이 물 속으로 흐르듯」(『작가세계』) 발표.
- 1991년 단편 「강」(『현대문학』), 「가족사진첩」(『문학사상』) 발표.
- 1996년 자매소설집 『집. 그 여자는 거기 없다』, 장편소설 『소금의 시간』 간행.
- 1997년 「사랑의 예감」으로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
- 1998년 장편 『낭만의 집』 간행.
- 2002년 창작집 『꽃철에 보내는 팩스』 간행.
- 2005년 장편 『물빛 목소리』 간행.

에필로그

1975년 「사랑의 기쁨」으로 문학을 시작한 김지원이 다시 그 「사랑의

예감」을 느끼기 까지 근 20여년이 필요했다. 왜 문단 초년생의 ‘기쁨’이 더욱 증폭되지 못하고 ‘예감’이라는 다소 후퇴한 모습으로 섰을까? 아마도 이는 김지원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저 기쁨의 본연한 모습을 찾기 위해 작가 김지원은 근 20여년을 방황했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김지원은 움직일 수 없는 답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예감’이란다. 겸손이 아니다. 이제야 그녀는 ‘사랑의 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다. 그 예감을 위해서 그녀는 작품 속에 거대한 수다를 쏟아 부어야 했다. 혹자는 말한다. 입이 재앙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남성들의 언어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김지원은 입이야말로 재앙이 아닌 평화와 공존 그리고 화해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수다가운데 슬금슬금 흘러 놓았다. 그리고 그 깊이를 받아들여 1997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수상소감 안에는 여전히 흘러넘치는 ‘기쁨’이 없다. 예의 그렇듯이 또 잔잔하다. 동생 김채원으로부터 수상소식을 듣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둥이면 딱 좋았을 것”이다. 여전히 ‘예감’의 수준이다. 하지만 예감은 예민한 자들의 몫이다. 김지원은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통해 사랑과 화해와 공존의 예감을 지금도 저 촉수로 더듬어 내고 있는 것이다.

여 백

김채원

프롤로그

1. 김채원의 생애
2. 작품세계
3. 이상문학상 수상 소감 및 심사평
4. 김채원과 떠나는 지중해 여행
5. 문헌정보
6. 작가연보

에필로그



프롤로그

작가 김채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근대문학사를 되새기게 된다. 김채원의 아버지 파인 김동환, 어머니 최정희. 김채원의 부모 김동환과 최정희는 한 개인, 한 작가의 부모가 아니라 한국근대문학사에서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문인이기에 김채원의 문학적 행위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파인 김동환



최정희



김지원

우리는 흔히 김채원을 김동환과 최정희 사이에 난 둘째딸로 기억하고 있지만 이미 아버지 김동환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다. 그 아들들은 물론 최정희의 아들이 아니다. 김동환의 첫 번째 부인은 신원혜인데, 신원혜가 김동환에게서 아들 셋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후 김동환은 신원혜와

별거하면서 유부녀 최정희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 동거 중에 두 딸을 낳았는데 첫째가 작가 김지원, 둘째가 작가 김채원인 것이다. 김채원의 가정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김채원이 느끼는 가정사의 가장 큰 혼란은 바로 그녀의 호적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채원은 어머니 최정희의 첫 번째 남편인 김유영의 동생 김영식 아래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았는지 둘 다 모두 소설가가 되었다.

진아버지는 한국문학사에서 최초의 장시 「국경의 밤」을 쓴 시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최정희의 소설가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두 딸은 소설가가 되었다. 김채원에게 어머니의 영향은 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김동환은 일제 말기에 친일 행각으로 김채원이 성장할 당시 반민특위에 고발되었으며, 한국전쟁 때에 납북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어머니 최정희와 함께 했으며, 어머니 최정희 역시 그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정희는 1990년 12월 21일까지 향년 84세까지 비교적 오랜 세월 딸들과 함께 하였다. 이러한 가정사와 역사적 환경이 오늘의 김채원으로 이끈 동력이었을 것이다. 그 면모를 따라가 보자.

1. 김채원의 생애

김채원은 1946년 경기도 덕소에서 시인 김동환과 소설가 최정희의 둘

째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창경국민학교를 거쳐 이대부속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1974년에 동경한국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으며, 동경예대에서 외국인을 위한 클래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였다. 그녀는 미술교사를 할 정도로 미술에 대한 실력과 자격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일본에서 더 깊은 공부를 하였다. 또한 그녀는 이 당시에 《현대문학》지에 「먼바다」가 추천이 되기도 하였다. 그녀는 그림공부와 미술교사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소설 창작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 피난 시절



동경예대 전경



몽수리 언덕의 풍경

일본에서 미술교사와 학업을 하던 김채원은 197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아트스튜던트리그에서 미술수업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대문학》지에 「밤인사」로 추천완료가 되었다. 그녀는 일본, 미국 등을 건너가서 미술수업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설창작에 임하여 추천 2회로 작가로 등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채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다. 그녀는 유학길임에도 불구하고 단편 「몽수리공원에 내리는 가을」을 발표하였다. 또한 언니 김지원과 함께 자매 작품집 『먼집 먼바다』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후 1977년에 단편 「달의 손」을 《현대문학》에, 「자전거를 타고」을 《문학사상》에, 「얼음집」을 《한국문학》을 발표하였다.

김채원은 1978년에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단편 「밀월」을 《문학사상》에 발표하였으며, 「봄의 끝」을 《현대문학》에, 「나이야가라」를

《뿌리깊은나무》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단편 「초록빛 모자」를 《현대문학》에, 「희유곡」을 《문학사상》에, 「안개」를 발표하였다. 1980년에는 단편 「넋물」을 《문학사상》에, 「가을햇빛」, 「묘약」을 발표하였다. 1981년에는 단편 「산중기」를 《한국문학》에, 「물 위에 어린 그림자」를 《월간조선》에, 「오월의 숨결」, 「아이네 크라이네」를 발표하였다. 김채원은 거의 매년 소설 서너 편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2년 후 1983년에 단편 「가득찬 조용함」을 《현대문학》에, 「공중에 또 하나의 다른 방이」를 《문학사상》에 발표하였다. 다음 해인 1984년에는 단편 「애천」을 《문학사상》에 발표하였으며, 작품집 『초록빛 모자』를 나남출판사에서 발간하였다. 1985년에는 「여름의 환」을 《문학사상》에, 「저문 날 허공에」를 《현대문학》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중편 「오후의 세계」를 《문학사상》에, 이상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 「겨울의 환」을 《현대문학》에, 「무언가」를 《문예중앙》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0에 『봄의 환』을 미학사에서 출간하였다.

1991년에는 중편 「미친 사랑의 노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김채원은 중국여행을 떠났다. 그녀가 일본, 미국, 프랑스를 거쳐 이제 중국으로 떠



난 것이다. 이로부터 그녀는 다시 여행을 통한 해외로 떠나기 시작한다. 1992년 콩트집 『장밋빛 인생』을 작가정신에서 출간하였으며, 같은 해에 러시아로 여행을 떠났다.

1993년에는 수필집 『꿈꿀 시간 있으세요』을 출간하였으며, 장편 『형자와 그 옆사람』을 출간하였다. 1994년에 중편 「달의 몰락」을 ≪현대문학≫을 발표하였으며, 이제하, 송영, 서영은과 함께 지중해 연안지방을 여행 다녀와서 ≪서울신문≫에 기행문을 연재하였다. 그리고 4인 기행 에세이집 『사막, 그리고 지중해에 바친다』를 문학동네에 출간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작가이다.

2. 작품 세계

김채원은 다작의 소설가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기에 그 문학세계를 종결하여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녀의 작가생활은 1974년 「먼바다」가 추천되던 해부터 정리하면 34년의 세월이 흘렀다. 34년의 작가생활은 적지 않은 세월일 뿐만 아니라 작품수도 상당하기에 그녀의 작가 생활을 중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녀의 모든 작품을 살펴보기에는 할애된 지면의 부족으로 대표작이라 판단되는 작품 두 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볼 첫 작품은 1977년 작 「자전거를 타고」인데, 이는 그녀의 작품 중 비교적 초기의 작품으로 작가의 개인사를 여실히 담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 김채원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가정사와 사회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점은 작가 김채원을 알아가는데 의미있는 한 접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작품은 1989년 작 「겨울의 환 幻」이다. 이 작품은 ‘환 시리즈’의 하나이자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김채원의 대표작이다. 오늘날 작가 김채원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기에 이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그녀의 진면목을 엿볼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작가의 개인사와 사회사

「자전거를 타고」는 김채원이 1977년에 프랑스 유학 중에 발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김채원의 가정사와 개인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김채원의 아버지가 이북에 계신다는 것, 어머니는 이남에 계시고, 자신은 일본 유학생이며 미술전공인 것, 언니가 미국에 있다는 것 등 작가의 생애가 작품 「자전거를 타고」에 그대로 소재가 되어 나타나 있다. 실재 그녀의 아버지 김동환은 남북 당하였으며, 어머니 최정희는 남에서 소설가로 그 생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언니는 미국에 거주하며 작가생활을 하고 있었다. 물론 김채원은 한국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미대를 졸업한 뒤 일본에서 수학하고, 다시 미국에서 수학한 후, 프랑스로 유학하였다. 당시 그녀는 프랑스로 건너간 지 1년쯤 되었으니 자신의 일본 유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문학세계를 정리하면서 이 작품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잠시 줄거리를 따라가 본다.



1965년 대학 2학년 겨울, 서교동 집에서 어머니 최정희와 언니 김지원과 함께

주인공 ‘나(성혜)’와 ‘하자’가 만나 작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낸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소설로 나는 주인공이자 나레이터이다. 초여름 오후, 나는 기다리던 여권이 나와서 친구 하자과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찾아왔다. 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자의 스케치장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성혜의 여권이 드디어 나왔다. 여자친구와의 이별에서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 성혜가 우산을 가지러 대사관에 들어간 사이 혼자 있으려니 마음속에 큰 구멍이 뚫린 듯 울고 싶었다. (「자전거를 타고」 일부)

‘성혜’ 그렇다. 성혜인 나는 여권이 나와서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갈

예정이다. 반면 하자는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하자는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반면 성혜는 남한 사람으로서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려는 것이다. 이 광경을 바라본 하자는 성혜가 부러웠던 것이다.

성혜는 하자에게 이남으로 적을 옮길 것을 권한다. 그래서 같이 미국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하자는 부모 형제를 다 두고 혼자 이남으로 적을 옮길 용기가 없었다. 성혜와 함께 뉴욕으로 가고 싶지만 이북 사람이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혹여 가고 싶다 할지라도 재일북한인은 외국에 갈 수가 없고, 혹 간다고 하더라도 고향인 일본에 다시 돌아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의 외국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더더군나 일본에서는 나가는 것은 자유로우나 들어 올 수 없다고 하지만, 나가고자 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곳이 있는 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에서 사건의 발단은 이처럼 성혜의 미국행 여권으로부터 시작된다.

성혜와 하자와의 만남은 판화 전시회에서 시작된다. 일본 친구에게 우연히 성혜는 하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하자의 옷의 칭찬으로 둘은 친해지게 되자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된다. 내일 아침 공원 분수대에서 만나자는 하자의 말에 성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급하게 서둘러 약속장소로 나간다. 두 번째 만남에서 서로의 가족에 대한 질문 끝에 성혜 아버지가 이북에 계신다는 것, 어머니는 이남에 계신다는 것, 뉴욕에 있는 언니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하자는 이북사람이라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하자는 성혜의 아버지가 이북에 있다는 이유로 관심을 갖고 성혜와 친밀해지고 싶었다. 그런데 성혜는 북

한사람이 나를 포섭하려고 그런가하는 의심 속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진심으로 친해지자 “나는 그때 미지를 향해서 함께 흐르는 같은 또래의 같은 여자라는 강한 동류의식을 느꼈었다.”라고 혼자서 생각했다.

어느 날 “쌍둥 룯데”라는 영화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부부사이의 불화로 갓난아기 쌍둥이 형제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그 쌍둥이는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끌리어 점심을 먹으며 이름과 생일을 주고받다가 자신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아빠와 살던 룯데가 엄마 집으로, 엄마랑 살던 룯데는 아빠 집으로 바꾸어 가고 하였다. 아빠 집에서 살던 룯데는 하녀들 속에서 귀하게 자라 순한 귀족이었지만, 엄마 집에서 살던 룯데는 깽쟁이고 총명하고 일도 잘 하였다. 그러나 집을 옮겨갔기 때문에 상황은 혼돈에 빠졌을 법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애인이 나타나자 깽쟁이 룯데가 심술을 부려 아빠와 애인을 헤어지게 하고 엄마와 화해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의 질문에 있다. 하자와 성혜, 둘 중 누가 아빠 집에서 자란 아이니?라고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자는 아빠집에서 자란 룯데가 더 좋아보였던 것이다. 성혜는 “니가 마음대로 정해라.”라고 말하고 말았지만, 하자에게는 아빠 집, 넉넉한 집에서 자란 성혜가 부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자는 총명하고 일도 잘하는 엄마 집에서 자란 아이보다 아빠집에서 자란 아이 쪽이 더 좋아보였던 것이다. 먼 세계로 마음대로 떠나 볼 수 있는 성혜가 부러웠던 것이다. 하자는 미술대학에 가길 원했지만 조직에서 일꾼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일꾼으로 와달라고 끊임 없이 요구해서 끝내 못했기 때문이다.

성혜가 여권이 나온 소식을 집에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1966년 대학교 3학년 때 교정에서 친구와 함께

마침 전화를 걸만한 곳이 없어서 근처 파출소가 가서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성혜는 여권이 있었지만 하자에게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보여주기가 싫었다. 당시로서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 그래서 하자는 얼른 보여주라고 한국말로 말을 했다. 성혜는 끝내 보여주지 않자 하자가 화를 내고 파출소를 나와 버렸다. 그러

자 성혜도 가버리라고 소리쳤다. 순경은 성혜의 주소와 이름을 확인한 후 시말서를 쓰게 한 뒤 전화를 허락했다. 성혜는 전화를 하고 나서 파출소에서 나왔다.

성혜가 집으로 가는 전차를 놓치자, 기다렸던 하자와 함께 하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하자는 전차를 타고 가다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한다고 했다. 성혜는 하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자전거를 같이 탔다. 하자는 낡고 큰 자전거가 부끄러웠지만 같이 탔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둘의 마음은 정화가 되었다. 성혜는 하자와 파리에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에 잠겼다. 하자는 성혜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남에 가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렇게 둘이 밤

길을 계속 달렸다.

드디어 성혜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성혜는 공항에서 하자에게 고백하였다. 나도 실은 너와 동갑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자 하자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권을 만들 때 같이 다녔는데 왜 모르겠냐고 하였다. 성혜는 탑승 수속이 끝난 후, 대열 속에 들어갔다. 성혜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하자 혼자 친구들 맨 뒤에 숨은 듯 서 있었는데, 마치 누가 아빠 집에서 자란 아이니? 라고 묻는 듯 했다. 성혜는 순간 하자와 함께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달을 이고 거침없이 달리는 스물여덟의 두 처녀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언제까지고 계속 달리고 있을 것 같았다.”

이 「자전거를 타고」는 작가의 개인사를 바탕으로 시대적 상황을 얹게 올려놓은 듯한 작품이다. 작가의 모습을 성혜에 담아 일본, 즉 북과 남도 아닌 제 3국에서 실존을 묻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약한 개인사가 숨겨 있다. 아버지는 친일하다가 납북 당한 시인이요, 어머니는 한때 친일작가였었다. 그러한 부모를 둔 자녀가 제 3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일본에서 제 3국에 거주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채원은 일본에서 북한 사람 하자에게 이남을 권해 본다. 그리고 북한 사람마저 받아주는 프랑스에서 만나자고 한다. 그것은 또 무슨 뜻인가. 프랑스, 그야말로 제 3 국이다. 그곳이라면 이념이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그녀의 가정사와 시대사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운명과 싸우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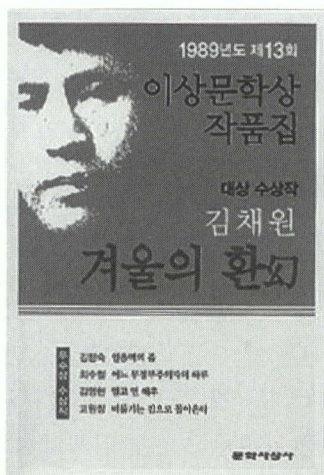


1972년 일본에서

2) 1989년 작 「겨울의 환」-이상문학상 수상작

「겨울의 환」은 1989년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김채원의 대표작이다. 이상문학상, 이상을 기리는 문학상이다. 이상은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1930년대에 주로 활동한 작가로서, 비운의 작가이다. 20세기에 태어났지만 시대는 19세기를 갓 넘은 상태라 그의 문학세계는 참으로 감당키 어려웠다. 개인사, 가정사, 시대사, 인류사의 비애를 한 몸에 안고 불타버린 이상, 그 이상을 기리는 문학상을 받은 「겨울의 환」, 무엇이 김채원, 그녀를 불사르게 했을까. 현재 생존하는 작가 김채원이지만, 그의 80년대 말 작품으로 거슬러 가보자.

「겨울의 환」의 부제는 ‘밥상을 차리는 여인’이다. 우리 일상에서 밥상



1989년 이상문학상 수상집

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밥상이란 사소하면서도 다양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실체이자 개념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먹는 아침 밥상, 일하다가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하게 때워버릴 수 있는 의미 없는 밥상이 있는가 하면 지쳐 돌아와 허기를 채우는 조출한 저녁 밥상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밥상 외에 거대한 밥상도 있다. 연인과 함께 하는 근사한 밥상, 부모님께 정성껏 차리는 밥상, 자식에게 모든 정성 다하여 차리는 밥상부터 온갖 거래를 빙자한 비즈니스의 정치적 밥상 등 밥상의 의미들은 무한하다.

그런데 「겨울의 환」에서는 한 여인이 밥상을 차리고자 마음 먹을 때까지의 고백을 흘려보내고 있다. 그녀가 차리고 싶은 밥상은 어떤 밥상이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겨울의 환」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설 속에서도 어디서부터 얘기를 끌어내야 할 지 잘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즐거리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의 환」의 주인공, 나의 이야기를 주섬주섬 따라가 본다.

「겨울의 환」의 시작은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으로 시작된다. 이 소설은 “당신”에 대한 나의 편지글이다. 주인공은 저녁부터 시작되어 새벽녘까지 글을 마쳐보겠다는 각오로 펜을 들었다. “당신”이 “나”에게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을 한 번 써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감정의 혼련도, 그 감정을 끌어내어 표현하는 능력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여자인

다. 글이라고는 편지와 일기 정도밖에 써본 적이 없어 두려움마저 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쪽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매혹을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이 마흔 세 살이라는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여자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늙어 가는 것이 단지 멀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써의 떨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느낌에 비로소 여자가 된 듯 한 기분을 맛보았다는 것이다. 늙어 가는 사람의 떨림보다 늙어가는 여자의 떨림이란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스스로 언제나 사람이라고 느끼던 것에서 성을 찾아 여자가 된 것이, 그 자각이 이제라도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다. 그래서 난 이처럼 여자로 느끼게 해준 당신과 만난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할머니 묘소가 있는 산에 산불이 났다는 뉴스와 집안 아저씨의 전화에서부터이다. 산불이 났다는 보도와 함께 집안 아저씨는 자진 출두하여 신고하겠다고 한다. 낮에 아저씨와 내가 산에 올라가서 불을 지폈던 것이다. 그 불씨가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나는 할머니의 묘가 다 타버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망자들의 묘까지 전부 태운 것, 조상의 무덤을 잘 가꾸어야 하는 우리네 풍습에 묘자리가 다 타버렸다는 사실이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심히 두려우면서도 웬지 무덤 속에서 망자들이 훨훨 타오르는 불길에 가슴에 맺힌 응어리들을 다 녹여 내린 후련함을 맛볼 것 같은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나와 어머니와 손이 비슷한 데에서 시작된다. 가름한 손톱 모양과 매듭, 손가락 등이 비슷하다. 다만 손금만이 다르다. 그런즉 어머니와 나는 운명이 다르다. 그러나 그것 역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와 딸의 운명은 한줄기이기 때문이다. 딸은 대개 어머니와 운명을 닮는다고 말하던가. 내가 어머니와 운명적임을 느끼는 것은 밥상에서부터이다.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리지 못하는 여인이다. 어머니는 스스로 음식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신다. 우리 집 김장김치를 먹어본 사람이면 다 인정을 한다. 김치와 동치미는 어린 나와 동생에게도 맛있었다. 그러나 된장찌개만큼은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된장찌개에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늘 느끼던 갈증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교원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웬일로인지 잠시 방향하던 시절 화투로 날을 지내셨다. 어린 시절 기억 중 아버지가 우리 집에 얼굴을 보인 적은 없는데, 아버지는 작은 어머니를 얻어 생활하셨고 동생이 태어나던 해 객지에서 병사하셨다고 듣고 있다. 어머니는 유일하게 불이 들어오는 방에서 화투를 치신다. 큰 판은 아닐지라도 종일 화투를 치신다. 그러다 저녁때가 되면 “애 가혜야, 왜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니? 거기다 된장을 한 숟가락 떠다가 더 풀고 두부 한 모 썰어 넣고 마늘 다져 넣고 보글보글 끓여라. 그리구 머루치도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밥하구 상을 차려서 좀 가지고 들어와라, 응. 김치는 새것을 썰어라.”라고 큰소리로 말씀하신다. 부뚜막에서 졸듯이 쪼그리고 앉아 연탄 냄새를 맡고 있던 동생과 나는 장독대로 가면서 반감을 갖게 되었다. 교사를 지낸 사람이 큰소리치는 교양없음에 대한 반감, 더구나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싫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와서도 그 된장찌개 실력을 자랑하신다. 이렇듯 나는 어린 시절 항상 음식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지냈다.

대부분의 옛 여인, 내가 본 할머니의 모습은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여인, 조용히 묵묵히 끝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여

인,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 주고 물을 떠다 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밀물처럼 닥쳐오는 세 끼의 밥을 따뜻이 먹게끔 차려 주는 여인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다. 오히려 밥상을 깨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까지 밀려온다. 깨부순다는 말이 과격하다면 부엌과 밥상에 친해지지 않는다고 할까. 어쨌든 부엌에서 찬바람 같은



1993년 어느 출판기념회에서

것이 돈다. 이것은 손금, 어머니와 나의 운명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내 나이 서른 둘, 여자로서 절정일 때로부터 시작된다. 젊음이 은은히 울려 퍼질 때 나는 결혼 생활 육 년 만에 구겨진 버선처럼 친절로 돌아왔다. 아이가 없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결혼예물 때문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해가지고 가지 않았다. 장롱은커녕 이불조차 변변히 해가지 않은 나에게 친척들은 따가운 눈

총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젊은이가 아닌가, 무엇인가를 장만해 간다는 것은 젊은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준비가 되어 있을 리가 없다, 이제까지 길러준 부모에게 그것마저 어떻게 해 받아 가는가, 둘이 힘을 합하여 앞날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나 역시 남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오로지 내 뜻은 자신들의 힘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것뿐이다. 이런 말들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선과 속치마는 넉넉히 준비해갔다. 이는 시집 안 간 사촌언니가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신혼여행 중 남편은 바닷가의 횃집에 앉아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남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아침식사 때 토스트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남편이 성을 낸 데에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그 후 난 음식이 잘못되면 아까우면서도 지체 없이 버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뭉뚱한 음식을 내 놓아야 한다는 과제가 앞섰기 때문이다. 그런 나는 버선과 속치마도 입지 않고 오로지 살림과 싸우기에만 분투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살림이란 이 괴물 같은 살림아, 어디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들러붙으며 애꿎은 살림 쪽을 원망했다.

또한 생일이나 환갑잔치로 친척집에 가는 날에는 남편은 항상 눈을 썸썸하게 뜨고 있었다. 친척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스스로 창피해지고 자존심이 상하여 잊고 있던 결혼 당시의 감정들이 생각나서 그랬을 것이다. 그럴 때 나는 버스 손잡이를 잡은 채 울음을 삼키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곤 하였다.

이런 시집살이에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한 계기는 눈이었다. 홀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때의 눈, 그 눈의 아우성을 잊을 수 없었다. 현관 가득히 벗겨져 있는 문상객들의 구두를 차례로 정돈해 놓고 있는데, 현관문 하나 가득히 새까맣게 떨어져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이다. 검은 치마저고리의 상복을 입고 구두 정리를 하던 그대로 허리를 굽힌 채 잠시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저앉을 때, 고무신이 벗겨져 나간 내 버선발이 내려다보였다. 며칠 동안 갈아신지 못한 버선은 부엌바닥에서 찢든한 때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었다. 이 더러운 버선바닥이 마치 내 인생처럼 느껴

졌다.

장례차에 실려 장지로 가던 날도 눈이 쏟아졌다. 성애가 가득한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닦아 내고 밖을 보았다. 눈은 먼 곳에서 반가운 손님처럼 찾아와 내가 앉은 차창으로 다가왔다 멀어지고 다시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그러다가 유리창에 찰싹 달라붙기도 했다. 어린 시절 품었던 눈의 세계가 갑자기 되살아났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짐을 쌌다. “우리 어머니가 다른 집 어머니처럼 내게 그렇게 잘 해보내지 못한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요. 그렇지 않았다면 일평생 모르고 살뿐하지 않았어요. 일평생 남편을 제일인 줄만 알고,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그런 밑바닥에 깔린 감정을 볼 수 없었을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속속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게 무사한 결혼생활보다 훨씬 다행스러워요.” 이 말을 하고 난 직후의 자유스러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듯하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결국 돌아오고 말았으며, 남편은 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되어 떠났다.

진정으로 돌아온 나는 요즘, 결혼의 실패가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더 근원적인 것, 딸이 어머니 운명을 닮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것, 다시 말해 운명의 손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아버지가 우리를 버려두었듯, 즉 어머니가 남편을 섬기며 사는 여자이지 못했듯 나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면 남편이 꼭 두각시처럼 느껴져 멀리 떠나 있는 그에게 미안함과 아울러 차라리 측은한 애정까지 든다.

하여간 나는 내 운명 속으로 돌아온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한다. 시집가기 전에 쓰던 장롱과 거울, 조그만 책상 같은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내 방에 누워 있으면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낀다. 내 어린 시절에 뿌리를 내린다고 할까. 인생에 뿌리를 박는 것은 옛 시절이 배어 있는 내 집을 떠나서는 헛갈린다고 할까.

진정으로 돌아온 후 세월이 많이 흘렀다. 갓 삼십을 넘기고 돌아온 난 어느덧 노모와 단둘이 사는 아늑함에 젖어 있는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안락함 속에서도 웬지 모를 갈증을 솔직히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이따금 어머니에게 올면서 달려들기도, 또 무언지 모를 불만을 한숨 섞어 털어놓기도 했다. 한숨의 뒤 끝에 속말로 어머니, 검버섯이 피어나는 칠순 노인인 당신과 내가 같을 순 없지 않겠어요, 하고 저절로 중얼거려졌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당신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는 관절염에 바깥출입을 전혀 못하여 어머니와 때로 외식하고 영화구경이라도 하는 작은 기쁨마저 차단되던 시기였다. 그러던 날, 감자를 벗기다가 면실유가 없어서 동네 슈퍼마켓에 가는데, 어둠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

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멀어져간 듯, 당신과 나 둘이서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길을 물었고, 난 당신이 묻고 있는 집, 당신의 옛집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었다. 그리곤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면 슈퍼마켓으로 몸을 돌렸다. 슈퍼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신은 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곤 물었다. 어떻게 이 집을 찾는 줄 알았느냐고...

난 이후부터 당신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3일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당신과 난 서로 반가워했다. 그리곤 전화하겠다고 하자, 난 매일 기다렸다. 그런데 당신은 보름간이나 전화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난 전화기 옆

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전화를 받았을 때의 실망감, 드디어 난 발광이 났다. 결국 난 장이 선 시장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기분삼아 동그라미 던지기를 하였다. 큰 술병을 들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술이 올라 꼭 도깨비 같았다.

그러기를 며칠 여 만에 드디어 당신에게 전화가 왔다. 탕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한 후 머리를 세트로 만 채 저녁을 짓고 일 초의 여유도 없이 발을 동동둥 구르며 바빠 움직여 약속 장소로 나갔다. 당신과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아늑하고 조용한 호텔 커피숍인 줄 알았는데 도떼기시장 같은 곳, 당신은 사람들에게 떠밀리듯 겨우 가장자리 이인용 조그만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 있어서 바빠 뛰어온 내가 웃음이 나기까지 했다. 그날 우린 플라타너스 가로수 밑을 걸었다. 천천히 느릿느릿 걸으며 나뭇가지가 우리의 키보다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허리를 굽히는 그 리듬은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우리는 그저 간간이 몸을 서로 스치기도 하며 걸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담배피우는 내 모습에서 시작된다. 담배를 피우다 티브이 아나운서의 멘트가 생각났다. 바람이 계속 일어 소화작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생각이 나를 할머니 묘를 태워버릴 뻔했던 장소로 데려갔다. 집안 아저씨와 내가 묘에 갔을 때, 산불이 나서 열심히 쫓던 일이 생각났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무덤들 사이로 불길이 퍼지는 것을 잡아가던 때 말이다. 할머니의 묘 주위에 누워 있는 망자들은 전부 실향민이다. 내 친척 중의 한 분인 순쟁이도 실향민이다. 이름은 순정, 성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할머니 사촌 언니의 딸이라고 한다. 순쟁이에게 아들 홍보가 있는데, 아들 홍보는 실향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단면이 있다. 홍보는 양복을 해달라고 하도 졸라 겨우 양복

한 벌을 해주면 구두를 해달라고 조른다. 그런데 구두 해 줄 돈이 없어 못 해주면 그 양복을 면도칼로 찢어버린다. 그래서 말리는 순쟁이를 냅다 밀쳐 나가떨어지게 하고 세간을 부수기도 한다. 파출소 순경이 아들 흥노를 잡아가면 마음 약한 순쟁이는 너무 얻어맞지는 않을까 하여 담배 두 보루를 사가지고 뒤쫓아 가 너무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밤으로 아들을 풀려나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북에서 살다가 피난을 나와 갑자기 산 설고 물 설고 사람 선, 모든 것이 어설피른 상황에서 빚어진 그 당시 신헌민의 진면목이 들어 있다. 그런데 나의 외삼촌도 그런 타입이다. 어쨌든 순쟁이 아들은 이민을 갔고, 순쟁이도 따라갔지만 결국 혼자 돌아오고 말았다. 순쟁이는 돌아온 후 얼마가지 않아 죽었다.

이처럼 신헌민의 묘지도 그렇고, 묘가 있는 마을 이름이 ‘어둔리’라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외로운 존재인 것이 새삼 느껴졌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피난시절과 함께 시작된다. 6·25때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친구 분이던 군인의 도움으로 뒤통스게 피난을 떠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자루 밑에 조금 남아있는 아끼던 쌀을 꺼내어 보리밥을 지어서 주먹밥을 싸주셨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집에 그대로 남겠다고 하셨다. 온 동네가 다 피난을 떠나고, 6·25때 피난을 못 떠났던 사람들도 공산당 밑에서는 살지 못하겠노라고 몸서리를 치며 너도나도 다 떠나 버리고 난 후의 텅 빈 마을 속에 할머니 홀로 남아 계셨던 것이다.

트럭에서 어머니는 동생 영혜가 굴러 떨어질까 봐 두루마기 웃고름에다 잡아매고 내 손을 붙들고 있었다. 며칠이고 계속해서 트럭에 실려 달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눈 속에 박혀 있는 유령 같은 나무들의 영상, 막

막하여 적막하고 깊은 고요한
그 풍경은 전쟁도 꽃소리도 추
위도 배고픔도 어머니도 동생도
주먹밥도 그리고 나머지도, 모
든 것이 멀리 물러가고 오로지
눈(雪)과 대면하던 그 눈(眼)이
보았던 것은...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본다. 그것은 순간이 영
원으로 변하는 가능성, 아니 무
엇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열리고 더욱 열리며 아름다운
자유의 개념 같은 것, 인간이 근
본적으로 갖고자 하는 조건 같



아들과 함께

은 것, 그런 것의 형상화가 아니었을까. 그것은 전쟁과는 정반대 쪽에
서 있었던 것이다.

피난지에서 돌아온 날 밤, 어머니와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
다. 할머니는 인민군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지냈고, 14후퇴 뒤에는 텃밭
에 배추와 무를 심어서 김치를 담가 시장에 나가 파는 일을 했는데, 그때
미군 지프차에 치어 다리를 다치어 조금 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뒤 어느 봄날,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이모네에 가 있으라
고 하였다. 내가 남편이 없으니 내가 만만해서 나한테만 있느냐고 어머
니는 할머니에게 화를 내었다. 결국 할머니는 이모네 집에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타관에서 첩을 얻어 사시고 할머니는 일찌감치 체념하며 딸
셋과 외아들을 데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이모네 집

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마지막 에피소드로 어머니와의 다툼, 결혼할 때 속치마와 버선을 많이 해 주었던 사촌의 기억 등으로 시작된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귀찮게 생각했듯 나도 어머니가 귀찮아진 것이다. 그래서 난 어머니에게 가끔 이야기한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간섭하지도 않고 어머니를 말없이 도와주기만 했는데도 어머니는 할머니를 쫓아내셨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제 생활을 전부 박탈해 가요. 라고 말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가라고 고함을 치시는데, 그럴 땐 좀 주춤 거린다. 왜냐면 결혼에 실패한 여자에게 나가라는 말은 큰 약점을 찌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가보려고 방을 얻어 보려 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의 싸움을 화해로 이끌어가고 싶은 기분이 조금씩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 화해라는 것은 당신과의 결별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닐까. 당신에게로 가졌던 열정이 고조되었을 때 어머니와의 싸움 또한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당신은 저만큼 먼저 걸어가고,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뒤를 멀리서 따라 밟아 갈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당신과 나의 고독감을 보았다. 호텔을 찾아가기 위해서 걷는 그 모습에서. 나는 언제나 술을 많이 칭해 마셨다. 부끄러움, 두려움 같은 것을 이겨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술을 마시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호텔 문을 나서서 걸을 때, 그때 저만큼 멀어져 가는 당신의 그림자를 보며 나는 죽으리만큼 외로워졌다. 당신은 버릇처럼 어디 가서 뜨거운 자를 마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하지만 난 사양한 채 돌아선다.

함경도 사람들의 침관일까,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내력과 같은 것일

까. 아니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아버지가 없어서일까. 내가 나의 몫이 없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양보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데서 얻어진 상황 탓이 아닐까. 영혜와 내가 크면서 어머니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무엇을 사달라는 말을 하면서 컸다면 나는 지금 그와 함께 카페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택시를 붙잡아 탔다. 당신은 나에게 50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만나겠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60, 70이 될 때까지 가끔 카페에서 만나 얘기하는 좋은 여자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하였다. 그 말은 나의 마음을 살피 주는 뜻에서 한 것이었지만 나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다. 당신은 나에게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을 한 번 써보라고 하였다.

어머니와 화해를 하고 함께 사는 것은 속박이다. 그러나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 생각한다. 어머니는 점점 소멸해 가는 할머니를 감당하기 벅찼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거기에는 내가 몰랐던 어머니의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또 기억 속에 아무런 영상도 없이 오직 무(無)인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없는 것과는 다른 뚜렷한 존재였다. 아버지가 계시다면 나의 성격, 나의 운명들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나는 좀더 삶을 신뢰하고 당신에게도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군불을 지피며 밥상을 차리는 장면이 생각났다. 소박한 나무상, 칠이 번쩍이지 않는 다갈색의 네모진 조그만 소반 위에 할머니는 아들의 수저를 놓고 콩자반, 무말랭이, 호박오래기 등의 밑반찬을 놓았다. 국은 끓고 밥도 뜬이 들고 있다. 이에 삼촌이 들어오고 있다. 어머니의 말대로 할머니는 삼촌을 기다리느라고 피난을 가지 않으셨을까. 혹 할머니는 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그 밤 다시 떠나는

삼촌을 문 앞에 서서 배웅하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

나는 ‘밥상을 차리는’, ‘짜리문 여잡고 기다리는’ 이 두 영상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밤새 진통을 하며 이 많은 말들을 쏟아놓을 것 같다. 나는 삶의 열쇠를 찾은 기분이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떨림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으로, 나의 성을 찾아 여기에 서는 일은 이리도 힘이 든 일이다. 누구인가 내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끝까지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나의 소망의 마음을 이제 내 편에서 누군가에게 해주는 사람으로 자리잡은 때문이다.

나는 굳건하게 여기에 선다. 그것은 여자로서 서는 것일 뿐 아니라 또 한 할머니나 순쟁이 그 이전의 선조들이 전해 준 마지막 인간의 조건으로서 이기도 하다. 피난 가던 때 눈 속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순간이 영원으로 변하는 그 가능성. 당신이 만약 원하신다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돌아올 곳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찾는 집이 그곳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나도 그 주변에 살았었고, 당신이 던진 야구공에 맞았던 기억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당신을 보게 된 것이다. 더 이상한 자도 쓸 수 없도록 피곤이 한꺼번에 밀려와 조금 자야겠다. 그리고 일어나 들창을 열고 눈의 세계를 아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싶다.

3. 이상문학상 수상 소감 및 심사평

1) 김채원의 수상 소감

폭발 직전의 정점을 향해

- 생명력을 지닌 문학의 길을 가고 싶다.

이제 차분히 앉아서 써보기로 하자.

공연히 왔다 갔다 서성이고 비 온 뒤의 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시고 싶지 않은 차물을 가스에 올려놓거나 이 책 저 책 뒤적이지 말고 차분히 맨 마지막 도구인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앉아보기로 하자. 그리 하여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부터 기쁨 뒤로 계속 밀려드는 막막한, 무언지 알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인가 들켜버린 듯한, 모든 것이 들통이 나버린 듯한 두려움, 다락 속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아직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그동안 걸어온 문학적 행로라든가 나의 문학관 같은 것을 타의에 의해서라기보다 스스로 한번 처음인 듯한 눈으로 점검해 보기로 하자.

지난 시절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오랫동안 길 위에 서 있던 것으로 인상 지워 진다. 길 위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 같다.

지난여름 오랜만에 귀국한 언니와 여러 날 밤 새워가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바들바들 떠는 일이 없이 하자고 서로 말하였다. 이제 모든 일에 의연히 대처하며,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생각으로 ‘오늘 또 하루 작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떠올려 보자고 얘기하였다. 자기가 바르게 살

겠다고 생각할 때 세상은 훨씬 힘차게 열리리라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파행이 미덕이 될 수도 있는 삶 속에서 바르게라는 그 말에 걸려 우리의 진정한 내부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박제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데에는 여러 갈래의 생각과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과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 바로 문학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모른다.

문학을 한다는?

이런 표현이 갑자기 생소해진다. 그것은 사실 언제나 생소했다. 글을 쓴다라고 표현을 바꾸면 조금 괜찮아진다.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은 너무도 작은 사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참, 이상하게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시장 거리나 동회에서마저) 함부로 취급될 때면 나는 속으로, 이 사람들이 내 저력을 모르고 함부로 내게 이르는구나, 이런 마음이 절로 되어지곤 했다. 그렇게 함부로 팔꿈치로 밀어내지 말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나는 언제나 그 저력을 마음속에 다짐하곤 했다.

그 저력이란 무엇인가?

내게 무슨 숨은 힘이 있기에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최후의 보루로 접어놓아 둔 문학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글을 써야지 하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면서도 또한 문학이라는 것에 내 힘 전부를 쏟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힘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 넣을 어떤 것이 따로 존재하리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 이 부분이 이상하게 엇갈려 있다. 작사 작곡도 하는 어느 좋은 가수에게서, 그 길을 잡았을 때 이거다, 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몹시 부러웠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한다.

일제고사가 있기 바로 전날 급사 소냐가 나를 불러 두툼한 봉투를 주었다. 길에서 절대로 끌러보지 말고 꼭 언니에게 전해 주라고 몇 번씩 당부했다. 집에 와서 언니에게 전해 뜯어보니 작게 흘러 쓴 글씨로 베낀 일제고사 시험 문제와 간단한 편지였다. 등사하는 틈틈이 몰래 베낀 것이니 동생에게 가르쳐주라고 써 있었다. 경의에 찬 표정으로 언니가(언니는 우리 학교 상급생이었다) 그 편지를 소리 내어 읽던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그 며칠 후 아침 조회 시간에 나는 학급 대표, 학년 대표, 전교 대표로 상을 받기 위해 몇 번씩 단 위로 오르내렸다. 급사 소냐는 모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친척이라든가 특별히 아는 사이도 아니며, 또 상을 받기 위해 단 위로 오르내리는 내 모습을 그녀가 보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면 감사함의 표시도 없이 그저 흐지부지 지냈던 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 다시 그 일을 떠올리니 그녀는 혹 문학소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글을 읽고, 소녀적인 감상으로 무언가 친근스러움을 나타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가장 이해가 되어졌다.

유년의 그 일이 왜 간혹 떠오를까.

떠오를 때마다 즐거워서일까.

그 일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후 일을 감당 못하여 몹시도 힘이 들었으며 국민학교 4학년 때는 우리 반 아이 전체가 나와 말도 안 하고 놀지도 않아 아침 운동장 조회 시간

전에 혼자 울고 서 있는 것을 언니가 와서 위로해 준 적도 있다. 한 명이라도 놀거나 말을 붙이면 부반장 아이가 압력을 가했다. 3학년의 기쁨과 4학년 때의 괴로움을 따로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파도의 앞뒤처럼 같은 일이었음을 뒤늦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죽 길에서 바들바들 떨었던 것도 같은 파도타기임을 알 수 있다. 은연중에 급사 소녀의 것과 같은 희망의 손길을 언제 어디서나 원했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지금 그 일을 기쁨과 슬픔의 이분법으로 나누려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서 진정한 인생의 묘미를 감지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 소감을 쓰고 있는 지금, 그 시절의 일은 어떤 힘을 가지고 다시 내게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기만 하다. 이제는 무모하게 그렇게 함부로 단 위를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스스로도 모르겠는, 숨고 싶은 기분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나와 내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 남을 이해하고자 한다. 내가 남을 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데올로기에 대해 그 허점이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인 것 같다. 이것은 예고가 아닌 겸손이라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말한다. 세상에는 진실로 남의 아픔을 부등켜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생명력을 지니고 싶다. 한 작품이 다른 작품을 부르고 생명력을 지닐 수 있으면 좋겠다. 언어로 원고지의 칸칸을 메웠음에도 비어 있는 상상적 공간의 크기가 거대했으면 좋겠다. 색채가 일제히 아우성치며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할 때라는 피카소의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각 언어들이 일제히 소리 내기 시작하여 폭발 직전의 장점

을 향해 치솟아 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바르게 살아야지, 그 생각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문학은 결국 생활의 투영일까. 앞으로 찾아봐야겠다.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89.)

2) 이상문학상 심사평

(1) 김동리의 심사평

김채원의 <겨울의 환幻>이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된 첫째의 이유는 사건보다 의식을 주조로 한 소설 스타일이 종전의 그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의식의 흐름’이란 것이 소설 세계에 등장한 것은 20세기 20년대 이전부터의 일이지만 김채원의 경우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연과 결부시킨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홀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때의 눈, 그 눈의 아우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 추운 어둠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그 사이로 눈은 내려오기에 고심하면서 비집을 틈이 없는 공간 속으로 새까맣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자연 속에 핀 의식의 꽃은 계속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높이 평가, 마지막 판에 가서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수상작이 되었다. (김동리, 「자연속에 핀 의식의 꽃」,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89, pp.351~352.)

(2) 이어령의 심사평

<겨울의 환>은 여러 겹의 이야기가 함께 이어진다. 여인 삼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주인공의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잊혀진 것들에 대한 애잔한 느낌이 이야기 모두에 깔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필요한 환상들을 포착하는 작가의 솜씨다. 이 솜씨야말로 작가 김채원의 뿔이라고 할 것이다. 최종 결정에서 <겨울의 환>을 택하는 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이어령, 「환상들을 포착하는 탁월한 솜씨」,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89, pp.352~354.)

(3) 김윤식의 심사평

김채원 씨의 <겨울의 환幻>은 그대로 환각(꼭두)인 것. 자기 스스로 원질原質로 한 고백체형 소설의 한 순금 부분이 아닐까. 우리 소설계에서 이런 유형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 겨울이란 무엇인가. 한갓 동치미의 감각인 것. 그 감각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악마의 호출 부호가 필요한 법, 그것이 바로 ‘당신’이고, ‘습니다’체로서의 증폭 현상이 아니었겠는가. 스스로를 원질로 한 고백체란 자기 몸 태워 빛내는 촛불형인 것. 그러니까 이런 계보에서 창작이란 악마에게 혼을 파는 계약 없이는 원래 불가능한 것. 그네 속에 깃든 ‘당신’이라는 악마를 불러낸 탓에 과연 현란한 환각이 창조되었지만, 정작 그는 무엇을 악마에게 주기로 계약한 것이었을까. 이 계보의 좋은 부분도 잘 보이지만 그 위험 부분도 동시에 드러나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문학적 틀 속에서의 문제적인 것이라 하면 안 될까.(김윤식, 「문학적 틀 속에서의 문제

적인 것」,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89, pp.355~356.)

(4) 박완서의 심사평

<겨울의 환>에는 소위 시대적인 고뇌가 거의 실려 있지 않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초연하거나 무감각한 게 가능한가 또는 옳은가라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줄 알지만 그 작품은 그런 논란으로 간섭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 시대의 악몽이 제거된 새로운 세상이 온다 해도 결코 없어질 리 없는 인간의 운명적인 쓸쓸함, 어쩔 수 없는 삶의 허망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도 김채원의 소설을 즐겨 읽었지만, <겨울의 환>은 그가 여태껏 써온 세계를 뛰어넘은 일품이라고 여겼다.(박완서, 「떨리는 듯한 감동을 주는 인간의 운명적 쓸쓸함」,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89, p.357.)

(5) 권영민의 심사평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수상 작품을 선정하도록 했을 때, <겨울의 환>이 지목됐다. 이 작품은 주제의 무게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있으며, 서사의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문학상의 성격과도 부합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겨울의 환>은 자기 몫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중년 여성의 내면 심리를 예리하게 포착해 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가가 지니고 있는 이국적 취향이나 소녀적 감상이 완전히 극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변신이 놀랍다. 경험적 자아와 서사적 자아를 미묘하게 겹쳐놓고 있는 이 작품에서 고백체 형식의 궁극적인 요건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소설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미덕은 서두에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잔잔하게 가슴에 밀려드는 이상스러운 감동을 들 수 있다. 남성 부재의 독특한 소설 공간을 파고드는 이 감동의 물결은 ‘작은 열림’이 아니라 결국 파도처럼 격렬하다. 고향의 상실, 부성父性的 부재, 전쟁의 고통 등으로 이어지는 주인공의 개인적 체험 영역을 운명성의 의미로만 파악할 수도 없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개인적 운명을 낳게 만든 역사의 운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1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으로 <겨울의 환>이 결정된 것은 이념의 잣대로 모든 것을 마름질하고자 하는 오늘의 풍토에서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문학사적 요구에 다름 아님을 밝혀둔다. (권영민, 「잔잔하게 밀려드는 이상스러운 감동」,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89, pp.359~360.)

3) 작품의 이해

「겨울의 환」의 소재 및 이야기 단락을 초점으로 생각해보자.

(1) 산불과 할머니의 무덤

할머니의 무덤과 다른 망자들의 묘를 다 태운 산불에 있어서는 김채원의 시대적, 역사적 부채를 날려버리고 싶은 개인적인 노력이 보인다. 할머니의 의미는 그저 어머니의 개념이 아니다. 시대고를 겪은 분으로서 당시의 경험, 실체 그것이다. 사실 김채원의 가족사를 들쳐보면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친일파로 해방 이후 구형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다. 김채원이 성장했던 시기는 반공 시대였다. 이 작품이 완성된 1989년은 반공의 압박의 마무리되던 시점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신가. 최정희, 그녀 또한 친일의 오명을 써야 했던 작가였다. 대학, 유학을 거듭했음지라도 편안한 가족사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김채원은 자기의 가족사의 문제를 특수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할머니 묘뿐만 아니라 다른 망자들의 묘까지 모두 태운 것, 그래서 무덤 속에서 망자들이 훨훨 타올랐던 것이 좋았던 것이다. 할머니의 묘만이 아니라 모든 망자들이 다 타올라야 했던 것이다. 그래야만이 개인사의 해결이 아니라 시대사의 해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운명과 손금

어머니와 나의 손은 비슷하다. 그렇지만 손금은 다르다. 그것은 운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와 딸의 운명은 한줄기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김채원의 운명을 극복할 수 없는 좌절이 엿보인다. 그녀는 어머니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딸의 운명이 한줄기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 맥을 끊을 수 없음을 시인한 것이다. 어머니의 딸, 어머니의 삶 속에서 얻어진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줄기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3) 김채원과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집에 얼굴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얻어 생활하셨다는 것, 동생이 태어나던 해에 객지에서 병사하셨다는 것은 다만 「겨울의 환」의 내용으로만 보기 힘들다. 실제 김채원은 아버지와 외식이나 가정생활을 해본 일이 없다. 이복 오빠들과 무덤 갈 때 외에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얻어 생활하셨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머니가 동거녀이며 본처는 따로 있었다. 객지에서 병사한 아버지는 납북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버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김채원은 자신의 삶을 기저로 「겨울의 환」을 써나갔던 것이다.

(4) 남자 그리고 남편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나는 친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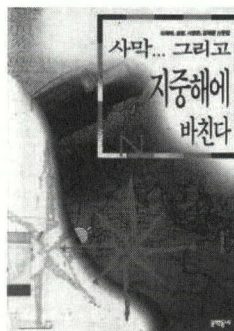
김채원의 소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남자의 부재이다. 남자는 현실 속에 드러나 있지 않다. 「겨울의 환」에서 세 남자가 나온다. 아버지, 남편, 옛 집을 찾아온 남자. 그러나 그 어느 남자도 현실 속에서 드러난 남자는 없다. 대사가 없는 인물은 존재했는지조차 판가름할 수 없다. 아버지는 작은 어머니와 나가 살아버렸기에 한 번도 같이 산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남편과는 시집을 때 해 온 것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이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는데, 결국 이혼을 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옛 집을 찾아온 남자, 결국 내가 어렸을 때 본 그 사람인데 대사 한 마디 없이 가끔 만남만 있을 뿐이다.

또한 작품 속의 “당신”과 호텔에서 나와 커피숍에 가지 않은 이유를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무언가 사

달라고 조른 적이 없다. 이런 성격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김채원의 작품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자는 없다. 이 또한 그녀의 삶의 배경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 김채원과 떠나는 지중해 여행

김채원은 3명의 동료와 지중해 여행을 떠난다. 이제하, 송영, 서영은과 함께한 여행과 그 후일담인 것이다. 김채원이 작성한 『사막...그리고 지중해에 바친다』(김채원 외 3, 문학동네, 1994)의 서문과 그의 산문을 쫓아 지중해를 엿보자.



1) 서문과 『사막...그리고 지중해에 바친다』의 진실

(1) 서문

지난 4월 우리 일행 네 사람은 저녁 비행기로 김포공항을 떠나 방콕과 암만을 거쳐 이라크로 갔다. 거기서 다시 이스탄불 아테네 로마 마드리드 그라나다 파리까지 지중해 연안도시들을 돌고 서울로 돌아왔다.

꼭 한 달간의 일정이었다. 이라크까지는 SBS촬영팀과 한수산 작가 그리고 국민일보의 임순만 기자와 동행이었다.

발단은 지난해 이라크 정부 초청으로 이라크 축제에 다녀와 서영은이

이 해에 송영 작가에게 바톤을 넘겨주었고, 오랜 우인인 우리는 어느 회식자리에서 우연히 함께 떠나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어린 시절 이른 아침 눈을 뜨고 너무 찬란한 아침햇빛 속에서 학교에 빠지는 일을 누구나 상상해보았을 것이다. 바로 그런 상상의 일면으로 이번 여행은 행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을까, 빠져도 되는가라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것 봐라 그래도 된다? 된다? 하는 기분으로 스스로도 의아해 하며 결국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다.

떠나기까지 발판을 차고 올라야 하는 역동적인 힘들이 각자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학교에는 결코 빠질 수 없이 옥죄이던 것에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학교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닌, 그런 자유스러움을 조심스레 느껴가며 발을 내딛었던 그 느낌이 선연하다. 목적지 없는 여로, 그 과정에서 인생의 무수한 편린을 맛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맡겨졌다. 서울신문의 ‘문화 기행’과 문예지의 ‘로드 로망’ 등, 그 중의 하나가 이 ‘지중해에서 보낸 편지’이다.

우리는 늘 아침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것이고 그때 간단히 누군가에게 엽서를 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우리는 아침마다 편지를 쓰게 되질 않았고 여행도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늘 혼자 떨어져 있기를 원하던 친구는 우리가 함께 행동하고 함께 보면 우리의 글도 너무 일률적이 되지 않겠는가 염려하였다. 내 생각으로 는 매일 매시간 함께 있어도 서로의 생각들은 멀리 가 있을 것 같았다.

이 편지으로써 그것을 서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떠났던 우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책이 나 역시 기다려진다. 그리고 십 년쯤 후 우리들의 삶에 큰 변동이 없

다면 그때 되돌아볼 이 여행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팔호 안에 함께 묶였던 그 공유의 시간, 그것은 우리의 글이 손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우리와 개별적인 진로를 밟아가듯이 그 시간들도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따로이 떠돌 것 같다.

어디로엔가 띄운 - 결국 독자들에게 띄운 이 편지가 읽는 분들에게 어떤 작은 선물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함께 싣는다.

(2) 『사막...그리고 지중해에 바친다』의 진실

서문이란 무엇인가. 머리말로 “책의 첫머리에서 책을 꺼내게 된 동기나 경위·내용 등에 대해 간단히 적은 글”²⁸⁾이다. 굳이 국어사전을 들어 설명한 이유는 그만큼 서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책의 첫머리에서 책을 꺼내게 된 동기, 경위, 내용 등을 적은 것, 그것은 바로 책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막...그리고 지중해에 바친다』가 어떻게 집필 되었는지,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저자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집필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일단 서문은 『사막...그리고 지중해에 바친다』가 네 명의 집필진을 통해 김포공항, 방콕과 암만, 이라크, 이스탄불 아테네 로마 마드리드 그라나다 파리까지 지중해 연안도시, 서울의 경로를 타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알려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방콕, 암만, 이라크, 이스탄불, 아테네, 로마, 마드리드 그라나다 파리 등의 지중해 연안도시 속에 빠져든 네 명의 저자를 알게 될 것이다. 특히 김채원이 그 거리들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가 가장 그림거나 생각이 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28) 동아 새국어 사전, 동아출판, 1994, p.683.

김채원의 색깔로 반사된 그 도시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 달 동안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동일한 곳을 바라보았지만,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필연을 알려준다. 이는 비극이 아니라 창조적 세계이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같이 보더라도 컴퓨터의 인식과 달리 개성적인 안경으로 다른 인식 세계를 갖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독자들에게 띄운 이 편지가 작은 선물이 되어달라는 김채원의 바람처럼 우린 또다시 다 같이 읽더라도 다른 감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떠나보는 것이다. 김채원은 지중해 연안도시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김채원 식의 지중해 연안도시를 돌아보자. 그리고 나만의 지중해 연안도시를 만들어가 보자.

2) 『사막...그리고 지중해에 바친다』의 김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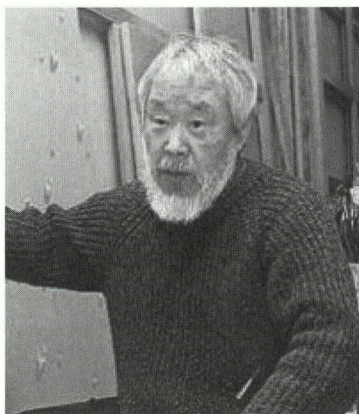
김채원은 『사막...그리고 지중해에 바친다』에 9편의 글 꾸러미를 남겼다. “김창렬 선생님께”, “박완서 선생님께”, “언니 김지원에게”, “아주 작은 난쟁이에게”, “피아노 치는 이에게”, “백도기 목사님께”, “어린 벗에게”, “젊은 벗에게”, “스페인의 시인 로르카 선생에게”가 그것이다. 하나 하나 감상해 보자.

(1) 김창렬 선생님께-파리에서 만난 편안함, 후련함, 성숙한 내면의 생활

김채원은 한 달 간의 여행에서 돌아와 오관이 마비된 듯 잠만 피부어 자던 중에 ‘밤의 소리’가 갑자기 뇌세포 하나를 열어놓아 준 듯 신선해져 김창렬 선생님께 글을 쓰게 된다.

“숲속에 사는 어느 남자가 달빛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사립문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찾아오는 이는 없고 바람만 휘몰아치면서 그의 머리칼과 나뭇잎이 몹시 나부끼고 있다.”(황병기, 「밤의 소리」)

황병기 선생의 「밤의 소리」라는 곡은 심전 안중식의 그림을 보고 작곡된 것이라 한다. 아직 김채원은 이 음악과 그림을 듣거나 보지는 못했지만 황병기 선생의 시상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한다. 밤바람에 모든 것이 씻기우고 있는 깨끗하디 깨끗한 밤, 남자의 짧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마구 정신없이 휘날리는 풍경...어떤 심미안이나 서정의 차원으로서가 아닌 은은



화가 김창열

함, 여백, 동양 정신 같은 것, 스스로를 변뇌하여 어딘가에 귀의하고 싶을 때에 만난 어떤 정신을 드러내는 시상이란다. 김채원은 혼돈스럽고 힘들고 불구로도 느껴지는 생의 그런 부분들, 특히 여행 중에 절감한 부분들에 비해, 위 시상에서는 명쾌한 삶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다.

김채원은 모조지로 된 허름한 노트 속에 무슨 암호처럼 작가 자신만이 알 수 있게 휘갈겨 쓴 글씨들을 써내려갔다. 매일 한 장씩 엽서를 써 가보고자 했다.

파리 문화원에서 열린 한인 젊은이들의 작품전에서 김창열 선생을 만났다. 파리 취재를 맡은 김채원은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았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파리는 김채원이 젊은 시절 일 년 반 동안 살던 곳이고, 또 여행의 마지막 코스이기도 하여 왠지 느슨해지며 어슬렁거리기만 했다. 김채원의 시선으로 현재의 파리를 잡아내야만 하는데도, 앞으로 써야 되는 이번 여행의 주목적인 파리 기행은 그리하여 두려운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몽마르뜨에 있는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호텔 물랭의 여주인과 주인을 비롯한 몇 분을 만난 것이 그런대로 어떤 체취를 감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김채원은 사람들이 파리를 편안한 곳,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생각한다. 타인에 대한 기본예절이 되어 있는 곳. 작은 예를 들면, 물랭의 여주인은 그의 대학생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사람을 보내어 정소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가도 좋은가를 묻는다고 한다. 아들의 허락을 받고 청소원이 가서 청소를 할 때 그 곳에 널려져 있는 책을 절대로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들었다가만 다시 놓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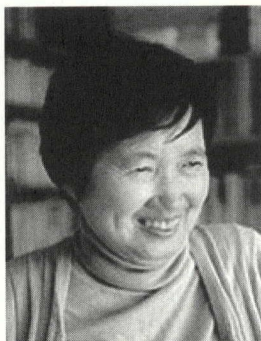
김채원은 응당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아 이것이었구나 하고 숨이 확 뿔어져 나오는 후련함을 느꼈다. 사람들이 파리를 동경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의 성숙도라는 것이다. 서구가 극도의 개인주의라 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김채원이 보기에는 서구는 무언가 침착하고 조용하고 성숙한 내면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다.

김채원은 묻는다. 김창열 선생님, 파리 교외의 스튜디오에서 처마 끝에 달린 물방울을 보고 있다가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 그 당시 느끼던 물방울과 현재 그리고 계신 그 물방울의 느낌은 어떤 것인지...

시절의 변화에 따라 물방울의 느낌도 다른신지...아마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한다.

앞서 얘기한 밤바람에 씻기우고 있는 곳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며 왜 그곳으로 귀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밤바람에 먼지 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림 속에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 예술의 깊은 감흥이 김채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뇌세포를 증가시켜 종교보다 더욱 삶을 고무시켜준 것인지도 모르나 무엇보다 그곳에 있을 듯이 느껴진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에 대한 참 경배, 아마도 그것이었을 것이다.

(2) 박완서 선생님께-이라크에서 느낀 박완서 선생님의 성찰



소설가 박완서

김채원은 언니 김지원과 통화할 때, 아침에 TV프로에 나온 박완서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그 통화내용은 “선생님의 의식이 개인에서 우리로 넘어가 있다, 몹시 겸손하고 정당하고 사려 깊다. ‘나’라는 것의 성찰에서 출발한 말들이지만 ‘나’라는 것이 없으므로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여자들을 계몽한다는 태도보다 여자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였다. 그래서 김채원은 박완서 선생님께 짧은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김채원은 ‘나’에서 ‘우리’로 가는 단계에서 박완서와 이라크 여행이

연결되었던 것 같다.

김채원은 여행 동안 만난 사람 중, 아직까지 좇아오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라크 시장에서 본 걸인 여인이다. 여러 걸인 중에 유독 생각나는 여인이다. 전쟁에 남편과 아이들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검은 옷에 차도르를 쓰고 맨발에 손을 내밀고 있다.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는데, 목판에 놓인 담배를 사달라는 것 같아 사주었다. 그런데 목판에 새겨진 아랍 글씨는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본 요술 담요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주문, 램프, 동굴 속의 보물 상자 등을 연상시켰다. 어려운 역사나 걸프 전쟁이 아닌 어린 시절 동화책의 배경으로서의 친밀감이 들었다.

또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다. 그 소년은 7, 8세로 되어 보이는 어린이다. 바그다드 황금사원을 보기 위해 사원 앞에 내려올 때, 물둥이를 든 소년과 소녀들이 모여 내려왔다. 현웃에 밝고 맑은 표정으로 물을 팔려고 달려든 아이들에게는 이국인들에 대한 호기심 어린 표정과 세상 일에는 아무 근심걱정도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또 모술에서 하루 유적지를 돌아다니던 때 일이다. 일행은 이태리 팀과 함께 이라크 정부에서 내어준 버스를 타고 가이드 한 명을 동반하고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유적지를 돌아보는 동안 예쁘게 차려 입은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따라다녔다. 그 아이들도 하트라 축제기간에 가족들끼리 유적지를 보러 온 모양이었는데,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볼펜을 주거나 과자 사먹으라고 돈을 조금씩 주었다. 유적지를 둘러본 후 다시 버스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차창 밖에 와서 열심히 말을 건넸다. 그 여인의 행동에서 물을 마시지 않겠는가, 주겠단 라는 의사를 읽을 수 있어서 물병을 들고 그 여인을 따라갔다. 트럭 위에 있

는 물을 담고, 여인이 건네는 음식을 담아들고 버스로 뛰어왔다. 버스가 떠날 때 여인과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거기서도 그렇게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는 일이 신기롭고 웬지 비애롭기도 했다. 어린 시절 나라 이름도 모른 채 그저 떠나면 곳이라고 느끼던 그 ‘먼’의 이미지 바로 그런 곳들을 두루 돌아다녀보고 돌아온 것이, 이 세계를 마주한다는 일이 무어라 표현할 길 없는 둔한 통증 같은 것을 가져다주면서도 긍정적인 의욕을 북돋기도 했다.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오로지 내 방 속에 동굴을 더 깊이 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성찰로서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 의식이 터질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출구이기를 바란다.

(3) 언니 김지원에게-로마에서 꿈꾸는 자를 부러워하다

김채원은 로마에서 언니 김지원에게 편지를 쓴다. ‘언니’, 세상에서 엄마 다음으로 편만한 호칭이 될 것이다. 언니는 나에 대해서 안다면 아는 사람이고, 한없이 이해를 해 줄 그런 대상이다. 그런 언니에게 로마의 공기를 옮긴다.

김채원이 스스로 “가장 부럽다”라는 대상이 있다.



김지원

“누군가 꿈을 품고 로마라는 도시로 와서 꼭대기 허름한 방을 하나 빌려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그의 마음과 비례하여 밤이 깊어질수록 심지를 돋우고 떠 돋우겠지.

이것이 가장 부럽다는 생각이야. 이제 시작되는 어떤 결정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 그런 열정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겠다 싶어”(p.118)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세트다. 꿈을 꾸는 사람은 청년이어야 할 것 같고, 낯선 곳 혹은 새로운 곳에 웅지를 틀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는 허름한 방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밤이 온다. 이것은 동화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서를 긴장상태로, 하나의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상황이다. 현재 김채원은 이러한 꿈을 꿀 신체적인 청년도, 허름한 방을 얻어 있는 가난한 자도 아니다. 그저 심적으로 그녀는 아직 꿈을 버리지 않은 청년이며, 무언가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심정공간을 가진 가난한 자일뿐이다.

독자들은 어떠할까. 동일한 글을 읽고 있지만, 김채원의 생각대로 우린 각각 다르게 읽는다. 진정 물질적으로 가난하나 꿈을 키우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심적으로 외로운 이가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적으로 가난한 이가 있는가 하면, 무한 도전의 세계로 바로 떠나려 하는 열혈청년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현 위치에서 김채원과 함께 꿈꾸어도 좋을 듯하다. 그의 꿈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 없다.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다만 우리는 그 꿈이 시작되는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열정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누군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이 세상에는 남을 어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놓는 형과 웬지 그저 남이 어려워 미안해 죽는 형이 있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그저 웬

지 남이 어려워 미안해 죽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돈이 그 미안함을 어느 정도 메워 줄 수 있기에.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없다. 그래서 그 미안함은 배가 된다.”

김채원은 늘 가지고 다니는 메모책에 적어 놓는다고 한다. 우리는 돈이 있는 자일까? 없는 자일까? 내 생각엔 돈이 있는 자는 이런 글 읽지 않는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놓는 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김채원도 웬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놓는 형이 되고파 로마라는 도시로 와서 허름한 방을 얻어 밤늦도록 심지를 돌우는 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그리워했던 것은 아닐는지...

(4) 아주 작은 난쟁이에게-시에라 산이 품은 난쟁이, 김채원, 당신.

아주 작은 난쟁이, 이는 바로 김채원이다. 김채원이 여행지에서 자신과 닮은 그 무엇을 보고 자신에게 남긴 짧은 편지글이다.

시에라 산이 품어 안고 있는 그라나다, 그 곳에 도착했을 때 시골 역과도 같은 자그마한 공항에서 잠시 스치듯 ‘당신’을 보았다. 시에라 산 봉우리에 덮힌 눈 때문인가 반사와도 같은 빛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난쟁이 중에서도 아주 작은, 당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라나다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기에서, 그 바위산을 지날 때 불쑥 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산을 보면서 내가 이미 산이 되어 그 곳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산의 눈빛에 반사하는 빛 속에서 있던 아주 작은 당신을 보는 순간, 내가 이미 아주 작은 난쟁이가 되어 거기서 있었던 것이다.

그 산 속에 있던 난쟁이의 정체는 무엇일까.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린

김채원, 그녀가 그 산의 난쟁이자 그 산의 생명체는 아닐런가 한다.

(5) 피아노 치는 이에게-이스탄불에서의 “돌아오라 쏘렌토로”, 돌아오라 황홀.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영화나 연극을 보기 위해 배회하다가 호텔 바에서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게 되었다. 첫 날의 감동에 이어 다음날도 그 피아노 연주를 듣기 위해 일행은 다시 찾았다. 김채원은 감사의 마음으로 연주자에게 편지를 쓴다.

연주자가 “돌아오라 쏘렌토로”를 칠 때, 어떤 음, 아니 음과 음 사이, 절제된 감정 속에서도 가슴

의 문을 부수듯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 영혼을 울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순간인지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관통하듯 했다. 무엇인가 관통되는 것, 종으로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사선으로 나니 수많은 빛으로 관통되어버리는 순간.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아테네를 향해 떠났지만 다시 그곳에서 “돌아오라 쏘렌토로”를 청하여 듣는다면 그날 그 순간의 감동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오직 단 한번, 당신(이 세상)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절대

의 순간이었는지 모른다.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몇 개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황홀하고도 깊숙한 그 어떤 순간 말이다.

(6) 백도기 목사님께-투우장에서 맞선 근원적인 삶의 막막함.

김채원이 왜 투우장의 모습을 ‘백도기’ 혹은 ‘목사님’께 보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편지를 읽고 나면 어렴풋이 느껴지는 바가 있다. 김채원이 경험한 투우장을 따라가보자.

김채원 일행은 생명의 원동력과도 같은 넘치는 힘을 예상하면서 투우장을 찾았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선 그 규모가 그렇다. 실제 투우장의 규모는 작지 않았지만 모래밭, 모래밭과 관중석을 갈라놓은 나무 담, 그리고 투우사와 투우사가 휘두르는 천들이 소인국의 일들로 여겨졌다. 오로지 뿔을 단 황소만이 김채원이 생각했던 본래의 모습이었다. 황소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느님이 만들어낸 바로 그 황소임이 분명했다.

투우가 시작되었다. 몇 사람의 투우사가 여기저기서 붉은 천을 휘두르다가 소가 달려들면 얼른 관중석 쪽에 돌린 나무 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소는 나무 담에 와서 뿔을 강하게 부딪치곤 했다. 그런 후, 저쪽에서도 다른 투우사가 붉은 천을 휘두르고, 소는 그리로 달려가서 나무 담에 강하게 몸통을 부딪치는 일을 자꾸만 되풀이 한 것이다. 아마도 김채원은 투우사가 나무 담 뒤에 숨고 소가 나무 담에 뿔을 부딪치는 일이 비겁하게 보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말 탄 기사 복장의 사람이 창을 들고 나타나 소의 등을 무자비하게 깊숙이 찌르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투우사들은 붉은 천을 휘두

르다가 나무 담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분위기는 고조시켰을지 언정 김채원에게 이 장면은 소에게 싸우려는 적의를 북돋아놓기 위한 것인지 투우사의 위험도를 줄여주기 위한 것인지 회의를 일으켰다.

담 뒤로 숨던 투우사들이 울긋불긋 리본이 달린 칼을 들고 한 사람씩 나와 일정 거리에서 소의 목덜미 근처를 명중시켰고, 소는 예닐곱 개의 칼에 쏘인 채 계속 싸웠다. 어느 순간 소는 무릎을 약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했다. 이윽고 시간이 닥쳐 투우사는 길다랗게 빛나는 칼로 한 칼에 소의 목덜미와 등 사이로 하여 심장까지 깊숙이 찔러 무릎을 꿇게 하고 말았다.

그런데 김채원이 보기에 이것은 신사적인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소를 죽이는 것으로 보였다. 투우라는 것이 워낙 그런 것인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때묻고 약아진 것인지, 그러나 소만은 약아질 리도 없고 때가 묻을 리도 없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소의 본성 그대로인 것이라 생각되었다.

중간에 소가 잠깐 무릎을 꿇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를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아직 살아서 그렇게 무릎을 휘청하고 굽혔다가 다시 일어설 때, 그 순간을 자신의 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아직 몇 경기가 남아있었지만 김채원 일행은 나왔다. 소고기를 먹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을 이렇게 초죽음당한 듯한 얼굴로 앉아 있는 일행이 우습기도 했다. 근수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 다리 하나를 분질러 트럭에 매어 끌고 다니다가 갈증에 지친 소에게 물을 흠뻑 먹여 도살했던 야만의 극치인 일부 우리네 방법을 비판하면서도 노상 카페에서 햇빛과 미풍에 피비린내를 지우려 애쓰며 근원적인 삶의 막막함을 느끼지 않으

려 애쓰면 앉아 있었다.

(7) 어린 벗에게-꿈, 만들어가는 아름다움, 축복.

이 편지는 김채원이 자신의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토대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너는 저 어둠 속 등빛들을 느끼이듯이 모든 것을 오래오래 보아두어라

- 이제하 시 「저 어둠 속 등빛들을 느끼이듯이」 중에서

김채원은 이제하 시를 빌어 편지를 시작하고, 이제하 시로 편지를 마치고 있다. 김채원의 단상을 따라가보자.

곳곳에서 수 천 수 만 대의 비행기가 시간마다 뜨면서도 한 번 뜰 때마다 온 힘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번 뜨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이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그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는 그 라이트 형제의 원래의 꿈을 간직하고 나는 것이다.

무엇을 만드는 책상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 책상이 네게도 있다면, 김채원의 자녀 그에게도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 한다. 엄마인 김채원은 자식의 작은 방, 만화책이 몇 권 꽂히고, 팝송을 듣고 있는 침대맡, 컴퓨터 앞, 밤을 새워 농구를 하고 싶다는 아파트 농구 골대 앞에서 꿈을 설핏설핏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김채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보던 별의 자리 같은 것이 전부 흩어져버렸다 한다. 라이트 형제의 책상 비슷한 것이 분명 김채원에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있으려니 하였는데 그냥 휙쓸려 떠내려가는 것만 같다는 것이다.

어느 훗날 수장이 네가 또 이런 순간을 맞이할까 하고 엄마 김채원은 생각한다.

(8) 젊은 벼에게-쾌락, 충만하지 않는 삶, 그래서 달라진다.

김채원은 쾌락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지중해 연안 대도시 여행 내내 쫓 따라다닌 감정 중의 하나가 쾌락이라 한다. 쾌락이 이끄는 대로 인생의 저 속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다 한다. 아니 김채원은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보았을 때도 ‘지금 충만한가’하는 의문을 품었다 한다. 쾌락의 이야기로 들어간다.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내 여자’ 같이 친근스럽고 좋다는 대학 예비 졸업생, 또 신호등을 건너다가 문득 고층빌딩을 보면서 저 많은 창문이 달린 방마다 칸칸이 여자를 넣어놓고 이방 저방 다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학 예비 졸업생. 이런 말을 들을 때 김채원은 웃는다 한다. 솔직한 표현이 차라리 동화같이 느껴져서 재미있어 웃는다고 한다.

김채원이 보았을 때 그 젊은 벼은 오렌지족이다. 젊은 친구는 오렌지족이란 워낙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신문기사의 한 부분에 의하면 오렌지족이다.

오렌지족이란 가치관의 혼돈이 빚어낸 산물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18~25세의 부유층 가정의 자녀, 2백만 원 정도의 한 달 용돈, 2천 CC이상의 고급 승용차, 개방적인 성 모델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속칭 오렌지족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오렌지족이라 불릴 수 있는 젊은 벗은 ‘더 더 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쾌락에 있어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채원은 여행지에서 만난 쾌락적 요소들을 말하고 있다. 첫째 마드리드 미술관에 갔을 때, 미술관 근처의 한적하고 매우 고상한 분위기, 5월의 신록이 특유의 번지는 듯한 연한 색깔을 공중에 뿜어내는 것, 둘째 여행 중 한 분이 화장실에 갔다가 유료라는 말에 그냥 왔다는 데에서 오는 진밀감, 셋째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 젊은 연인들이 앉아서 꼭 까투리와 까치처럼 입을 맞추는 모습이 아름다운 오후를 무르녹게 한 힘, 넷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밀 빛깔의 머리를 한 어느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 다섯째 요르단에서 떠나는 날 아침 호텔 근처의 주택가를 잠시 산보하다 본 흰 돌로 지은 이층집의 테라스 등...

그런데 음악이 있으나 음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장미꽃이 기쁨을 주는 것은 그 예쁜 꽃잎 때문이 아니라 그 꽃을 통해서 사랑의 속삭임과도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때문이라는 타고르의 얘기처럼, 충만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김채원은 무엇으로 자신을 구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였다. 젊은 벗이 가져도 가져도 더 더 하고 원하는 것은 너 역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매일매일 대낮을 전진하는 것 같아도 아마도 손에 잡히지 않는 공허를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니 라고 김채원은 말한다.

너는 또 전화로 얘기해올 것이다. 나는 역시 너의 얘기를 간혹 받아적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제 달라져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너는 우리 독자가 될 것인지, 김채원 자신이 될 것인지...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9) 스페인의 시인 로르카 선생에게-로르카에게 전하는 로르카 선생의 옛 집

김채원의 마지막 서신, 스페인 시인 로르카 선생에게 쓴 글이다. 이 편지글을 참으로 재미있다. 김채원이 로르카에게 로르카 집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김채원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기술 방식을 택했을까. 로르카가 처형당한 뒤, 로르카는 자신의 집을 몹시도 궁금해 했을 거라 생각했을까, 아니면 아직도 로르카가 꾸며놓은 그 형태 그대로, 로르카의 향기가 난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김채원의 글을 따라가본다.

김채원 스페인 시골집에 대한 인상이나 로르카의 인상이 깊지 않은 재, 어느 시골집 로르카의 집을 방문하였다. 한적한 골목길에 있는 집, 택시 기사가 집문을 두드려 한참 만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집문을 두드리는 일은 거의 드물다. 벨을 누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르카의 집은 옛 모양 그대로 집 문을 두드려 들어가야 한다.

그 집에는 로르카가 쓰던 침대, 아기 요람, 피아노, 전축, 책상과 의자, 사진과 시집, 그리고 로르카의 소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 그리고 집 안쪽 건물과 건물 사이 한가운데 크지 않은 정원이 있고, 그곳에는 우물, 장미, 오렌지,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있다. 이러한 집에 대한 여러 정보를 집주인 로르카에게 오히려 해주는 김채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안내인의 설명에 의하면 로르카 당신은 동네 아이들을 사랑했다고 한다. 삶에 대해 얼버무림이 없이 당신과 삶의 관계에서 진실하려 애쓴, 삶의 격을 갖춘, 멋있게 살다간 한 남자를 집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의 흔적을 한순간에 보면서 확 느껴져 오는 향기. 김채원은 이처럼 로르카의 집을 로르카에게 자세히, 자신이 느낀 감정까지 실어서

전달해 주었다. 오히려 그녀는 로르카 집의 안내인이 되어 먼저 떠난 로르카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 달여 동안 여행을 한 후, 9편의 편지글을 남겼다. 그만큼 김채원에게 인상적인 것만을 추려내었을 것이다. 9편의 서신, 모두 수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대중 독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서신들에서 지중해 여행을 떠난 김채원의 일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5. 문헌정보

- 김영미, 김은하,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탐구」, 『오늘의 문예비평』, 1991 . 9.
- 김윤식, 「동치미가 불러낸 허깨비」, 『문학사상』, 1989. 10.
- 김인옥, 「김채원 소설연구」, 『개신어문연구』, 1998. 12.
- 윤정운, 「오정희와 김채원 소설의 이미지 비교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 2001. 8.
- 이경호, 「주변인의 떨림에서 성숙한 연인의 떨림으로」, 『문학사상』, 1993. 7.
- 이신조, 「여성소설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 2.
- 임금복, 「여성 성장소설에 나타난 사춘기의 성장 담화」, 『성신어문학』, 1995. 2.
- 임금복, 「존재그리기의 미학」, 『성신어문학』, 1996. 2.
- 정현기, 「현실과 기억으로 뒤엉킨 삶의 부조리 탐구」, 『세계의문학』, 1990. 12.
- 조희경, 「김채원 초기 소설고」, 『지역학논집』, 숙명여대지역학연구소, 1998. 12.
- 조희경, 「김채원의 <겨울의 환>에 나타난 구원의 여정」, 『문학과 종교』, 2007.

12.

재호석, 「기억과 망각 그리고 정체성」, 『문화예술』, 2004. 8.

황수남, 「최정희, 김채원 소설의 모티프 연구」, 『비평문학』, 2004. 11.

황영경, 「김채원 소설의 모티프 수용 연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3. 8.

홍은정, 「김채원 소설의 자기탐구 양상」,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2.

6. 작가연보

김채원의 작가 연보는 『김채원 유익서』(동아출판사, 1995)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1946년 - 경기도 덕소에서 아버지 김동환과 어머니 최정희의 둘째딸로 태어남.

1968년 - 창경국민학교, 이대부속중·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미대 회화과를 졸업.

1974년 - 동경한국학교 미술교사, 동경여대 외국인을 위한 클래스에서 수업.
「먼바다」가 《현대문학》지에 추천됨.

1975년 - 미국으로 가 뉴욕 아트스튜던트리그에서 미술 수업.
《현대문학》에 「밤인사」로 추천완료.

1976년 - 프랑스 유학.

단편 「몽수리공원에 내리는 가을」 발표.

언니 김지원과 함께 자매 작품집 『먼집 먼바다』 출간.

1977년 - 단편 「달의 손」(《현대문학》), 「자전거를 타고」(《문학사상》), 「얼음집」(《뿌리깊은나무》) 발표

1978년 - 귀국.

단편 「밀월」(《문학사상》), 「봄의 끝」(《현대문학》), 「나이에가라」(《뿌리깊은나무》) 발표.

1979년 - 단편 「초록빛 모자」(《현대문학》), 「희유곡」(《문학사상》), 「안개」

발표.

- 1980년 - 단편 「넋물」(《문학사상》), 「가을햇빛」, 「묘약」 발표.
1981년 - 단편 「산중기」(《한국문학》), 「물 위에 어린 그림자」(《월간조선》), 「오월의 숨결」, 「아이네 크라이네」 발표.
1983년 - 단편 「가득찬 조용함」(《현대문학》), 「공중에는 또 하나의 다른 방이」(《문학사상》) 발표.
1984년 - 단편 「애천」(《문학사상》) 발표. 작품집 『초록빛 모자』(나남) 출간.
1985년 - 「여름의 환」(《문학사상》), 「저문 날 허공에」(《현대문학》) 발표.
1987년 - 「슬픈 단념」(《문학정신》) 발표.
1989년 - 중편 「오후의 세계」(《문학사상》), 「겨울의 환」(《현대문학》), 「무연가」(《문예중앙》) 발표. 「겨울의 환」으로 이상문학상 수상.
1990년 - 『봄의 환』(미학사) 출판.
1991년 - 중편 「미친 사랑의 노래」 발표. 중국여행.
1992년 - 콩트집 『장밋빛 인생』(작가정신) 출간. 러시아 여행.
1993년 - 수필집 『꿈꿀 시간 있으세요』출간. 장편 『형자와 그 옆사람』출간.
1994년 - 중편 「달의 몰락」(《현대문학》) 발표. 작가 이제하, 송영, 서영은과 함께 지중해 연안지방 여행. 《서울신문》에 기행문 연재. 4인 기행 에세이집 『사막, 그리고 지중해에 바친다』(문학동네) 출간.
1995년 - 현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거주.

에필로그

작가 김채원, 그녀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출발했다. 적어도 그녀의 아버지가 김동환이라는 것, 어머니가 최정희라는 것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출발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그녀는 소란한 시대를 겪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등의 시대를 겪으면서 남북 당한 아버지, 한 때 친일노선에 서 있었던 어머니의 상처를 함께 나누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유학의 길 위에 또다시 유학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 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프랑스로... 결국 그 기나긴 외국생활의 종착점을 알려준 이정표가 바로 ‘작가 김채원’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김채원이 작가가 되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내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끝까지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나의 소망의 마음을 이제 내 편에서 누군가에게 해주는 사람으로 자리잡은 때문이다.”(「겨울의 환」)

그렇다. 김채원은 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기를,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기를 간절히 바랬다. 적어도 그녀가 유학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할 때의 처지는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당당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작가 김채원은 자신과 같은 가정사, 시대사의 질곡을 지닌 독자들에게 밥상을 준비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그 밥상은 차려놓은 지 오래되어 식어버린 성의 없는 밥상이거나 채 식기도 전에 걸어버린 성급한 밥상이 아니다. 그 밥상은 이제 방금 작가 김채원의 삶에서 방금 건져 올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상인 것이다.

그녀는 오늘도 여행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여 백

영문해설

Women Writers of Gyeonggi Province (2)- Modern and Contemporary Part



Women Writers of Gyeonggi Province (2)

- Modern and Contemporary Part

In addition to the previous book *Women Writers of Gyeonggi Province (1)-Pre-modern Part*, this volume looks at the lives and works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women writers of Gyeonggi Province who are renowned in Korea. Despite the fact that there many women writers in the region, only six of them are discussed because of its limited space. They are Na Hye-seok, Choe Jeong-hee, Kim Oh-nam, Park Wan-seo, Kim Ji-won and Kim Chae-won. The following is a brief introduction of them.

Na Hye-seok was born as the second of 5 children from a family which liked to learn new knowledges. Thanks to her brother Kyoung-seok's encouragement studying in Tokyo, She was admitted to the Tokyo Women's College of Art in 1913 and majored in oil painting. During her stay in Tokyo, she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Lee Gwang-su and Choe Seung-gu, and advocate women's rights in an essay, <Ideal Wife> of *Tokyo Korean Student Literary Journal*.

She worked as an art teacher at Youngsaeng Junior High School in Hamheung and Jeungshin Girls' High School in Seoul after graduating from the Art College in 1918 and later she was arrested after participating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on March 1st, 1919. In 1920, she married a lawyer, Kim Woo-young, and the next year held the first exhibition at Naecheonggak (來靑閣) of *Kyungseung Ilbo* in Seoul with the help of her husband.

It was the first western art exhibition held in Seoul. According to an article on *Maeil Sinbo*, it was a big success as hordes of people gathered at the exhibition. Her husband became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23 and they managed to travel and tour the galleries and museums in Moscow, Italy, Spain, France and Britain in 1927 and in Paris she drew pictures of the Fauvists style. From the first exhibition to the 11th of the Korean art exhibition, she submitted her art work 9 times, in the 3rd exhibition her <Fall in the Garden> won the 4th prize, in the 4th exhibition <Nangrangmyon 娘娘廟> won the 3rd prize. In the 5th exhibition <Cheonhugung 天后宮> won the specialty. Meeting with Choe Rin whom she had been together for a trip to Europe, she divorced when she came home in 1931. Since then, she expressed the society's resistance to conventional morality in her writings, <Marriage between Friends, Experimental Marriage>, <Divorce Confession>, and insisted her own position so strongly that she was estranged gradually by society. She had an exhibition in 1935 in order to make living costs, but was not able to come to the social attention. And after wandering the temples of the Sudeoksa and Haeinsa, she disappeared. They did not know her exact whereabouts. She died as a sick stricken homeless in the hospital in Seoul in 1946.

Much of her work can be divided into 3 periods; From graduating Tokyo Women's Art College in 1918 to 1927 in Bongcheon of Manchuria; From staying in Europe to the early 1930s; The third one when her art activities

almost stopped. In the initial period, she drew works with a realist tendency. A panel work, <A Landscape of Manchuria Bongcheon> in 1924 shows a solid foundation of realism and impressionism the early era of the introduction of western painting with its solid design, smooth and stable colors, relatively accurate depiction. After her trip to Europe her style was increasingly wild and bold.

<Self-portrait> (1928) is with an expression of contrasting effects of the strong colors; <Spanish Beach>(1928) and <French Town Landscape> show Fauvists techniques with an unstoppable free touch. However, after a divorce in 1931, reflecting the instability of the spirit of life, the liveliness was missing in her works and she almost stopped to draw. <A Blue Bird Flew Over> and <Your Mom was a Pioneer> were published posthumously.

Choe Jeong-Hee was born as the eldest daughter of four brothers and sisters between her father Choe Jae-Yeon and mother Jo Deok-seon at Yedong, Sungjin Gun, North Hamgyong Province in 1906. Her debut work was <A Just Spy> in 1931, but a formal debut to the literary world was made by <A Haunted House> in 1937.

The novels of Choe Jeong-hee can be divide into four phases of change. The first was an experimental period in which <A Just Spy>, <Nina's three pieces Records> and <A Young Mother>were written. She was called as a "companion writer" by the literary world because of Marxist literary trend. Her early works were based on social consciousness which shined especially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second phase is a developing period of Choe Jeong-hee literature. Th

important works are <A Haunted House>, <Cheonmaek 天脉>, <A Stratum 地脉>, <Social Relationships 人脉>. In short, the tragic fate of women is depicted in her work in this period. Typically, the heroins are intelligent and well-educated, and all are young widows. The solitude of life which they experience is dealt with, and raises an issues of rearing an illegitimate child which maximizes the pain of the heroine as a common motif.

The works of the third period scrutinize the tragedy of life which are derived from social problems extended from personal problems of the second period. The works written between the Liberation and the Korean Civil War are <An Elegant Town> and <Jeomrye>. The works of this period mainly make up the experience and background of Deokso. The structural vicious circle and contradictions are sharply materialized in sociological aspects by depicting class conflicts between landowners and tenants, and the arrogance of the have and a sorrow of the have not, and the gulf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works after the Korean War belong to the fourth period. The major works of the period include <A Glance in Silence 靜寂一瞬>, <Bright Daylight>, <A Human History 人間史>, <Sea>, <Tapdolee>. The works draw who the tragedy of the historical events change aspects of human life. In particular, the direct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help her to draw the violence of war in detail. Since the 1970s, most of her works try to reflect on lives of the middle-aged or the old aged person with a personal tale and an odd story.

Kim, Oh-nam who was born in 1906 at Gunnam-myeon Yeoncheon, Gyeonggi Province, is a brother of the poet, Kim, Sang-yeong. After graduating from Jinmyeong Girls High School, she studied in Japan and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the College of Japanese Women.

She works as a teacher for more than 20 years at Jinmyeong Girls High School since 1931. Her literary life begins with 13 pieces of Shijos (a kind of short lyric poems) appeared on <Shindong-a>. She is considered to be the first female writer of the modern Shijo writers. She acted for the part of the 'pure' literature against the Marxist literature of KAPF. She joined the national Shijo revival movement. Her works, <Pathetic Thinking> (1933.4) and <A Song in Mind> (1934.8) get a lot of attention, but her excessive obsession with the ideal world was criticised.

In <Yugok 幽谷> <Blame> <Thinking of My Dead Nephew> she expressed dimly sentiments based on Confucian ideology. Most of the works tend to have the orientation of escapism, free from life, in connection with nature based on fatalism. She uses Chinese style dictions and shows a female perspective with detailed and calm observation of life and nature. Her first Shijo collection, <Kim Oh-nam Shijojip> was published in 1953 and wrote <Shadow of Mind 心影>(1956) <Journey> (1960) in which poems are attached at the end of each essay.

In 1970, Park Wan-seo (1931~) at the age of forty won a prize from the Women's Dong-A Novel Competition for her novel, <Naked Tree 裸木>, ever since she takes a sharp criticism of human behavior and world. She has been writing various types of writings, essays, children's fictions, travel writings as well as novels for 38 years. In particular, despite more than 100 works of fiction produced, she continues to write with a belief that "a writer who are able to write to the last moment of life is happy". Thus her literary position in the

Korean history of novels is established firmly. The problems of the 6.25 war and the divis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and related subsequent problems of Korean reality has been her lasting concerns. In addition, she focused on the problems of the fetish worship, marginalized human beings and disbanded family in the post-industrialized South Korean society.

Though not idealized and rationalized, the works after the '80s show her awareness of the contradictory reality which Korean middle class women experience and draw their recognition of the real life experience in detail. In addition to the problems of the middle-class women in every day life, Park Wan-seo has devoted a great deal of interest in the problems of class and alienation of the women old and young.

Park Wan-seo's novels attract a wide readership with the vitality and flexibility of their format. In addition, expanding her literature to the historical horizon, she depicts aspects of contemporary life and history. Particularly, the scopes of her work are wide and deep, her personal consciousness as a writer can be seen frequently. Her effort to draw the whole picture of lives of Koreans is embedded in her work. She is a natural storyteller and any age-old tale can be turned into a realistic one with a touch of wit. The writer's seemingly innocent words have many connotations and possess a healing power for individual sufferings.

Kim Ji-won was born in 1942 in Deokso, Gyeonggi Province. Her father and mother can not be forgetful in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they are Kim Dong-hwan and Choe Jeong-hee. They have always a lot of writers and poets in the house, thanks to the environment, she was exposed to the life of writing in a

very early stage. She graduated from Ewha Women's University in 1965. Befo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n 1973, <The Joy of Love> was appeared in Modern Literature with the first referral of Hwang Soon-won and after the second recommendation, when she was in the United States she became a writer with <A Beginning>. By that time, her sister, Kim Chae-won who went to Japan to study, declared to be a writer on the subway in Manhattan, New York to take the same route with her sister. In 1977, she publishes a medium-length novella, <Sleep and Dreams> and wrote <A Faraway Home and The Open Sea> with his sister Kim Chae-won. And she continue to write in the United States. She writes on the conflicts among Koreans in the States rather than conflicts with the Americans or American culture. And she focuses on the internal conflicts of the anonymous being forgotten and casted in the vast land or huge cities of the United States.

In 1997, she won the first prize of The Lee Sang Literary Awards with <A Pre-monition of Love>. This work shows a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co-existence and peace with the world by the language of chattering women. It also shows how the language of men brings the world with violence and conflict and suggests dialogues between the two women as an alternative to save the world. The writer says that dialogue can resolve and adjust conflicts and brings peace in the end. She believes it is the first step towards a feeling of love.

Kim Chae-won was born as the second daughter by the poet, Kim Dong-hwan and novelist Choe Jeong-hee in Deokso. Her elder sister is the novelist Kim Ji-won. She graduated the Changgyeong Primary School, the Ewha Mildle and High, and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Painting of Art, The

Ewha Women's University.

In 1974, she served an art teacher at the Korean School in Tokyo and attended some classes for foreigners in the Tokyo Arts College. She took several lessons in Japan despite her skills and qualifications in art. In addition, at the time <The Open Sea> had been recommended by *Modern Literature*. In 1975, Kim Chae-won went to the United States when she was studying Japan and was in art classes of the Art Student League, New York. However, at the same time, <A Night Greeting> was recommended by *Modern Literature*.

Not satisfied with the success, Kim Chae-won left to France to study abroad. She published a short story <Autumn Falling on Mongsuri Park> during her stay in France. In addition, she published <An Open Sea> with her elder sister Kim Ji-won. In 1978, she returned to Korea from France. Three or four novels were written steadily almost every year and won the first prize of Lee Sang Literary Awards with <A Return in Winter> in 1989. In 1991, she published a medium-length novella, <A Crazy Love Song> and took a trip to China. And she published a collection of contes <Rosy Life> in 1992 and traveled to Russia in the same year. In 1993, and published a book of essay collections, <Do You Have Time for Dreaming?>. A full-length novel, <Hyeong-ja and the Next Person> was published. In 1994, a medium-length nevela, <The Fall of The Moon>. After travelling around the Mediterranean region with Lee Je-ha, Song Young, Seo Young-eun, Kim Chae-won serialized travel essays on *Seoul Daily Newspaper*. And she published the 4 people travel essay collection, <Dedicated to the Desert, and the Mediterranean Sea>. And until now she is continuously active in writing.

여 백

부록

- 대표작 감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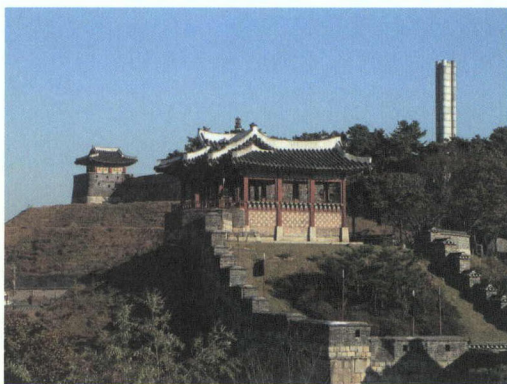
나혜석 편 「경희(瓊姬)」

최정희 편 「정당한 스파이」

김오남 대표시조

박완서 편 「너무도 쓸쓸한 당신」

김지원 편 「물 건너 물」 「무언가(無言歌)」



「경희(瓊姬)」

1

“아이구, 무슨 장마가 그렇게 심해요.”

하며 담배를 붙이는 뚱뚱한 마님은 오래간만에 오신 사돈마님이다.

“그러게 말이지요. 심한 장마에 아이들이 병이나 아니났습니까. 그동안 하인도 한번 못 보냈어요.”

하며 마주앉아 담배를 붙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마에 주름살이 두어 줄 보이는 마님은 이철원(李鐵原)댁 주인마님이다.

“아이구,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나 역 그랬어요. 아이들은 충실하나 어멈이 어째 수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오늘은 일어나 다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어지간히 날이 더워야지요. 조금 잘못하면 병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인제 나왔으니까요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애기가 일본서 와서 얼마나 반기우셔요.”

하며 사돈마님은 잊었던 일을 깜짝 놀라 생각하는 듯이 말을 한다.

“먼 데다가 보내고 늘 마음이 놓이지 않다가 그래도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니까 집안이 든든해요.”

주인마님 김 부인은 담뱃대를 재떨이에 탁탁 친다.

“그렇다마다요. 아들이라도 마음이 아니 놓일 텐데 처녀를 그러한 먼 데다 보내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이나 충실했었는지요.”

“네, 별 병은 아니났나 보아요. 제 말은 아무 고생도 아니된다 하나 어미 걱정시킬까 보아 하는 말이지, 그 좀 주리고 고생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꺼칠해요.”

하며 뒤꼍을 향하여,

“아가 아가, 서문안 사돈만미이 너 보러 오셨다.”

한다.

“네.”

하고 대답하는 경희는 지금 시원한 뒷마루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오라버니댁과 앉아서 오라버니댁은 버선을 김고 경희는 얹은재봉틀에 자기 오라버니 양복 속적삼을 하며 일본서 지낼 때에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하마터라면 전차에 치일 뻔하였더라란 말,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각만하면 몸이 아슬아슬하다는 말이며, 겨울이 오면 도무지 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쑸쑸했다는 말, 일본에는 하루 걸러 비가 오는데 한 번은 비가 심하게 퍼붓고 학교 상학시간은 늦어서 그 굵 높은 나막신을 신고 부지런히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가죽이 벗겨지고 우산이 모두 찢어지고 옷에 흙이 묻어 어찌 부끄러웠었는지 몰랐었더라란 말, 학교에서 공부하던 이야기, 길에 다니며 보던 이야기 끝에 마침 어느때 활동사진에서 보았던 어느 아이가 아버지가 장난을 못하게 하

니까 아버지를 팔아버리려고 광고를 써서 제 집 문밖 큰 나무에다가 붙였더니 그때 마침 그 아이만한 6, 7세 된 남배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꼭 두 푼 남은 돈을 꺼내들고 이 광고대로 아버지를 사려고 문을 두드리던 양을 반쯤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오라버니댁은 어느덧 바느질을 무릎 위에다가 놓고 “하하 허허” 하며 재미스럽게 듣고 앉았던 때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묻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얼른 다녀 오”

간절히 청을 한다.

옆에 앉아서 빨래에 풀을 먹이며 열심히 듣고 앉았던 시월이도 혀를 툭툭 찬다.

“아무렴 내 얼른 다녀 오리다.”

경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 이야기에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기뻐서 웃으며 앞마루로 간다.

경희는 사돈마님 앞에 절을 겸손히 하며 인사를 여쭙었다. 일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던 절을 일전에 집에 도착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였다. 하므로 이번에 한 절은 익숙하였다. 경희는 속으로 일본서 날마다 세로가로 뛰며 장난하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다 하며 웃었다.

“아이고, 그 좋던 얼굴이 어찌면 저렇게 못 되었니, 오죽 고생이 되었을라고.”

사돈마님은 자비스러운 음성으로 말을 한다. 일부러 경희의 손목을 잡아 만졌다.

“꼭 시집살이한 손 같고나. 여학생들 손은 비단결 같았는데 네 손은 왜 이러냐.”

“살성이 곱지 모해서 그래요.”

경희는 고개를 칩으린다.

“제 손으로 빨래해 입고 밥까지 해 먹었다니까 그렇지요.”

경희의 어머니는 담배를 다시 붙이며 말을 한다.

“저런, 그러면 집에서도 아니하던 것을 객지에 가서 하는구나. 네 일본 학교 규칙은 그러냐?”

사돈마님은 깜짝 놀랐다. 경희는 아무 말 아니한다.

“무얼요. 제가 제 고생을 사느라고 그러지요. 그것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학비도 넉넉히 보내주지마는 그 애는 별나게 바쁜 것이 재미라고 한답니다.”

김 부인은 아무 뜻 없이 어제 저녁에 자리 속에서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다.

“그건 왜 그리 고생을 하니.”

사돈마님은 경희의 이마 위에 너털너털 내려온 머리카락을 두 귀밑에 다 끼워주며 적삼 위로 등의 살도 만져보고 얼굴도 쓰다듬어준다.

“일본에는 겨울에도 불도 아니때인대지. 그리고 반찬은 감질이 나도록 조금 준대지. 그것 어찌 사니?”

“네, 불은 아니 때나 견디어나면 관계치 않아요. 반찬도 꼭 먹을 만치 주지 모자르거나 그렇지는 아니해요.”

“그러자니 모두가 고생이지. 그런데 네 형은 그동안 병이 나서 너를 못 보러왔다. 아마 오늘 저녁 쪽은 올 터이지.”

“네, 좀 보내주세요. 벌써부터 어찌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암 그렇지. 너 왔다는 말을 듣고 나도 보고 싶어하였는데 형제끼리 그렇지 않으랴.”

이 마님은 원래 시집을 멀리 와서 부모형제를 몹시 그리워 본 경험이 있는 터라, 이 말에는 깊은 동정이 나타난다.

“거기를 또 가니? 인제 고만 곱게 입고 앉았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딸낳고 재미드랍게 살지 그렇게 고생할 것 무엇 있니?”

아직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같이 경희에 대하여 말을 하다가 마주 앉은 경희 어머니에게 눈을 향하여 ‘그렇지 않소. 내 말이 옳지요’ 하는 것 같았다.

“네, 하던 공부 마칠 때까지 가야지요.”

“그것은 그리 많이 해 무엇하니. 사내니 고을을 간단 말이나? 군주사(郡主事)라도 한단 말이나? 지금 세상에 사내도 배워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찢찢 매는데…….”

이 마님은 여간 걱정스러워 아니 한다. 그리고 대관절 계집애를 일본까지 보내어 공부를 시키는 사돈영감과 마님이며 또 그렇게 배우면 대체 무엇하자는 것인지를 몰라 답답해 한 적은 오래 전부터 있으나 다른 집과 달라 사돈집 일이라 속으로는 늘 ‘저 계집애를 누가 데려가나’ 욕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는 모른 체하여 왔다가 오늘 우연한 좋은 기회에 걱정해 오던 것을 말한 것이다.

경희는 이 마님 입에서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공부는 해서 무엇하니’ 꼭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속으로 ‘옳지 그럴 줄 알았지’ 하였다. 그리고 어지 오셨던 이모님 입에서 나오던 말이며 경희를 보실 때마다 걱정하시는 큰어머니 말씀과 모두 일치되는 것을 알았다. 또 작년 여름에 들던 말을 금년 여름에도 듣게 되었다. 경희의 입술은 간질간질하였다.

‘먹고 입고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야 사람이예요. 당신덕처럼 영감 아들 간에 첩이 넷이나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까닭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이예요. 그러니까 여편네가
 시집가서 시앓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여편네 두고 첩
 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고 싶었었다. 이외에 여
 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도 하고 싶었었다. 그러나 이 마님 입에서는 반드시
 오늘 아침에 다녀가신 할머니의 말씀과 같은 “애, 옛날에는 여편네가
 배우지 않아도 수부다남(壽富多男)하고 잘만 살아왔다. 여편네는 동서남
 북도 몰라야 복(福)이 많단다. 애, 공부한 여학생들도 보리방아만 찼게 되
 더라. 사내가 첩 하나도 둘 줄 모르면 그것이 사내냐?” 하던 말씀과 같이
 꼭 이 마님도 할 줄 알았다. 경희는 쇠귀에 경을 읽지 하고 제 입만 아프
 고 저만 오늘 저녁에 또 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자게 될 것을 생각하였다.
 또 말만 시작하게되면 답답하여서 속이 불과 같이 탈 것, 자연 오랫동안
 되면 뒷마루에서는 기다릴 것을 생각하여 차라리 일절 입을 다물었다.
 더구나 이 마님은 입이 겹어서 한 말을 들으면 열 말쯤 거짓말을 보태어
 여학생의 말이라면 어떻든지 흥만 보고 욕만 하기로는 수단이 용한 줄을
 알았다. 그래서 이 마님 귀에는 좀처럼 변명이라든지 설명도 조금도
 곧이가 들리지 않을 줄도 짐작하였다. 그리고 어느때 경희의 형님이 경
 희더러 “애, 우리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더구나 시집
 이야기는 일절 말아라. ‘여학생들은 예사로 시집 말들을 하더라 아이구
 망칙한 세상도 많아라. 우리 자라날 때는 어디서 처녀가 시집 말을 해보
 아’ 하신다. 그뿐 아니라 여러 여학생 험담을 어디가서 그렇게 듣고만 오
 시는지 듣고 오시면 똑 나 들으라고 빗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 동
 생이 학생이어서 그런지 도무지 듣기 싫더라. 일본 가면 계집애 버리느
 니 별별 못 들을 말씀을 다 하신단다. 그러니 아무쪼록 말을 조심해라”
 한 부탁을 받은 것도 있다. 경희는 또 이 마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보아 마음이 조릿조릿하였다. 그래서 다른 말이 시작되기 전에 뒷마루로 달아나려고 궁둥이가 들썩들썩 하였다.

“이따가 급히 입을 오라범 속적삼을 하던 것이 있어서 가보아야겠습니다.”

고 경희는 앓던 이가 빠지거나 만큼 시원하게 그 앞을 면하고 뒷마루로 나서며 숨을 한번 쉬었다.

“왜 그리 늦었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소.”

오라버니댁은 그동안 버선 한 짝을 다 기워놓고 또 한 짝에 앞볼을 대이다가 경희를 보자 무릎 위에다가 놓고 바싹 가까이 앉으며 궁금하던 이야기 끝을 채우쳐 묻는다. 경희의 눈살은 찌푸려졌다. 두 뺨이 실췌해졌다. 시월이는 빨래를 개키다가 경희의 얼굴을 눈결에 슬쩍 보고 눈치를 채었다.

“작은 아씨, 서문안댁 마님이 또 시집 말씀을 하시지요?”

아침에 경희가 할머니가 다녀가신 뒤에 마루에서 혼잣말로 “시집을 갈 때 가더라도 하도 여러 번 들으니까 인제 도무지 싫어 죽겠다” 하던 말을 시월이가 부엌에서 들었다. 지금도 자세히는 들리지 않으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작은 아씨의 얼굴이 저렇게 불량하거니 하였다. 경희는 웃었다. 그리고 바느질을 붙들며 이야기 끝을 연속한다.

안마루에서는 여전히 두 마님은 서로 술도 전하며 담배도 잡수면서 경희의 말을 한다.

“애기가 바느질을 다 해요?”

“네, 바느질도 곧잘 해요. 남정의 윗옷은 못하지요마는 제 옷은 꿰매어 입지요.”

“아이구 저런, 어느 틈에 바느질을 다 배웠어요. 양복 속적삼을 다 해

요. 학생도 바느질을 다 하나요.”

이 마님은 과연 여학생은 바늘을 질 줄도 모르는 줄 알았다. 더구나 경희와 같이 서울로 일본으로 쏘다니며 공부한다 하고 털렁하고 똑 사내 같은 학생이 제 옷을 꿰매어 입는다는 말에 놀랐다. 그러나 역시 속으로는 그 바느질꼴이 오죽할까 하였다. 김 부인은 딸의 칭찬 같으나 묻는 말에 마지 못하여 대답한다.

“어디 바느질이나 제법 앉아서 배울 새나 있나요. 그래도 차차 철이 나면 자연히 의사가 나나 보아요, 가르치지 아니해도 저절로 꿰매게 되던 구먼요. 어려운 공부를 하면 의사가 툭어나 보아요.”

김 부인은 말끝을 끊었다가 다시 말을 한다. 이 마님 귀에는 톱 거짓말 같다.

“양복 속적삼은 작년 여름에 남대문 밖에서 일녀(日女)가 와서 가르치던 재봉틀 바느질 강습소(講習所)를 날마다 다니며 배웠지요. 제 조카들의 양복도 해서 입히고 모자도 해서 씌우고 또 제 오라비 여름 양복까지 했어요. 일어(日語)를 아니까 선생하고 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낮에는 배워가지고 와서는 밤이면 톱 열두 시, 새로 한 시까지 앉아서 배운 것을 보고 그대로 그리고 모두 치수를 적고 했어요. 나는 그게 무엇인가 하였더니 나중에 재봉틀 회사 감독이 와서 그러는데 ‘이제까지 일어로만 한 것이어서 부인네들 가르치기에 불편하더니 따님이 만든 책으로 펴 유익하게 쓰겠습니다’ 하는 말에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좀 가르치면 어디든지 그렇게 쓸데가 있더구먼요. 그뿐 아니라 그 점잖은 일본사람들에게도 어찌 존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 애가 왔단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감독이 일부러 일전에 또 찾아왔어요. 일본서 졸업하고는 기어이 자기 회사의 일을 보아 달라고 하

더래요. 처음에는 월급 일천오백 냥은 쉽대요. 차차 오르면 3년 안에 이 천오백 냥을 받는다는데요. 다른 여자는 제일 많은 것이 칠백싣 냥이라는데 아마 그 애는 일본까지 가서 공부한 까닭인가 보아요. 저것도 그 애가 재봉틀에 한 것입니다.”

하며 맞은 편 벽에 유리에 늘어 걸어놓은,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나무가 충충한 촌(村) 경치를 턱으로 가리킨다. 경희의 어머니는 결코 여기까지 딸의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한 것이 자연 월급 말까지 하게 된 것은 부지중에 여기까지 말하였다. 김 부인은 다른 부인네들보다 더구나 이 사돈마님보다는 훨씬 개명(開明)을 한 부인이다. 근 본 성품도 결코 남의 흥을 보는 부인은 아니었고 혹 부인네들이 모여 여학생들의 못된 점을 꺼내어 흥을 보든지 하면 그렇지 않다고까지 반대를 한 적도 많으니 이것은 대개 자기 딸 경희를 몹시 기특히 아는 까닭으로 여학생은 바느질을 못 한다든가, 빨래를 아니 한다든가, 살림살이를 할 줄 모른다든가 하는 말이 모두 일부러 흥을 만들어 말하거니 했다. 그러나 공부해서 무엇하는지 왜 경희가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지 졸업을 하면 무엇에 쓰는지는 역시 김 부인도 다른 부인과 같이 몰랐다. 혹 여러 부인이 모여서 따님은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무엇하나요? 질문을 하면 “누가 아나요, 이 세상에는 계집애라도 배워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늘 들어오던 말로 어물어물 대답을 할 뿐이었다. 김 부인은 과연 알았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존대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바든 것을 알았다. 그렇게 번질한 양복을 입고 금시곶줄을 늘인 점잖은 감독이 조그마하나 여자를 일부러 찾아와서 절을 수없이 하는 것이라든지, 종일 한 달 30일을 악을 쓰고 속을 태우는 보통학교 교사는 많아야 육백스무 냥이고 보통 오백 냥인데 “천천히 놀면서 일 년에 병풍 두 짝 만이라도 잘만 놓아주시면

월급을 꼭 사십 원씩은 드리지요”하는 말에 김 부인은 과연 공부라는 것은 꼭 해야 할 것이고, 하면 조금 하는 것보다 일본까지 보내서 시켜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경희가 “공부를 하면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야 남에게 존대를 받을 뿐 아니라 저도 사람 노릇을 할 것 같아요” 하던 말이 아마 이래서 그랬던가보다 하였다. 김 부인은 이제부터는 의심없이 확실히 자기 아들이 경희를 왜 일본까지 보내라고 애를 쓰던 것, 지금 세상에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많이 가르쳐야 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김 부인은 이제까지 누가 “따님은 공부를 그렇게 시켜 무엇입니까?” 물으면 등에서 땀이 흐르고 얼굴이 벌겋게 취해지며 이럴 때마다 아들만 없으면 곧이라도 데려다가 시집을 보내고 싶은 생각도 많았었으나 지금 생각하니 아들이 뒤에 있어서 자기 부부가 경희를 데려다 시집을 보내지 못하게 한 것이 다행하게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누가 묻든지 간에 여자도 공부를 시켜야 의사가 나서 가르치지 아니한 바느질도 할 줄 알고 일본까지 보내어 공부를 많이 시켜야 존대를 받을 것을 분명히 설명까지라도 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사돈마님 앞에서 부지중 여기까지 말을 하는 김 부인의 태도는 조금도 주저하는 빛도 없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 눈에는 ‘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고 이러한 재미를 본다’ 하는 표정이 가득하다.

사돈마님은 반신반의로 어떻게 끝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물론 거짓말로 들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너는 아마 큰 계집애를 버려놓고 이제 시집 보낼 것이 걱정이니까 저렇게 없는 칭찬을 하나보구나’ 하며 이야기하는 김 부인의 눈이며 입을 노려보고 앉았다. 그러나 이야기가 점점 길어갈수록 그럴 듯하다. 더구나 감독이 왔더라 말이며, 존대를 하더라 것이며, 사내도 여간한 군주사(郡主事)쯤은 바랄 수도 없는 월급을 이천 냥까지

주겠더라 말을 들을 때는 설마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난다. 사돈마님은 아직도 참말로 알고 싶지 않으나 어쩐지 김 부인이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아니하다. 또 벽에 걸린 수(繡)도 확실히 자기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설새없이 바퀴 구르는 재봉틀소리가 당장 자기 귀에 들린다. 마님 마음은 도무지 이상하다. 무슨 큰 실패나 한 것도 같다. 양심은 스스로 자복(自服)하였다. ‘내가 여학생을 잘못 알아 왔다. 정말 이 집 딸과 같이 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꼭 결심을 했다. 눈앞이 아물아물해 오고 귀가 찡한다. 아무 말 없이 눈만 껌뻍껌뻍하고 앉았다. 뒤꼍으로 불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중에는 젊은 웃음소리가 사(沙)접시를 깨뜨릴 만치 재미스럽게 싸여 들어온다.

2

“이 더운데 작은 아씨, 무얼 그렇게 하십니까?”

마루 끝에 떡 함지를 힘없이 놓으며 땀을 씻는다. 얼굴은 억죽억죽 엷고 머리는 평양머리를 해서 엷고 알록달록한 면주수건을 아무렇게나 쓴 나이가 한 사십 가량 된 떡장사는 으레 하루에 한 번씩 이 집을 들린다.

“심심하니까 장난 좀 하요.”

경희는 앞치마를 치고 마루 끝에 서서 서투른 칼질로 파를 썰다.

“어느 틈에 김치 담그는 것을 다 배우셨어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는 도무지 노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책을 보시지 않으면 글씨를 쓰시고 바느질을 아니 하시면 저렇게 김치를 담그시고…….”

“여편네가 여편네 할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신통할 것 있소.”

“작은 아씨 같은 이나 그렇지 어느 여학생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이가 있나요.”

떡장사는 무릎을 치며 경희의 앞으로 바짝 앉는다. 경희는 빙긋이 웃는다.

“그건 떡장사가 잘못 안 것이지. 여학생은 사람 아니오? 여학생도 옷을 입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실 것 아니오?”

“아이구, 그렇게 말이지요, 누가 아니래요. 그러나 작은 아씨같이 그렇게 아는 여학생이 어디 있어요?”

“칭찬 많이 받았으니 떡이나 한 스무 냥어치 살까!”

“아이구 어머를 저렇게 아시네, 떡 팔아 먹을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변덕이 뒤룩뒤룩한 두 뺨의 살이 축 처진다. 그리고 너는 나를 잘못 아는구나하는 원망으로 두둑한 입술이 뻣죽한다. 경희는 결눈으로 보았다. 그 마음을 짐작하였다.

“아니요, 부러 그랬지. 칭찬을 받으니까 좋아서…….”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다시 정다아 바짝 앉으며 “허허……” 너털웃음을 한판 내쐬다.

“정말 몇 해를 두고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처럼 낮잠 한번도 주무시지 않고 꼭 무엇을 하시는 아씨는 처음 보았어요.”

“떡장사 오기 전에 자고 떡장사가 가면 또 자는 걸 보지를 못하였지.”

“또 저렇게 우스운 말씀을 하시네. 떡장사가 아무 때나 아침에도 다녀가고 낮에도 다녀가고 저녁 때도 다녀가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같이 시간을 맞춰서 다니나요! 응? 그렇지 않소.”

하며 뒷마루에서 땃돌에 풀 깔고 있는 시월이를 본다. 시월이는,

“그래요 어디가 아프시기 전에는 한번도 낮잠 주무시는 일 없어요.”

“여보, 떡장사 떡이 다 쉬면 어찌 하려고 이렇게 한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오.”

“아니 관계치 않아요.”

떡장사의 말소리는 아무 힘이 없다. 떡장사는 이 작은 아씨가 “그래서 어쨌소” 하며 받아만 주면 이야기할 것이 많았다. 저의 집 떡방아 찼던 일꾼에게서 들은, 요새 신문에 어느 여학생이 학교 간다고 나가서는 며칠 아니 들어오는 고로 수색을 해보니까 어느 사내에게 꺾임을 받아서 첩이 되었더라란 말이며, 어느 집에는 며느리로 여학생을 얻어왔더니 버선 깎는 데 올도 찾을 줄 몰라 뼈두로 대었더라란 말, 밥을 하였는데 반은 태웠더라란 말, 날마다 사방으로 쏘다니며 평균 한 마디씩 들어온 여학생의 협담을 하려면 부지기수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 나서 무릎을 치고 바싹 들어 앉았으나, 경희의 말대답이 너무 냉정하고 점잖으므로 떡장사의 속에서 뻗쳐오르던 것이 어느덧 거품 꺼지듯 꺼졌다. 떡장사의 마음은 무엇을 잃은 것같이 공연히 서운하다. 떡바구미를 들고 일어설까말까 하나 어쩐지 딱 일어설 수도 없다. 그래서 떡바구미를 두 손으로 누른 채로 앉아서 모른 체하고 칼질하는 경희의 모양을 아래 위로 훑어도 보고 마루를 보며 선반 위에 앉은 소반의 수효도 세어보고 정신없이 얼빠진 것 같이 앉았다.

“흰떡 댕 냥어치하고 개피떡 두 냥 반어치만 내놓게.”

김 부인은 고운 돗자리 위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드러누웠다가 딸 경희의 좋아하는 개피떡하고 아들이 잘 먹는 흰떡을 내놓으라 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 떡장사는 떨거니 앉았다가 깜짝 놀라 내놓으라는 떡 수효를 뒤풀이해 세어서 내놓고는 뒤도 돌아보지를 않고 떡바구미를 이고

나가다가 다시 이 댁을 오지 못하면 떡을 못 팔게 될 생각을 하고 “작은 아씨, 내일 또 와요. 허허허” 하며 대문을 나서서는 큰 숨을 쉬었다. 생삼팔(生三八) 두루마기 고름을 달고 앉았던 경희의 오라버니댁이며 경희며 시월이며 서로 얼굴들을 치어다보며 말없이 씩씩웃는다. 경희는 속으로 기뻐한다. 무엇을 얻은 것 같다. 떡장사가 다시는 남의 흥을 보지 아니하리라 생각할 때에 큰 교육을 한 것도 같다. 경희는 칼자루를 들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곰곰이 한다.

“참 애기는 못할 것이 없다.”

얼굴에 수색(愁色)이 가득하여 시름없이 두 손가락을 마주잡고 앉았다가 간단히 이 말을 하고는 다시 입을 꼭 다물며 한숨을 산이 꺼지도록 쉬는 한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걱정과 설움이 있는 것 같다. 이 여인은 근 이십 년 동안이나 이 집과 친하게 다니는 여인이라, 경희의 형제들은 아주머니라 하고 이 여인은 경희의 형제를 자기의 친 조카들 같이 귀애(貴愛)한다. 그래서 심심하여도 이 집으로 오고 속이 상할 때에도 이 집으로 와서 웃고 간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은 항상 검은 구름이 끼이고 좋은 일을 보든지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끝에는 반드시 휘 한숨을 쉬는 쌓이고 쌓인 설움의 원인을 알고 보면 누구라도 동정을 아니 할 수 없다.

이 여인은 소년(원문은 노년) 과부라 남편을 잃은 후로 애절복통을 하다가 다만 재미를 붙이고 낙(樂)을 삼는 것은 천행만행(天幸萬幸)으로 얻은 유복자 수남(壽男)이 있음이라. 하루 지나면 수남이도 조금 크고 한 해 지나면 수남이가 한 살이 는다. 겨울이면 추울까, 여름이면 더울까, 밤에 자다가도 곤히 자는 수남의 투덕투덕한 볼기짝을 몇 번씩 투덕투덕하던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은 어느덧 나이 십육 세에 이르러 사방에서 혼인하자는 말이 끊일 새 없었다. 수남의 어머니는 새로이 며느리를 얻

어 혼자 재미를 볼 것이며 남편도 없이 혼자 폐백 받을 생각을 하다가 자리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행여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귀중한 아들에게 사위스러울까 보아 할 수 있는 대로는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 생각하고 눈물을 웃음으로 이루려 하였다. 그래서 알뜰살뜰히 돈이며 패물 등속을 머느리 얻으면 주려고 모았다. 유일부이(唯一無二)의 아들을 장가들이는데 데는 꺼리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았다. 그래 머느리 선을 시어머니가 보면 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고로 수남이 어머니는 일체 중매에게 맡기고 궁합이 맞는 것으로만 혼인을 정하였다. 새 머느리를 얻고 아들과 머느리 사이에 옥 같은 손녀며 금 같은 손자를 보아 집안이 떠들썩하고 재미가 퍼부을 것을 날마다 상상하며 기다리던 머느리는 과연 오늘의 이 한숨을 쉬게 하는 원수이다. 열일곱에 시집온 후로 팔년이 되도록 시어머니 저고리 하나도 꿰매어서 정다히 드러보지 못한 철전지한을 시어머니 가슴에 안겨준 이 머느리라. 수남의 어머니는 본래 성품이 순하고 궁구(窮寇)도 많이 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기 수없이 하였으나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일반이라. 바늘을 쥐어주면 곧 졸고 앉았고, 밥을 하라면 죽을 쑤어 놓으나 거기다가 나이가 먹어 갈수록 마음만 엉뚱해가는 것은 더구나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러하니 때로 속이 상하고 날로 기가 막히는 수남의 어머니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이 집 머느리가 시어머니 저고를 얹전히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이 머느리 손에 저렇게 저고리 하나도 얻어 입어보지 못하나 하며 한숨이 나오고, 경희의 부지런한 것을 볼 때에 나는 왜 저런 민첩한 머느리를 얻지 못하였는가 하며 한숨을 쉬는 것은 자연한 인정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멀거니 앉아서 경희의 김치 담그는 양을 보며 또 떡장사가 한참 떠들고 간 뒤에 간단한 이 말을 하는 끝에 한숨을 쉬는 그 얼굴은 차마 볼 수가 없다. 머리를

속이고 골몰히 칼질하던 경희는 이미 이 아주머니의 설움의 원인을 아는 터이라 그 한숨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찌르르 하도록 동정이 간다. 경희는 이 자극을 받는 동시에 이와 같이 조선(朝鮮) 안에 여러 불행한 가정의 형편이 방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힘 있게 칼자루로 도마를 탁 치는 경희는 무슨 큰 결심이나 하는 것 같다. 경희는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가질 가정은 결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 내 친구 내 문인(門人)들이 만들 가정도 결코 이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오냐, 내가 꼭 한다’ 하였다. 경희는 꺾충 땀다. 안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풀 쭈는 시월이를 따라간다.

“애, 나하고 하자. 부두막에 올라앉아서 풀막대기로 절라? 아궁이 앞에 앉아서 땔라? 어떤 것을 하였으면 좋겠니? 너 하라는 대로 할 터이니.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아이구, 고만 두세요, 더운데.”

시월이는 더운데 혼자 풀을 저우면서 불을 때느라고 끙끙하던 중이다.

“아이구, 이년의 팔자” 한탄을 하며 눈을 멀거니 뜨고 밀짚을 끌어 때고 앉았던 때라, 작은 아씨의 이 말 한 마디는 더운 중에 바람 같고 괴로움에 웃음이다. 시월이는 속으로 ‘저녁 진지에는 작은 아씨의 즐기시는 옥수수를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얻어다가 찌서 드려야겠다.’ 하였다. 마지 못하여,

“그러면 불을 때세요, 제가 풀을 저을 것이니…….”

“그래,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졸업한 네가 해라.”

경희는 불을 때고 시월이는 풀을 짓는다. 위에서는 푸푸, 부글부글 하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짚의 탁탁 튀는 소리, 마치 경희가 도교음악학교 연주회석에서 듣던 관현악 연주소리 같기도 하다. 또 아궁이 저 속에서

밀짚 끝에 불이 댕기며 점점 불빛이 강하게 번지는 동시에 차차 아궁이까지 가까워지자 또 점점 불꽃이 약해져 가는 것은 마치 피아노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칠 때에 뽕뽕 하던 것이 점점 땡땡 하도록 되는 음률과 같아 보인다. 열심히 젖고 앓은 시월이는 이러한 재미스러운 것을 모르겠구나 하고 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조금이라도 이 묘한 미감(美感)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얼마큼 행복하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보다 몇십백 배 묘한 미감을 느끼는 자가 있으려니 생각할 때에 제 눈을 빼어버리고도 싶고 제 머리를 두드려 바치고도 싶다. 빨간 불꽃이 별안간 파란 빛으로 변한다. 아, 이것도 사람인가, 밥이 아깝다 하였다. 경희는 부지중 “재미도 스럽다” 하였다.

“대체 작은 아씨는 별것도 다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빨래하면 땀국물 흐르는 것도 재미있다고 하시고 마루 걸레질을 치시면 아직 안 친 한편 쪽 마루의 뿌연 것이 보기 재미있다 하시고, 마당을 쓸면 티끌 많아지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시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재미있다고 하실는지, 뒷간에 구테기 꿸는 것은 재미있지 않으셔요?”

경희는 속으로 ‘오냐, 물론 그것까지 재미있게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은 언제나 그렇게 밝아지고 내 머리는 어느 때나 거기까지 발달될는지 불쌍하고 한심스럽다’ 하였다.

“애, 그런데 말끝이 나왔으니까 말이다, 빨래 언제 하니?”

“왜요? 모레는 해야겠어요.”

“그러면 저녁때 늦지?”

“아마 늦을걸이요.”

“일찍 끝이 나더라도 개천에 게 살아라. 그러면 건넌방 아씨하고 저녁 해놀 터이니 늦게 돌아와서 잡수어라. 내 손으로 한 밥맛이 어떤가 보아

라. 히히히.”

시월이도 같이 웃는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인정스러운가 한다. ‘누가 나 먹으라고 단 참외나 주었으면, 저 작은 아씨 갖다 드리게’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과연 시월이는 이렇게 고마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황송스러워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이 있으나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다만 작은 아씨가 잘 먹는 과실을 아는지라, 제게 돈이 있으면 사다가라도 드리고 싶으나 돈은 없으므로 사지는 못하되 틈틈이 어디 가서 옥수수며 살구는 곧잘 구해다가 드렸다. 이렇게 경희와 시월이 사이는 사이가 좋을 뿐 아니라 이번에 경희가 일본서 올 때에 시월의 자식 점동(點童)이에게는 큰덕 애기네들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다가 준 것은 뼈가 녹기 전까지는 잊을 수장 없다.

“애, 그런데 너와 일할 것이 꼭 하나 있다.”

“무엇이에요?”

“글세 무엇이든지 내가 하자면 하겠니?”

“아무럼요, 하지요!”

“너, 왜 그렇게 우물뚜덩을 더럽게 해놓니. 도무지 더러워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일부터 설음질 뒤에는 꼭 날마다 나하고 우물뚜덩을 치우자. 너 혼자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겠니?”

“네, 제가 혼자 날마다 치우지요.”

“아니 나하고 같이해…… 재미스럽게 하하하.”

“또 재미요? 하하하하.”

부엌이 떠들썩하다. 아마루에서 들으시던 경희 어머니는 ‘또 웃음이 시작되었군’ 하신다.

“아이 무엇이 그리 우순지 그 애가 오면 밤낮 셋이 몰려다니며 웃는 소

리에 도무지 산란해 못 견디겠어요. 젊었을 때는 말뚝 구르는 것이 다 우습다더니 그야말로 그런가 보아요.”

수남 어머니에게 대하여 말을 한다.

“웃는 것밖에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댁에를 오면 산 것 같습니다.”

수남 어머니는 또 휘…… 한숨을 쉰다. 마루에 혼자 떨어져 바느질하던 건넌방 색씨는 웃음소리가 돌리자 한 발에 신을 신고 한발에 짚신을 끌며 부엌 문지방을 들어서며,

“무슨 이야기요? 나도…….”

한다.

3

“마누라, 주무시오?”

이철원(李鐵原)은 사랑에서 들어와 안방문을 열고 경희와 김 부인 자는 모기장 속으로 들어선다. 김부인은 깜짝 놀라 일어나 앉는다.

“왜 그러셔요, 어디가 편치 않으셔요?”

“아니, 공연히 잠이 아니 와서…….”

“왜요?”

이때에 마루 벽에 걸린 자명종은 한 번을 땡 친다.

“드러누워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마누라하고 의논을 하러 들어왔소!”

“무얼이요?”

“경희 혼인 일 말ियो. 도무지 걱정이 되어 잠이 와야지.”

“나 역 그래요.”

“이번 혼처는 꼭 놓치지를 말고 해야지 그만한 곳 없소. 그 신랑 아버

지 되는 자하고 난 전부터 익숙히 아는 터이니까 다시 알아볼 것도 없고, 당자(當者)도 그만하면 쓰지 별 아이 어디 있나. 장자이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상속될 터이고 또 경희는 그런 대갓집 만며느리감이지…….”

“글쎄, 나도 그만한 혼처가 없는 줄 알지마는 제가 그렇게 열 길이나 뛰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 것을 억제(抑制)로 보내었다가 나중에 불길한 일이나 있으면 자식이라도 그 원망을 어떻게 듣잔 말이오…….”

“아……니, 불길할 일이 있을 까닭이 있나. 인품이 그만 하겠다, 추수를 수천 석 하겠다, 그만하면 고만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잔 말이요, 계집애가 열아홉 살이 적소?”

김 부인은 잠잠히 있다. 이철원은 혀를 툭툭 차며 후회를 한다.

“내가 잘못이지, 계집애를 일본까지 보내다니 계집애가 시집 가기를 싫다니 그런 망칙한 일이 어디 있어. 남이 알까 보아 무섭지. 벌써 적합한 혼처를 몇 군데를 놓쳤으니 어떻게 하잔 말이야. 아이…….”

“그러면 혼인은 언제로 하잔 말이오?”

“저만 대답하면 지금이라도 곧 하지. 오늘도 재촉 편지가 왔는데……. 이왕 계집애라도 그만치 가르쳐 놓았으니까 옛날처럼 부모끼리로 할 수는 없고 해서 벌써 사흘째 불러다가 타이르나 도무지 말을 들어 먹어야지. 계집년이 되지 못한 고집은 왜 그리 시운지(센지) 신랑 삼촌은 기어이 조카 며느리를 삼아야겠다고 몇 번을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래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소?”

“글쎄, 남이 부끄럽게 계집애더러 물어본다나 무엇이랴나. 그러지 않아도 큰 계집애를 일본까지 보냈느니 어쩌니 하고 욕들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했지.”

“그러면 거기서는 기다리겠소그래.”

“암, 그게 벌써 올 정월부터 말이 있던 것인데 동네집 시악시 믿고 장가 못 간다더니…….”

“아이, 그러면 속히 좌우간 결정을 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저는 기어이 하던 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죽어도 시집은 아니가겠다 하는데. 그리고 더구나 그런 부잣집에 가서 치맛자락 늘이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없다고 한대요. 그래서 제 동생 시집갈 때도 제 것으로 해 놓은 고운 옷을 모두 주었습니다. 비단치마 속에 근심과 설움이 있느니라 하고 한대요. 그 말도 옳긴 옳아.”

김 부인은 자기도 남부럽지 않게 이제껏 부귀하게 살아왔으나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방탕하여서 속이 상하던 일과 철원 군수(鐵原郡守)로 갔을 때도 첩이 두셋씩 되어 남몰래 속이 썩던 색악을 하고 경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말은 아니 하나 속으로 탄은 네 말이 옳다 한 적이 많았다.

“아이 아니꼬운 년, 그러기에 계집애를 가르치면 건방져서 못 쓴다는 말이야……. 아직 철을 몰라서 그렇지……. 글썸 그것도 그렇지 않소, 오죽한 집에서 혼인을 거꾸로 한단 말이오. 오죽 형이 못나야 아우가 먼저 시집을 가더란 말이오. 김 판사 집도 우리집 내용을 다 아는 터이니까 혼인도 하자지 누가 거꾸로 혼인한 집 시악시를 데려가겠소. 아니, 이번에는 꼭해야지…….”

부인의 말을 들으며 그럴 듯하게 생각하던 이철원은 이 거꾸로 혼인한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작히 줄여진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이번 김 판사 집 혼처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문벌 잇고 재산 있는 혼처를 얻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이번 혼인은 강제로라도 시킬 결심이 일어난다. 이철원은 별떡 일어선다.

계집애가 공부는 그렇게 해서 무엇해? 그만치 알았으면 그만이지. 일본은 누가 또 보내기는 하구? 이번에는 무관(無關)내지. 기어이 그 혼처하고 해야지. 내일 또 한 번 불러다가 아니 듣거든 또 물을 것 없이 곧 해버려야지…….”

노기(怒氣)가 가득하다. 김 부인은 “그렇게 하시오”라든지 “마시오”라든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다만 시름없이 자기가 풍병(風病)으로 누울 때마다 경희를 시집 보내기 전에 돌아갈까 보아 아슬아슬 하던 생각을 하며,

“뜬은 하나 남은 경희를 마저 내 생전에 시집을 보내 놓아야 내가 죽어도 눈을 감겠는데.”

할 뿐이다.

이철원은 일어서다가 다시 앉으면 나직한 소리로 묻는다.

“그런데 일본 보내서 버리지 않은 모양이요?”

“아니오. 그 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어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루 걸레질이며 마당이며 멀정게 치워놓지요. 그뿐인가요. 떡하면 떡방아 다 찿도록 채질해 주기……. 그러게 시월이는 좋아서 죽겠지요…….”

김 부인은 과연 경희가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안심을 점점 찾았다. 그것은 경희를 일본 보낸 후로는 남들이 비난할 때마다 입으로는 말을 아니하나 항상 마음으로 염려되는 것은 경희가 만일에 일본까지 공부를 갔다고 난 체를 한다든지 공부한 위세로 사내 같이 앉아서 먹자든지 하면 그 꼴을 어떻게 남이 부끄러워 보잔 말이고 하고 미상불 걱정이 된 것은 어머니 된 자의 딸을 사랑하는 자연한 정(情)이라. 경희가 일본서 오던 그 이튿날부터 앞치마를 치고 부엌으로 들어갈 때 오래간만에 쉬러 온

딸이라 밀리기는 하였으나 속으로는 큰 숨을 설만치 안심을 얻은 것이다.

경희 가족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경희의 마루 걸레질, 다락, 벽장 지움새는 전부터 유명하였다. 그래서 경희가 서울 학교에 있을 때 일 년에 세 번씩 휴가에 오면 으레 다락 벽장이 속속까지 목욕을 하게 되었다. 또 김 부인의 마음에도 경희가 치우지 않으면 아니 맞도록 되었다. 그래서 다락이 지저분하다든지 벽장이 어수선하게 되면 벌써 경희가 올 날이며칠 아니 남은 것을 안다. 그리고 경희가 집에 온 그 이튿날은 경희를 불러오는 사촌 형님들이며 할머니, 큰어머니는 한 번씩 열어보고 “다락 벽장이 분(紛)을 발랐고나” 하시고 “깨끗하기도 하다” 하시며 칭찬을 하하였다. 이것이 경희가 집에 가는 그 전날밤부터 기뻐하는 것이고 경희가 집에 온 제일의 표적이었다.

김 부인은 이번에 경희가 일본서 오면 연년(年年) 세 번씩 목욕을 시켜 주던 다락 벽장도 치워주지 아니할 줄만 알았다. 그러나 경희는 여전히 집에 도착하면서 부모님께 인사 여쭙고는 첫 번으로 다락 벽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치웠다.

그런데 이번 경희의 소제(掃除) 방법은 전과는 전혀 다르다. 전에 경희의 소제 방법은 기계적이었다. 동쪽에 놓았던 제기며 서쪽 벽에 걸린 표주박을 끌고 문질러서는 그 놓았던 자리에 그대로 놓을 줄만 알았다. 그래서 있던 거미줄만 없고 쌓였던 먼지만 털면 이것이 소제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번 소제방법은 다르다. 건조적(建造的)이고 응용적이다. 가정학에서 배운 질서, 위생학에서 배운 정리, 또 도화(圖畵) 시간에 배운 색과 색의 조화, 음악 시간에 배운 장단의 음울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위치를 전혀 뜯어 고치게 된다. 자기(磁器)를 도기(陶器) 옆에다도 놓아

보고 칠첩 반상을 칠기(漆器)에도 담아본다. 주발 밑에는 자발보다 큰 사발을 받쳐도 본다. 흰 은쟁반 위로 노르스름한 전골 방아치도 늘어 본다. 큰 항아리 다음에는 병(瓶)을 놓는다. 그리고 전에는 킁킁한 다락 속에서 먼지 냄새에 눈쌀도 찌푸렸을 뿐 아니라 종일 땀을 흘리고 소제하는 것은 가족에게 들을 칭찬의 보수를 받으려 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도 다르다. 경희는 킁킁한 속에서 제 몸이 이리저리 운동케 하는 것이 여간 재미스럽게 생각지 않았다. 일부러 빗자루를 놓고 쥐똥을 집어 냄새도 맡아보았다. 그리고 경희가 종일 일하는 것은 아무바라는 보수도 없다. 다만 제가 저 할 일을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경희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의 내막에는 자각이 생기고 의식적으로 되는 동시에 외형으로 활동할 일은 때로 많아진다. 그래서 경희는 할 일이 많다. 만일 경희의 친한 동무가 있어서 경희의 할 일 중에 하나라도 해 준다면 비록 그 물건이 경희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희의 것이 아니라 동무의 것이다. 이러므로 경희가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남보다 많이 갖고 싶을진대 경희의 힘으로 능히 할 만한 일은 행여나 털끝 만한 일이라도 남더러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길 것이 아니다. 아아, 다행이다. 경희의 넓적다리에는 살이 찢고 팔뚝은 굵다. 경희는 이 살이 다 빠져서 걸을 수가 없을 때까지 팔뚝의 힘이 없어 늘어질 때까지 할 일이 무한이다. 경희가 가질 물건도 무수하다. 그러므로 낮잠을 한 번 자고 나면 그 시간 자리가 완전히 턱이 난다. 종일 일을 하고나면 경희 반드시 조금씩 자라난다. 경희 갖는 것은 하나씩 늘어간다. 경희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기 위하여 자라갈 욕심으로 제 힘껏 일을 한다.

이철원도 자기 딸이 일하는 것을 나마다 본다. 또 속으로 기특하게도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물어본 것은 이철원도 역시 김 부인과 같이 경희를 자기 아들의 권고에 못 이겨 일본까지 보내었으나 항상 버릴까 보아 염려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부부가 앉아서 혼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애 버릴까 보아 염려하던 것을 안심하는 부모의 애정은 그 두 얼굴에 띠운 웃음 속에 가득하다. 아무려한 지우(知友)며 형제며 효자인들 어찌 이 부모가 염려하시는 염려, 기뻐하시는 참기쁨 같으리오. 이철원은 혼인하자고 할 곳이 없을까 보아 바짝 졸였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마루로 내려서며 마른 기침 한 번을 하며 “내일은 세상 없어도 하여야지” 하는 결심의 말은 누구의 명령을 가지고라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이 보인다.

새벽닭이 새날을 고한다. 까맣던 밤이 백색으로 활짝 열린다. 동창(東窓)의 장지 한 편이 차차 밝아오며 모기장 한 끝으로부터 점점 연두색을 물들인다. 곤히 자던 경희의 눈은 뜨였다. 경희는 또 오늘 종일의 제 일을 시작할 기쁨에 취하여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선다.

4

때는 정히 오정이라 안마루에서는 점심상이 벌어졌다. 경희는 사랑에서 들어온다. 시월이며 건넌방 형님은 간절히 점심 먹기를 권하나 들은 제도 아니하고 골방으로 들어서며 사방 방문을 꼭꼭 닫는다. 경희는 흑흑 느껴 운다. 방바닥에 엎드리기도 하다가 일어 앉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벽에다 머리를 부딪친다. 기둥을 붙곤 안고 핏팅 돈다. 경희는 어찌할 줄 몰라 찢찢 맨다. 경희의 조그마한 가슴은 불같이 타온다. 걸린 수건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이따금 하는 말은 “아이구, 어찌하나……” 할 뿐

이다. 그리고 이 집에 있으면 밥이 없어지고 옷이 없어질 터이니까 나를
어서 다른 집으로 쫓으려나 보다 하는 원망도 생긴다. 마치 이 넓고 넓은
세상 위에 제 조그마한 몸을 둘 곳이 없는 것 같기도 생각한다. 이런 쓸데
없고 주체스러운 것이 왜 생겨났나 할 때마다 그쳤던 눈물은 다시 비오
듯 쏟아진다. 누가 와서 만일 말린다 하면 그 사람하고 싸움도 할 것 같
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를 한번에 잡아 뽑을 것도 같고, 그 사람의 얼
굴에서 피가 넷물과 같이 흐르도록 박박 할퀴고 쥐어 뜯을 것도 같다. 이
렇게 사방 창이 꼭꼭 닫힌 조그마한 어두침침한 골방 속에서 이리 부딪
고 저리 부딪는 경희의 운명은 어떠한가!

경희의 앞에는 지금 두 길 이 있다. 그 길은 희미하지도 않고 또렷한 두
길이다. 한 길은 쌀이 곳곳에 쌓이고 돈이 많고 귀염도 받고 사랑도 받고
밟기도 쉬운 황토(黃土)요, 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지 않은 탄탄대로이
다. 그러나 한 길에는 제 팔이 아프도록 보리방아를 찧어야 겨우 얻어먹
게 되고 종일 땀을 흘리고 남의 일을 해주어야 겨우 몇 푼 돈이라도 얻어
보게 된다. 이르는 곳마다 천대뿐이오, 사랑의 맛은 꿈에도 맛보지 못할
터이다. 발부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험한 돌을 밟아야 한다. 그 길은 푹 떨
어지는 절벽도 있고 날카로운 산정(山頂)도 있다. 물도 건너야 하고 언덕
도 넘어야 하고 수없이 꼬부라진 길이요, 갈수록 험하고 찾기 어려운 길
이다. 경희의 앞에 있는 이 두 길 중에 하나는 오늘 택해야만 하고 지금
꼭 정해야 한다. 오늘 택한 이상에는 내일 바꿀 수 없다. 지금 정한 마음
이 이따가 급변할 리도 만무하다. 아아, 경희의 발은 이 두길 중에 어느
길에 내놓아야할까. 이것은 교사가 가르칠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어서
충고한대도 쓸데없다. 경희 제 몸이 저 갈 길을 택해야만 그것이 오래 유
지할 것이고 제 정신으로 한 것이라야 변경이 없을 터이다. 경희는 또 한

번 머리를 부딪고 “아이고, 어찌하면 좋은가!”한다.

경희도 여자다. 더구나 조선 사회에서 살아온 여자다. 조선 가정의 인습에 파묻힌 여자다. 여자란 온량유순(溫良柔順)해야만 쓴다는 사회의 면목(面目)이고 여자의 생명은 삼종지도(三從之道)라는 가정의 교육이다. 일어서려면 압박하려는 주위(周圍)요, 움직이면 사방에서 들어오는 옥이다. 다정하게, 손 붙잡고 충고주는 동무의 말은 열 사람 한 입같이 “편하게 전(前)과 같이 살다가 죽읍시다” 함이다. 경희의 눈으로는 비단 옷도 보고 경희의 입으로는 약식 전골도 먹었다. 아아 경희는 어느 길을 택하여야 당연한가? 어떻게 살아야만 좋은가? 마치 길가에 탄평으로 몸을 늘여 기어가던 뱀의 꼬지를 지팡이 끝으로 조금 건드리면 늘어졌던 몸이 바짝 오그라지며 눈방울이 대륙대륙하고 뽀죽한 혀를 독기 있게 자주 내미는 모양 같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경희의 몸에 매달린 두 팔이며 늘어진 두 다리가 바짝 가슴 속으로 뱃속으로 오그라들어 온다. 마치 어느 장난감 상점에 놓은 대가리와 몸뚱이분인 장난감같이 된다. 그리고 십삼 관(貫)의 체중이 급자기 백지한 장만치 되어 바람에 날리는 것 같다. 또 머리 속은 저도 알 만치 멍하고 서늘해진다. 눈도 깜짝거릴 줄 모르고 벽에 구멍이라도 뚫을 것 같다. 등에는 땀이 흠뻑 고이고 사지는 죽은 사람과 같이 차디차다.

“아이구, 어찌하면 좋은가.”

경희는 병어리가 된 것 같다. 아무 말도 할 줄 모르고 꼭 한마디 할 줄 아는 말은 이 말뿐이다.

경희는 제 몸을 만져본다. 왼편 손목을 바른편 손으로, 바른편 손목을 왼편 손으로 쥐어본다. 머리를 흔들어도 본다.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이 몸…… 이 몸을 어떻게 서야 할까. 이 몸을 어디로 향하여야 좋은가…….

경희는 다시 제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본다. 이 몸에 비단 치마를 늘이고 이 머리에 비취옥잠(翡翠玉簪)을 꽂아볼까. 대가덕 만머느리 얼마나 위엄스러울까. 새애기 새색시 놀음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시부모의 사랑인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이렇게 천둥이 던 몸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귀염을 받을까. 친척인들 오죽 부러워하고 우러러볼까. 잘못하였다 아아 잘못하였다. 왜, 아버지가 “정하자” 하실 때에 “네” 하지를 못하고 “안 돼요” 했나. 아아 왜 그랬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나! 그런 부귀를 왜 싫다고 했나. 그런 자리를 놓치면 나중에 어찌하잔 말인가. 아버지 말씀과 같이 고생을 몰라 그런가 보다. 철이 아니 나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후회하리라” 하시더니 벌써 후회막급인가 보다. 아아 어찌 하나. 때가 더 되기 전에 지금 사랑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자복할까 보다. “제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고 그렇게 할까? 아니다. 그렇게 할 터이다. 그것이 적당한 길이다. 그리고 귀찮은 공부도 고만둘 터이다. 가지 마라는 일본도 또다시 아니가겠나. 이 길인가보다. 이 길이 밝을 길인가보다. 아, 그렇게 정하자. 그러나…….

“아이구, 어찌하면 좋은가…….”

경희의 눈은 말뚱말뚱하다. 전신이 천근만근이나 되도록 무거워졌다. 머리 위에는 큰 동철(銅鐵) 투구를 들썩은 것같이 무겁다. 오그라졌던 두 팔 두 다리는 어느덧 나와서 척 늘어졌다. 도로 전신이 오그라진다. 어찌 하려고 그런 대답스러운 대답을 하였다 하고 아버지가 “계집애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만이니라” 하실 때에 “그것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사내와 같이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

예요.” 하던 생각을 하며, 아버지가 담뱃대를 드시고 “뭐 어찌고 어찌, 네 까짓 계집애가 하긴 무얼 해. 일본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아니하고 귀한 돈 없애고 그까짓 엉뚱한 소리만 배워가지고 왔어?” 하시던 무서운 눈을 생각하며 몸을 흠찔한다.

과연 그렇다. 나 같은 것이 무얼 하나. 남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아아 과연 사람 노릇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남자와 같이 모든 것을 하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닐 터이다. 사천 년래의 습관을 깨뜨리고 나서는 여자는 웬만한 학문, 여간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나폴레옹 시대에 파리의 전 인심을 움직이게 하던 스타엘 부인과 같은 미묘한 이해력, 요설(饒舌)한 웅변(雄辯), 그런 기재(機才)한 사회적 인물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살아서 오를레앙을 구하고 사(死)함에 프랑스를 구해낸 잔 다르크 같은 백절불굴의 용진(勇進) 희생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달필(達筆)의 논문가(論文家), 명쾌한 경제서(經濟書)의 저자로 이름이 날린 영국 여권론의 용장(勇將) 포드 부인과 같은 어론(語論)에 정경(精勁)하고 의지가 강고한 자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아아 이렇게 쉽지 못하다. 이만한 실력, 이러한 희생이 들어야만 되는 것이다.

경희가 이제껏 배웠다는 학문을 툭툭 털어 보아도 그것은 깜짝 놀랄 만치 아무것도 없다. 남이 제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나 참으로 좋아 할 줄을 모르고 진정으로 웃어줄 줄을 모르는 백치 같은 감각을 가졌다. 한 마디 대답을 하려면 얼굴이 벌개지고 어서(語序)를 찾을 줄 모르는 둔설(鈍舌)을 가졌다. 조금 괴로우면 싫어, 조금 맞기만 하여도 통곡을 하는 못된 억병(臆病)이 있다. 이 사람이 이러는 대로 저 사람이 저러는 대로, 동풍 부는 대로 서풍 부는 대로 쓸리고 따라가도 고칠 수 없이 쇠약한 의지가 들어 앉았다. 이것이 사람인가. 이것이 가진 위인이 사람 노릇을 하

잔 말인가. 이까짓 남들 다 하는 ㄱ ㄴ쯤의 학문으로, 남들도 지을 줄 아는 삼시 밥 먹을 때 오른손에 숟가락 잡을 줄 아는 것쯤으로는 벌써 틀렸다. 이럼도 없는 허영심이다. 만일 고금(古今) 사업가의 각 부인들이 알면 코웃음을 칠 터이다. 정말 엉뚱한 소리다. “아이구, 어찌하면 좋은가

여기까지 제 몸을 반성한 경희의 생각에는 저를 만며느리로 데려가려는 김 판사집도 딱하다. 또 저 같은 천치가 그런 부귀한 덕에서 데려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네네, 소녀를 바치며 얼른 가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인데 싫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여도 껄뽀한 일이다. 그리고 아버지며 어머니며 그 외 여러 친척 할머니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시집 못 보낼까 보아 걱정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도 같다.

경희는 이제까지 비녀 쪽진 부인들을 보면 매우 불쌍히 생각하였다. ‘저것이 무엇을 알고 저렇게 어른이 되었다. 남편에게 대한 사랑도 모르고 기계같이 본능적으로만 저렇게 금수와 같이 살아가는구나. 자식을 귀애(貴愛)하는 것은 밥이나 많이 먹이고 고기나 많이 먹일 줄만 알았지 좋은 학문을 가르칠 줄은 모르는구나. 저것도 사람인가’ 하는 교만한 눈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은 그 부인네들이 모두 장하게 보인다. 설거지하는 시월이 머리에다 비녀가 꽂힌 것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도 같이 보인다. 담 사이로 농민의 자식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저보다 훨씬 나은 판 세상 같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는 저 같은 어른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제 몸으로는 저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저와 같이 이렇게 가기 어려운 시집을 어찌면 그렇게들 많이 갔고 저와 같이 이렇게 어렵게 자식의 교육을 이리저리 궁구하는 것을 저렇게 쉽게 잘들 살아가누’ 생각을 한즉, 저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 부인들은 자기보

다 몇십 배 낫다.

‘어떻게 저렇게들 쉽게 비너로 쪽찌게 되었나? 어찌면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구순히들 잘 사누. 참 장하다.

경희는 생각할수록 그네들이 장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시집가기가 어려운 것이 도무지 이상스럽다. ‘그 부인네들이 장한가? 내가 장한가? 이 부인네들이 사람일까? 내가 사람일까?’ 이 모순이 경희의 깊은 잠을 깨우는 큰 번민이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장한 사람이 되나’ 하는 것이 경희의 머리가 무거워지는 고통이다.

“아이구, 어찌하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한 마디가 늘었다. 동시에 경희의 머리 끝이 우적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경희의 뻘뻘한 얼굴, 넓적한 입, 길쭉한 사지의 형상이 모두 스러지고 조그마한 밀짚 끝에 깜박깜박 하는 불꽃 같은 무엇이 바람에 떠 있는 것 같다. 방만은 후끈후끈하다. 부지중에 사방 창을 열어 제쳤다.

뜨거운 강한 광선이 별안간에 왈칵 대드는 것은 편싸움꾼의 양편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자……” 하며 대드는 것같이 깜짝 놀랄 만치 강하게 쪼여 들어온다. 오색이 혼잡한 백일홍 활년화(活年花) 위로는 연락부절(連絡不絶)히 호랑나비 노랑나비가 오고 가고 한다. 배나무 위의 까치 보금자리에는 까만 새끼 대가리가 들락날락하며, 어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댕싸리 그늘 밑에는 탐실개가 쓰러져 쿵쿨 자고 있다. 그 배는 불룩하다. 울타리 밑으로 굼벵이 잡으러 다니는 어미닭의 뒤로는 대여섯 마리의 병아리가 줄줄 따라간다. 경희는 얼빠진 것같이 멀거니 앉아서 보다가 몸을 일부러 움직이었다.

저것! 저것은 개다. 저것은 꽃이고 저것은 닭이다. 저것은 배나무다. 그리고 저기 매달린 것은 배다. 저 하늘에 뜬 것은 까치다. 저것은 향아리

고 저것은 절구다. 이렇게 정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명칭을 불러본다. 옆에 놓인 머릿장도 만져본다. 그 위에 개어서 얹은 명주이불도 쓰다듬어 본다. “그러면 내 명칭은 무엇인가? 사람이지! 꼭 사람이다.”

정희는 벽에 걸린 체경(體鏡)에 제 몸을 비추어본다. 입도 벌려보고 눈도 끔찍여본다. 팔도 들어 보고 다리도 내어놓아 본다. 분명히 사람 모양이다. 그리고 드러누운 탐실개와 굶뎡이 짝오리 다니는 닭과 또 까마귀와 저를 비교해 본다. 저것들은 금수, 즉 하등동물이라고 동물학에서 배웠다. 그러나 저와 같이 옷을 입고 말을 하고 걸어나다니고 손으로 일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고 배웠다. 그러면 저도 이런 귀한 사람이다.

아, 대답 잘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나?” 하실 때에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별별 떨며 대답하였다. “아버지 안자(顔子)의 말씀에도 일단사(一單食)와 일표음(一瓢飲)에 낙역재기중(樂亦在其中)이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禽獸)이지요.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여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집 개나 일반이지요.” 하였다. 그렇다. 먹고 죽으면 그것은 하등동물이다. 더구나 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조상의 재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만들기는 둘째 쳐놓고 받은 것도 쓸 줄 몰라 술이나 기생에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수와 같이 배 똥드리다가 죽는 부자들의 가정에는 별별 비참한 일이 많다. 태(殆:거의)히 금수와 구별을 할 수도 없는 일이 많다. 그런 자는 사람의 가족을 잠깐 빌어다가 쓴 것이지 조금도 사람이 아니다. 저 똥싸리 그늘 밑에 드러누우려 하여도 개가 비

웃고 그 자리가 아깝다고 할 터이다.

그렇다. 괴로움이 지나면 낙이 있고 울음이 다하면 웃음이 오고 하는 것이 금수와 다른 사람이다. 금수가 능치 못하는 생각을 하고 창조를 해내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번 쌀, 사람이 먹고 남은 밥찌꺼기를 바라고 있는 금수, 주변 좋다는 금수와 다른 사람은 제 힘으로 찾고 제 실력으로 얻는다. 이것은 조금도 모순이 없는 사람과 금수와의 차별이다. 조금도 의심없는 진리이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 철원 김 부인의 딸 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여하튼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잠깐 들쭉은 가죽뿐 아니라 내장의 구조도 확실히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냐,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을 찾지 않으면 누구더러 찾으라하리! 산정(山頂)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것도 사람이 할 것이다. 오냐, 이 팔은 무엇 하자는 팔이고 이 다리는 어디 쓰자는 다리냐?

경희는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두 다리로 꺾충 뛰었다.

뻘뻘한 햇빛이 스르르 누그러진다. 남치마빛 같은 하늘빛이 유연히 떠오른 검은 구름에 가리운다. 남풍이 곱게 살살 불어 들어온다. 그 바람에는 화분(花粉)과 향기가 싸여 들어온다. 눈앞에 번개가 번쩍번쩍 하고 어깨 위로 우레소리가 우루루루 한다. 조금 있으면 여름 소나기가 쏟아질 터이다.

경희의 정신은 황홀하다. 경희의 키는 별안간 이(飴:엿) 늘어지듯이 부쩍 늘어진 것 같다. 그리고 목(目)은 전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다. 그대로 폭 엎드리어 합장으로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은 많은 축복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내 눈과 내 귀는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한한 광영(光榮)과 힘을 내려 주십시오.

내게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오리다.

상을 주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마음대로 부리시옵소서.

『女子界』 (1918. 3)

「정당한 스파이」

지금부터 일 년 전에 일어난 나의 한 폭의 역사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잡음의 심포니가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도시 - 서울의 밤은 깊어졌습니다.

검은 고양이애 ‘야-흥’하는 울음소리가 흐릿한 적막을 깨트리는데 이때에 젊은 여자의 몸으로서 - 더욱이 그들과 싸워가는 엄숙한 ‘탐시스트’ FE라는 상대자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이 밤의 이러한 걸음을 걷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FE 등이 계획하는 일에 권태라고 할까요, 하여튼 시원치 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밖에 모르는 행동이 시작되었으니 그것은 남몰래 ×형사와 그날 밤 열두시에 천주교당 뒷골목 으스스한 곳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하실는지 알 수 없으나 나의 움직이는 마음이야 누구나 막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형사는 물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는 벌써 으스스한 골목집에서 열두시를 치는 시계소리가 내

귀의 고막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내가 온 것을 발견하고 미친 사람 모양으로 반가워 달려오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때 나도 “안이 왔으면 어쩔까?”하고 조바심을 치는 중 먼저 와서 기다리는 그를 보니 껍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전신을 흔들었습니다.

얼마 후 - 그는 나에게 말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나는 그의 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FE는 여기 오시는 것을 물론 모르겠지요?”

“네-”

“나는 당신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뭘-아시겠지요. 당신과 나의 관계는 차차 말 할 일이고 - 저”

“네, FE와 같이 ×××의 일을 하는 YC 말씀이지요.”

“네, 네”

“물론 말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은 뭘 것 같지도 않고 언제든지 실증이 난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믿을 수가 있어 야지요.”

“월 천만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번에도 여러 번 말을 하였거니와 지금부터 당신은 호의호식할 수도 있으며 우리들은 언제까지든지 당신을 싸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어-이거 못 믿으시는 모양이로군요.”

하며 ×형사는 포켓에서는 굶주린 사람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지화뭉치’가 나왔습니다.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형사를 쏘아보며 ‘저 사람이 어찌려는 생각인지 알 수 없어’하는 생각에서 길게 나오던 숨결이 짧아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서슴치 않고 나의 손에다가 쥐어줬습니다. 그때에 아는 떨리는 사름을 억제하고 무엇을 한참 생각하다가 입술을 두서너 번 깨물은 후에 천연덕스러운 태도로 그에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FE는 YC를 제일 신임합니다. YC는 아마 그곳에서는 리더인 것 같아요.”

이래서 나오는 실마리가 FE의 이야기보다 YC의 이야기를 전부 풀어놓으니 ×형사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반가워하셨습니다.

◆.....◆

이때에 하품을 길게 하며 저편 구석에서 나오는 순회 경관이 있었습니다.

능청맞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경관인데……”

이 말을 듣고 나는 맘으로 ‘응, 경관이지 너희들은 이 사회에서 별다른 장해가 없을 짓은 정리다.’하는 생각으로 양손을 서로 마주 대며 담 옆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정복한 순회 경관은 ×형사에게 경례를 깎듯이 하고 지나가려 할 때에 ×형사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 별일은 없소?”

“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바로 두분이 이야기 하신 것을 엿듣는 듯 하나 머-들었을리야-”

“머? 지금 어떤 사람?”

“네-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사람인데 나이는 한 삼십 세 가량이나 될까요, 하여튼 별반 의심할 사람은 아닌 것 같기에 그냥 보냈습니다. 술에 취한 모양이더군요.”

×형사는 이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 -

“응-술잔이나 먹고 닫혀있는 카페-문을 두드리는 술주정뱅이겠지.”

이 말을 들은 나는 여러 가지 조리 없는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FE나 아닐까? YC 도적놈? 주정뱅이? 글썄?’ 등등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다고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순회 경관은 제 갈 데로 가고 ×형사는 나를 위로한 후에 커다란 눈으로 사방을 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귀에다가 자기의 입을 갖다 대며 다음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꼭 믿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YC 역시 나의 부하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의 비밀을 나에게 그대로 전하여주었습니다.”

나는 YC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예상은 가지고 있었으나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는 기색을 안 보이려고 애쓰는 나에게 ×형사는 키-스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용감하고 대담한 계집이었음은 사실입니다.

이때에 나는 한층 더 ×형사에게 눈웃음을 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YC의 사실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YC가 당신의 부하라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어허- 나를 이렇게도 못 믿는단 말이요.”

“믿을 조건이 있어야지요.”

“그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단단히 보여드릴터이니 내일 오후 네시쯤 BR 카페로 오십시오. 소위 경관을 피해서 다닌다는 YC오 안의 사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형사와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YC에 대한 내 추측이 꼭 들어맞는다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오랫동안 목적했던 것을 이룬 것 같아서 전신은 몸시도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간 줄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FE를 생각할 때는 미안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집문 앞까지 와서도 그를 대하기를 주저했습니다만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음으로 방문을 열고 바라다보니 FE의 얼굴은 몸시도 무서웠습니다. 굵주린 사자에 눈동자 모양으로 날카롭고 무섭게 번쩍였으며, FE의 격분의 숨소리는 고요한 밤공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무서운 눈으로 한참 노려보다가 불불 떨면서 일어서서 나의 뺨을 몸시도 때리며 “예 이 더러운 년!”

“이것을 (우리들의 비서) 놈들의 아가리에다가 죄다 - 처-넣-어주리라.....”

“네가 참 스파인줄은 몰랐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나는 이 말을 듣고 FE가 오늘밤 일을 모르면 ‘스파이’, ‘독부’라고 소리칠 일은 없겠는데 웬 영품인지 몰랐습니다.

이때 FE는 너무도 기가 막히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나는 힘을 다해서 그의 나가는 것을 말렸으나, 그는 발길로 무

지스럽게도 차던지고 캄캄한 밤 뒷골목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를 이해 못해주는 FE가 끝없이 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으나 아무 것도 모르는 그가 오해하기 쉬운 일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하려고 하였습니다만은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그의 행적은 보이지를 안았습니다. 언제라도 들어 올 것을 믿고 나는 전후 사실을 길게 써서 그의 책상 위에 놓고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FE가 들어오는 양 아직도 어제 저녁 분이 안 없어진 모양으로-

자기 혼자 아래와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 몹쓸 계집이다.”

“그 까닭에 우리들의 일은 놈들이 먼저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많은 희생자는 감방에서 고생을 한다.”

“그런데 나의 유일한 동지YC는 오늘 어디를 갔는지 의론해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구나.” 등의 혼잣말을 중얼거릴 대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FE가 ‘나의 유일한 친구 YC……’라는 말에는 참을 수가 없어서 골방에서 뛰어나와 그의 앞에 가서 “여보세요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보아주세요. 누가 스파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오후 네 시에 BR 카페에 가서 보아 주십시오.”

FE는 그래도 나를 못 믿었는지 아무 말도 없이 한숨만 휘- 쉬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가 나를 이해하기 까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FE가 BR 카페에서 돌아오기는 오후 다섯 시 쯤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의 용감한 다바리쉬여! 당신은 세상의 누구보다 강한 여성입니다. 나는 당신을 오해하였습니다. 당신은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당한 스파여였습니다.” 그 후부터 나의 별명은 정당한 스파이였습니다.

『삼천리』, 1931. 10.

■ 김오남

김오남 대표시조

時調五首 제1수

世事가 우수워라 浮雲같이 바려두고
靑山綠水를 벗삼아 노니노라
보아도 如畫極景은 싫을때가없고나

時調五首 제3수

가득한 일일로다 앞지는 가을밤에
가슴속 쌓인서름 홀로울고 있노라면
明月이 窓에와비쳐 함께새여주노라

時調五首 제5수

花香에 陶醉아하 조든꿈깨여보니
피엿든 庭梅花의 二三花葉덜엇고나
歲月아 가라하여라 나도늙자하노라

時調六首 제1수

객창에 달이밝다 낙엽마저 털는이제
저 어인 귀또리는 줄줄이 슬피우노
나그네 호올로앉어 눈물겨워 합네다

時調六首 제2수

어인 때바람이 산비를 몰고가노
오동 넓은잎이 섬돌밑 구눈고나
불현 듯 설레는마음 어이하면 좋을꼬

時調六首 제4수

유곡을 시름없이 흘러가는 저시내야
공산 추월만도 한없이 적막커늘
어이타 너마저올어 나의애를 끊나니

時調九首 제1수

님이여 가시랴오 구지그대 가시랴오
客窓 저문비에 그대를 보내노코
내홀로 흘릴그눈물 잊지하라하시오

時調九首 제2수

靑山이 제잇거늘 綠水너왜 울며예나
달이저기 밝았거늘 杜鵑너는 무삼恨고
내외롭에 可當하면 잊지하라하느냐

時調九首 제8수

바람도 야속하다 꽃이구지덧는구나

꽃아 설다마라 明春아니또잇느냐
한 번저 못피는恨은 내게맛겨두어라

時調十三首 제2수

그립든 南韓山을 오늘에야 오르놋다
俗世를 저바린녁이 雲水따라 逍遙할제
그뉘라 옛구지불러 남의興을 깨는고

時調十三首 제5수

산도 자연이요 물또한 자연이니
물가에 안즌몸의 마음아니 자연일까
제서름 밤새는것도 자연이라 하리라

無題吟七首 제1수

자연이 그리워라 그려찾아 내예오다
곶고도맑은景에 醉해 갈줄니젓거늘
어이타 세상사리는 오라가라 하는고

無題吟七首 제5수

秋夜라 김흔三更 月色이 滿庭한제
뜰에 우는 귀뚜리야 너만이 설다마라
내또한 눈물지우며 너와함께 새노라

無題 제1수

閑雲 벗을 삼아 이러이 누엇노라
철 없는 俗客이 사립門 두다리건
南枹에 깊이든잠을 깰길 없다 일러라

無題 제3수

님도 야속하오 가신 그대 야속하오
가면 혼자 가오시지 잠마자 구지 앓어
秋夜長 기나긴밤을 이리 새라 하시오

農村片感(二)

달피고 나간몸이 별을이고 돌아오오

손발이 다달토록 심고매고 견우견만
어이타 우리네배는 부를길이없는고

지계꾼의 歎息

새벽에 나간 몸이 빈 손으로 도라왔네
妻子야 주린채로 이 밤을 울어새자
蒼天아 이내 설움을 살필 길이 없는가

乞人(二)

積雪은 尺餘로다 바람도 차고 찬데
저 어인 떼 거지는 城 밑에 밤을 새노
불연듯 아픈 마음을 둘 곳 몰라 하노라

새벽

잠깨어 새벽인양 종소리만 들려온다
전사만념 엉키는데 그중큰게 걱정이라
빗걱정 커단뭉치가 무겁게도 누른다

國態

붉은산 파동된하천 오막사리에 남누한모습
눈앞에 보이는게 빈곤과 참경뿐을
이래도 黨爭席奪로 일을 삼고있느냐

농군의 주린얼굴 부녀의 처량한꼴
오늘도 어제인양 불행만을 헤집는데
外遊를 자랑들말고 농민살길 생각소

識者가 모른다면 농사발전 누라하오
學博士자랑말고 실속있게 일을하오
알거든 눈을뜨고서 국태다시살피소

이슬

풀끝에 맺힌이슬 구슬인양 슬어진다
인생의 일평생이 저와같다 하는구나
덧없는 이내生涯를 이렇놀다 갑세다

香泉寺에서

월식을 바라보며 자연을 살피라니

인생사 부운같아 마음더욱 구슬프다
밤늦어 잘줄모르고 허무경을 헤맨다

눈

설경이 조흔시고 미친듯 찾아보니
산야가 은세계ㄴ데 마음더욱 시원코나
동구를 바라보며 콧노래를 하노라

송백에 눈이쌓여 송이 송이 꽃이로세
휘어져 느리진가지 더욱더욱 탐스럽다
은반에 정을 담아서 세정뜬다 하노라

연정

연모란 靑春만이 애가슴 태움일네
웃고또 우는것이 꿈깨운 뒤일찌라
理性을 굳게안고서 후회없게 하소서

꽃이란 피면지고 달이차면 이울듯이
男女의 情이란게 타는듯 스는것을
깰뒤에 한탄을말고 굳이삼가 하소서

하루살이

부유가 저리많이 떠돌아 노닐어도
오늘해 못다가서 죽을게 아니겠소
살았던 이한나절을 즐겨보나 보외다

靑春이 어제런듯 白髮이 희었고나
얼마만 지난다면 白骨만 남을人生
한나절 살고서죽는 부유에다 비기리

여성들

女性을 바라보라 칭찬할게 무에더냐
몸치장 곱게하고 가웃대 보이건만
理性和 권위없으니 기막히어 하노라

「너무도 쓸쓸한 당신」

그녀가 경험한 졸업식은 하나같이 추웠었다. 그녀 자신의 졸업식을 비롯해서 아들딸의 각급 학교 졸업식의 공통점은 혹독한 추위였다. 그러나 가장 추운 졸업식은 교장 관사의 파듯한 아랫목에서 목소리로만 듣던 시골 초등학교 졸업식이었다. 시골 공기는 도시보다 보통 3,4도는 더 춥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도시 아이들보다 입성이 부실한 시골 아이들이 얼마나 추울까 하는 최소한도의 배려조차 없이 교장의 졸업식사는 장장 반시간 이상 계속됐다. 해마다 같은 소리였다. 짝어대듯 정열 없는 고성도 변함이 없었다.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보태어 살의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다. 귀를 틀어막아도 보고,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어보아도 그 소리를 참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언 발이 결국은 무감각해지듯이 들끓는 분노가 체념으로 잦아들 무렵에나 교장의 식사는 끝났다. 그녀는 남편 직장과 겨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다는 데 절망적인 염증을 느꼈다.

교장선생님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후기 졸업식은 처음이었다. 후기 졸업식을 코스모스 졸업식이라고도

한다는 소리를 어디선지 들은 것 같지만 그 가냘픈 꽃들이 피어나게 할 산들바람이 스며들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게 늦터위는 견고하고도 끈끈했다. ‘파바로티’라는 밝고 넓은 찻집 안은 별천지처럼 냉방이 잘돼 있었다. 갑작스러운 냉기가 데친 토마토처럼 농익은 신열을 알뜰하게 개칠해서 그녀의 감각을 헛갈리게 했다. 종업원들은 다들 타이츠처럼 몸에 착 달라붙는 검정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몸매는 청년이라기보다는 소년처럼 군더더기 없이 청순하고 깡말라 보였다. 저런 걸 유니섹스라고 하는 걸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었다. 하나같이 화장기 없이도 얼굴은 희고 곱살하고, 정결한 생머리를 짧게 커트친 애도 있고, 뒤로 묶은 애도 있었다. 바지에 비해 다소 혈령한 윗도리를 걸친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게 빈약했다. 그녀는 그 애들의 중성적인 엉덩이나 넓적다리를 슬쩍 만져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곳은 아이스 바처럼 단단하고도 시릴 것 같았다. 그 애가 만일 남자라면 그 짓은 성추행이 될 것이다. 온몸 도처에서 개칠한 냉기를 뚫고 열꽃처럼 피어나는 열망에 그녀는 으스스 전율했다.

이런 요상한 느낌은 얼마 만인가. 난생 처음인 듯도 했다. 대학가 커피숍은 나이 지긋한 이들이 갈 데가 아니란 소리는 여러 번 들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은밀하거나 퇴폐적이지 않을 뿐더러 음악이 옆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도록 시끄럽지도 않았다. 나무랄 데 없이 건강하고 정결하고 쾌적한 분위기였다. 음악도 첼로인 듯싶은 음색이 파스텔조로 은은하게 실내에 번져들도록 있는 듯 마는 듯 낮춰놓고 있었다. 튀는 점이 있다면 종업원들의 검정 유니폼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기도 전인 남편의 촌티에 자꾸 신경이 써질 만큼 그녀 보기에 이 커피숍의 세련미는 완벽했다.

남편과 만날 장소를 파바로티로 정해준 것은 딸 채정이었다. 채정이 졸업식 때도 그들 부부는 별거 중이었다. 시골서 당일로 올라오는 남편과는 졸업식장 근처에 있는 초대 총장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대학에는 그 동상 말고도 동상이 너무 많았다. 남편은 누구 동상이라는 것은 확인해보지 않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동상 앞에 마냥 죽치고 앉아 있었으니 식구들하고 만나질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날은 채정이가 오랫동안 연애했던 남자친구네 부모하고 처음으로 상견례를 치르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식이 다 끝난 후까지 찾아 헤맨 끝에 가까스로 만나긴 했지만 그날 촌스럽고 변변치 못한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초조했던 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새록새록 율화가 치밀었다. 새 사돈 될 집에 비해 내세울 거라곤 없는 집안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더욱 그날의 조바심은 피를 말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객들이 반 이상 빠져나간 후에 겨우 만나긴 남편은 차라리 안 만나니만 못했다. 그 추운 날 오버도 없이 세탁을 잘못 해 모양이 망가진 누비 파카에다 색 바랜 경충한 면바지를 입은 모습은 사돈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도 못 봐주게 추비했다. 채정이가 율상을 하고 엄마 껏전애다 ‘난 몰라, 아빤 우리들이 미워서 일부러 거지처럼 하고 왔나봐’라고 속삭일 정도였다.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든지 거지에다 빚대는 건 채정이의 아주 나쁜 버릇이었지만 그때는 듣기 싫지도 않았다. 그쪽 식구들 앞만 아니라면 더 심한 말도 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두고두고 채정이 졸업식 날을 악몽처럼 기억하는 건 남편의 무심정한 옷차림 때문인데 채정이는 하마터면 아빠를 못 찾을 뻔했던 게 더 기억에 남는 모양이었다. 동생 채훈이의 졸업식을 앞두고도 또 아빠 못 만나면 어떡하냐고 그 걱정부터 하더니, 제가 미리 학교 앞을 답사하고 와서 제일 찾기 쉽고 노인네들도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

다며 정해진 곳이 파바로티였다. 딸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는 하면서도 후기 졸업식에는 그닥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 않아 괜한 일이다 싶었다.

재정이는 부모가 서로 못 만날까봐 보다는 따로따로 오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시집가서 제 자식 낳고 살면서 결혼기에도 안정되고 철들어가니 그럴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딸 때하고 달라서 사돈한테 그닥 신경이 써지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아들이 좋다 싶은 게, 사돈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거였다. 사돈한테 죄 지은 거 없이 저자세로 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결혼식까지 치른 후가 아닌가. 흥잡혀 봤겠자였다. 확실하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들하고 대학 동기인 며느리가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마음 변치 않고 조신하게 기다려준 게 기특하긴 해도 꼭 그래 줬으면 하고 바란 것도 아니었다. 기특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도 여자로서는 한물간 동갑내기라는 걸 서운해 하는 마음을 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시에미의 꼬부장한 심정이었다.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돈한테 면목 없을 게 없었다. 식 올린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곧 둘이 같이 유학을 떠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 동안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 걸 그쪽에서 고마워할 일이지 이쪽에서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다.

까만 타이츠의 소년, 어쩌면 소녀가 유리컵에 얼음물을 갖다놓고 잠시 그녀 앞에서 지체했다. 뭔가 시키기를 바라는 몸짓이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뭘로 하실 거냐고 묻는 건 주문을 재촉하는 걸로 여겨질까봐 삼가고 싶은 듯, 나이에 맞지 않는 너그러운 미소를 짓고는 가버렸다. 졸업식까지는 한 시간 가까이나 남아 있었다. 아빠는 분명히 일찍 오실 테니 엄마도 늦지 말라고 당부한 것도 채정이었다. 딸의 아

버지에 대한 그런 확신은 애정이나 믿음보다는 촌사람 취급 쪽이 더 강했을 거라고, 그녀는 여기고 있었다.

기다린다고보다는 방심한 시선으로 문 쪽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다. 불그죽죽한 넥타이로 목을 잔뜩 졸라맨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가 일어서서 여기예요 여기, 하면서 손짓을 하려는데 먼저 그의 메마른 고성이 넓은 홀 안에 고루 퍼졌다.

“여기가 페스타롯치 다방, 맞소?”

종업원들은 물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손님들 대부분은 고등학생 티가 가시지 않은 젊은이들이었다. 웬 페스타롯치? 하면서 여기저기서 킬킬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여기라고 외치는 대신 황급히 그에게로 다가가 소매를 끌었다. 마누라를 보자 안심한 듯 그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졌다.

“내가 그래도 옳게 찾아왔구먼. 많이 기다렸는가?”

그러나 마주앉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다. 졸업식까지 아직 시간은 넉넉했다. 그가 껌뻑뻑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반들반들 벗겨진 구릿빛 정수리에서 샘솟듯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교장선생님이었을 때의 별명이 뚱뚱이였다. 그는 워낙 땀이 많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머리였던 건 아니다. 검은 머리가 뿔뿔하게 곤두서 약간은 사납게 보이던 젊은 날, 아아, 덥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들입다 한 번 머리를 흔들면 땀방울이 샤워처럼 사방으로 튀곤 했었다. 그땐 그를 사랑했었나? 그녀는 생각날 듯 날 듯 감질나는 옛 기억을 붙잡으려는 시늉으로 양미간을 모았다. 한때 있었던 것의 사라짐, 그게 사랑이든, 삼단 같은 머리칼이든 간에, 그 뒤엔 일말의 우수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허나 그게 될 것 같지 않았다.

우린 부딪히면 안 돼. 피차 보호막 없이 부딪힌다는 건 잔인한 일이야. 그녀가 밀도 끝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충분히 땀을 흘리고 난 남편은 큰 소리로 주문을 했다.

“여기 뜨거운 커피 두 잔 다고. 생각 같아서는 비싼 냉커피를 팔아주고 싶지만 이렇게 춥게 해놨으니 어떻게 찬 걸 먹냐?”

구석구석까지 잘 울려 퍼지는 예의 건조한 고성에 그녀는 허를 찔린 듯이 질겁을 했다. 페스타루치에 웃던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킬킬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 어련히 주문 받으러 올라가요.”

“여기서 뒹하러 마냥 앉았나. 얼른 자릿값이나 하고 가 봐야지.”

“아직 시간 많아요. 여기 좀 좋아요. 시원하고 요새 애들 구경도 실컷 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백주에 놀고먹는 아녀석들을 위해서 전력을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내 원 한심해서.”

입만 열었다 하면 옛날 고렷적 도덕책 같은 소리만 하는 남편을 외면 하면서 그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 마음을 누군가가 읽고 안 되겠는 게 뭐냐고 묻는다 해도 아마 대답을 못 했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두서가 없고 애매했다. 커피가 왔다. 남편은 나도 요새 블랙인가 뭔가에 맛을 들였지, 괜찮드라고 하면서 육개장 국물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다.

“언제 떠난데? 가아들은.”

“미국 학기 시작할 때 대가야 한다니까 일간 떠나겠쥬, 뭐.”

“떠날 때까지 데리고 있지 그랬어? 새며느리 말야. 아들 가진 쪽에서 그 정도는 본때를 보여야 하는 거 아냐? 적어두.”

“아들 좋아하시네.”

그녀는 울컥 치미는 반감 때문에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는감?”

당신이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수, 하고 되받으려다 말고 그냥 픽 웃고 말았다. 70년대 말까지 남편은 평교사였다. 남편은 교감, 교장이 된 후에도 그때를 한창 날릴 때였다고 회상하곤 했는데 시골 소학교 선생이 날릴 일이 뭐가 있겠는가. 교감이나 교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나마 출셋길이 열려 있던 시절이란 뜻이었을까. 새마을 정신이 어린이들 의식까지 짓누른 유신시대였다. 그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숨이 막혔다. 그가 담임 맡은 반은 온통 국민교육현장으로 도배를 했고, 한 아이도 빠짐없이, 지진아까지 그걸 달달달 외우는 반으로 유명했다. 그걸 입술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충분히 새겼다는 걸 알아보려는 경시대회가 군내에서 있었는데 그의 반은 거기서도 일등을 먹었다.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였는데 그의 교장실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사진이 가장 높은 정면에 으리으리게 걸렸다. 그건 시골학교라서가 아니라 장관실이라 해도 아마 사정은 비슷했을 것이다. 문제는 갈등 없는 추종이었다. 마치 주인이 바뀔 노예처럼 주인의 이름이나 인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주인이라는 게 중요할 뿐이었다. 사진이 바뀌고 나면 그의 표정과 말투도 사진을 닮아 달라졌다. 조회 설 때마다 늘어놓는 장광설의 내용도 물론 그 최고 권력자의 어록에서 따왔을 것이다. 그가 만일 출세지향적인 권력의 측근자였다면 그런 언동을 이해 못 할 것도 없었다. 알아서 기는 교육공무원의 소심증이었다고 해도 아내에게만 이라도 그걸 더럽고 치사하게 여기면서 참

아내기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면 그녀도 어쩔까 위로해주지 않고는 못 배겼을 것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의 고독한 책무는 어쩌면 정의감 이상으로 비장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남편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인간처럼 참을 수 없는 인격이 또 있을까. 그의 체제순응은 강요된 것도 의도적인 것도 아닌 체질적인 거였다. 그의 매력 없음의 본질 같은 거였다. 그와 다시 합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생각하기가 싫어서였다. 그러나 오 늘은 표면적인 별거의 이유가 완전히 소멸되는 날이다.

그녀가 교장 관사에도 남편을 혼자 남겨놓고 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온 것은 채정이가 대학에 붙고 나서였다. 채정이가 다닌 시골 고등학교에서 서울의 웬만한 대학에 합격자를 내기는 채정이가 처음이어서 학교 정문에다 크게 플래카드를 내걸 정도로 영광스러워했다. 부모가 우쭐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녀의 뒷바라지는 유난스럽고도 고달픈 거였지만 자신의 학부모 노릇에 자신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다. 드디어 딸이 떳떳하게 그 시골구석을 벗어나게 됐다는 데 그녀는 터질 듯 한 기쁨을 느꼈다. 채정이 밑으로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채훈이가 남아 있었다. 아들은 딸보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그녀의 욕심과, 과년한 딸을 혼자 객지로 내돌릴 수 없다는 남편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서 그들은 남 보기에도 그들끼리도 조금도 무리 없는 별거상태로 들어갔다. 그녀가 처음 자리 잡은 서울의 지하 셋방은 위층에서 오줌 누는 소리, 입맛 다시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교장 관사를 벗어난 게 꿈이 아니라 생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실로 황홀한 기쁨이었다. 조회 설 때마다 판에 박은 듯 만날 똑같은 교장의 훈시에 귀가 다 멍멍해지고, 언제나 저 늦요강 두들기는 소리 안 듣나

하고 지겨워하는 아이들의 수군거림까지 들릴 듯 한 교장 관사 생활은 고문의 기억처럼 진저리가 쳐졌다.

아이들 뒷바라지는 핑계일 뿐 그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것은 교장 사모님 노릇을 안 하는 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별거에 들어간 후에도 남편의 봉급은 다달이 거의 다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아무리 혼자라도 어떻게 그 나머지로 살까 싶게 남편이 떼어낸 액수는 미미했다. 그러나 서울 생활 역시 그 봉급으로는 빠듯했으므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얼마 안 살고 나서 채훈이 과외공부를 시키기 위해 그녀도 돈벌이를 하게 됐다. 아파트를 낀 상가의 화장품 할인매장을 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그 가게를 아주 인수하게 됐고, 국산 화장품 외에도 외제 소품을 겸함으로써 수입을 늘려나갔다. 자신이 생각해도 돈 버는 수완이 있었고, 운도 따랐다. 아이들 복인지도 몰랐다. 둘의 학비가 한창 많이 들 때 그녀의 수입도 피크에 다다랐다가 근처에 대형 백화점이 생기면서 조그만 상가가 사양길에 들어서자 학비 걱정도 줄어들다가 아주 안 하게 됐으니 말이다. 돈을 못 벌 때는 세 식구가 전적으로 남편 수입에 의지해야 했으므로 남편 사정을 볼 여유가 없었고, 돈을 넉넉히 벌게 되자 상대적으로 남편 송금이 하도 제제해 보여서 또한 남편 걱정을 안 하고 말았다. 그렇게 역대 정권에 충성을 다하던 남편도 어찌 된 일인지 정년을 한참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당했다.

그 소식은, 남편이 근무하던 고장과는 얼토당토않게 휴전선하고 가까운 시골에다 헌집하고 거기 딸린 약간의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살기로 정했던 소리하고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은퇴 후 같이 살게 되면 어찌나 하는 근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마이크 대고 연설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고 살까 싶어 피식 웃음이 났을 뿐이었다. 은퇴 후에

도 연금은 꼬박꼬박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돼 왔다. 아이들은 가끔 그 시골집에 다니러 가는 모양이었다.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위로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전원생활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녀에게도 조금만 더 참으란 소리를 자주 해오고 있었다. 엄마가 저희들 때문에 아빠와 떨어져 사는 걸 늘 미안해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희들이 결혼 후까지도 부모에게 신경을 쓰거나 책임을 지게 될까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리라. 엄마 아빠를 붙여놓는 거야말로 상쇄(相殺)시키는 최상의 방법이고,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은 속셈이 있을지라도 어찌겠는가.

그녀는 일부러 한 번도 남편의 전원생활을 가보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었다. 또 남편이 그녀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 정도로 착실하게 혼자 살 궁리를 해온 걸 보면, 별거상태를 고정시키고 싶은 건 남편도 그녀와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는 자존심 대결 같은 것도 있었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인데 그가 어떻게 살든 뭇 하러 아는 척을 하겠는가. 초가집이 썩고 썩어 주저앉듯 고요한 파탄이었다. 한 지붕 밑에 사는 자식들 귀에도 안 들리는.

“그 양복밖에 없으시유? 오늘은 딴 양복을 입으시지 않구.”

그녀는 마지막이라 구김이 많이 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윗도리 깃에는 김칫국물 자국인 듯한 얼룩도 보였다.

“왜 이 양복이 어때서? 최고급이라면서.”

“아무리 최고급이라도 그렇죠. 며늘네한테 예단 받은 양복 아니유? 예단 받은 건 결혼식 날 하루 입었으면 됐지 출창 입으면 그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줄창 입긴 결혼식날 입고 오늘 처음 입었소. 여름에 넥타이 매는 양복은 누가 억만금을 준대도 줄창은 못 입겠습시다.”

“사돈 보기에 줄창이란 소리에요. 결혼식날 보고 오늘이 처음 보는 거 아뉴. 조금 신경을 쓰시지 그랬어요.”

“예서 어떻게 더 신경을 쓰나? 채정이넌은 며칠 전부터 꼭 정장하고 오라고 전화질이지, 넥타이 매는 여름 양복은 이거 한 벌밖에 없는 걸 낸들 어떡허란 말요.”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으니 그만둡시다.”

더 길게 말하단 밑천도 못 건질 것 같았다.

“양복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돈 보기에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로 보이는 걸 거요, 아마.”

남편은 한결 가라앉은 소리로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서더니 찻값을 내려 나갔다. 그녀는 남편의 짧은 눈길에서 연민 같은 걸 읽고 당황했다. 내가 저를 불쌍해하면 했지 왜 저가 나를 불쌍해한담, 아니꼽게스리. 시계를 보니 졸업식에 대가기 맞춘 시간이었다.

후기 졸업식은 졸업생이 적어서 그런지 식당이 야외가 아니고 대강당이였다. 사돈 내외를 비롯해서 처남, 처형, 동서 등 처가 쪽 식구가 열 명도 넘게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채정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리를 잡아놓으러 미리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채정이 덕에 양쪽 사돈이 가장 좋은 자리에 나란히 앉고 다른 식구들도 흠어지지 않고 모여 앉았다. 안사돈끼리 가운데 붙어 앉고, 바깥사돈들은 각각 자기 마누라 옆에 앉게 되었는데 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채훈이 장모는 그녀의 귓전에 다 대고 야죽야죽 잘도 소곤거렸다. 하긴 한 달 가까이나 사위를 데리고 있었으니 할 얘기도 많을 것이다. 주로 두 내외가 얼마나 금슬 좋다는 얘

긴데 홍보는 것 같으면서도 자랑이요, 어려웠던 것 같으면서도 재미본 얘기였다.

“딸자식은 소용없단 소리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야 알겠다니까요. 큰딸은 미리 그러려니 하고 길러서 몰랐는데, 막내는 우리집 양반이 유난히 애지중지하셨거들랑요. 저도 덩달아서 무슨 낙을 보겠다고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고 떠받들어 길렀더니, 글썄 시집가고 나더니 당장 부엌에 나와 제 신랑 먹을 거 먼저 챙기느라고 어찌나 법석을 떠는지, 그뿐인 줄 아세요? 즈이 아버지가 아침마다 드시는 녹즙까지 즈이 신랑은 왜 안 주냐고 따지더니 아침엔 저보다 먼저 나와서 제 손으로 녹즙을 짜가지고 이층으로 살짝 올라간다니까요. 이왕 짜는 길에 즈이 아버지 것도 한 잔 더 만들면 어때서 글썄 딱 한 잔 제 신랑 거만 해가지고 가는 걸 보면 나는 알미워 죽겠는데 우리집 양반은 속도 없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야 철났다고, 기특해하는 거 있죠. 아무튼 막내사위라면 예뻐서 그저 이래도 허허허, 저래도 허허허, 입을 못 다무신다니까요. 우리 수정이도 시집 잘 갔지만 정서방이 장가 하나는 정말 잘 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려면요.”

마지못해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도 이 여자가 누구 약을 올리기로 작정을 했나 싶어서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신혼의 딸 내외를 쫓 본 듯이 얼르면서 옥시글옥시글 즐거워할 그 집안과 대비되어 떠오르는 것도 자신의 웅색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편의 시골집인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외판집 홀아비살림의 썰렁함, 스산함 그런 것들이 옛날 영화처럼 구질하게 떠올랐다.

“그래도 사위는 백년손이라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저희 집으로 보내셔도 좋은데…….”

그녀는 인사성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도 말끝을 흐렸다.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화도 났다. 안사돈끼리의 이런 미묘한 심리전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길게 빼고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졸업식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정서방이 얼마나 소탈하고 붙임성이 좋다고요. 하긴 저희 집에 드나든지가 어디 일이 년입니까. 신입생 시절부터 서로 단짝 친구였으니, 사위 될 줄 모를 적부터 아들처럼 애, 재 이름 부르고 먹던 밥상에 손갈 하나 더 놓고 같이 먹고 했으니까, 정이 들 대로 든 걸요 뭐. 그래도 막상 사위가 되고 나니 어찌나 든든하고 귀여운지, 우리집 양반은 더해요. 며칠 전에 저희 시아버님 제사였잖습니까. 우리 큰애네는 미국 가 있으니까 제사 참여 못 한 지가 오래 됐지만 작은아들이 엄연히 있는데 글썽 텍 하니 아들 제쳐놓고 막내사위 먼저 잔을 올리게 하지 뭘니까. 조상님한테 새사람을 먼저 인사시켜야 한단가요. 우리집 양반이 워낙 소탈해서 제사에도 격식이 없어요. 영정만 모시고 지방도 안 써요. 제수도 격식보다는 생전에 좋아하시던 걸 주로 하죠. 지방을 안 쓰는 대신 우리집 양반은 마치 살아 있는 어른들한테 하듯이 자상하게 요새 사는 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잘 봐달라고 조르기도 한단가요. 이번에 새사위를 생면시키시면서도 어찌나 웃기시는지 제사가 엄숙하기는커녕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졌단니까요.”

안사돈은 지금 생각해도 다시 한 번 즐겁다는 듯이 호호거렸다. 새사람이라니, 아무리 세상이 두서없이 바뀌었다고 해도 수정이가 우리집 새사람이 되면 댔지 왜 우리 채훈이가 자기 집 새사람이란 말인가. 격식을 안 차리기로는 이쪽이 사돈집보다 한술 더 뜨는 집안이었다. 그녀가 시댁 제사에 참여해본 지가 언젠적인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였다. 남편이

지차고 큰댁이 외진 산골이라 새댁 적 빼고는 남편 혼자 다녀오곤 했다. 남편도 다음날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돈만 부치고 안 가기도 했고, 그 버릇은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는 교장이 된 후까지도 계속됐다. 제사에 채훈이를 데리고 가본 것도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제사는 자기가 보고 기억하는 조상에 한해서만 지내면 된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다.

재훈이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제사를 그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렇지. 제 처를 제 조상 제사에 참여시키기도 전에 제가 먼저 처가 제사에서 꾸벅꾸벅 절을 했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영 고약했다. 아유, 못난 녀석, 더리찍은 자식……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게 분했다. 그녀는 야죽거리는 안사돈에 대한 적의를, 스스로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증폭시키고 있는지도 몰랐다. 당장 졸업식장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손잡고 나갈 사람이 필요했다. 남편은 손을 잡힌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단상에서 진행되는 일에 온 신경을 모으고 있었다. 마치 이제나저제나 자기가 상 받으러 나갈 차례를 기다리는 모범생처럼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슬그머니 손을 거둬들이고 말았다.

남편에게 단상이란 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단상을 좋아했다. 단상에만 올라가면 저절로 목소리에 권위적인 억양이 붙고,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지당한 소리만 줄줄이 나왔다. 아무리 조그만 집단에서도 단상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는 단상에 있을 때, 단하에 있는 단 한사람이라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걸 참지 못했다. 주목만이 아니었다. 그가 단상에서 단하에 요구한 것은 경배였을 것이다. 단상에 있을 때 단상의 권위에 충실했던 것처럼 단하에서는 단하의 의무에 충실했다.

하는 걸 누가 말리랴.

그런 그가 집안 식구에 대해서는 전혀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던 것은 자·상하거나 가족적이어서라기보다는 월급봉투만 축내지 않으면 가장의 권위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별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후에도 그렇고, 은퇴 후까지도 월급이나 연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조금 축내고 전액 식구들한테로 가게 하려는 그의 노력은 거의 집념에 가까웠다. 요새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뭐 해 먹고 사는 것일까? 그녀는 조금 전에 잡았던 남편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톱 밑에 때가 낀 투박한 손이었다. 그녀는 직접 잡아보았을 적에도 못 느낀 이물감에 허방을 밟은 것처럼 움찔했다.

박사, 석사 학위 수여식이 끝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할 차례였다. 그녀는 아들이 학위 받는 걸 톡톡히 봐두고 싶었다. 사진은 채정이가 찍기로 돼 있었다. 채정이뿐 아니라 그쪽 식구들 중에서도 서너 명이나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것 같았다. 졸업생보다도 더 많은 사진사들이 무대를 가려 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사돈이 다시 조근조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장내의 웅성거림 때문인지 컷볼에 숨결이 닿을 듯 안사돈의 속삭임은 친근했다.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진이나 잘 나오면 됐죠, 뭐. 무슨 행사든지 사진밖에 남는 게 뭐 있나요. 참, 아이들 결혼사진 잘 나왔죠? 사진사가 찍은 것 말고도 카메라 사진까지 다 챙겨서 보내드렸는데.”

“예, 잘 받았습시다. 카메라 사진은 저희들한테도 꽤 있는데, 웬걸 그렇게 많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셨어요?”

“저희는 아이들 자라는 모습뿐 아니라 개들한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진으로 남겨놓는 게 큰 낙이랍니다. 취미도 되고요. 상이나 임명

장 받는 사진도 안 빠트렸는데 혼인이야 인륜지대산걸요. 이렇게 꼭 기록을 남기다 보니, 기록 때문에라도 할 건 다 하고 살아야지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진첩을 정리하다 보니 신혼여행 못 보낸 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못 보내다니요, 저희가 안 가겠다고 해서 우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던가요?”

그녀는 계속해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정색을 하고 따졌다. 결혼식을 마침 바캉스 시즌에 치렀을 뿐 아니라, 유학 갈 날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이라 채훈이는 채훈이대로 수정이는 수정이대로 각각 일이 많았다. 비자도 새로 내야하고, 짐도 배로 미리 부쳐야 하고, 운전면허도 갱신해야 하고, 이런저런 해결 안 된 일 때문에 마음들이 한갓지지 않아 신혼여행은 미국 가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서 며칠 쉬다 가는 걸로 대신하겠다고 저희끼리 합의하고 양쪽 부모는 통고만 받았는데 지금 와서 웬 트집인가 싶었다.

“그러문요, 그러문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양가가 다 언제 또 해볼 것도 아닌 마지막 자식 경사가 아닙니까. 남하는대로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졸업식 끝나는 대로 제주도로 삼박 사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도록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개네들은 모르고 있어요. 놀래켜주려구요. 까다로운 절차도 다 끝나고 모처럼 여유가 생겼으니 좋아할 거예요. 여행 다녀오자마자 다시 비행기 타야 하는 게 안됐지만 사나흘이라도 할일없이 서울에서 빈둥대면 뭘 합니까? 술친구한테 끌려나가기나 십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겠군요.”

그녀는 자신 속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른 걸 위태롭게 느끼면서 쓰겁

게 대답했다. 안사돈은 무슨 요량인지 핸드백에서 흰 봉투에 든 걸 꺼내서 그 내용물을 살짝 보여주었다. 왕복 항공권과 하얏트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었다. 보여주고 나서 그걸 가볍게 그녀의 무릎 위에다 놓아주면서 속삭이듯 말했다.

“이따가 사부인께서 아이들한테 주세요.”

“왜요?”

그녀는 당장 귀밑이 닳아오르게 놀라면서 물었다.

“아, 아무나 주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명토를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사부인께서 주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저희 쪽에선 따로 여비나 쥐여주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더할 나위없이 상냥하면서도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이 여자의 진의는 뭘까? 잘못된 것도 없이 사람을 남루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안사돈의 수법에 그녀는 걸려 넘어진 것처럼 무참해지고 말았다. 혼란스러워 허둥대는 손길로 무릎 위의 봉투를 사돈 쪽으로 거칠게 밀어놓았다. 그러나 미처 어찌 볼 틈도 없이 그 하얀 봉투는 이번에는 그녀 핸드백의 사이드 포켓 속에 꽂혔다. 민첩하고도 우아한 손놀림이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스스로도 분간 못 할 감정이 모닥불처럼 그녀의 표정을 달구었다. 하필 그때 졸업식이 끝나고 하객들은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우르르 몰리기 시작했다. 안 넘어지려고 버텨기면서, 정신없이 사람들에게 밀리면서, 밖으로 나오니 오후의 열기가 지글지글한 엿물처럼 엉겨 붙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겹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연발했다. 녹아내리듯이 조금씩 흐느적대는 인파 속에서 남편도, 채정이 내외도, 사돈집 식구들도 찾아질 것 같지 않았다. 그녀가 되는 대로 인파에 밀려난 자리엔 한 뼀 그들도

없어서 그녀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자포자기하게 서 있었다.

그래도 제일 먼저 그녀를 찾아준 것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저만치 큰 느티나무 아래 모여 있는 하객들을 가리키며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큰 소리로 나무라기부터 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아직도 검정 핸드백에, 웨이터 주머니에 꽂힌 풀 먹인 손수건처럼 삼각형으로 뺏뺏하게 꽃힌 봉투가 갑자기 생각나 얼른 안으로 보이지 않게 밀어 넣었다. 남편을 따라 느티나무 아래로 갔다. 거기 다 모여 있었다. 채정이 내외만 겨우 아는 적을 하고 탄 사람들은 채훈이를 둘러싸고 번갈아가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채훈이는 꽃다발과 선물 꾸러미에 묻히다시피해서 바보처럼 싱글거리고 있었다. 식당에서 바깥사돈이 포장을 요란하게 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집에서 주면 댔지 뭐 하러 식당까지 가지고 왔나 다소 아니꼽게 여겼었는데, 다른 친척들도 다들 선물을 준비한 모양이었다. 자식한테도 빈손을 부끄러워해야 되냐? 아무리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해도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다. 어찌면 아까 건네준 흰 봉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우리들의 빈손에 대한 일종의 야유나 동정이 아니었을까.

아들은 그들하고 단체로 또는 삼삼오오 끼리끼리 사진도 찍고 인사치레도 하느라 아직도 정신이 없고, 이쪽의 직사를 자처하고 나선 채정이 까지도 그 사진 찍기 좋아하는 족속한테는 손을 들었는지 중심에서 밀려나 관망을 하고 있었다.

채정이 졸업식 때도 그랬다. 상견례를 겸한 최초의 만남이었는데도 이쪽은 제쳐놓고 저희끼리 채정이를 끼고 돌면서 사진도 찍고, 요리 보고 조리 보면서 귀여움도 표시하고 넌지시 위엄도 보이느라 이쪽은 완전히 잔밥 신세였다. 그래도 그때 별로 분한 줄을 몰랐다. 딸 쪽이니까 으레 그

러려니 했고, 그 밑에 아들이 있으니 아들 가진 쪽은 어떻게 세도를 부려야 되는지를 보고 배울 기회다 싶은 생각도 있었다. 이를테면 마음만 먹으면 몇 곱으로 갚을 수도 있는 복수의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닥 굴욕스럽지 않았다. 또 재학 중에 애인이 생겨 졸업식에 벌써 시집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걸 부러워하는 눈길을 의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랬건만 이게 무슨 꼴이람. 누구누구 나무라 무엇하랴, 내 아들이 저 꼴이니. 그녀는 강력한 권리 주장처럼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주시했다.

재훈이가 마침내 엄마의 시선을 느낀 것 같았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들의 눈길을 그녀는 쨍싸게 낚아챘다. 마치 잡아끌리듯이 재훈이는 곧장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약간 계면쩍은 듯이 웃는 재훈이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바보 같았다. 아들은 엄마를 버려둔 걸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얼른 학사모를 벗어서 그녀의 머리 위에 씌워주려고 했다. 채정이라도 이제야 자기가 나설 차례가 왔다는 듯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러나 그녀는 온몸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학사모에서 벗어났다. 엄마를 뭘로 보니? 그러나 그런 말이 미처 나오기 전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래 임자, 좋으면 좋다고 그럴 것이지, 괜시리 암상은 부리고 그래, 이 좋은 날. 훈아, 느이 엄만 싫단다. 나나 좀 써보자. 그 뭐시다냐, 학사모가 똥인가…….”

머쓱해 있던 재훈이가 구원받은 듯 아버지 머리 위에 학사모를 올려놔 주고 정답게 팔짱을 껴다. 채정이뿐 아니라 사돈네 식구 중 카메라 가지는 몽땅 무슨 살판이나 난 것처럼 일제히 효자 아들과 장한 아버지를 겨냥해 초점을 맞추었다. 졸지에 남편은 스타가 되었다. 남편은 마치 소 팔고 땅 팔아 대학 졸업시킨 70년대 농사꾼처럼 멍청하고도 순진하게 사

진을 찍히고 또 찍혔다. 저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정서방이 하루빨리 미국서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서 아버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덕담도 흐르려졌다. 다시 분위기는 화기에애해졌고 시간은 야비다리를 피우며 흘러갔다.

누군가가, 연못가도 좋고, 민주학생 기념탑이 있는 노천극장 주변은 또 얼마나 좋은데 주변머리도 없지, 여기가 뭐가 좋아서 꼼짝을 못 하고 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또 찍느냐고, 그들의 사진 찍기에 제동을 걸었다. 그 말에 아무도 이의가 없었던지 대식구가 웅성거리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경치 좋은 곳을 향해 이동을 시작했다. 자연히 그 집 식구는 그 집 식구끼리, 이 집 식구는 이 집 식구끼리 어울려서 걷고, 채훈이는 양쪽 눈치를 다 보느라 엄마 곁에 붙었다가 장모 곁에 붙었다가 하느라고 요령껏 걸음을 조절하고 있었다. 복새통이 더 심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양가 식구들은 서로 놓칠 뻔하다가도 채훈이가 이어줘서 서로 못 찾는 불상사는 안 일어났다. 장모 곁에서 뭐라고 정답게 소곤거리던 재훈이가 어느 틈에 그녀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알랑거리는 버릇을 어디서 배웠을까 징그러워서 눈을 보양게 흘려주며 뿌리치곤 했다. 노천극장에서는 마침 재학생들이 마당놀이 연습을 하고 있어서 기념탑 근처는 인산인해였다. 슬쩍 자리를 피하기에는 알맞은 장소다 싶었다. 안사돈은 아마 그 동안에 봉투가 자리를 옮긴 줄 알 것이다. 그 동안에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충분했으니까.

그녀도 줄창 핸드백 바깥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봉투를 의식 안 한 건 아니었다. 의식 안 할 도리가 없었다. 그건 줄창 내복에 달라붙은 가시처럼 그녀의 의식을 편안치 못하게 했으니까. 그녀는 사돈네 식구들과 채훈이가 함께 보이지 않는 틈을 타 남편의 소매를 힘차게 잡아끌었다. 돌

연 떠오른 생각이 결정적 기회와 맞물렸다.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녀는 자신의 생뚱한 생각에 놀라서 가슴이 두방망이질하고 다리가 후들댔다. 그러나 탈출에 성공한 걸 알자 돈을 갖고 튀는 악당 같은 스틸과 쾌감으로 온몸이 파열 직전의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건 쾌감이 아니라 살(煞)인지도 몰랐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살처럼 뻗치는 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남을 해코지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어찌나 좋은지,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어금니를 물었다.

남편은 끌려오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꾸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화장실이라도 찾는 줄 아는지 남편은 순순히 따라왔다. 교문이 보이는 데까지 와서야 그녀는 헛된 흥분을 가라앉히고 덤덤히 말했다.

“우리가 자리를 비켜주려고 그랬어요. 처가에서 채훈이 내외를 오늘 제주도로 여행을 보낸다는군요. 졸업축하 겸 신혼여행 겸이라나요. 우리가 있으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길게 인사해야 하고, 떠나보낸 후엔 양가가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헤어져야 할 것처럼 미적거리야 하고, 아직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래, 참 사돈댁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먼. 그래도 그렇지 잠깐이라도 인사를 하고 오는 게 도리지, 우리가 길 잃어버린 줄 알고 찾으면 어떡하라고.”

“걱정 말아요. 아까부터 내가 눈치쫓으니까 채훈이는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적당히 둘러대겠죠, 뭐.”

“우리가 용돈이라도 쥐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소만…….”

남편의 나중 말엔 다소 빈정거리는 투가 섞여 있었다. 어차피 손발이

맞아서 저지른 일도 아니건만 그녀는 울컥 야속했다. 그리고 아들 머느리의 즐거움을 잠시 훼방 놓거나 하루쯤 유예하는 데 불과한 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소모한 줌 전의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으로부터도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은 여지껏 겪어본 어떤 외로움하고도 닮지 않은 이상한 외로움이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지만 하는 데까지 해볼 작정이었다. 몸을 달구던 정열은 환각처럼 온데간데없었지만 훼방놓고 싶은 심술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었다.

“우리끼리지만 저녁이라도 먹고 헤어집시다.”

남편의 제안은 전혀 은근하지 않고 사무적이었다.

“이렇게 해가 높다란데요?”

살땀한 해는 어찌자고 아직도 지칠 줄 모르고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입추 처서 다 지났다고는 믿기 어려운 더위였다.

“그래도 한 끼 때우고 들어가는 게 안 낫겠소. 혼자 밥 해먹는 게 얼마나 을씨년스럽다고…….”

어찌자고 이 남자는 이렇게 정직한 걸까. 그녀는 남편의 촌스러움, 초라함, 변변치 못함이 다 겉에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혼자서 밥 해먹은 티만 같이 여겨져 바로 보기가 싫었다.

“오늘은 당신 따라서 바라니나 한번 가볼래요. 왜 그렇게 놀라요? 내가 어디 못 갈 데 가본다고 했어요?”

바라니란 남편이 자리 잡은 동네 이름이었다. 채정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 채정이는 동네 이름이 참 예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았었다. 행여나 누가 찾아오나 고개를 길게 빼고 동구 밖만 바라보고 있는 늙은이들 모습이 떠올라서였다.

남편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금방 덤덤해지더니 전철을 타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말없이 남편 뒤를 따랐다. 상실감을 메우려고 너무 허둥거리고 있는 자신이 딱했지만 어차피 오늘은 빗나가기 시작한 거, 가는 데까지 가볼 작정이었다.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전철 노선은 오래된 노선보다 한결 시원하고 정결했다. 왕십리에서 국철로 갈아타고 종점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야 한다고 남편은 양해를 구하듯이 앞으로 이용할 교통편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듣는 척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었다. 남편보다 더 서울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어렵게 확보해놓은 단골을 잃게 될까봐 처음 자리 잡은 가게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었다. 주로 아파트에 사는 단골들은 물론 자주 바뀌었다. 잃은 만큼 얻어지는 게 단골이었으니 단골이 꾸준히 있다는 게 중요하지 단골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을 빠삭하게 꿰뚫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단골들 덕이었다. 그녀는 좁은 가게 안을 요령껏 편안하게 꾸미고 단골들이 필요한 것 없이도 들러서 수다를 떨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다. 근처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고 나서 그녀의 가게 앞은 백화점 버스정류장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가게에 들어와서 구경하는 척하다가 백화점 버스가 오면 냉큼 나가 타던 단골들이 이제는 탈 때도 내릴 때도 그녀의 가게를 못 본 척하게 됐다. 마치 거기 가게가 없는 것처럼.

국철로 갈아타기 위해 계단을 여러 번 올라가야 했다. 마지막으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은 좁고 숨어 있듯이 외진 데 있었다. 지상은 아직도 해가 지기 전이었다. 고층건물 모서리에 걸려 있는 석양은 팔한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찌자고 국철을 기다리는 정류장엔 해가리개 하나 없는 노천이었다. 차를 태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정류장이다 싶었다. 그러나 햇별이 온종일 달균 시멘트바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하건 전혀 개의치 않겠

다는 듯 방기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남편의 대머리가 둔탁하게 빛나면서 다시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다. 만지면 송진처럼 찝득할 것 같은 땀이었다. 생각만 해도 싫어서 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국철은 전철처럼 자주 오는 게 아닌 모양이었다. 시멘트 기둥에 열차 시간표가 써 있었다. 이십 분에 한 번씩 오기로 돼 있었다. 그녀는 이걸 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굴욕을 견디는 거라고 생각했다.

잠고 기다린 보람은 있어서 국철 안도 지하철 안과 다름없이 서늘했다. 그러나 국철 구간의 풍경은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낯설었다. 시골 같지도 않고, 도시 같지도 않은, 단지 버려진 것 같은 들판으로는 걸쭉하게 썩은 냇강이 흐르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굽은 다리를 받쳐주기 위한 육중한 시멘트 기둥들이 질척한 늪지대에 괴기스럽게 뿌리내리고 있기도 했다. 녹슨 쇠붙이, 썩은 널빤지가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 사이를 비집고 기승스럽게 자라는 풀들은 독초처럼 잔뜩 약이 올라 저만치 폐가처럼 썰렁한 집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갑자기 네모난 단층집 동네가 철로에 닿을 듯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다. 빨래가 널린 옥상과 백일홍, 맨드라미가 빨갭게 피는 마당이 사람 사는 동네다운데, 서운케도 열차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동네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깨달음처럼 국철 구간하고 남편이 어찌면 그렇게 닳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 승객하고는 인종이 다른 것처럼 이상해 보였다. 남편은 자는지, 자는 척하는지 편안히 눈을 감고 있었다.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그녀에게 아들을 빼앗긴 상실감은 마치 허방을 밟은 것처럼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순탄한 길을 걷다가도 휘청거릴 나이에 이런 허방이 숨

어 있을 줄이야. 허방치고는 너무도 깊은 허방이었다. 그녀는 한없이 추락중인 삶의 허방에서 움켜쥔 한 가닥의 지푸라기를 바라보듯이 어이없어하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곧 많이 내리는 역에서 그녀는 뭔가 참을 수 없는 기분으로 남편을 흔들었다. 얼떨결에 밖으로 따라 나온 남편은 한 정거장 더 가야 종점이라면서 다시 타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충충다리 쪽으로 거세게 잡아끌며 말했다.

“갈 데가 있어서 그래요.”

“어딜, 별안간?”

“그애들은 오늘 신혼여행 가서 마냥 재미볼 거 아냐? 우리도 기분 좀 내봅시다. 바라니에 가봤댔자 모기밖에 누가 우릴 반겨주겠어요.”

재정이가 바라니 갈 때마다 모기약을 사 나르던 생각을 하며 말했다.

“바라니로 가잔 것은 당신이었소?”

남편이 침착하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횡하니 앞장을 서더니 돼지갈비 집으로 들어갔다. 에어컨 대신 천장에서 옛날 비행기 프로펠러처럼 생긴 선풍기가 돌아가는 집이었다. 식탁마다 지글대는 불갈비 위로 후드가 바싹 내려와 있건만도 넓은 홀이 연기로 매개했다. 마침 저녁시간이기 때문인지, 혹시 잘하기로 소문난 집인지, 거의 빈자리 없이 시끌시끌하고 활기차 보였다. 남편이 어릿어릿하지 않고 익숙하게 구는 것도 보기에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재미 좀 보자는 걸 겨우 돼지갈비 정도로 이해한 남편을 속으로는 한심해하면서도 수곳이 따른 것은 별안간 의식하게 된 심한 허기증 때문이었다. 근수로 주문한 돼지갈비와, 숯불이 이글대는 풍로와, 밀반찬만 갖다 줄 뿐 나머지 일은 다 셀프서비스였다. 남편은 알맞게 익은 갈비를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옮겨주는 일에서부터

석쇠를 새걸로 가는 일까지 하나도 그녀에게 안 시키고 척척 혼자서 잘 했다. 가끔 영양 보충하러 오는 싸고 잘하는 집이란 설명도 했다.

옷서부터 머리카락까지 돼지갈비 냄새에 폭 절 만큼 포식을 하고 나오면서 남편은 이렇게 먹어도 계산은 얼마 안 나온다고 또 한 번 짤 타령을 했다. 그런 남편을 돌아보지도 않고 앞서 나온 그녀는 마침 갈비 집 앞에서 손님을 내려놓은 택시를 잡고는 남편을 손짓해 불러 먼저 밀어 넣었다. 열떨결에 올라탄 남편 곁에 앉자 어디 경치 좋은 러브호텔로 가자고 외는 하나 까닥 안 하고 말했다. 러브에다 유난히 힘을 주어 말하고 나서, “당신 그런 데 처음이죠?” 했다.

“당신은 처음이 아닌 것처럼 구는구려.”

“그래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녀는 오금을 박듯이 힘주어 말했다. 그런 데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걸 서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어느 한쪽이 거기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고 해도 바람피우러 들어간다는 의심도 안 할 위인들이었다.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좋은 부부란 말인가. 왜 이 지경까지 되고 만 것일까. 스산한 낭패감으로 잔뜩 추스렸던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다행히 택시를 한강이 바라보이는 별장 풍의 삼층집 앞에 대운 운전기사의 태도만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늙은 잡것들 대하듯 했다. 마냥 끌고 다닌 끝이었다.

그래도 앞장서서 택시 값도 치르고 프런트로 간 것은 남편이었다. 잠시 쉬었다 가시게요? 아니오, 하룻밤 묵어갔으면 하오, 하는 소리에 고개를 붉히며 그녀는 돌아서서 복도 끝 창밖으로 그제서야 해가 지고 말간 맨얼굴을 드러낸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돈도 많구려.”

키를 받아든 남편을 쫄레쫄레 따라가다가 이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꺾이는 곳에서 멈춰선 그녀는 약간 시비조로 말했다. 세상에 없는 구두쇠로만 알아온 남편이 저녁 값은 물론 호텔비까지 선선히 지불한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여유 있는 돈이 있을 턱이 없는 남편이었으므로 구두쇠 노릇을 민망하게 여길지언정 미워한 적은 없었다. 서로 의심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안 남은 무관심한 부부 사이건만 돈 문제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민감하다는 데 그녀는 스스로도 놀라고 한편 부끄러웠다.

“채훈이 졸업식 아닌감. 사돈댁하고 식사라도 같이하게 되면 내가 낼려고 벌써 얼마 전부터 여축해온 돈이라오.”

남편의 쓸쓸한 듯, 담담한 대답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실내는 어둑시근하고 쾌적할 뿐 상상한 것처럼 야하진 않았다. 한강과 대안의 언덕에 산재한 별장인지 호텔인지 모를 아름다운 집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잔디가 곱게 다듬어진 이 집 정원도 그 꼬트머리에 서면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을 것처럼 한강하고 가까웠다. 그녀는 오래도록 창가에 서서 남편의 사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바깥을 내다보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돌아보다가 그녀는 예구머니, 소리를 지를 뻔하게 놀라면서 얼굴을 돌렸다. 팬티만 입은 남편의 하체가 보기 흥했다. 넓적다리에 약간 남은 살은 물주머니처럼 축 처져 있고, 툭 볼거진 무릎 아래 털이 등성등성한 정강이는 몽둥이처럼 깡말라 보였다. 순간적으로 닭살이 돋을 것처럼 혐오스러웠다. 징그러운 것하고도 달랐다. 징그럽다는 느낌에는 그래도 약간의 윤기가 있게 마련인데, 이건 군더더기 없는 혐오 그 자체였다. 살을 대고 산 적이 있는 부부 사이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같이 살 때도 살가운 부부는 아니었다. 남편은 그때도 여름이

면 집에 들어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길 잘했다. 이다음에 머느리 얻어도 당신 때문에 같이 살긴 틀렸다고, 남편의 그런 버릇을 걱정한 적은 있어도 보기 싫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렇다고 매력 있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구닥다리 장롱이나, 책상, 밥상 보듯, 있을 게 있을 자리에 있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무심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느낌에 놀란 김에 그녀가 황황히 생각해낸 게 안사돈한테 받은 하얀 봉투였다. 바로 눈앞에 전화기가 보였다. 오늘 안에 전화는 해야 된다는 것은, 그녀가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던 각본이었지만 당장 떠오른 생각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전화를 받은 것은 안사돈이었다. 그녀는 인사말 제쳐놓고 호들갑부터 떨었다.

“이를 어쩍니까? 사부인. 아이들한테 그걸 전하는 걸 그만 깜박 잊어버렸지 뭐니까? 우리집 어른이 어찌나 서두르시는지요. 오늘 같은 날은 글썄, 아들을 처갓댁에서 독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피하는 게 예의라고 그러시지 뭐니까? 우리가 끼면 거북해하실 거라나요. 워낙 신식이 지나치신 어른이시거든요. 그 어른은 그 어른대로 계획이 있으셨나봐요. 저 지금 청평에 있는 그 어른 친구 분 별장에 와 있어요. 혼자서 농장에서 지내실 때가 많아서 서울만 오시면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이렇게 주책을 부리시지 뭐니까. 어머, 이를 어찌나, 급한 전화 걸고 또 탄소리네.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떡하고 있나요. 제가 이걸 갖고 있으니 여행도 못 떠났을 테고……. 내일도 유효하겠지요? 이 비행기표랑 쿠폰이랑, 내일 일찍 서울로 갈 테니 우리 가게로 채훈이를 보내세요. 아무리 빠져나오기 급급했어도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해도 한심해 죽겠어요. 그나저나 아이들 일을 망쳐놓았으니 이를 어찌죠.”

“아이고 사부인도 참, 망쳐놓으신 것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예정대로

여행들 떠났습니다. 표 없다고 예약된 게 어디로 가나요. 염려놓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사돈은 야죽거리지도 않고 간결하게 말했다. 간단했지만 무시하는 투는 충분하게 여운이 되어 남아 있었다. 홍보면 닳는다고 오래도록 야죽거린 것은 오히려 이쪽이었다.

이럴 수가…… 그들이 꾸민 자글자글한 행복을 조금 휘방 놓거나 약간의 차질이라도 빚게 하려는 그 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허사가 될 줄이야. 음모를 꾸밀 때의 그 야릇한 쾌감은 간단한 비웃음이 되어 되돌아왔을 뿐이었다. 허망감에다 열등감까지 얹힌 데 덮친다는 건 못 견딜 노릇이었다. 남편의 근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사돈댁한테 무슨 실수한 거 아니요? 변변치 못하게스리.”

“내가 뭘 변변치 못하게 굴었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녀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툭 쏘았다.

“당신 똑똑하지, 무지무지하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채훈이 장모한테 비하니까 변변치 못해 보입디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지 대꾸를 하려면 울음이 섞일 것 같아서 잠자코 있었다. 다시 사뭇 의논성스러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채훈이 전공한 학과가 유학이라도 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밥벌이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내 말리지는 못했소마는 학비를 보탬 일이 큰 걱정이구려. 나는 돈 안 쓰는 재주밖에 없고, 당신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이는 게 미안할 뿐이요.”

“미안할 것 없어요. 개들은 우리가 왜 보태줘요.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우리가 개들한테 뭘 해줬다는 거요?”

“며느리 시집을 때 혼수고 예단이고 다 접으라고 했잖아요. 요새 혼수랑 예단이란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알거나 아시우. 왜 그만두라고 했는지, 그 집에서도 당장 알아듣고 그만큼 팔라로 바꿔 보내겠다고 합디다. 뭇돈 가지고 간 거 다 쓰고 나면 며느리라도 돈벌이하겠쥬, 뭐. 제가 꼬여서 가는 유학인데 그만한 각오도 없이 가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쓰나, 우리가 애끼고 줄여서 다만 얼마라도 다달이 보내보도록 노력을 합시다.”

“노력 좋아하시네. 난 더 아낄 수 없어요. 가게도 장사가 안 돼서 조만간 정리하려고 하니까 내가 벌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마시구요. 정 그러고 싶으시면 당신이나 아껴서 송금을 하든지 미국 구경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구랴.”

“나야말로 얼마나 최소한도로 쓰고 산다는 걸 당신 정말 모르겠쥬?”

그 소리의 슬픈 울림에 통기듯이 그녀는 발딱 일어났다.

“쉬고 계셔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침대에 벌렁 누운 남편을 외면하고 도망치듯 방을 나왔다.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게끔 핸드백은 든 채로 나왔다. 이층 복도는 빈 집처럼 조용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는 가볍게 열렸고, 그 밖에는 잠시 담배라도 피울 수 있는 공간과, 정원으로 통하는 나선형 철제 계단이 설치돼 있었다. 내려와 본 정원은 작은 연못까지 있고, 나무 그늘에는 강을 향해 벤치도 알맞게 배치돼 있었지만 거니는 사람 없이 괴괴했다.

올려다본 삼층집의 방방은 불이 켜진 데도 있고, 깜깜한 데도 있었다. 켜진 방의 불빛도 밝지 않고 은은했다. 오늘 하루 쓰잘데 없이 애만 썼다는 사소한 허전함이, 일생을 헛산 것 같은 거대한 허전함이 되어 그녀를 한없이 미소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럴 줄 알고 뭇가로 메우려고 너

무 허둥댔음일까. 검부러기라도 움켜잡듯이 마지막으로 움켜잡은 확실한 게 떠오르니 고작 남편의 정강이었다. 그건 그와는 도저히 다시 살을 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절망감의 생생한 실체이기도 했다.

오늘 남편을 여기까지 유인한 것은 섹스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이제 그럴 나이도 아니었지만 한창 나이일 때도 둘 다 그런 쾌락을 밝히는 부부는 아니었다. 겨우 관행적인 섹스를 유지하다가 별거로 들어가고는 누가 먼저 그러자고 한 바도 없이 그들은 서로의 몸을 원하거나 그리워하는 일을 안 하게 되었다. 하다못해 스킨십조차 없는 완전히 남남이었다. 스킨십이라도 있었다면 남편의 정강이가 그렇게 싫고 꼴 보기 싫지는 않았을 것이다. 몸을 비비는 행동이 끊긴 것과 그의 몸이 그렇게도 보기 싫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 몸을 비비는 행동이란 그닥 알볼 일도 아니다 싶었다. 그녀가 오늘 느낀 것은 결코 구체적 욕망이 아니었다. 흔히 등을 긁어준다는 식의 스킨십 정도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 거대한 허전함을 메우고 싶어 했다면 그건 욕망보다 크고 아름다운 꿈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가망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 동안 완전히 단절됐던 몸의 만남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렇게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는 미처 몰랐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들기에 충분한 시간을 흐르는 강물을 망연히 바라보는 것으로 보내다가 방으로 되돌아왔다. 방안은 강바람 부는 강변보다 더 시원하고 남편은 침대 덮개도 안 걷어내고 그 위에서 혈령하게 땀아 빠진 팬티만 입은 채 코를 골고 있었다. 보기 싫은 것은 둘째 치고 감기가 들 것 같아 덮어주려고 꽃무늬 덮개 자락을 들추다 말고 어쩔 수 없이 벗은 하체를 가까이 보게 되었다. 모기 물린 자국이 시뻘겋게 한창 약이 오른 것도 있고, 무르스름 가라앉은 것도 있고, 무수했다. 이 말라빠진 정강

이에서 피를 빨다니, 아무리 미물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제 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때가 낀 손톱과 함께 그의 지나치게 초라하고 고달픈 살림살이가 눈에 섰다.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될 만한 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이었다. 스스로 원해서 가부장의 고단한 의무에 마냥 얽매여 있으려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목구멍으로 뜨겁게 치받쳤다. 그녀는 세월의 때가 낀 고가구를 어루만지듯이 남편의 정강이의 모기 물린 자국을 가만가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물 건너 물」

(토요일) 육교 난간 위를 볼링 볼같이 생긴 빨간 공이 푸르르르 굴러간다.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에 멈춰 서 있던 묘순의 시선을 잡고 공은 좁다란 육교 난간 위를 떨어지지도 않고 잘도 구른다. 신기하다, 하다가 묘순은 그것이 공이 아니고 빨간 헬멧이며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육교 위를 달리고 있음을 안다. 길에서 올려다보니까 빨간 헬멧만이 보여 공이 육교 난간 위를 구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깨닫고 묘순은 공으로부터 시선을 떼다. 금년 23세인 묘순은 의료기구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부 사원이다.

오늘 묘순은 머리를 묶고 출근하였다. 아침에 묘순은 어머니 옷의 뒷단추를 올곧지 않은 마음으로 채워 주다가 어머니와 안 좋게 하고 집을 나와서 기분이 밝지가 못하다.

묘순이 사무실로 들어오니 닷새 전에 수출부에서 이곳 영업부로 오게 된 조혜연은 전화를 걸고 있다. 묘순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김부장은 외출하고 없고 사무실에는 미스 조혜연 뿐이다. 창턱에 놓인 조그만 화분에는 희생적으로 꽃을 많이 피운 화초가 한 그루 들어 있다. 묘순은 책상

에 앉아서 일을 떠들고 조혜연은 묘순에게 알은 체도 않고 전화를 계속 한다.

「.....그렇다지만 오빠, 오빠는 이제야 사회의 문 앞에 섰어요. 사고 방식 좀 고치세요. 지긋지긋했던 아버지 같은 지배사상이 오빠에게 다분히 베어 있어요. 지금 이 지적을 가지고 속상하다 속상하다 하면은 제대하고 취직하구 어떻게 집에서 살죠? 매일을 속씩는다 하면서 살 것 아니요? 요걸 갖구 그러시면 정말 이답이 걱정돼요. 나는 뭐 편하게 회사 다니는 줄 아세요? 가시방석이라구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사하여 근무경력 십오 년이 넘는 조혜연을 회사에서는 사직하라는 뜻으로 영업부로 발령을 냈는데 회사측의 예상을 뒤엎고 그녀는 영어부로 와서 닷새 전부터 묘순과 책상을 마주하고 있다. 조혜연은 매일 출근하지만 회사에서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놀아야 하는 고역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묘순은 조혜연 앞에서 일하기가 괴로운 입장이다.

「.....엄마 거기 있어요? 오빠, 엄마 좀 바꿔 봐요. 엄마예요? 엄마는 자식 핑계 대고 매사를 그렇게 처리 안한 적이 있어요? 왜 고생 덩어리들을 그림 낳았나요? 그것을 왜 고생이라고 합니까? 또 있어요. 엄마는 돈이면 다예요?돈돈돈돈돈..... 지금도 또 그러시지 않아요. 돈돈하며 앉았지만 돈에 만족을 못하고 욕심만 많아요. 엄마 돈에 정신을 몽땅 빼졌어. 난 그게 싫어요. 조봐 또 그러시네. 이년아 너희들 때문에 난 돈이 있어야 된다 말야. 네까짓 게 그걸 알기나 하니? 그게 말이 돼요? 엄마, 내가 얼마나 돈 벌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애끼구 사는데, 아 이 난 돈소리 좀 안 듣고 살고 싶어요. 엄마는 돈의 노예가 됐을 뿐이에요..... 엄마 나에게 정을 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뿐 아니라 우리

형제 전부에게. 그럼 끊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 전화를 못 걸겠어요.…… 누가 나보고 엄마를 닮았다면 나는 참 싫어요. 불효막심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엄마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구 그 엄마보담 좀 다른 데가 있다는 평이 좋아요. 엄마와 똑같기는 어쨌건 싫다구요. 엄마두 이런 딸의 솔직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분별력은 쉬지를 않아요. 나는 할 일 안할 일을 딱딱 구별하여 하구……또 안하기두 해요. 얼마 전에 길에서 어느 모녀를 봤어요. 딸은 나 또래, 시집도 간 여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 엄마는 엄마 또래더라구요. 유난히 정다워 보였어요. 엄마와 딸은 눈 속을 들여다보며 시종일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녀를 잃고 보다가 행인들이 저쪽에서 나를 뵈히 구경하는 바람에 내가 왜 이러나 하구 제정신이 들었어요. 딸은 장난삼아 서성이며 뱅글뱅글 돌며 얘기하고 엄마는 연방 파라솔로 딸을 따라 돌아가며 햇빛을 가려 주었어요. 우리 엄마는 어땠나요? 엄마는 나를 쳐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나도 자연히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나도 나 자신에게 타일러요. 넌 집안이 어떻게 저떻구 하면서 열등감을 갖지 않았냐, 집안이 어떠면 어떠니? 너의 젊음이 그렇다고 해서 좌절될 건 없는 게 아닐까, 허지만 엄마, 나는 조그마한 이웃 때문에 뭔지 모르게 자신을 일고 말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티없이 맑은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흠일지라도 고치고 매만져서 말끔히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찌어진 나를 세상은 꿰뚫어 보고 식구조차도 더러운 눈으로 보아 주니 다시 또 외로워지고 모두 싫어지는 거예요. 우선은 사람은 극단적이어서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자일수록 이용당하기 쉽고 손해 볼 때가 많아요. 말과 글과 행동은 항상 침착한 것이 좋아요. 옆에서 화산이 터질지라도 여유 있는 행동이 필요해요.

나 역시, 그리고 엄마 역시 좀 고상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곧잘 점잖게 살다가도 참을 수 없는 경우엔 폭발을 하고 마니 사고예요 사고. 아무나 욕을 해주고 싶고 맘껏 지껄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나를 내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발악을 하려는 것일까? 아니예요. 나의 불행은 불행하였다는 의식밖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부인하며 불행하지 않았고 불행하지도 않으며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요. 나는 언제이든 간에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에 행복해질 거예요. 나의 소원은 나를 모른 채, 나를 잊어버리는 것……. 엄마 민재 오늘 하교 바루 갔나 학교에다가 알아봤어요? 제 말로는 성루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라지만 뻔해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미적거리다가 모든 식구가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억지로 등교했어요. 배지, 학년표, 명찰을 흘랑 까먹었는지 감췄는지 한참 찾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 불만이 많고 집에서 잘해 주니까 민재가 집에 파묻히려는 수작이에요. 절대 안돼요. 전례를 보드라두 또 나를 보드라두 낫잠을 자는 한이 있어두 학교는 가야 해요. 여기 사람이 있어서 엄마,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모하겠어요. 끊어요, 끊어.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요.」

조혜연이 말하는 ‘사람’이란 바로 자신임을 묘순은 알 수 있다. 조혜연이 전화를 끊자 사무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돈다.

조금 있다가 조혜연은 또 어딘가에 저화를 건다.

「여보세요, 이경호시 제십니까? …… 네에 그래요? 댁은 누구시죠?……알겠습니다.」

미스 조혜연이 수화기를 놓자 묘순은 요기를 내어 말을 건다.

「언니, 차 하실래요?」

「지금 근무시간이에요. 알아두세요.」

「네.」

조혜연은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어 무엇을 쓰기 시작한다. 눈은 빛나고 손은 빠르다.

「여보세요, 이경호씨. 아까부터 이것저것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져 분 화구마냥 폭발해 버리구만 싫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그리 비쌌어요. 왜 이름을 감추느냔 말야. 어리석구 못난 놈아. 이경호씨! 이경호씨! 이 양반 이 어디 갔나 하구 당신 이름을 불러대서 찾으면 사람들이 뭐랄 것 같어요? 저런 덜된 놈, 제놈을 제가 찾네 할 것 안Pdy. 전화 받는 이는 누구시죠? 내가 그랬을 때 네에, 새루 온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은 인제 자기 이름도 잊어 버린 멍충이가 됐어요? 당신이 거기 사무실에서 수치 당할 짓을 하면 난 참을 수가 없어진다구요. 왜 그렇게 덜됐나요? 설익었나요? 인제 좀 나아졌나 했더니 아직두 고 모양이요. 내가 그렇게두 무서워요? 내가 뭐 어쩐다구 무서워해요? 당신 제발 좀, 제발 좀 비열하지 말아요. 예예, 나 아무개요. 예, 바루 납니다. 지금 전화 받는 사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혜연씨군요. 왜 이 정도의 남자가 못되는가 말이요? 왜 밤낮 비실거리느냐 말예요. 여러 사람앞에서 활발해졌다고 나한테 그러더니만 그건 실없어졌다는 것밖에 안된 거였어요.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인격을 갖추어야지 나 역시 인격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까지 인격자의 행세를 해왔고 대범한 척 남자다운 척 살아왔지만 당신 본바탕은 하나도 발전하지 못한 채 그대로인거요. 당신은 나만 욕하지 말구, 뭐 서루 욕지거리한 거니까 피장파장이지만 좀 솔직해지란 말이에요. 어언 너와 나의 세월이 4년째로 접어드는구나. 좀 묘하다면 묘한 것이 우리의 정신상태겠다. 우리의 정신적인 투쟁 또한 기묘한 상태에서 아직도 전쟁 마당을 떠나지 못하고 있나 보다. 나를 두고 간혹 여자들은,

멋있다, 애 정말 멋진데, 하며 동경에 찬 눈을 내 등에 던진다. 나는 못 들
 은 것 내가 아닌 척 마냥 갈 길을 그냥 간다만 내가 아무리 멋있으면 뭐하
 겠냐. 나는 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의 가치와 인격의 중요함을
 너로부터 알았다. 부질없는 생과 지저분한 인생도 알았고 세상 모두는
 얼마나 저속하며 인생 하나하나에 얼마나 애기가 부여되었는지도 알았
 다. 결국 너나 나는 의식이 없어져야겠다. 의식이 움직이는 한 우리는 고
 통받아야 하는 저주받은 남녀다. 너는 너대로 너를 잊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산다. 나는 또 나대로의 불행을 이겨 보려고 그리고 살아야했기에
 오늘도 너 못지 않은 힘든 노력을 하고 있다. 허지만 너와 내가 이 세상
 에서 자취를 없애지 않는 답에야 어찌 잊겠느냐, 땅속에 똑같이 묻히지 않
 는 답에야 나와 너의 shfuyr이 쉴 수는 없겠구나. 너는 너대루 나는 나대
 루 사는 거지만 우린 결국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야 하는, 또 멀리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나 보다. 난 이제야 너를 알 것 같다. 네 가
 쉬지 않고 내 의식을 괴롭혔고 송충이마냥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겠다. 너는 나를 저주할수록 너 자신이 먼저 저주받았고 나를
 미워할수록 네 자신이 먼저 너를 싫어했을 게다. 그럴 때마다 네 이성
 폭발을 하고 입은 굳게 닫혔겠지만 머리 속에 든 모든 것이 내게로 왔던
 것이다. 난 미련한 황소였다. 나 역시 나를 악한 자로 생각진 않는다. 너
 를 잠시 미워한 것은, 그건 네가 너무도 내 의식 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
 이었다. 일본 일초도 간격없이 나를 말려가며 피를 빨아대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워해도, 또 해도 어딘가에서 신비한 영감을 뿜어대
 며 줄곧 나를 부르는 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억지로라도
 미워하고 애써서라도 멀리하려 하는 나를 너는 막연히 바라보면서 차마
 오라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보고만 있다. 나는 제가 찢어죽이고 싶도록

미우면서도 이렇게 막상 대화를 나누자면 미운 감정은 사라지고 가슴이
 장백해온다. 얼굴 근육이 경련하며 입술이 떨려 말이 잘 안 나온다. 나는
 나의 이성을 믿는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분별을 잃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다는 것을……。 허나 네 앞에서만은 왜 이다지도 이성이 감정에 젖어드
 는 것일까? 결국 종말에는 너의 포로가 되어 너에게 정복되고 말려는지,
 너에게 죽임당하여야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순간을 뼈아프게 기다린
 다. 기다리는 마음은 두려움에 차 있고 한 발씩 다가오는 무서움의 순간
 을 기쁨으로 생각하려고 모질게 마음먹어 본다. 아니! 아니! 난 너를 무서
 워하지 않는다. 네 앞에서 떨리지도 않으며 너에게 현혹되지 않을 것이
 다. 너는 나에게 잔인스럽게 다가설 것이며 달래고 캐묻고 때려 주겠지
 만 결단코 의식이 있는 한은 나는 너에게 정복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믿
 고 곧히 잠들어 버린다. 너는 잠자는 사이에 악마가 되어 나를 또다시 죽
 이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는 모한다. 인격이 너를 만류할
 테니까, 아 - 죽음이 두렵지만 하루속히 의식을 버리고 싶다. 어서 빨리
 당신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싶다. 이제라도 당신에게만 내 전부를 뺏겨
 보고 싶다. 이 몸뚱이 하나를 당신을 위해서 살게 했으므로 너와 나의 날
 을 벅차게 기다리며 아무것에도 흥미를 갖지 않겠다. 아무의 친절도 받
 지 않겠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다. 거기에 따른 추억 또한 많겠지만
 내게는 그 첫사랑이 없다. 추억도 없다. 오로지 피 흘리게 가슴 아픈 현재
 만 있다.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겠고 사랑을 원하지도 않으며. 오직 사람
 됨이 완전하여 완전의 극치를 이루어 보려는 지금 너의 노력에 대응해서
 만 살겠다. 너와 똑같은 자가 되어 너와만 어울려 보겠다. 그날까지라도
 우린 살아야 한다. 정신의 피로쯤은 긴장쯤은 이겨내야만 한다. 극복해
 야만 한다. 너는 전에는 곧잘 성실한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로

그토록 자기 직무에 소홀해졌다. 그래두 할 일은 다하고 다닐 테지만, 그리고 몸이야 건강해야겠지만, 직장을 지키는 것이 직업인의 도리가 아닐까. 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되도록 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직무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어제두 보니 아파서 일찍 나갔다고 한다. 어린애처럼 쫓, 쫓, 건강하더니 어느새 그 모양이 됐어요. 하긴 뭐 나 역시 큰소리 못 친다. 요즘은 회사에서 일거리도 주지 않고 거지같은 책상 하나 구석에다 놓아 주었다. 나는 앉아 있다가 졸리면 그 자리에 엎드려 자곤 한다.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이 의식이 괴로워서 나는 일부러 잠을 청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죽지 못 한다…….」

조혜연은 그 무엇인가를 단숨에 갈기듯이 써 나가고 묘순은 그녀가 무엇을 쓰거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단지 조혜연이 격앙된 감정에 휘몰리고 있는 것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벽에 걸린 둥근 시계는 쉬징 s하고 가고 있다. 모든 것 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무것에도 부딪치지 않고 시간과 날들은 현기증이 나게 흐른다. 금방 월요일인 듯했는데 어느새 토요일이 되어 있다.

묘순은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며 살아 있는데 자신의 주변은 항상 같으므로 가끔씩 쿵 심장이 내려앉는다. 묘순은 자기의 인생이라고 할 그 무엇을 만나고 싶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산 채 묻혀 버린 것일가. 아니면 달걀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떠오르는 내면의 의문을 외면하고 묘순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맞은편으로 보이는 공장건물의 유리창문 안에는 인간의 형체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여 다니고 있다. 저 아래 길을 걸어가 는 사람들이 그들보다는 빛깔있게 다가오지만 역시 움직이는 인형같고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묘순은 요새 이상한 생각이 든다. 자기가 자기

같지 않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홀라당 삼키고는 흔적없이 있는 사람 같다. 자기라는 것마저 자기 안에 온전히 있지 않고 자기 밖에 있는 것 같고, 이상한 요즈음이다. 마음이 전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오후 세 시쯤에 외출한 영업부장으로부터 묘순에게 전화가 온다. 오늘은 다시 회사로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퇴근시간이 되면 책상정리 좀 해주고 그냥 퇴근하라고 말한다. 조혜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묘순은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시간 되면 우리끼리 퇴근하래요」 말한다. 조혜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

여섯 시 퇴근 후에 묘순은 미도파 백화점에서 노란 블라우스를 산다. 허기가 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것 같은 중에서도 블라우스를 사고 구두 굽도 고친다. 월요일에는 어떻게든 새 기분이 되어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묘순은 옷에서 생명을 느끼고 가진 옷을 잘 간수하고 아끼며 입었다.

(일요일) 어두컴컴한 새벽에 묘순은 눈을 뜬다. 자명종 시계를 보며 출근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나 하다가 오늘이 일요일임을 깨닫는다. 기뻐진다. 묘순은 다시 이불을 끌어 덮고 눕는다.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신문이 떨어지는 소리가 가까워진다. 묘순의 방은 복도에 면해 있어 발자국 소리는 귀 밑에서 나는 것만 같다. 그 소리는 다시 복도를 따라 떨어지고 개 짖는 소리, 목을 찢는 듯한 고양이와 아우성, 창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신문을 던지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린다. 신문이 복도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역시 이번에도 조짐을 밟는 듯 달려오고 달려가는 발소리이다. 신문 하나는 정기구독이고 또 하나의 신문은 구독을 강요하며 막무가내로 던지고 간다. 신문사

지국에다가 항의와 애원을 번갈아 해도 날마다 내던지고 가는 또 하나의 신문이 마을에 무겁게 얹힌다. 이런 것 하나 뜻대로 못하나, 신문의 무게를 밀치며 묘순은 다시 잠을 청한다. 눈을 떴을 때는 아침 여덟 시다. 날이 흐려 있다.

묘순의 잠을 깨울까 봐 마루를 조심스러이 왔다갔다하던 어머니가 일어난 묘순을 보고 반긴다. 어머니는 마시던 찻잔을 들고 다니다가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난다. 파르스름한 스토브의 불길은 부드럽게 피어올라 찌개냄비의 밑바닥을 핏고 있다. 가스불을 작게 조절하며 어머니는 시집에서 해먹던 김치찌개 얘기를 한다. 김치에다가 고기 조금, 참기름 한 방울, 고추장 조금, 설탕 조금씩 해서 바가지에서 주물러 독배기에 담고 국물은 바가지를 뜨물로 부셔서 붓는다. 그걸 밥솥에다가 들여 놓는다. 밥이 끓을 때 솥뚜껑을 열고 김치독배기 속을 한 번 휘젓고는 다시 뚜껑을 덮어 찌서 익혀 가지고는 상에 놓아 들여간다. 그때는 풍로가 있으니 방에다가 풍로를 갖다 놓고 숯불 온도를 보아가며 끓인다. 큰 솥에서 밥물이 조금씩 독배기로 넘어 들어가면서 익어서인지 참 맛이 있었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얘기를 대충 들으며 묘순은 방걸레질을 하고 베란다까지 청소한다. 10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산언덕으로 기어오르는 동네가 내려다보인다. 흐린 아침의 풍경 속에 가로등이 아직도 두 군데나 꺼지지 않고 황금덩이같이 빛을 발하고 있다.

주운 겨울, 집들이 벌거벗고 드러났던 마을에 어느덧 나무들이 잎사귀를 펼쳤다. 아카시아나무는 희끗희끗해 보이도록 꽃을 많이 달고 공기를 향기롭게 한다. 일 년 전에 이사 와서 묘순은 이곳의 사계절을 보았다. 여름이 오면 저 동네는 온통 나무이고 그 사이로 지붕들만이 조금씩 나타

났었다.(이하 생략)

『문학사상』, 1994년 9월

「무언가(無言歌)」

달빛이 지구 위로 떨어지는 밤, 한 아이가 마루방에 앉아 장난을 하고 있다. 아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다가 무엇인가에 골똘히 열중하느라 고개를 숙이든가 손을 움직이는 채 목청껏 노래를 부른다. 지구를 지키는 악마와 같이, 무적의 왕, 세계평화, 악마가 지구를 노리고 있다.

이런 구절들이 노래 속에서 툭툭 떨어져 나온다.

가만히 다가가 자세히 보면 아이는 철인 28호 로봇을 가지고 5단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빨강고 하양고 까만 플라스틱으로 조립된 로봇이 비행기도 되었다가 잠수함도 되었다가 로켓이 되기도 한다.

발사 발사 철인 28호 힘내 피신퍼신퍼

아이의 소리 지른다.

로봇이 팔이 꺾이고 머리가 몸속으로 들어가며 다리가 위로 올라오는 가 하면 몸통의 앞뒤가 바뀌기도 한다.

달이 높이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오기까지 오랫동안 놀이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는 싫증이 난 듯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인다. 아이는 베란다 문을 열고 장난감 쌓아 놓은 곳을 헤 짚는다. 그곳에는 각종 로봇들과 장난감 자동차들이 한데 뒤엉켜 고물창고를 연상케 한다.

아이의 이것저것 집어보다가 팽개치듯 놓고 한 귀퉁이에 세워진 매미

채를 집어온다. 매미채는 지난 여름 이후 죽 그곳에 서 있는 탓으로 망사에 뿌우연 먼지가 가득 묻어 있다. 때문에 진달래색 연초록색 노란색 줄무늬 진 망 색깔은 거진 바래어 지금 먼지 빛을 띠고 있다. 아직도 그 색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스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모두 매미채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여름날 한낮으로 넓게 퍼져가는 매미와 쓰르라미의 울음소리, 개울물, 구름 속으로 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함에 따라 개울물 근처의 풍경이 심한 변덕을 부리던 것도 기억할 수 있다.

농염하게 짙은 자연의 색채가 구름의 이동에 따라 햇빛에 반짝이던 초록의 나뭇잎새들, 그 위로 매미채의 그물망이 너울너울 춤추듯 다가가던 거의 영상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러이 곤충채집 식물채집의 네 글자에 대한 인상을 떠올릴 수 있다.

그것은 화판과 흰 도화지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산으로 오르던 때의 느낌과 상통한다고 할까, 일테면 그때 도화지는 완전히 미지였고 이 세계를 향해 열린 하나의 창이었던 것을 당시는 몰랐지만 이제와서 생각할 수 있다.

바람에 펄럭이는 도화지를 조그만 돌멩이로 눌러 놓고 무엇을 그릴까 먼 풍경을 바라보던 때의 느낌, 도화지를 통해서 바라보던 자기만의 세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곤충이나 식물채집에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잠자리의 얇은 그물망 같은 날개와 얼굴보다 더 큰 눈, 그리고 나비의 날개들, 정말로 예쁜 빛깔을 띤 나비의 날개들이 커다란 상자 속에 핀으로 찢려 꽃혔었다. 그곳에 나프탈렌이던가 무엇인가 소독약을 써야 했

고, 그래서 복잡하면서도 말할 수 없이 정교한 어떤 성실성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집을 떠날 때 이 세상에 없는, 있기는 있으되 흔하지 않는 희귀한, 아무도 모르는, 아직 아무도 가져 본 일이 없는 자기만의 그 어떤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의 그 희망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이 세계에 이르도록 그 통로 구실을 해주는 매미채는 그런 것이었을까.

그러나 지금 매미채는 그러한 옛날 일을 표상처럼 간직한 채 도시의 아파트 한 귀퉁이에 먼지를 쓰고 서 있다.

마루방 한쪽에서 여인이 떡국대를 썰고 있다.

떡국대는 약간 딱딱하게 굳어버려 썰기에 좀 힘이 든다.

여인은 탈질을 할 때마다 어깨 힘으로 내려누른다.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 않을뿐더러 제일 힘이 많이 가면서 칼등과 부딪히는 둘째 손가락이 부풀어 올랐다.

하루나 이틀 전쯤만 썰어도 수월했을텐데 시기를 놓쳐 버렸다.

떡은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냉장고에 자리가 없으므로 다 썰어서 항아리 속에 찬물을 붓고 담귀 두어야 한다. 냉장고가 없던 옛 시절에는 그렇게 했다고 한다. 아니면 냉장고 얼음 얼리는 칼에 넣고 얼려 두어야 한다.

떡국대를 썰고 있던 여인이 무심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다가 웃을 터뜨린다. 무엇이랴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만 그녀는 그대로 웃음으로 얼버무린다. 여인은 마구 웃는다. 오랫동안 소리를 내어 웃는다.

떡 썰던 손을 놓고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궁둥이 뒤로 팔을 돌려 들어 안았다가 놓고 궁둥이를 두르리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정신없이 그 동작을 계속한다. 그럴 때마다 매미채에 달린 대나무 막대기가 거북하게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

여인의 의외의 행동에 아이는 깜짝 놀란다.

아이는 망을 쓴 채 망에 달린 대를 질질 끌며 거울을 보기 위해 방으로 간다.

먼지가 푸슬푸슬 마루 위로 흐트러진다.

아이가 거울을 본 모양으로 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려온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생각에 경대에서 물러나 경대 위에 자루 달린 손거울을 들고 마루로 나온다. 아이는 덮어씌워진 망과 막대기 때문에 거북하여 천천히 뒤통뒤통 걷는다.

아이는 여인에게 손거울을 주고 비추어 달라고 한다.

여인은 손거울을 받아 아이에게 비쳐 준다.

아이는 거울 속을 들여다본다. 동그란 거울 속에 형체가 나타난다. 한 마디로 말해 아이의 얼굴을 저주받은 얼굴이다.

매미채의 망이 아이의 동그란 머리통에 겨우 쥘쥘하면서 얼굴을 아무렇게나 내리문지르고 있다. 때문에 눈은 밑으로 감기듯 쳐지고 코는 때부리가 되어 얼굴에 짝 달라붙어 있다. 입술은 안으로 말려들어가 면이 없는, 그냥 얇디 얇은 선이다.

여인의 가슴은 웃으면서도 두근거린다. 이상하게 흥분이 되고 무엇이랄 표현할 길이 없다.

아이가 갑자기 40세쯤 먹어 보인다. 아이는 이상한 주술에 걸려 다시는 그것을 풀 길이 없는 듯 안타까웁다.

40세쯤 먹은 작은 남자, 그것도 비천하게 생긴 작디작은 남자의 이미지가 얼굴이나 몸 전체에서 풍겨온다.

이제 알 것 같다 그 이상함을.

아이의 얼굴이 40세로 변하자 아이의 작은 몸도 40세의 남자 얼굴에 달린 몸으로 변한 것이다.

내복 속에서 빠져나온 그 귀엽던 발목이 갑자기 40세 먹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발목으로 보인 것이다. 그렇게 연하디 연한 아이의 싱그러운 목과 가슴팍 팔모 손 모두가 갑자기 40년의 세월을 지난 몸으로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작고 복 없이 생긴 남자로 변하자 더더욱 이상했던 것이다. 외형이 바뀌자 영혼까지 바뀐 듯이 보인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여인은 흥분되는 가슴을 진정할 길이 없다. 심장이 툭툭 뛰는 소리를 듣는다. 웃음대신 울음이 터질 것 같다.

그것은 시간과 영혼에 대한 슬픔이었을까.

다른 시간대의 다른 영혼의 사람을 갑자기 만난 당황감, 그것도 여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와 그 낯설음이 뒤바뀐 슬픔.

그보다 자신의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색다른 발견 때문이었을까. 아이가 가지고 노는 로봇처럼 그렇게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사람은 누구든 몇 단계의 변신을 할 수 있으며 그 변신이란 한 개의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무수한 가면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영혼 속에 잠겨 있는 수많은 면 중의 어느 한 면이, 그 중에서도 주한 면이 순간 이렇게 저렇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내면 속은 스스로도 길을 찾지 못할 미로와 같지만, 그러나 그

미로는 결코 절망 쪽이 아닌 희망 쪽으로, 인간에 대한 꿈 쪽으로 향해 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이렇게 비천하게 변신한 아이를 본다는 일이 여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여인과 아이가 함께 어느 시간에 발디댈어야 할지 모르도록 갑자기 시간에 추방당한 듯한 느낌 때문이었을까.

우주 로켓이 제 궤도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우주 속을 떠돌아야 한다는 것처럼 그들도 영원히 시간의 밖을 떠돌아야 할까봐 두려운 걸까.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없는 것일까.

아이와 여인이 거기에 앉아 있지만 그것은 시간 속에 앉아 있는 것이며 시간은 순간순간 사라져 버리니 그들도 순간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아이는 또다시 거울을 비쳐달라고 조른다.

아서 아서, 이제 벗어, 이제 벗어야 해, 얼른 벗어 버려. 얼른.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여인은 무엇에 이끌리듯 또 비쳐준다.

아이는 웃고 여인은 아이의 궁둥이를 정신없이 두드려 준다.

그런 동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변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온 달뿐이다.

사람이 살 수 없이 황폐하고 시간도 지구와 다른 곳이지만 그 인력으로 지구를 끌어 잡아당기고 있는 저 달.

달은 후련히 가슴속 빛을 뿜어내고 있다.

그 빛이 지구 위 온누리에 떨어진다.

정거장에서

누구든 서울역에 가본 사람이면 역 광장의 풍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벽작거리며 바빠 걷거나 천천히 걷는다. 또한 무거운 짐을 들었거나 이고 가는 사람도 있다. 조그만 여행백을 든 사람, 007가방을 들고 출장을 떠나는 샐러리맨, 연인들, 젊은이들, 갓 난아기에서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도시사람에서부터 산골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어는 그런 장소다.

떠남과 돌아옴의 장소.

그러나 전날처럼 전송객이나 마중 나온 사람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다.

그만큼 시대가 변해 삶의 양식이 달라진 것이리라.

무용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아직 조명이 켜지기 전에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아이를 업은 아낙이 지나가고 도회의 아이들이 지나가고 연인들이 지나간다. 그들은 무대의 좌우 앞뒤로부터 예측할 수 없이 나와서 지나간다. 그러다가 조명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무용극이 있어야 할 이유인 극의 내용이 전개된다. 그러나 무용극을 주도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애기와는 별개로, 무대 위에서 음악에 맞춰 팔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땀을 뚫고 빙그르르 돌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꼭 장난감 같기만 하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들에게 마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느끼게 된다. 어쩐지 싸아하게 아픈 마음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세계 내에서 오로지 무엇인가 조종되어지는 듯 보인다.

바로 것처럼 이곳 광장의 사람들은 어디로인지 조종되어지는 대로 움직여 역 광장의 이곳 저곳으로 오고 가는 것 같다.

그러나 또한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저기 벵타이를 매고 가는 회사원인 듯싶은 저 한 사람만 보더라도 가족사항은 어떠며 가정형편은 어떤지 더구나 그의 유년시절은 어떤 것이었고, 지금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생활 주변서부터 살펴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지난밤 술을 먹고 어떤 시비가 붙었는지도 모르며 누구에겐가 먹살을 잡혀 초라하게 보기 흉한 꼴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벵타이를-이것은 무슨 남자라는 체면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무리 지난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세수하고 와이셔츠에 벵타이를 매면 사회에서 겉으로 보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매고 이렇게 나와 무슨 일로인가 서울역 광장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겉으로 조종되어지듯 보이는 사람들의 다른 면, 즉 속사정까지 함께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예 한 사람을 따라 가며 끝까지 캐어 본다면 혹 어느 좋은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감명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 속 계급이 사람들의 내면과 어우러져 빚어내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늘 우리의 주변 곳곳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거기 지금 걸어가는 혁명가 타입의 저 남자는 자신의 나이가 내일 모레 50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고 온몸이 불끈 뜨거워지며 아아 벌써 50이라니 역사와 정이 편에서 볼 때 내가 도대체 무얼 했나, 시간이 너무 없구나 시간이, 라고 독백하며 걸음을 더욱 빠르게 떼어 놓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허름한 점퍼 차림의 남자는 바로

그 역사와 정의라는 것을 회의하며 사람들이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625동란을 겪었고, 그리고 광주사태 때 그와 똑같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전경대 버스나 가스 마스크를 쓰고 방패를 든 군인의 모습, 학생데모 대열은 이제 길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거리의 풍물 정도로 되어 버린 것에 그는 씁쓸히 그러나 진정한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저기 걸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는 군에 입대한 애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차를 타는지 모른다. 지뢰가 묻혀 있는 깊은 산골, 해골이 더러 굴러 있기도 한 최전방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변심하려는 마음을 달래어 애써 그 애인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먼 산길을 뚫을 해서 이고 가던 첫 면회 때의 마음을 소중히 살피보면서…….

또 저기 걷고 있는 여인은 자신이 요즈음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지 아니면 그저 돼지처럼 먹고 지내기만 하는지 그것을 문득 생각하는 순간이다. 무엇 하나라도 남을 위해 해준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것 내몸 하나 잘 다스리려 애쓰며 겨우 머리 감고 샤워하고 차려 입고 길바닥에 나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다.

그녀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아파트 문을 나설 때 수위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수도에 칼을 갈고 있는 노인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 노인의 검은 회색조의 전체 모습, 햇빛에 그늘은 얼굴을 숙이고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다. 수도 옆에는 물그릇이 하나 놓이고 노인의 간단한 도구가 든 허름한 가방이 놓여 있었다. 여인은 그 노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었다. 그리고 무언지 훈훈하게 젖어드는 그녀가 잊고 있던 무

엇인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잘 눈에 띄이지 않지만 그녀가 어렸을 때는 목수나 미장이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 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으레 어린이 한두 명이 앉아 구경하고 있었고 그녀도 그 속에 끼어 있곤 했다. 무엇인가를 망치로 두드려 만든다든가 대패로 나무를 깎는 모습 혹은 현 구두를 양 무릎 사이에 끼얹고 못을 박고 가죽을 대어 썰고 해서 새 구두로 고쳐 놓는 모습, 그것들을 앉아서 차근차근 일이 되어가는 순서대로 보는 마음은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일지가 되며 그래서 더욱 재미가 있었다. 일테면 숫돌에 칼을 갈 때 칼이 갈아지는 모양을 보며 이제 물을 추겨야 할 때라고 보는 사람이 생각하면 칼을 가는 사람도 물을 추겼으며 또는 이제는 칼날이 얼마큼 갈렸는지 보았으면 할 때 칼 갈기를 멈추고 두꺼운 손가락을 칼날에 대어보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지금 인간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찾아내었다. 그녀의 마음이 훈훈해졌던 이유를.

그녀는 또 생각한다. 이제 고추장을 맛있게 볶아 누구에게 전해 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참 이상한 시대라고. 돈이 있어야 하고, 빚을 내서라도 세탁기와 소제기 에어컨 전자렌지 자동차를 마련하는 주위를 살펴본다.

또한 저기 걸어가는 노동을 하는 사람인 듯싶은 젊은이는 웬지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며 어디에라도 저항하고 싶다가 어쩔지 힘없이 맥을 놓기도 한다.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비굴한 순간들, 웬지 돈 앞에 무릎 꿇고 돈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우러러 보며 스스로 굽신거리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없이 내부 속에서 터져버리는 것을 느낀다.

그는 스스로 사회적 경쟁에서 낙후되었다고 자인한다. 출생부터 그의

아버지는 하층민이었다.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집 한 칸 장만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우며 새벽별이 질 때부터 다시 달이 떠오를 때까지 일을 해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이 막막함은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는 듯하다. 그가 노력하면 할수록 집값은 더 올라가기만 하며 일생 처자식을 이끌고 전세방을 전전하다가 그의 아이들 역시 자신처럼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노동자 농민들에게도 균형 있는 분배를 바라며 이즈음 늘 데모 대열 속에 앉아 있지만 그렇다고 나 개인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단 말인가. 저기 저 유유히 흐르는 사람들 물결 속에 함께 휩쓸릴 수 있을까.

그는 조금 전 노사분규 데모 속에 앉아 주먹을 휘두를 때와 달리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또한 지금 역 앞 벤치에 앉아서 깡통에 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는 저 여자는 조금 전 역으로 오는 택시에서 들은 라디오 보도, 폐수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공장들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아직 귀에 쟁쟁하다.

어느 공장에선가 핵을 만지던 고무장갑 200여 켤레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고 생생한 그 고무장갑을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사용한 주민들은 절망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 장갑을 끼고 설거지도 하고 콩나물도 씻고 했으니 우리 주민들은 이미 다 몸속에 핵을 넣어 가지고 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또한 여장 사람들은 공장에서 흐르는 폐수로 인해 바다의 고기들이 전부 이상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눈알이 한 짝 없던가 기형의 고기들이 많다고 했다. 자신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기 위해 잡아서 팔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라디오를 들으며 딱 살기 싫음을 느꼈다. 아침 도시락 반찬을 쌀 때마다 느끼는 삶에 대한 싫증, 혐오와도 비슷한 감정이다. 그녀는 점점 아이들

에게 먹일 것이 없으며 더구나 도시락 반찬은 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햄이나 소시지의 제조년월일을 의례적으로 읽을 뿐이다.

또한 저기 아까부터 왔다갔다 하고 있는 눈초리가 이상한 저 청년들은 인신매매단들인가. 성범죄자, 가정파괴범, 사기꾼, 살인강도 그런 사람들도 분명 왔다갔다 하는 사람 중 어딘가에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저기 저 청년, 역 앞 모퉁이에서 웬지 기차표를 접었다 폈다 하며 먼 산 바라보듯 역 광장을 바라보는 저 청년은 이 세상의 마지막 힘은 의지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세상을 바로잡아 보려고 자신의 힘을 던져 놓고 있는지 모른다. 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는 의지임을 그는 알고 있다. 사랑이란 연기나 안개 불꽃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임을 그는 몸소 실천하고 있는 청년인지 모른다. 악의 소굴인 이 세상은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힘으로 뭉쳐져 오 늘도 난파하지 않고 계속 떠오르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겉으로 조종되어지는 듯 마음이 없어 보이는 장난감 같은 역광장의 무리도 실은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처음 쓰던 방향대로 다시 길을 잡아 역 앞 풍경을 살펴보자. 역 앞의 높은 빌딩들, 어디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면 기차 차창으로 보이는 그 빌딩들이 서울임을 말해 주고 그러면 이상하게 아, 하는 안도와 함께 집이 있는 서울을 새삼 그리워하게도 되는, 그 빌딩과 빌딩 뒤에 화려하게 세워진 대형광고판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몇 번이고 오르고 내리고 지하도의 크고 긴 통로를 지나 길디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온다.

그리고는 동서남북 좌우상하를 잠깐 살펴 정신을 차리듯 몸을 한번 추

스리고 나서 감을 잡은 듯 택시정류소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내닫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역 광장은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에게겐 낯익은 풍경이다. 그러면서도 그 근처에 가면 어딘지 낯설고 조금 불결하고 북적대면서도 썰렁하고 왜인지 짜증스럽고 안타까운 기분이 엇갈리는 경험도 했을 것이다.

길을 건너려 해도 어디로 건너야 하는지 모르겠고 길 건너 저편이 너무 요원해 보이고 버스를 타려 해도 썩썩 달려 지나가는 집채만한 버스가 보일 뿐 버스정류장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버스인지 통 알 수 없기만 하다. 더구나 차나 한 잔 마시며 피곤을 좀 풀려고 해도 어디에 찻집이 있는지, 멀찍이 물러선 빌딩들 어디에 숨어 있겠으나 그러나 거기까지 그 멀리로 찾아나서는 것보다 그대로 서 있는 쪽이 덜 피곤하겠다는 판단 하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다.

택시정류장 길디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

어느 늦은 저녁 택시정류장 맨 뒷줄에 여인과 아이가 줄을 섰다.

여인과 아이도 광장 한구석에서 가만히 살펴보는 사람의 눈에 무용극에 나오는 장난감 사람처럼 등장했음이 틀림없다.

아니면 좀 더 역광장의 속을 훑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귀를 기울일지도 모른다.

여인은 처음 줄이 너무 길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고 그저 오래 서 있기만 하면 차례가 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니 하는 안도를 가지고 서 있다. 아이가 옆에 와서 선다. 그러나 아이는 잠시 후 줄을 이탈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여인이 안 보이면 아이는 당황하

여 갑자기 지구 밖 외톨이가 된 모습으로 눈을 휘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는 엄마가 있음직한 방향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그쪽으로는 얼른 눈을 돌리지 않고 딴 곳만 살핀다.

그러나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지 너무 당황하여 눈이 머리 뒤로 뺨 돌아가 버린다. 아이는 곧 울 듯한 마음이 되지만 실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보루로 접어 놓아둔 안도가 도사리고 있다.

아이의 자신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길게 줄이 늘어선 곳, 본능적으로 저만치일 거라고 그 방향이 가늠되는 것을 찾아보면 꼭 찾아질 것을 알고 있다.

엄마가 자기를 두고 일부러 어이로 가버릴 리는 없으니까.

그것은 아이가 비밀창고와 비밀통로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아이는 자기만의 비밀창고를 가지고 싶지만 너무 뻥한 좁은 아파트의 공간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기껏 혼자 정해 놓았어도 학교에 간 뒤나 나가 노는 중에 들켜 버릴 것 같다. 엄마가 청소하다가 지저분하다고 화를 내며 아무렇게나 빗자루로 쓸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한때는 학교에 메고 다니는 책가방 속에다 비밀통로를 정해 보기도 했다. 여인은 왜 엄마가 있는 쪽은 안 살피고 일부러 딴 곳만 살피면서 접을 집어먹는다고 나무라지만 그것은 아이의 마음속 비밀을 모르는 소리이다.

아이의 아무리 겁이 나도, 설사 미아가 되는 두려움에 빠지더라도 비밀 창고를 가지려는 마음과 같은 마음속 마지막 보루인 안도를 즐기고 싶은 것이다. 아니 스릴을 즐기고 싶은 것이다. 아이는 줄을 이탈하여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여인은 좀 무겁게 가방을 멘 채 줄에서 있다.

여인의 뒤로 벌써 여섯 명 가량의 새 사람이 와서 섰다. 그러나 줄은 조

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여인은 굽이 높은 허름한 샌들을 신고 있다. 샌들은 많이 낡아 보인다. 그래서 구두 자체가 가진 힘이 없어 어딘가 느슨해져 있다. 더구나 높은 굽 두 개가 몸 전체를 떠받치기에는 몹시 힘겨워 보인다. 어딘가 나사가 풀어지며 곧 허물어져 버릴 것 같다. 여인도 그것을 느꼈음인지 되도록 굽에 무게를 안 주려고 안간힘 쓰는 것 같다. 그녀는 되도록 공중의 힘으로서 있으려는 듯 보인다.

역학의 힘, 이런 어려운 과학적 용어를 여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구두 뒷굽에 무게를 지우지 않기 위해 공중에 떠 있으려고 부지불식간에 애를 쓴다. 지금은 어깨걸이 밀짚백에 무거운 짐까지 넣어 함께 메고 있기 때문에 구두에 가해지는 무게가 배나 되는 것 같다.

평소 여인은 되도록 구두를 땅에 안 대려 노력한다. 걸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 발을 땅에 대자마자 금방 떼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니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인은 조바심이 나지만 그 원인이 구두에 있다고 생각지 못한다.

그녀는 밀짚백 속에 가득 채워진 물건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꾸만 줄 앞쪽을 기웃거린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줄을 이상히 여긴다. 분명 택시들은 저 맨 앞쪽에서 멈추었다가 떠나곤 한다.

서울의 마비된 교통 때문인가, 데모 때문에 길이 막혀서인가, 다른 때보다 더디게 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분명 간혹 택시는 멈추어 새 손님을 태워가지고 아직 덜 어두워진 밤거리 속으로 달려간다. 한참 보고 있는 사이, 신호가 바뀔 때마다 끊어졌던 차의 물결이 다시 밀려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빈 택시를 골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손님을 태우고 가는 택시들이 보이는데도 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ㄱ자형으로, ㄱ자에서 ㄴ자형으로 이어지는 택시 손님을 위한
절책까지 들어가려 해도 한참 걸릴 것 같다.

그녀 뒤로 사람은 더 불어나 있다.

아이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들지.

그녀는 주위 사람의 동요를 얻으려는 듯 입 밖으로 소리를 낸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별로 살피는 기색도 없이 무심히 서
있다. 여인은 갑자기 이곳이 이상한 나라 같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말도 안통하고 감정도 전혀 서로 다른 것 같다.

분명 노란색 피부에 광대뼈 중간의 몸집들은 동양인 중에서도 바로 우
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틀림없음에도 전혀 다른 나라 모르는 사람들 같
다.

그들은 왜 다그치지 않을까.

그들은 오래까지 여기 이대로 서 있어도 좋다는 걸까.

어느새 어두워진 밤거리에 가로등과 네온이 밝게 켜져 있다.

자들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썩썩 달려 지나간다.

높이 세워진 고속도로 위로 버스들이 위협스럽게 달려 지나간다.

사람들의 얼굴은 환한 가로등과 네온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가려 그 부
분부분만이 부각될 뿐이다. 전체가 보이지 않고 부분부분만이 여기저기
떠돌 뿐이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동동 구른다. 발이 땅에서 떨어
질 때마다 걸을 때처럼 구두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와 반대
로 낡은 구두굽 두 개가 받치고 있던 것에서 구두굽 하나가 온몸의 무게
와 짐의 무게까지 합쳐서 감당해야 하는 수고에 불안해진다.

그녀는 구두굽이 곧 허물어져 버릴 것 같다. 그래서 동동동 구르던 것
을 멈추고 두 굽을 땅 위에 나란히 세워 놓는다.

여인은 뛰어놀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위협적으로 부른다.

아이는 택시정류소를 위해 만들어 놓은 철책 위에 올라타고 앉아 있다가 내려 뛰고 한 손으로 철책을 한 개 한 개 만지며 달려 지나가기도 한다.

철책 주위에는 가래침이 함부로 뺄어져 있을 것 같고 철책에는 흙먼지가 뽀얗게 쌓였을 것 같다. 더구나 아이가 양 무릎을 땅에 댈 때 그 더러운 가래침이 직접 몸에 와 닿는 것 같아 여인은 소리를 꺾 지른다.

여인은 아이 이름을 부른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른다. 아이가 달려온다. 여인은 아이에게 이른다.

「이런 데는 다 더러운 거야. 거기에 함부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니? 저기 줄 앞으로 좀 가봐. 왜 이렇게 줄이 줄어들지 않은지, 혹시 사람들이 앞으로 바싹바싹 조이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냥 얘기하고 섰는지 멍청하게 탄 데 보고 서 있기 때문일거야, 그러니까 저 앞까지 좀 가서 보고 와. 사람들이 간격을 벌려서 섰거든 이 줄 좀 앞으로 바싹바싹 땡기시래요 그래. 알았지? 저 뒤에서들 그런다고.」

「알았어.」

아이는 무슨 신나는 일을 만난 듯 양 이마에 바람을 맞아 앞머리를 가르며 달려간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간다. 줄을 살피지 않고 그냥 경주 뛰듯이 달려간다.

「저런 저기 줄을 살펴야지 간격이 떨어진 곳이 있나.」

여인은 아이 뒤통수에다 소리 지른다.

여인 스스로도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더구나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들을 듯한 마음에 함부로 말한다.

여인이 지금 가장 느끼는 것은 자신의 얘기가 어디에도 가닿지 않는

듯한 불통감이다.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도 그녀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아이에게 이를 때 무어라고 응수라도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일이 아닌 듯 초조한 빛으로 멀거니 서 있다.

조금 후 아이가 뛰어가던 자세 그대로 다시 뛰어온다.

「엄마 빈 차가 전부 세 대 지나갔어. 손님은 전부 다섯 사람을 태웠어.」

「아이 가서 그것을 살폈어 빈 택시가 오나 바라는 게 아니라 줄이 빈 데가 있는 곳에 가서 좀 조이라고 하란 마리아. 저기 저기도 보이네. 애기 업은 아줌마가 탄 데만 보고 서 있잖아. 저기 가서 줄을 좀 조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앞쪽에도 저렇게 간격을 두고 서 있는 데가 있나 보란 말이야. 빨리 줄이 앞으로 죽죽 빠져야 하잖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래요, 그래.」

「알았어.」

아이는 역시 말은 임무가 즐거운 듯 다시 뛰어간다.

갑자기 여인은 역 광장의 이 무대에서부터 떨어져나와 보는 이의 눈이 되는 것 같다. 이 역 광장의 풍경이 새롭게 객관화되어 보여진다.

멀찍이 서 있는 빌딩들, 밤 속으로 뻗어나간 거대한 고속로와 높은 기둥으로 떠받친 육교, 그리고 그 밑의 넓디넓은 길.

이곳에서 길 저편으로 가려면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이 아득하기만 한, 끝없는 대기층의 어둠과 회색 아스팔트, 그 위로 쉼쉼 달려 지나가는 자동차 무리들.

사람들은 이 광장 앞에 서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영원히 집이라는 곳에 돌아갈 수 없이 이곳에 줄 서 있어야 하는가.

아이의 모습이 멀리 고속로 밑으로 보인다.

아이는 줄을 조이라는 임무를 잊은 듯하다. 그 임무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여인이 엄마라는 것도 전부 잊은 듯하다. 거대한 고속로 밑에서 아이의 머리통은 애뜻하고 연하다.

보라, 하고 여인은 저절로 입 밖에 내어 중얼거린다.

이제 21세기, 그래 바로 그런가 보다.

저 아이는 내 손에 닿지 않는 21세기의 아이인지 모른다. 저 아이는 달나라로 신혼여행을 갈지 모른다.

우리는 모두 이 세기말의 벼랑 끝에 와 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듯한 이 절망감은 바로 세기말의 절망감인 것이다.

아니 세기말의 절망감이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아아 모든 외부와 내부와의 관계란 무엇이란 말인가.

알 수 없는 심연이 강처럼 바다처럼 휘젓고 온다.

구명대가 필요하다. 구명대를 찾아야 한다. 떠내려가지 않게, 심연 속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여인은 필사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전혀 들리지 않는 듯 아이는 거대한 고속로 밑을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다. 여인은 발을 구른다. 구두 뒷굽을 아끼려는 마음도 없이 그녀의 전 무게를 가지고 힘껏 발을 구른다.

▶ 집필진

박혜숙(건국대학교 교수)

이우학(건국대학교 교수)

서동수(건국대학교 강의교수)

정진현(건국대학교 강사)

▶ 조사연구원

서승갑(동서울대학 강사)

경기도 여성문인 (2)

발행인: 남선우

편집인: 김성문·진숙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경기문화재단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2008년 12월 25일

발행: 2008년 12월 31일

인쇄처: 국학자료원

이 책자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 <비매품>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집필자들은 문헌조사를 비롯한 많은 자료들을 모았으며, 그들의 생애와 작품 변모, 문학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삶의 공간적인 추이 양상이니 문학적 관련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문학적 성과를 한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작가연보와 작품서지, 연구문헌 목록 등을 첨부하였다.

다섯 명의 경기도 대표적 여성 문인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조명이 된바 있지만, 이 가운데 시조 시인인 김오남은 언급된 바가 많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이 시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추적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